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 교재

- 소수서원 -





# 목차

## 들어가며 04

### 1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1. 유네스코와 유산 10

- 1) 유네스코와 유산
- 2) 유산 해석과 설명

####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6

- 1) 서원의 이해
- 2) 세계유산 가치
- 3) 등재 과정

### 2부 영주 소수서원

#### 1. 영주 소수서원 개요 40

- 1) 영주 소수서원의 역사
  - (1) 건립
  - (2) 사액
  - (3) 운영

- 2) 영주 소수서원의 공간 구성
  - (1) 강학
  - (2) 제향
  - (3) 교류와 유식
  - (4) 기타 시설

- 3) 영주 소수서원의 특징

#### 2. 영주 소수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74



# 들어가며

## 일러두기

-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재
- 심화학습 자료, 관련 사이트는 QR코드 참고

## 범례

-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서원을 지칭하고, 서원은 조선에서 세워진 서원을 통칭함



## ‘한국의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 / 사액 연도	주향 인물	비고
영주 소수서원	1543년/1550년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사적(1963)
함양 남계서원	1552년/1556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사적(2009)
경주 옥산서원	1572년/1574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사적(1967)
안동 도산서원	1574년/157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사적(1969)
장성 필암서원	1590년/1662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사적(1975)
달성 도동서원	1605년/1607년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사적(2007)
안동 병산서원	1613년/1863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사적(1978)
정읍 무성서원	1615년/1696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사적(1968)
논산 돈암서원	1634년/1660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사적(1993)



##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이해

### 전담해설사 제도의 목적

-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으로서 성격 소개
- 각 서원의 역사, 건축적 성격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연속유산인 9개 서원 이해, 해당 내용을 방문객에게 비교·전달

### 전담해설사 정의와 역할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정된 ‘한국의 서원’만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자, 하나의 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을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표준교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필요한 지식과 실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력

### 전담해설사 필요역량

- 방문객의 국적, 연령, 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해설을 제공
- 유산의 각 공간에서 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각 서원은 개별적으로 중요한 국내 유산이며 동시에 9개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세계 유산의 일부임
- 유산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되 지식과 정보의 일방적 주입 지양
- 해설 목적은 방문객과 유산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 근거 있는 정보 수집 경로 제시





# 01

##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1. 유네스코와 세계유산

## 1) 유네스코와 유산

### 유네스코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
-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 세계무형문화유산

-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로서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름
-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

### 세계기록유산

-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

-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단독 기록이거나 기록의 모음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

※ 근거: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 **완전성과 진정성** 개념을 충족했는지
  -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보호관리계획**을 갖추었는지
- \* 등재 기준, 진정성과 완전성,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

### 완전성(Integrity)이란?

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특성에 대해 전체, 본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 진정성(Authenticity)이란?

본래 또는 역사의 과정에서 지니게 되는 가치에 대한 진실성,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것

### 세계유산 구역: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범위
- 유산구역: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역
- 완충구역: 유산구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며 인접한 주변 환경과 중요한 경치 등 포함



## 세계유산 등재 기준

구분	등재 기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에 의한 <b>결작</b>
	(ii)	일정한 기간,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b>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b>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b>독보적인 증거</b>
	(iv)	<b>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b> 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
	(v)	하나(혹은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b>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b> 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b>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b>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독보적인 <b>자연미</b> 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의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특징물 등 <b>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b>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b>생태적·생물학적 과정</b> 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x)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b>멸종 위기 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b> 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

- 등재 기준 중 (i)부터 (vi)까지는 문화유산, (vii)부터 (x)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됨,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세계유산협약이란?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약자
- 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17차 총회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협약

## 세계유산협약의 배경

- 인류가 이룩해 온 역사적 유산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
- 1950년대 이집트에서 전력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 하이댐의 건설을 시도하면서 아부심벨 신전 등 고대 이집트 유적이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 세계유산제도 시행의 결정적 계기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

- 세계유산목록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유산 등재
- 세계유산의 보호와 보존
- 세계유산기금 하의 국제지원 공여
- 협약에 도움이 되는 국내 및 국제적 지원의 확보

※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세계유산협약 전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2) 유산 해석 Interpretation 과 설명 Presentation

### 세계유산의 ‘해석’

-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인 활동
-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쇄물, 전자출판, 강의,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등이 포함

### 세계유산의 ‘설명’

- 해석 정보의 배열, 사람들의 접근 방식, 해석 시설 구조 등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잘 디자인하여 전달하는 것
- 현장에서의 소통에 중점
- 박물관 전시, 정형화된 투어, 안내 프로그램이 포함

### 유산 해석 등장 배경

- 유산의 다양한 형태, 가치를 함께 고려
  - 전문가 관점에 국한되지 않은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 유산 가치 중요
- ※ 해설사 = 중요한 이해관계자

### 유산 해석·설명에의 국제적 담론

- 프리먼 틸든의 해석 6원칙(1957)
- 에나메 헌장(2008)
- 현 시대에 맞는 유산 해석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문화유산지의 해석과 설명에 관한 ICOMOS(이코모스)<sup>1</sup> 헌장

1.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약자로 국제기념물협회의라고도 칭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

### 프리먼 틸든의 ‘우리의 유산 해석하기’ (1957)

1. 좋은 해석은 방문객의 경험이나 사고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2. 정보 그 자체는 해석이 아니지만, 반드시 정보에 바탕을 한 내용이어야 한다.
3. 해석은 과학, 역사 및 건축이 접목된 종합 예술이다.
4. 해석이 주된 목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5. 해석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전달해야 한다.
6.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석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해석을 단순화해서 만들면 안 된다.

### 해석과 설명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

1. 접근과 이해 향상(Access and Understanding)  
: 대중들의 해당 유적지에 대한 지적, 물리적 접촉이 쉬워야 함
2. 정보의 확실한 출처(Information Sources)  
: 검증된 과학 학술적 방법, 살아있는 문화 전통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에 기초해야 함
3. 환경과 맥락의 중요성(Setting and Context)  
: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맥락과 주변 환경을 연관시켜야 함
4. 진정성의 보존(Preservation of Authenticity)  
: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sup>2</sup> 정신에 입각한 기본 원리 존중해야 함
5. 지속성에 대한 계획(Planning of Sustainability)  
: 사회적, 재정적, 환경의 지속성 중 주요 목표들과 함께 유적지의 자연적 문화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
6. 포용성에 대한 고려(Concern for Inclusiveness)  
: 전문가, 소유자와 관련 공동체, 이해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협력의 결과물이어야 함

2. 나라문서(1994):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보존과 관련된 문화 다양성,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대한 필요성 언급



##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1) 서원의 이해

#### 서원이란?

-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
-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 선현先賢 제사,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
-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 지역 문화 선도

#### 서원의 기원

-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 재위 712~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담당한 '여정서원'이 최초
-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 제사기능,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
-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 1130~1200가 세운 '백록동서원'은 학규,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
-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모티브

#### 한국에서 서원 성립

-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 국학(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육 권장

-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저하,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
-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 중국의 서원 제도 주목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 건립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 확산

#### 서원의 구성원: 사람

- 향촌 지식인집단
-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
-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
- 관련 자료: 『원장안院長案』,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등

구성원

구분	역할
원장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의 일 총괄</li> <li>•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 관리 주체</li> <li>• 임기는 1~2년, 대체로 연임 허용</li> </ul>
원임院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li> <li>•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로도 불림</li> <li>• 서원 내 규찰, 재정 문제 담당</li> <li>•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li> </ul>
원생院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li> <li>•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 통해 최종 선발</li> <li>•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li> </ul>

## 서원의 규약(規約)

- 원규院規 : 강학 제향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
- 학규學規, 강규講規 :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
- 절목節目 :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세칙
- 완의完議, 입의立議 :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 서원의 재정

- 대체로 지역 사람의 자발적 출연 통한 토지, 노비,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
- 사액서원에는 서적, 토지, 노비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
- 관련 자료: 『전답안田畓案』, 『노비안奴婢案』,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 서원의 주요 기능: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 강학

- 성리학 교육을 통한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 개별학습인 독서,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
-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
-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
- 강학 활동은 ‘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과 ‘공식적·의례적강학으로서 강회講會’로 구분

### 강학의 종류

구분	내용
거접居接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문회文會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
거재居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순제旬題	지방의 향교鄉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통독通讀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향사 후의 강회講會	향사享祀를 지낸 후, 「백록동규白鹿洞規」나 「여씨향약呂氏鄉約」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講生들이 강장講長 앞에서 진강進講을 하는 순서로 진행. 진강을 하는 방식은 씨[姓: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추첨 기구]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

### 강학 의례

구분	내용
흥미를 갖춘 공식적 의례	정음례庭揖禮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 음례揖禮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
	상음례 큰 음揖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강습례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陳設;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침배瞻拜;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상음相揖;서로간 음례를 거행함-승당升堂;당에 오름-독규讀規;규약을 읊음-배독拜讀;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진강進講-예필禮畢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경독 敬讀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 <sup>白鹿洞規</sup> , 사물잡 <sup>四勿箴</sup> , 심잠 <sup>心箴</sup> , 경재잠 <sup>敬齋箴</sup> , 숙흥야매잠 <sup>夙興夜寐箴</sup> 을 낭독하는 것이다.
관습적 의례 개접례, 입접례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파접례, 후접례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귀가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수창시	수창시는 ‘회강’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 제향

-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
-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 정신 이어나갈 것을 다짐, 결속 다지는 기회

### 제향의 종류

구분	명칭	시기
정기	춘추 향사	매년 봄·가을
	삭망례	매월 초하루, 보름
	정알례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6일
비정기	이안제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환안제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위안제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예성제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사액례	사액을 받을 경우
	치제	국가에서 제관 보내어 지내는 경우



입재



성생례



집사분정



분향례



사우입장



제물근봉



초헌례



종헌례



철변두



파제



향약낭독



음복례

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

## 교류와 유식

- 교류<sup>交流</sup>: 서원의 구성원, 서원에 방문한 명사,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 물질 교류
- 유식<sup>遊息</sup>
  -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 『예기』 권17, 학기 18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sup>藏修</sup>: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
  -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양성 방식의 일환.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sup>品格</sup>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
-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
-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
-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
- 해주향약, 남전향약, 예안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
- 관련 자료: 『심원록』 등

##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

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

### 성립과 발전 과정

#### 중국 서원(書院)

- 남송 시기 관학 쇠퇴와 과거제도 부패 비판하며 흥성
- 남송 이후 과거시험과 관련된 관학의 보조적 성격으로 전환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으로 변모



#### 일본 시주쿠(私塾)

- 17~19세기 걸쳐 유학에 기반을 둔 고등 교육기관으로 설립
- 설립자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의학, 산학, 서양학문도 함께 교육
- 중국, 한국에 비해서 유학이 제도,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과거제도가 없어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형태로 발전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 대학으로 발전



#### 한국의 서원(書院)

- 16세기 중반 태동, 지역 성리학 집단인 사림<sup>士林</sup>의 주도로 성장
- 관학적 성격이나 국가의 관료선발과정에 관련되지 않음
- 19세기 말 교육 기능 종료까지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일관적으로 운영
- 근대화 과정에서도 명맥 유지



## 사회적 기능

### 중국 서원

- 송 시기 학문 중심기구, 여론 형성기구
- 점차 관학 보조기구로 정착되며 정치, 사회활동 성격 약화

### 일본 시주쿠

- 유학이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되지 못하여 포괄적 기능 수행에 한계
- 사숙 출신 학생이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사상 선도

### 한국 서원

- 지성 활동, 공론 형성이라는 실천적 성격
- 공론을 국가에서 억압하거나 규제하지 않음
- 성리학 이념에 기반을 둔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 제정하여 향촌 교화

## 건축물 배치

### 중국 서원

- 강학, 제향, 장서루로 구분되어 구성
- 특히 장서루 공간이 크게 발달되어 중시
-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이 상호 대등한 위치 차지하며 관계 자유로움
- 앞쪽 경계에 반수(泮水)로 이루어진 인공적 조경에 의존
- 건축 배치 정형을 규정하기 어려움



중국 백록동 서원 반수

### 일본 시주쿠

- 정형화된 배치 및 건축 형식 없음
- 제향기능을 갖추지 않음
- 단일 건물 사용하여 기능별로 공간 구획

### 한국 서원

- 공유된 건축 정형 갖춤
-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을 하나의 축선 상에 위치시켜 유기적 연결
- 제향 공간인 사우를 높은 위계건축으로 형성
- 자연지세를 활용한 독특한 한국적 건축기법

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

		한국의 서원	중국의 서원	일본의 시주쿠
도입 시기		16세기	7세기	17세기
설립 목적		성리학 지식인 양성 지역 기반 선현 제향	유학 지식인 양성 → 관료 양성 관학 보조	지식인 양성
교육 대상		지역 유생	제한 없음	무사, 가신 그룹
교육 학문		성리학	유학	유학,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 다양
제향	인물	지역단위 선현	주로 공자 등 성현	크게 중시하지 않음
	의례	현재까지 존속	일부 서원만 유지	
사회적 기능		지역 공론 중심지 지역 교화 중심지	국가정책 따라 변동	근대사회 전환 기여
건축	입지	제향인물 연고지 자연 경관 고려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등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기능	제향-강학-유식	강학-제향-장서	강학
	구성 요소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반지 과거합격 비석군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배치 유형	공통의 배치 유형 존재	서원별 개별성 강함	단일건물 중심
	경관 구성	자연친화적 개방과 관입 구현	인위적 폐쇄적	인위적 폐쇄적
	지역성	좌식 생활 구조 온돌, 마루의 조화	입식 생활 구조 의자, 화로	좌식 생활 구조 다다미, 화로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성균관(成均館)

- 중앙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최고 교육기관
- 공자<sup>孔子</sup>와 그의 제자를 비롯한 중국 현인<sup>賢人</sup>들과 우리나라 현인을 제사지내는 문묘, 강학 공간인 명륜당 갖추

향교(鄕校)

- 지방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주로 향촌에 가까운 곳에 입지
-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문묘, 명륜당 갖추



## 서원과 향교, 성균관 비교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 주체	사림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포	지역별 다양	군현별 1개	수도에 1개
설립 목적	인성교육 선현제향 사림 활동 기반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사회적 역할	지역 공론 형성 지역 문화 교류		유생 공론 형성
입지	제향 대상과 관련 교육 목적에 부합	지방 행정 중심지	수도
구성 요소	사우(선현),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유형	제향-강학-교류, 유식	강학-제향	강학-제향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서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어득강(魚得江, 1470~1550)의 상소

## 2) 세계유산 가치

##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 등재 기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충족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
-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 토착화되는 과정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

##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

##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
- 활용과 기능,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
-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무형유산,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

## 보호 및 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증축,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

##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 연속유산이란

-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
-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

## ‘한국의 서원’ 입지 특성

###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

-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sup>先賢</sup>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
-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
-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 관련

## 수려한 주변 경관

-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
-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
-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
- 특히 정자,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

## ‘한국의 서원’ 건축 특성

### 보편성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건립되며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
-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
- 대부분의 서원은 아래와 같이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

### 독자성

-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
-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
-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 건축 구조 형성



## 공간 구분

### 제향공간

- 건물: 사우, 전사청, 제기고 등
-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
-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 별도 출입문 설치
  - 사우: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
  - 전사청: 제물,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
  - 제기고: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

### 강학공간

- 건물: 강당, 재사, 장서각, 장판각 등
-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
  - 강당: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
  - 재사: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 서재로 구성, 학생들의 기거 공간
  - 장서각, 장판각: 목판이나 도서 보관

### 교류와 유식공간

- 건물: 누각, 정자 등
- 누각은 누정,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좌식공간관습 가지는 한국의 건축 전통과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결합된 건축형식
- 연못,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

## 기타

- 고직사, 교육시설, 하마비, 홍살문, 기념비 등
- 하마비,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
  - 고직사: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
  - 교육시설: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 전통 건축기법 토대로 건립
  - 하마비: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
  - 홍살문: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

## ‘한국의 서원’ 서원별 세계유산가치

서원명	세계유산가치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로 건립된 서원</li> <li>강학,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li> </ul>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li> <li>사당과 강당이 일렬로 배치되는 서원 건축의 정형적 배치방식</li> </ul>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li> <li>누마루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li> </ul>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li> <li>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li> </ul>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li> <li>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규,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li> <li>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안동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li> <li>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li> </ul>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li> <li>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li> </ul>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li> <li>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li> </ul>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 3) 등재 과정

### 등재 추진 배경

- 서원이 건축, 공간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적 가치도 우수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

### 추진 관련 기관

- 2010년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 2012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발족
- 2015년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출범

### 1차 등재 추진 경위

- 2011년 12월 한국의 9개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sup>3</sup>
- 2015년 1월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유네스코에 제출
- 2015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 현지 조사 후 철회 권고
- 2016년 4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철회

3. 1871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과 사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 충족 여부 확인하여 9개 서원 선정



# 등재 재추진 경위

- 2016년 8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 의결
- 2018년 1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 2018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의 현지 실사
- 2019년 5월 이코모스 평가결과 등재 권고
-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확정



# 02

영주 소수서원





# 1. 영주 소수서원 개요

주요 내용은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영주 소수서원 정밀실측보고서』 참고

## 1) 영주 소수서원의 역사

### (1) 건립

#### 건립배경

- 고려 후기 학자 안향<sup>安珦</sup>, 1243~1306이 원나라에서 견학한 바를 토대로 성리학을 들여와 국내 진흥에 힘씀
- 안향과 그 아들과 손자가 독서하였던 숙수사<sup>宿水寺</sup>가 폐사되어 터만 남는 등 유풍<sup>儒風</sup>의 퇴락
- 주세붕은 주자학의 전도자로 자임하였기에 안향을 봉향하는 사묘를 건립함으로써 향촌사회에 주자학을 천명하여 보급, 확산 기도

#### 주세붕의 서원 건립 동기

- 사람을 사람답게 교육하기 위해
- 학문을 돈독히 하기 위해
- 사당을 세워 현인의 덕을 숭상하기 위해
- 유학의 도의나 문화를 흥기시키기 위해

#### 서원 창건 반대 여론

- 1541년 큰 가뭄, 1542년 큰 기근으로 민생 고통 가중
- 안향<sup>安珦</sup>, 1243~1306은 이미 국학과 지방에 모신 사당이 있음

- 교육 기능은 향교가 이미 담당
- 사당을 세우더라도 존속이 어려움

#### 건립 과정

- 1541년 7월 주세붕, 풍기군수 부임
- 1542년 8월 안향이 학문을 익히던 숙수사<sup>宿水寺</sup> 터에 사묘<sup>祀廟</sup> 터 닦음
- 1543년 2월 문성공묘 준공
- 1543년 4월 서원건립 착수
- 1543년 8월 서원(강당, 동재, 서재) 완공

#### 초기 재정 마련

- 진사 황빈<sup>黃彬</sup>의 미곡 기부
- 터를 닦다가 나온 구리 300여 근을 서울로 보내 서적 구입
- 경상감사 임백령<sup>林百齡</sup>, 1498~1546이 지급한 어염<sup>魚鹽</sup>
- 경상감사 이연적<sup>李彦迪</sup>, 1491~1553이 지급한 염곽<sup>鹽藿</sup>
- 안향의 11대손 경상감사 안현<sup>安瑗</sup>, 1501~1560이 각 고을에 서원 운영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 분담 요청

#### 이황과 서원 사액

- 서원은 선비가 한적한 곳에서 천하의 의리를 살펴보면서 덕을 쌓고 인<sup>仁</sup>을 성숙시켜 학문에 힘을 얻게 되는 곳이기에 송나라 태종<sup>太宗</sup>, 재위 976~997, 이종<sup>理宗</sup>, 재위 1225~1264 등이 편액을 하사하였음
- 주세붕에 의해 서원이 세워졌지만, 이것이 왕명에 의하여 파급되어야만 지속될 수 있음
- 서적과 편액을 내려주고 토지와 노비를 정해주며 지방관으로 하여금 서원을 지원하도록 요청

## (2) 사액

### 소수서원 사액

- 1548년 이황李滉, 1501~1570의 풍기군수 부임
- 1549년 이황이 경상감사 심통원沈通源, 1499~?에게 글을 올려 요청
  - 송나라의 고사를 따라서 서적과 편액을 하사해줄 것
  -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여 재력을 넉넉하게 해줄 것
  - 감사와 군수로 하여금 서원을 일으키고 배양하는 방법과 공급하는 물품을 감독하되 가혹한 법령과 번잡한 조목으로 구속하지 못하게 할 것
- ‘소수紹修’라 함은 “이미 무너진 교학을 닦아 하였음”이란 뜻으로 학문 부흥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명종임금이 손수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편액 글씨를 써서 하사
- 1550년 2월 영의정 이기李芑, 1476~1552, 좌의정 심연원沈連源, 1491~1558 등이 백운동서원에 편액과 서적 내려 보낼 것을 아뢰
- 1550년 4월 대제학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이 지은 소수서원기와 국왕 명종明宗, 재위 1545~1567이 직접 쓴 현판이 내려옴

### 소수의 의미

- 학문의 도가 쇠퇴하여 강구되지 못한지 오래됨
- 배우고서 그 이치를 강구하여 밝히지 않으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공경함으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없음
- 의義로써 밖을 바르게 할 수도 없음
- 학문의 도를 이어紹 자신을 다스리는修 것이 소수

## (3) 운영

### 소수서원 원규

- 최초의 서원 운영규정
-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폐지해서는 안 됨

#### ① 근사(謹祀): 제사를 공경히 할 것

- 공경히 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도 흠향하지 않음

#### ② 예현(禮賢): 어진 이를 예우할 것

- 예우하지 않으면 어진 이가 이르지 않음

#### ③ 수우(修宇): 건물을 보수할 것

- 건물을 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짐

#### ④ 비름(備廩): 창고(물자)를 채울 것

- 창고를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탕진하게 됨

#### ⑤ 점서(點書): 책을 점검할 것

- 책을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흠어짐

### 운영 관리 [원규]

- 학문을 업으로 하는 사람 중 믿음직하고 언행과 몸가짐을 삼가는 사람 1인을 특별히 선택하여 원장院長으로 삼음, 또 1인을 택하여 두 번째로 삼아 함께 서원의 일을 주관
-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의 자제들이 머물면서 폐를 끼치면 안 됨
  - 자제들의 하인과 자제들이 서원에 폐를 끼칠 수 있음
-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의 자제들이 서책을 멋대로 하게 두어서는 안 됨
  - 분명히 서적을 훔쳐가는 일이 생길 수 있음, 다만 공부할 책이 없어 공부하려고 온 군자라면 위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됨



- 할쏘기와 잔치하고 노는 것을 금함
  - 향음주례나 사문들의 규범에 맞는 음주하기에는 마땅하지만, 기생을 불러서 노는 것은 불가
- 서원을 지키는 네 집은 부역을 면하게 하고 관청에서 박탈할 수 없음
  - 서원에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면 무인 고세에게 죄인이 될 것
- 서원에 들어오는 선비는 사마司馬, 초시 입격자 순으로 하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문을 향한 태도와 행동이 있는 자로서 입학할 원하면 유사가 사문에게 아뢰고 맞이
  - 서원은 어진 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열렸으니 신중하게 선비를 받아들이는 것
  - 서원 입원생 자격 기준을 두고 자격을 없애자는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음
- 『입원록入院錄』을 별도로 두어 서원에 들어오는 모든 선비가 반드시 스스로 성명, 들어와서 머무른 연·월·일을 기록하게 함



소수서원 원규, 『죽계지』 잡록후



입원록

## 재정 관리 [원규]

- 사문斯文은 서원 통합 점검, 유사有司는 서원 살피는 일 주관
- 학전學田에서 나온 것은 매년 11월 원장이 3권의 책을 만들어 1권은 관官에 알리고 1권은 사문斯文에 보고하며 1권은 서원에 유치
- 보미寶米는 원금 보존, 이자만 사용, 매년 정월 3권의 책에 기록하여 보고
- 목적: 서원은 반드시 어진 이를 양성하는 것을 주로 해야 함

## 2) 영주 소수서원의 공간 구성

### 소수서원의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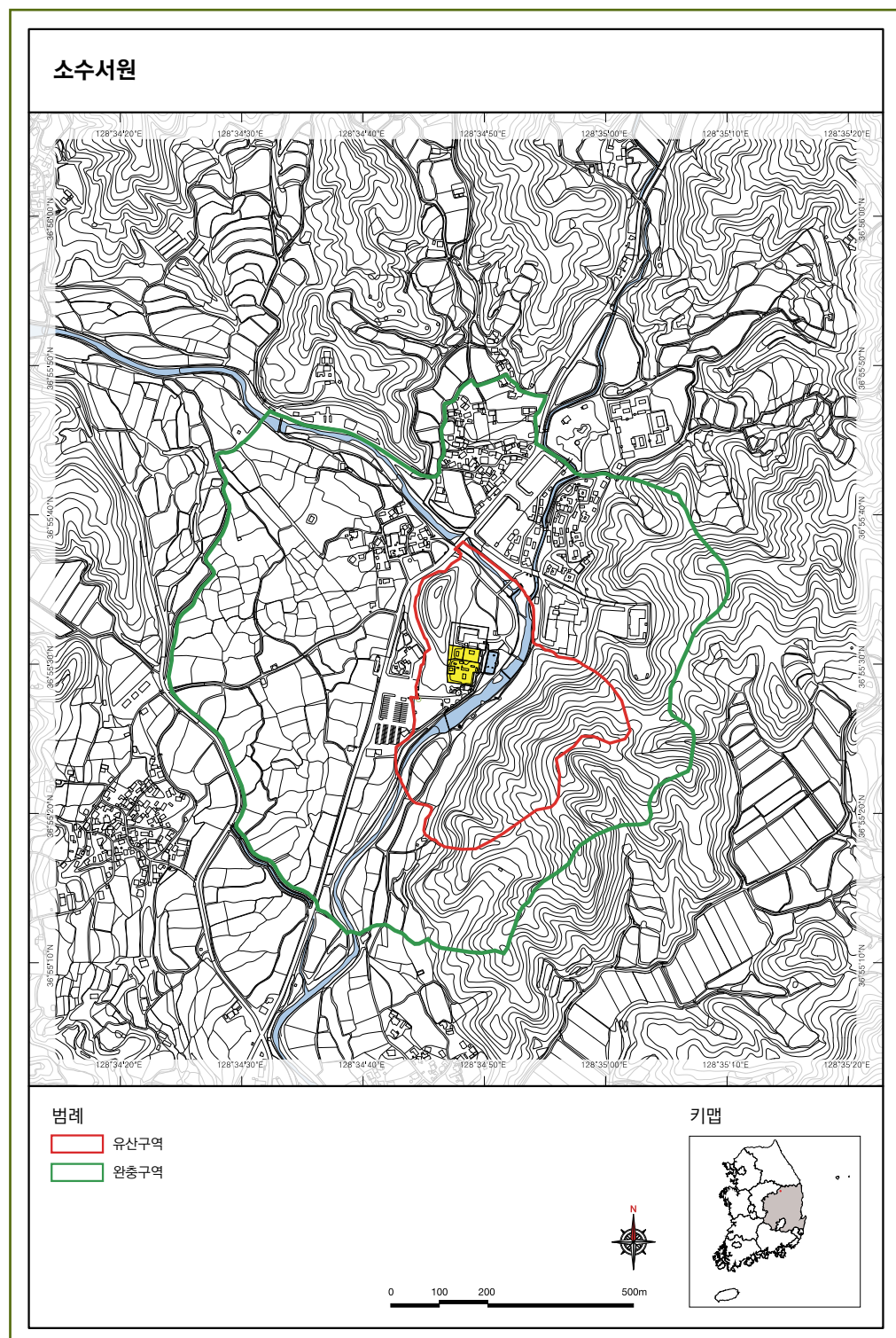
- 경상북도 영주시 위치
- 백운동白雲洞: 흰 구름이 죽계 골짜기에 항상 가득한 모습이라는 의미 담김
- 죽계천竹溪川을 둘러싼 경관이 수려한 장소에 입지
- 낮은 구릉성 산지 영귀봉靈龜峯이 배산, 죽계 건너편 연화봉蓮花峯
- 대부분 건축물이 죽계천 서쪽에 위치, 죽계천 건너편 연화봉 조망하며 자연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

### 소수서원의 입지 특성

- 선현인 안향이 학문을 익히던 곳에 입지
- 오래된 마을에 인접
- 주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 및 인접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



## 건물배치도

- 지형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전체를 구성
- 강당 중심으로 재사齋舍 배열, 그 뒤 한쪽에 사당 위치



## (1) 강학

### 건물

#### 명륜당(明倫堂)

- 목적: 원생이 모여 강론하고 통독하는 강학 공간, 모임 갖는 장소
- 창건연도: 1543년
- 정면 4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
- 사방 둘레에 너비 1M 정도의 툇마루 설치
- 정면 좌측 3칸이 마루, 우측 1칸에 방 2개 설치

## 명륜당 관련 유물

### 백운동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백운동白雲洞, 만력萬曆 경술년庚戌, 1610 봄에 새김
- 죽계 건너 암벽에 새겨진 백운동 글씨를 탁본하여 모각

### 소수서원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소수서원紹修書院, 명종明宗, 재위 1545~1567 글씨御筆
- 가정嘉靖 29년1550 4월 일, 임금께서 하사宣賜

### 문성공 향사 집사분정판

- 향사 준비 과정에서 역할과 업무를 나누는 판
- 강당 정면 벽에 부착되어 있으며 매 향사 시마다 한지에 묵서하여 분정판 아래에 붙임
- 술잔 올리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부터 제수祭需를 차리는 진설까지 나열

진 설	도 진 설	사 생	자 성	제 물 유 사	학 생	전 작	봉 작	봉 로	봉 향	사 준	찬 인	알 자	찬 자	축	종 헌 관	아 헌 관	초 헌 관	향 사 집 사	문 성 공
--------	-------------	--------	--------	------------------	--------	--------	--------	--------	--------	--------	--------	--------	--------	---	-------------	-------------	-------------	------------------	-------------

\* 특징: 특별한 소임이 없는 학생도 기록됨

### 입안(立案)-주세붕

- 가정 25년1546 11월 일 작성
- 백운동 서원과 문성공 사당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들인 것을 염려하여 이를 토착인 4인으로 대체하고자 경상감사에게 요청
- 경상감사가 조정에 윤허 받음
- 이들에 대해 수령이라도 함부로 빼앗지 못하게 지킬 것을 당부

## 입안(立案)-신종하

- 건륭乾隆 15년1750 정월 일 작성
- 옛 원규의 일을 회복, 4인을 수직守直으로 삼았던 일을 되돌리는 내용
- 4인의 후손 중 역役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원에서 부릴 수 있도록 함

### 심잠(心箴)

- 남송의 유학자 범준范浚, 1102~1151; 범난계范蘭溪이 지음
- 심성을 수양하기 위하여 경계하는 내용
- \* 잠箴이란 바늘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늘 끝처럼 날카롭게 경계하라는 뜻을 가짐

### 경재잠(敬齋箴)

- 남송의 유학자 주희朱熹, 1130~1200가 지음
- 주희가 친구 장식張栻, 1133~1180의 〈주일잠主一箴〉을 보고 만듦
- 이황은 경재잠도敬齋箴圖를 성학십도聖學十圖에 포함
- \* 성학십도: 이황이 성학聖學의 개요를 열 폭의 도식圖式으로 설명한 글



경재잠도

###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 남송의 유학자 진백陳栢; 진남당陳南塘이 지음
-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하여 지은 글로 경재잠과 표리表裏를 이룸
- 이황은 숙흥야매잠도를 성학십도에 포함

### 사물잠(四勿箴)

- 남송의 유학자 정이程頤, 1033~1107가 지음
- 안회顔回, BC521~BC481가 스승 공자에게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조목을 묻자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며,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음

### 백록동서원규(白鹿洞書院規)

- 남송의 유학자 주희가 백록동서원을 복구하며 지은 원규
-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유유신의 오륜五倫을 기본으로 하는 서원 교육의 방향 제시



## 직방재(直方齋)·일신재(日新齋)

- 목적: 원장, 교수, 유사의 집무실 겸 숙소, 각각 동재, 서재에 해당
- 창건 연도: 1543년
- 1805년 결방이었던 신방(新房)을 중수하여 일신재로 명명, 연립 형태로 편액 달아 구분
- 정면 6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 직방재·일신재 관련 유물

#### 직방재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이항의 글씨를 모사하여 오던 것을 1720년에 다시 새김

#### 일신재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신방(新房)이었다가 1804년 보수 과정에서 3칸으로 새로 지어지며 일신재 편액 걸게 됨

## 학구재(學求齋)

- 목적: 학생들이 기거하며 공부하던 곳
- 1730년 어린 학생을 위해 두었던 동몽재(童蒙齋)를 중수
-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학구재 관련 유물

- 자세한 사항은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영주 소수서원 정밀실측보고서』 참고

#### 학구재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1730년 방치되어 있던 동몽재를 중건하면서 현판 작성
- 중국에서 구해온 주희의 글씨를 모각하였다가 ‘학구성현(學求聖賢)’에서 앞의 두 글자를 취하여 본뜨고, 지락재의 ‘재’를 합쳐 만들

### 동몽재중건기(소수박물관 소장)

- 1854년 김증현(金曾鉉)이 순흥부사로 와서 서원의 원장으로 부임
- 사당 동쪽에 넓은 건물인 동몽재를 고쳐 짓고 나서 작성

## 지락재(至樂齋)

- 목적: 학생들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던 곳
- 일신재, 직방재보다 위계가 낮은 건물
- 1614년 풍기군수 이준(李垺, 1560~1635)이 건립
- 전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지락재 관련 유물

- 자세한 사항은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영주 소수서원 정밀실측보고서』 참고

#### 지락재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1614년 이준이 구양수(歐陽脩, 1007~1072)의 말 ‘지극한 즐거움은 독서만한 것이 없다’에서 ‘지락’ 두 글자를 취한 것

#### 지락재 중수 상량문(소수박물관 소장)

- 세월이 오래되어 건물들이 쇠락해져 있어서 명륜당의 중수가 끝난 후 지락재를 중수했다는 내용
- 을미년에 강침(姜忱)이 지었다고 되어 있지만, 기미년(1799)의 오기로 판단됨

#### 백운동서원령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지락재에 걸려 있던 백운동서원의 학칙
- 학생들에 대한 음식 제공, 서고 출입, 서당 참배자 예우에 대한 내용

#### 시판(詩板)

- 성이민(成以敏)·조옥(趙昱), 강침(姜忱), 황준량(黃俊良), 황시(黃是), 이준(李垺), 조사수(趙士秀), 이감(李勘)·노경린(盧景麟), 윤탁연(尹卓然), 김진우(金鎭雨)의 시가 걸려 있음

## 장서각(藏書閣)

- 목적: 서적이나 목판 보관
- 창건 연도: 1543년 창건한 것으로 추정, 1819년 현재 위치로 이전
-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장서각 관련 유물

#### 장서각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 교육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서원의 주요 기능
- 비록 서원은 과거시험을 목적으로 세워진 곳은 아니지만, 소수서원 초기에는 과거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며 인재 양성소 역할 담당
- \* 서원에 와서 거처하면 4, 5년도 안 되어서 모두 명사<sup>名士</sup>가 되었다는 평가

## 교육과정

- 원생들은 5일에 한번 글을 짓고 10일에 한번 원임 앞에서 통독
- 원생끼리 글에 대해 서로 경독하고 글의 뜻을 강론
- 매일 시 1수를 지어 아침 식사 전에 올리고,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아침 식사에 참석할 수 없음
- 사서<sup>四書</sup>, 삼경<sup>三經</sup> 또는 육경<sup>六經</sup>을 근본으로 하고, 사학<sup>史學</sup>도 읽음

## 원생

- 서원에 상주하는 원생의 정원은 10명으로 규정
-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정원이 15, 20명으로 늘어나기도 함
- 나이, 들어온 날짜, 거리를 따져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양보,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에게 양보, 외지에서 온 사람을 위해 집이 가까운 사람이 양보
- 별도로 『입원록』을 비치하여 관리

## (2) 제향

### 인물

#### 배향 인물: 안향(安珦)

- 처음 이름은 안유(安裕)
- 조선 문종(文宗, 재위 1450~1452)의 이름이 향이라서 피휘(避諱)하여 초명으로 많이 부름
  - \* 피휘: 공경과 삼가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왕, 성인, 선조의 이름의 획을 생략하거나 다른 글자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
- 자는 사온(四溫), 호는 회헌(晦軒), 시호는 문성(文成)

#### ① 출생

- 아버지 안부(安孚)는 흥주(興州: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의 향리였는데, 의업(醫業)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이르러 치사(致仕)
- 안향은 1243년 흥주 죽계(竹溪)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1260년 과거 합격 후 교서랑(校書郎, 정9품)에 보임 후 직한림원(直翰林院)으로 옮김
- 1270년 삼별초의 난이 발생했을 때, 안향을 이용하려고 억류하였으나 안향이 꾀를 써서 탈출하여 원종(元宗, 재위 1259~1274)이 상을 내림
- 감찰어사(監察御使, 종6품), 상주판관(尙州判官, 판도좌랑(版圖佐郎, 정6품), 국자사업(國子司業, 종4품, 좌부승지(左副承旨, 정3품, 첨의참리(僉議參理, 종2품) 거쳐 찬성사(贊成事, 정2품)에 이름
- 1304년 국학에 섬학전(瞻學錢) 설치 건의

#### 섬학전 설치

- 학교가 날로 쇠퇴하고 양현고(養賢庫)가 탕진되어 선비를 양성할 수 없게 되자, 6품 이상은 은 1근, 7품 이하는 포를 차등 있게 내서 이것을 가지고 이자를 취하여 섬학전으로 삼자고 건의
  - \* 양현고: 고려 예종 14년(1119)에 선비를 양성하여 국학의 진흥시키기 위해 설치한 장학재단
- 충렬왕(忠烈王, 재위 1274~1308)이 왕실 내고(內庫)에서 돈과 양곡 지원
- 밀직사사(密直司使, 종2품) 고세(高世)가 무인(武人)이라며 돈을 내기 싫어하자, 안향은 공자의 가르침은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아우가 형에게 공손히 하는 것이니 고세가 공자를 무시했다고 함
- 고세가 이를 듣고 돈을 냄

- 첨의중찬(僉議中贊, 종1품)으로 치사
- 1306년 사망 후 문성(文成) 시호 받음

#### ③ 학문

- 1289년 충렬왕과 원나라 공주, 세자를 호종하여 원에 가서 『주자서(朱子書)』를 필사하고 공자와 주자의 초상화를 모사해서 돌아옴
- 김문정(金文鼎)을 원에 보내 중국의 성현 및 70제자의 영정 그려오게 하고, 제기, 악기, 6경, 제자서, 사서 등 구입
- 1304년 국학에 대성전이 완성되자,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모셔 문묘 제도를 갖추
- 원나라에 갔을 때 그곳의 학관들과 토론한 끝에 '동방의 주자'라고 평가받음
- 과거 합격하였고,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지공거(知貢舉) 역임
- 한림원 등의 문한기관에 근무한 관력

#### ④ 평가

- 안향의 문장은 맑고 굳세어 볼 만함
-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리학을 도입
- 학교 진흥에 진력하고, 인재를 알아보며,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린 현인



- 섬학전 설치하여 유학의 도의를 일으켜 삼한의 풍속을 일신
- 도학道學의 조종으로서 조선에서 학교가 흥할 수 있었던 기틀 마련

#### \* 강학 관련 에피소드

- 학생들이 선배에게 예를 갖추 인사하지 않자, 안향이 노하여 벌주려고 함
- 학생들이 사죄하자 안향은 학생들이 자손 같다고 하며 술대접
- 학생들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대하시니, 감복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함  
→ 어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대한 안향의 마음을 확인

#### ⑤ 배향 경위

- 1318년 왕명으로 안향 영정 제작, 1본 모사하여 흥주향교 봉안
- 충숙왕 6년 1319 논의 끝에 문생 신천辛薦, ?~1339의 극력 요청으로 문묘에 종사
- 1457년 부사 이보흠李甫欽, ?~1457과 순흥 유생들이 단종端宗, 재위 1452~1455 복위를 도모하다가 순흥부가 폐지되면서 영정을 한양 대종가大宗家로 옮김
-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사묘를 세운다는 얘기를 듣고 안향의 종손 안정安珽, 1494~1548이 영정 모시고 와서 사묘에 모심
- 1543년 8월 봉안

#### 배향 인물: 안축

- 자는 당지當之, 호는 근재謹齋, 시호는 문정文貞
- 저서: 『근재집謹齋集』, 『관동와주關東瓦注』  
\* 『관동와주』는 『근재집』에 수록되어 전함
- 『근재집』 세계도에 의하면, 안축은 안향의 족손 별  
\* 순흥 안씨 시조로 여겨지는 안자미를 1세로 하여 안향은 4세, 안축은 6세



『근재집』 세계도

#### ① 출생

- 아버지 안석安碩은 복주福州: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 흥령현興寧縣,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의 향리로서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은거
- 안축은 1282년 출생
- 태어나면서부터 영리하고 총명하여 학문에 힘쓰고 문장을 잘 지었음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과거 급제 후 금주사록金州司錄, 사헌규정司憲糾正 등 역임
- 원나라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여 요양로遼陽路 개주판관盖州判官 임명
- 원에 억류된 충숙왕忠肅王, 재위 1313~1330, 복위 1332~1339을 변호하는 글을 올림
- 고려로 돌아와 성균악정成均樂正, 종4품,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 정4품, 감찰대부監察大夫, 정3품, 밀직부사密直副使, 정3품 등의 관직을 거쳐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정2품에 이름
- 민지閔漬, 1248~1326가 편찬한 『편년강목』 증수
-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3대 실록 편수
- 1348년 치사하며 흥녕군興寧君으로 봉해졌다가 사망, 시호는 문정文貞  
\* 원 조정에 글 올리기 전에 동지들에게 한 말: 임금에게 우환이 생기면 신하의 수치고, 임금이 곤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 법이다

#### ③ 학문

- 과거 합격
- 동생 안보安輔, 1302~1357와 안집安輯을 가르쳐서 모두 과거에 급제시킴
- 중국 한인漢人들과 경쟁하여 원나라 과거 급제
- 성균관, 사헌부 등의 관직을 거치며 많은 표문과 왕명이 그의 손에서 나옴
- 과거시험을 주관하는 동지공거 역임
- 『관동와주』에는 안축의 작품 한시 149수, 경기체가 2수, 산문 8편 수록

## ④ 평가

- 스스로 평가 평생 칭찬할 만한 것이 없으나, 네 번 법관이 되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는 반드시 양민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평가
- 충숙왕 억류시 원에 송사하여 큰 절개, 충성이 드러남
- 상주목사로 부임해서 효성이 돈독한 것이 드러남  
\* 상주목사 시절 어머니가 흥녕에 있기에 왕래하면서 효성을 다함
- 안축이 배운 것을 궁구해보면 학문에 연원이 있음
- 덕이 있고 아름다운 말을 남김

## ⑤ 배향 경위

- 후대의 예로 보면, 추향에는 사람의 공론을 거쳐야 하나 이때는 논의 없음
- 1544년 9월 안축, 안보 봉안

## 배향 인물: 안보

- 자는 원지員之, 시호는 문경文敬
- 『근재집』 세계도에 의하면, 안보는 안향의 족손 별

## ① 출생

- 아버지 안석安碩은 복주福州: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 흥령현興寧縣,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의 향리로서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은거
- 안보는 1302년 출생
-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형인 안축에게 배워 과거에 합격하였으므로 안축을 아버지처럼 여김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19세 과거 합격 후 경주사록慶州司錄, 춘추수찬春秋修撰, 정8품, 편수관編修官을 거침
- 1345년 원나라 과거 급제하여 요양행중서성조마遼陽行中書省照磨에 제수
- 늙은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기 위하여 귀국
- 우대언右代言, 정3품, 전법판서典法判書 역임
- 공민왕恭愍王, 재위 1351~1374이 즉위하여 그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밀직제학密直提學, 정3품, 1355년 정당문학政堂文學, 종2품 제수  
\* 공민왕이 한밤중이 되려할 때 안보를 불러 관직을 제수하려다가 창귀일猖鬼日이라고 중지하려고 하였는데, 안보가 음양술로 길흉 따지는 것을 혐오하였으므로 국왕에게 충언
- 어머니가 연로하여 봉양하기 위해 사직을 청하자 고향인 흥녕과 가까운 동경유수(계림부윤) 부임하여 1357년 사망, 시호는 문경文敬

## ③ 학문

- 중국 한인漢人들과 경쟁하여 원나라 과거 급제
- 과거시험을 주관하는 동지공거 역임
- 『사기史記』, 『한서漢書』를 즐겨 읽음

## ④ 평가

- 문장은 화려함을 버리고 실질을 취하여 사리에 통달하였음
- 사람들이 간사한 욕구에 급급할 때 홀로 사정에 넓게 트여있어서 창귀를 배척하고 바른 기운으로 음양을 가득 채움
- 청렴한 생활로 맑은 기풍이 우주에 진동함
- 가정에서 효도하고 나와서는 충성함

## ⑤ 배향 경위

- 후대의 예로 보면, 추향에는 사람의 공론을 거쳐야 하나 이때는 의론 없음
- 1544년 9월 형 안축과 함께 봉안

## 배향 인물: 주세붕

- 자는 경유景游, 호는 신재慎齋, 남고南阜 등 시호는 문민文敏
- 저서: 『죽계지竹溪誌』, 『진헌심도進獻心圖』 등
- 문집: 『무릉잡고武陵雜稿』

### ① 출생

- 본관은 상주尙州, 아버지 주문보周文輔가 합천陝川에 거주하다가 만년에 칠원漆原,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군으로 이주하였음
- 주세붕은 1495년 합천군 천곡리에서 태어남
- 6세에 『소학小學』을 읽고, 10세에 『사서四書』를 두루 읽음
- 7세에 어머니가 아프시자 직접 머리 감기고 빗겨드리는 등 효성이 지극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1522년 생원시 합격 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들어감
- 1530년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정6품이 되었을 때, 사간원에서 김안로金安老, 1481~1537의 죄를 논하고자 했는데 윤허를 얻지 못하여 김안로의 이름을 빼려고 하자 반대
  - \* 주세붕의 말: 독서한지 30년인데, 아침하는 대열에 있다면 화날 일이다.
- 1532년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정6품을 거침, 부친상을 3년상으로 치름
- 1537년 김안로 세력이 득세하자 봉양을 청하여 곤양군수昆陽郡守가 됨, 고을이 고향과 가까운데도 청탁이 통하지 않았다고 함
- 1538년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부친상 때처럼 거친 밥을 먹으며 여막살이
- 1541년 풍기군수豐基郡守 제수, 학문을 일으키는 것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오륜五倫을 행하는 방법으로 『소학』, 『삼강행실』 등을 반포
- 1542년 문묘와 백운동서원을 세움
- 1549년 도승지, 호조참판 역임 후 황해도 관찰사가 됨, 농사를 권장하고 효제孝悌를 강조하여 풍속과 교화를 돈독히 함

\* 사간원에서 주세붕은 학문이 뛰어나서 모범이 되는 일을 맡아야 하므로 밖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임금께서 황해도 백성이 곤궁하여 주세붕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함

- 1550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종2품, 성균관 대사성成均館 大司成, 정3품 역임
- 1554년 병이 심해져 7월에 사망, 임금이 슬퍼하며 부조를 후하게 함

### ③ 학문

- 성균관, 홍문관 등의 학문 관직 역임
- 외직에 나가서는 학문 진흥과 풍속 교화에 힘씀
- 임금께 「수성잠守成箴」, 「이상잠履霜箴」 등을 지어 올림
- 경敬 한 글자를 뽑아내어 절벽에 새김으로써 우리 학문의 종지宗旨임을 밝힘

### ④ 평가

- 사간원에서 사표師表로 삼을만한 사람으로 평가
- 지역의 선사先師에게 석전釋奠을 드리고 서원을 시작하여 옛날의 고루한 풍속을 씻어냄
- 주자의 독실한 계승자인 안향, 안향의 독실한 계승자인 주세붕이라는 평가
- 주자학 실천에 돈독하여 모범이 되었다는 평가

### ⑤ 배향 경위

- 현인을 높이고 학문을 진흥한 공이 있어 사당에 배향해야한다는 논의 발생
- 이황은 해주의 문헌서원에서 주세붕 배향에 대한 시비논의가 있으니 이것이 정해진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하며 반대
- 1633년 10월 지역 유생들이 모여 주세붕의 배향 논의
- 1633년 12월 사람의 논의가 일치하여 위패를 문성공묘에 올리기로 함
- 1633년 소수서원 건립의 공로를 인정받아 소수서원에 배향



## 건물

### 문성공묘(文成公廟)

- 1543년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세운 공간
- 봄, 가을로의 정기 향사와 비정기 향사가 이루어지는 제향 공간
- 서원 가장 서쪽에 위치
- 네 면이 담장으로 둘러져 있음
-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

#### 문성공묘 관련 유물

##### 문성공묘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1605년 주희의 후손 주지번朱之蕃이 사신으로 왔다가 소수서원을 참배하고 쓴 것이라고 함
- 현재 편액은 원래의 것을 모각

##### 문성공 시호, 시주(諡註) 현판

- 문성공 안향이 받은 시호의 뜻 풀이로 주지번이 썼음
- 도덕을 널리 들은 것을 일러 문文이라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정사政事를 바로 세운 것을 일러 성成이라 함

### 전사청(典祀廳)

- 제향 관련 제기祭器를 보관하고, 제물祭物을 준비하는 공간
- 1546년 임시청사 6칸 조성, 1587년 창건
-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전사청 관련 유물

##### 전사청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 의례

### 제향 원칙 [원규]

- 봄·가을 대향大享: 정례적으로 봄과 가을의 마지막 달 상정일上丁日에 하고, 일이 있으면 중정일中丁日에 거행
  - 마지막 달로 하는 이유는 대개 옛 성현의 제사를 봄, 가을 가운데 달로 하여 안향이 이미 배향되었기 때문에
  - 상정일: 한 달 중 십간의 정丁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날
  - 중정일: 한 달 중 십간의 정丁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날
- 삼헌관三獻官과 육집사六執事를 갖추
  - 유사가 7일 전에 사문에게 고하고 헌관과 집사를 미리 정함
- 치재致齋하는 날 헌관이 보관된 책을 점검하고 별을 찌이며, 담장과 집이 기울거나 틈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곡과 각종 물품을 세어 봄, 제삿날 사문들과 함께 살펴봄
  - \* 치재: 제관이 된 사람이 재계하는 일

### 소수서원 정기 제향 의식

#### ① 향알(香謁)

- 음력 매월 초하루, 보름에 행하는 알묘

#### ② 정알(正謁)

- 매년 정월 초 5일에 알묘
- 새해를 맞이하여 선현께 드리는 의례

**③ 춘추향사례(春秋享祀禮)**

- 음력 3월, 9월 초정일에 거행하는 의례  
\* 9개 서원 중 소수서원과 병산서원만 해당일에 봉행, 다른 서원은 2월, 8월 중정일에 봉행
- 제삿날이 국기일과 겹치거나 유고가 있을 경우 다음 정일로 미루어 행함

**소수서원 향사 준비**

- 원장과 각 유사는 3일 전에 입재하고, 헌관 이하 모든 집사 및 참례자는 이틀 전에 입사해야 함
- 제관들은 입재하면 파재할 때까지 서원 밖을 나갈 수 없음

**① 개좌(開座)**

- 절차는 개좌로 시작하여 파좌로 끝남
- 집례執禮의 명에 따라 제관들이 양쪽에 도열하여 상견례 후 착석
- 입재 인원 보고

**② 경독(敬讀)**

- 재계의 첫 순서
- 백록동서원규, 유학의 핵심을 요약한 잠언을 낭송

**③ 집사분정(執事分定)**

- 경독 후 향사에서 봉무할 일을 나눔
- 강당에 걸린 분정판을 헌관 앞에 놓고 문중, 연령, 학덕, 인품 고려하여 책임자 선정
- 원위치에 명단 부착

**④ 제축(制祝)**

- 초헌관을 모시고 문성공묘에 들어가서 축문을 쓰고 축판에 넣어 향안 위에 올림
- 향사 올리는 연유를 고하는 것
- 축문 내용: 안향이 유학을 신봉하고 들여와 학교 세운 것을 칭송

**⑤ 봉준(封尊)**

- 향사에 올리게 될 술을 향아리에 담아 봉하여 넣는 의식
- 전사청에서 행함

**⑥ 진설(陳設)**

- 준비된 제수를 제기에 담아 법식에 맞게 상 위에 차리는 것

**향사**

- 자정이 지나서 봉행

**① 상향례(上香禮)**

- 초헌관이 신위전에 나아가 향을 세 번 피우고 폐백을 올림
- 죽계사 3장 낭송

**② 초헌례(初獻禮)**

-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림
- 잔을 올린 후 축문을 읽고, 축문 낭독이 끝나면 도동곡 수장 낭송

## ③ 아헌례(亞獻禮)

- 신위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림
- 잔을 올린 후 도동곡 중장 낭송

## ④ 종헌례(終獻禮)

- 신위께 세 번째 술잔을 올림
- 잔을 올린 후 도동곡 중장 낭송

## ⑤ 음복수조례(飮福受胙禮)

- 신이 흠향한 음식을 초헌관이 맛봄

## ⑥ 철변두(撤籩豆)

- 제상의 제물을 거둠

## ⑦ 망예례(望瘞禮)

- 축문을 땅에 묻는 의식

## ⑧ 음복례(飮福禮)

- 파제일 아침 7시경 강당에서 음복
-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차례로 술잔을 듦
- \* 소수서원의 의례는 홀기의 원형대로 시행

## 의례 관련 유물

- 자세한 사항은 『향교, 서원의 제례 및 음식연구』, 영주문화유산보존회, 2012 참고

## 소수서원 홀기

- 위의 의례절차를 상세하게 적은 가장 오래된 홀기<sup>笏記</sup> 보존
- 주세붕이 제정한 수필 홀기와 이항이 수정, 보완한 홀기가 있음
- 이항이 보완한 향사는 관학인 향교의 석전을 기준으로 함을 천명
- \* 자세한 사항은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참고



주신재선생홀기



퇴계선생친필홀기

## 주세붕의 진설

- 신위 좌측 변: 백자<sup>柏子</sup>, 잣, 건조<sup>乾棗</sup>, 말린 대추, 율황<sup>栗黃</sup>, 밤, 녹포<sup>鹿脯</sup>, 사슴고기포
- 신위 우측 두: 구저<sup>韭菹</sup>, 부추김치, 밀과<sup>蜜果</sup>, 약과, 청저<sup>菁菹</sup>, 무김치, 어해<sup>魚醢</sup>, 생선젓

## 이항이 수정한 진설

- 밀과 대신 녹해<sup>鹿醢</sup>, 사슴고기젓 사용
- 밤 대신 말린 생선이나 포와 같은 마른 고기 사용
- 신위 좌측 변: 말린 생선, 사슴고기포, 대추, 잣
- 신위 우측 두: 물고기젓, 사슴고기젓, 무김치, 부추김치
- \* 현재의 진설은 찬품 내용, 배열법이 많이 변화되었으나 원인은 불분명



## 죽계사(竹溪辭)

죽계는 동쪽 소백은 서쪽  
공의 사당은 그 사이에 있네  
흰 구름이 골짜기 가득하여 앞길을 해매이네  
시냇물엔 물고기 산엔 잣나무  
이곳은 공이 옛날에 노셨는데 어찌 아니 돌아오시는가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우리가 슬퍼지지 않게

소백은 서쪽 죽계는 동쪽  
산에는 구름 물에는 달빛 고금이 한결같네  
공이 오실 적에 옥규(玉蚪) 타고 자란(紫鸞) 옆에 끄네  
제가 단술 올리니 저의 정성을 드시고  
바라건대 흠향하시어 많은 기쁨을 다하소서

옛날에 공이 나시기 전에는 사문(斯文)이 어두웠고  
큰 윤리가 땅에 떨어져 구름과 안개 속처럼 어둡더니  
공이 한번 나시어 삼한을 맑게 하니  
맑은 태양 푸른 하늘에 우리의 도가 높아졌네  
사당은 세밀하고 공의 상(像)은 그 속에 있으니  
죽계는 더욱 맑고 소백은 더욱 높아라



## 도동곡

- 주세붕이 직접 지은 9장으로 구성된 경기체가
- 유학의 연원, 실천, 공자(孔子, B.C.551~B.C.479)와 주자(朱子, 1130~1200)의 도학 칭송, 안향에 의해 도학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 찬양
- 초헌례에서 축문 읽고 나서 수장(1~3장), 아헌례에서 안향의 신위에 술을 따른 다음 종장(4~6장), 종헌례에서 안향의 신위에 술을 따른 다음 종장(7~9장) 노래함
- 향사 때 젊어서부터 도동곡을 부른 장로 1인과 젊은 유생 1인이 마주서서 같이 부르며 하여 전승하고자 함

\* 전국에서 소수서원에서만 부르는 제례악

## 도동곡 내용

- 1장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皇帝)·요(堯)·순(舜)이 재창(再唱) 하늘을 이어 법을 세우시니 광경 어떠한가!
- 2장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미미하니 정밀하고 전일하여야만 진실로 중도(中道)를 잡을 수 있으니, 위대하다! 주고받는 성인의 심법(心法)이란 다만 이뿐이로다.
- 3장 우(禹)·탕(湯)·문왕(文王)·무왕(武王)과 고요(皐陶)·이윤(伊尹)·주공(周公)·소공(召公)은 재창(再唱) 임금과 신하가 서로 뜻을 얻었으니 광경 어떠한가!
- 4장 하토(下土)가 아득하니 상제(上帝)께서 이를 걱정하셔서 우정대인(圩頂大人) 공자를 수(洙)수(水)와 사수(洙水) 위에 내리시니, 위대하다! 만고 연원이 그치지 아니하도다.
- 5장 안회(顏回, B.C.521~?)의 사물(四物)과 증자(曾子, B.C.506~B.C.436)의 삼성(三省)이며, 우러러 봄에 더욱 높고 뚫으려 함에 더욱 견고하며 앞에 보이는 듯 홀연히 뒤에 있으니, 위대하다! 성인을 배우며 수고로움을 잊으셨으니 광경 어떠한가!
- 6장 따르리 천명지성, 기르리 호연지기. 재창(再唱) 위대하다! 지극한 정성은 쉽이 없어야 근본이니라.
- 7장 비 갠 뒤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상서로운 햇살과 구름이며. 재창(再唱) 위대하다! 그쳐진 긴 날을 어떻게 아셨는가!
- 8장 사람의 욕심 건잡을 수 없어 하늘까지 뒤덮었도다. 1,500년에 주자(周子)께서 태어나셔서 경(敬)으로 근본 세워 큰 제방 만드셨으니, 위대하다! 옛 성인 이으시고 후학에게 열어 주셨으니 공자와 다를 바 있으랴.
- 9장 삼한 천만년에 참된 유학자를 내리시니, 소백산이 여산(廬山)이요, 죽계(竹溪)가 염수(濂水)로다. 학교를 일으키고 도를 지키는 것은 작은 일이겠지만, 주자를 높이 예우하신 그 공이 크시다. 위대하다. 유학의 도가 동쪽(우리나라)으로도 전해졌으니, 광경 어떠한가!



### (3) 교류와 유식

- 교류와 유식 공간은 유산을 둘러싼 자연과 통하는 공간으로서 정자, 누마루 등으로 구성
- 서원과 서원, 유학자와 유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
- 유식 공간으로써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등 보다 자유로운 학습 공간

#### 교류와 유식 관련 유물

##### 심원록(尋院錄)

- 소수서원을 방문한 인사들의 방명록
- 성명, 본관, 방문 일자, 관직 등 기재

### 경렴정(景濂亭)

- 위치: 서원 남쪽 담장 밖에 위치
- 서원 건립 초기에 지어진 건물
- 서원 내외부 사람들의 교류와 유식을 위한 정자
- 주세붕이 북송의 성리학자인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 1017~1073)를 경모(景慕)하는 뜻에 서 만들

#### 경렴정 관련 유물

- 자세한 사항은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영주 소수서원 정밀실측보고서』 참고

##### 경렴정 현판

- 입구에 걸린 것은 이황, 내부에 걸린 것은 황기로(黃耆老)의 글씨로 전해짐

#### 시판(소수박물관 소장)

- 주세붕, 이황의 5언시, 7언시를 비롯하여 최옹(崔顥), 김응조(金應祖)·오건(吳健), 안현(安瑱)·황효공(黃孝恭)·안공신(安公信), 황시(黃是), 황응규(黃應奎), 황준량(黃俊良), 황섬(黃暉), 강침(姜忱), 정한(鄭澣), 유세명(柳世鳴), 홍우정(洪宇定)의 시가 걸려 있음

### 취한대(翠寒臺)

- 위치: 죽계천 건너편 연화봉 아래 소나무 숲에 위치
- 1550년 건립, 1986년 신축
- 이황이 경자바위 윗부분에 터를 닦아 대를 쌓고 이름 붙임
- 푸른 연화산의 기운과 맑은 죽계천의 시원한 물빛에 취하여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다는 뜻에서 송취한계(松翠寒溪)에서 따옴
- 원생들이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하던 곳

#### 취한대 관련 유물

##### 〈취한대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 (4) 기타 시설

### 경자바위

- 위치: 죽계천 건너편 취한대 옆
- 경敬은 성리학에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수양론의 핵심이 되는 지침
- 주세붕은 경이라는 것은 구차함에 반대되는 것으로 잠시라도 구차하면 불경한 것이 라는 주희의 말에 안향이 곧 부합된다 하며 새김
- \* 백운동 글자를 새긴 연유는 알 수 없으나 주세붕이 새긴 것으로 판단됨

### 탁청지(濯淸池)

- 1614년 풍기군수 이준의 명에 의해 지락재 아래 조성
- 2001년 발굴 조사 후 복원
- 탁청은 맑은 물에 씻어 깨끗해진다는 뜻
- 서원 유생들의 유식을 위해 조성된 인공 연못

## 3) 영주 소수서원의 특징

- 최초의 서원, 최초의 사액서원, 최초의 원규
- 숙수사 터: 서원 앞 당간지주에서 알 수 있음, 소수서원 뒤편 숙수사 터에 소수중학교 건립
- 홀기의 원형대로 시행하는 서원 향사
- 죽계사와 도동곡
- 서원 앞 노송군락과 500년 된 은행나무(학자수)
- 교류와 유식공간으로서 경림정, 취한대, 백운동 경자바위
- 명종 어필 '소수서원' 현판



## 2. 영주 소수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 최초의 서원

- 1543년 주세붕(周世鵬, 1495~1554) 주도 하 지역 사림이 함께 건립한 최초의 서원
- 최초로 서원 교육 및 제향 관련 규정 도입
- 1550년 ‘소수’라는 사액을 받은 최초의 사액서원
- 사우, 강당, 재사 등 서원 초기 건축형식 수립
-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에 입지, 한국 서원 입지의 전형
- 제향 인물을 지역 선현으로 하는 전통 시작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창건 및 사액 : 1543년 건립 / 1550년 사액**

**주향 인물 : 안향(安珦, 1243-1306)**

### 주요 특징

#### - 구성 및 입지

- 강당·사우·재사·장서각 등 한국 서원 건축물 구성의 기본요소를 제시함. 죽계천이 흐르는 계경에 입지하여 천인합일(天人合一)에 부합한 성리학적 가치관이 반영된 입지의 전형을 보여줌.

#### - 특징

- 한국 서원중에서 최초로 건립·사액되었으며, 한국 서원 교육·제향의 전형을 제시함

- 도동곡(道東曲) / 다른 서원과 달리 제향에 가곡을 부름. 도동곡은 안향에 의해 도(道)가 동방(東方)인 한국에 전래되었음을 뜻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체가(景幾體歌)의 형식임.

### 지정문화재

#### - 국가지정 6건(국보 1건, 보물 5건), 시도지정 3건(유형문화재 3건)

- 안향초상(국보) : 고려 중기 문신인 회헌 안향 선생의 초상화로 가로 29cm, 세로 37cm의 반신상. 선생의 초상화는 현재 전해지는 초상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초상화로, 고려시대 초상화 화풍을 알 수 있어 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귀중한 작품.

소수서원 지정문화재

서원	종별	지정	명칭	구분	지정일
소수서원	국가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부동산	1963.01.21.
		국보 제111호	안향 초상	동산	1962.12.20.
		보물 제1402호	소수서원 문성공묘	부동산	2004.04.06.
		보물 제1403호	소수서원 강학당		2004.04.06.
		보물 제59호	숙수사지 당간지주		1963.01.21.
		보물 제485호	대성지성문 선왕전좌도	동산	1968.12.19.
		보물 제717호	주세붕 초상		1981.03.18.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38호	서충대친림 연회도	동산	1988.09.23.
		유형문화재 제330호	명종 어필 ‘소수서원’ 현판		2001.11.01.
		유형문화재 제331호	소수서원 소장 판목		2001.11.01.
영주시	영주시	보호수 (11-28-7, 8-14)	은행나무 (500년)	부동산	1982.10.26.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 교재

- 남계서원 -





# 목차

## 들어가며 04

### 1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10

#### 1. 유네스코와 유산 10

- 1) 유네스코와 유산
- 2) 유산 해석과 설명

####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6

- 1) 서원의 이해
- 2) 세계유산 가치
- 3) 등재 과정

### 2부 함양 남계서원 40

#### 1. 함양 남계서원 개요 40

- 1) 함양 남계서원의 역사
  - (1) 건립
  - (2) 사액
  - (3) 운영
- 2) 함양 남계서원의 공간 구성
  - (1) 강학
  - (2) 제향
  - (3) 교류와 유식
  - (4) 기타 시설

#### 3) 함양 남계서원의 특징

#### 2. 함양 남계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64



# 들어가며

## 일러두기

-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재
- 심화학습 자료, 관련 사이트는 QR코드를 참고

## 범례

-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서원을 지칭하고, 서원은 조선에서 세워진 서원을 통칭함



## ‘한국의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 / 사액 연도	주향 인물	비고
영주 소수서원	1543년/1550년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사적(1963)
함양 남계서원	1552년/1556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사적(2009)
경주 옥산서원	1572년/1574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사적(1967)
안동 도산서원	1574년/157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사적(1969)
장성 필암서원	1590년/1662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사적(1975)
달성 도동서원	1605년/1607년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사적(2007)
안동 병산서원	1613년/1863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사적(1978)
정읍 무성서원	1615년/1696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사적(1968)
논산 돈암서원	1634년/1660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사적(1993)

##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이해

### 전담해설사 제도의 목적

-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으로서 성격 소개
- 각 서원의 역사, 건축적 성격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연속유산인 9개 서원 이해, 해당 내용을 방문객에게 비교·전달

### 전담해설사 정의와 역할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정된 ‘한국의 서원’만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자, 하나의 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을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표준교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필요한 지식과 실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력

### 전담해설사 필요역량

- 방문객의 국적, 연령, 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해설을 제공
- 유산의 각 공간에서 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각 서원은 개별적으로 중요한 국내 유산이며 동시에 9개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세계 유산의 일부임
- 유산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되 지식과 정보의 일방적 주입 지양
- 해설 목적은 방문객과 유산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 근거 있는 정보 수집 경로 제시





# 01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1. 유네스코와 유산

## 1) 유네스코와 유산

### 유네스코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
-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 세계무형문화유산

-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로서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름
-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

### 세계기록유산

-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
-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단독 기록이거나 기록의 모음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

※ 근거: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 **완전성과 진정성** 개념을 충족했는지
  -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보호관리계획**을 갖추었는지
- \*등재 기준, 진정성과 완전성,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

### 완전성(Integrity)이란?

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특성에 대해 전체, 본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 진정성(Authenticity)이란?

본래 또는 역사의 과정에서 지니게 되는 가치에 대한 진실성,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것

### 세계유산 구역: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범위
- 유산구역: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역
- 완충구역: 유산구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며 인접한 주변 환경과 중요한 경치 등 포함

## 세계유산 등재 기준

구분	등재 기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에 의한 <b>결작</b>
	(ii)	일정한 기간,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b>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b>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b>독보적인 증거</b>
	(iv)	<b>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b> 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
	(v)	하나(혹은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b>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b> 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b>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b>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독보적인 <b>자연미</b> 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의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특징물 등 <b>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b>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b>생태적·생물학적 과정</b> 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x)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b>멸종 위기 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b> 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

- 등재 기준 중 (i)부터 (vi)까지는 문화유산, (vii)부터 (x)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됨,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세계유산협약이란?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약자
- 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17차 총회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협약

## 세계유산협약의 배경

- 인류가 이룩해 온 역사적 유산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
- 1950년대 이집트에서 전력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 하이댐의 건설을 시도하면서 아부심벨 신전 등 고대 이집트 유적이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 세계유산제도 시행의 결정적 계기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

- 세계유산목록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유산 등재
- 세계유산의 보호와 보존
- 세계유산기금 하의 국제지원 공여
- 협약에 도움이 되는 국내 및 국제적 지원의 확보

※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세계유산협약 전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2) 유산 해석 Interpretation 과 설명 Presentation

### 세계유산의 ‘해석’

-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인 활동
-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쇄물, 전자출판, 강의,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등이 포함

### 세계유산의 ‘설명’

- 해석 정보의 배열, 사람들의 접근 방식, 해석 시설 구조 등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잘 디자인하여 전달하는 것
- 현장에서의 소통에 중점
- 박물관 전시, 정형화된 투어, 안내 프로그램이 포함

### 유산 해석 등장 배경

- 유산의 다양한 형태, 가치를 함께 고려
  - 전문가 관점에 국한되지 않은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 유산 가치 중요
- ※ 해설사 = 중요한 이해관계자

### 유산 해석·설명 의 국제적 담론

- 프리먼 틸든의 해석 6원칙(1957)
- 에나메 헌장(2008)
- 현 시대에 맞는 유산 해석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문화유산지의 해석과 설명에 관한 ICOMOS(이코모스)<sup>1</sup> 헌장

1.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약자로 국제기념물협의회라고도 칭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

### 프리먼 틸든의 ‘우리의 유산 해석하기’ (1957)

1. 좋은 해석은 방문객의 경험이나 사고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2. 정보 그 자체는 해석이 아니지만, 반드시 정보에 바탕을 한 내용이어야 한다.
3. 해석은 과학, 역사 및 건축이 접목된 종합 예술이다.
4. 해석이 주된 목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5. 해석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전달해야 한다.
6.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석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해석을 단순화해서 만들면 안 된다.

### 해석과 설명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

1. 접근과 이해 향상(Access and Understanding)  
: 대중들의 해당 유적지에 대한 지적, 물리적 접촉이 쉬워야 함
2. 정보의 확실한 출처(Information Sources)  
: 검증된 과학 학술적 방법, 살아있는 문화 전통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에 기초해야 함
3. 환경과 맥락의 중요성(Setting and Context)  
: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맥락과 주변 환경을 연관시켜야 함
4. 진정성의 보존(Preservation of Authenticity)  
: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sup>2</sup> 정신에 입각한 기본 원리 존중해야 함
5. 지속성에 대한 계획(Planning of Sustainability)  
: 사회적, 재정적, 환경의 지속성 중 주요 목표들과 함께 유적지의 자연적 문화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
6. 포용성에 대한 고려(Concern for Inclusiveness)  
: 전문가, 소유자와 관련 공동체, 이해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협력의 결과물이어야 함

2. 나라문서(1994):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보존과 관련된 문화 다양성,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대한 필요성 언급



##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1) 서원의 이해

#### 서원이란?

-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
-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 선현先賢 제사,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
-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 지역 문화 선도

#### 서원의 기원

-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 재위 712~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담당한 '여정서원'이 최초
-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 제사기능,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
-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 1130~1200가 세운 '백록동서원'은 학규,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
-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모티브

#### 한국에서 서원 성립

-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 국학(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육 권장

-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저하,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
-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 중국의 서원 제도 주목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 건립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 확산

#### 서원의 구성원: 사람

- 향촌 지식인집단
-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
-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
- 관련 자료: 『원장안院長案』,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등

구성원

구분	역할
원장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의 일 총괄</li> <li>•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 관리 주체</li> <li>• 임기는 1~2년, 대체로 연임 허용</li> </ul>
원임院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li> <li>•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로도 불림</li> <li>• 서원 내 규찰, 재정 문제 담당</li> <li>•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li> </ul>
원생院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li> <li>•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 통해 최종 선발</li> <li>•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li> </ul>

## 서원의 규약(規約)

- 원규院規 : 강학 제향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
- 학규學規, 강규講規 :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
- 절목節目 :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세칙
- 완의完議, 입의立議 :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 서원의 재정

- 대체로 지역 사람의 자발적 출연 통한 토지, 노비,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
- 사액서원에는 서적, 토지, 노비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
- 관련 자료: 『전답안田畓案』, 『노비안奴婢案』,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 서원의 주요 기능: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 강학

- 성리학 교육을 통한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 개별학습인 독서,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
-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
-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
- 강학 활동은 ‘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과 ‘공식적·의례적강학으로서 강회講會’로 구분

### 강학의 종류

구분	내용
거접居接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문회文會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
거재居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순제旬題	지방의 향교鄉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통독通讀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향사 후의 강회講會	향사享祀를 지낸 후, 「백록동규白鹿洞規」나 「여씨향약呂氏鄉約」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講生들이 강장講長 앞에서 진강進講을 하는 순서로 진행. 진강을 하는 방식은 씨[姓: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추첨 기구]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

### 강학 의례

구분	내용
흥미를 갖춘 공식적 의례	정음례庭揖禮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 음례揖禮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
	상음례 큰 음揖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강습례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陳設;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침배瞻拜;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상음相揖;서로간 음례를 거행함-승당升堂;당에 오름-독규讀規;규약을 읊음-배독拜讀;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진강進講-예필禮畢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관습적 의례	경독 敬讀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 <sup>白鹿洞規</sup> , 사물잡 <sup>四勿箴</sup> , 심잠 <sup>心箴</sup> , 경재잠 <sup>敬齋箴</sup> , 숙흥야매잠 <sup>夙興夜寐箴</sup> 을 낭독하는 것이다.
	개접례, 입접례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파접례, 후접례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귀가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수창시	수창시는 ‘회강’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제향

-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
-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 정신 이어나갈 것을 다짐, 결속 다지는 기회

제향의 종류

구분	명칭	시기
정기	춘추 향사	매년 봄·가을
	삭망례	매월 초하루, 보름
	정알례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6일
비정기	이안제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환안제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위안제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예성제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사액례	사액을 받을 경우
	치제	국가에서 제관 보내어 지내는 경우



입재



성생례



집사분정



분향례



사우입장



제물근봉



초헌례



종헌례



철변두



파제



향약낭독



음복례

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



## 교류와 유식

- 교류<sup>交流</sup>: 서원의 구성원, 서원에 방문한 명사,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 물질 교류
- 유식<sup>遊息</sup>
  -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 『예기』 권17, 학기 18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sup>藏修</sup>: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
  -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양성 방식의 일환.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sup>品格</sup>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
-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
-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
-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
- 해주향약, 남전향약, 예안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
- 관련 자료: 『심원록』 등

##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

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

### 성립과 발전 과정

#### 중국 서원(書院)

- 남송 시기 관학 쇠퇴와 과거제도 부패 비판하며 흥성
- 남송 이후 과거시험과 관련된 관학의 보조적 성격으로 전환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으로 변모



#### 일본 시주쿠(私塾)

- 17~19세기 걸쳐 유학에 기반을 둔 고등 교육기관으로 설립
- 설립자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의학, 산학, 서양학문도 함께 교육
- 중국, 한국에 비해서 유학이 제도,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과거제도가 없어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형태로 발전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 대학으로 발전



#### 한국의 서원(書院)

- 16세기 중반 태동, 지역 성리학 집단인 사림<sup>士林</sup>의 주도로 성장
- 관학적 성격이나 국가의 관료선발과정에 관련되지 않음
- 19세기 말 교육 기능 종료까지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일관적으로 운영
- 근대화 과정에서도 명맥 유지



## 사회적 기능

### 중국 서원

- 송 시기 학문 중심기구, 여론 형성기구
- 점차 관학 보조기구로 정착되며 정치, 사회활동 성격 약화

### 일본 시주쿠

- 유학이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되지 못하여 포괄적 기능 수행에 한계
- 사숙 출신 학생이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사상 선도

### 한국 서원

- 지성 활동, 공론 형성이라는 실천적 성격
- 공론을 국가에서 억압하거나 규제하지 않음
- 성리학 이념에 기반을 둔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 제정하여 향촌 교화

## 건축물 배치

### 중국 서원

- 강학, 제향, 장서루로 구분되어 구성
- 특히 장서루 공간이 크게 발달되어 중시
-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이 상호 대등한 위치 차지하며 관계 자유로움
- 앞쪽 경계에 반수(泮水)로 이루어진 인공적 조경에 의존
- 건축 배치 정형을 규정하기 어려움



중국 백록동 서원 반수

### 일본 시주쿠

- 정형화된 배치 및 건축 형식 없음
- 제향기능을 갖추지 않음
- 단일 건물 사용하여 기능별로 공간 구획

### 한국 서원

- 공유된 건축 정형 갖춤
-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을 하나의 축선 상에 위치시켜 유기적 연결
- 제향 공간인 사우를 높은 위계건축으로 형성
- 자연지세를 활용한 독특한 한국적 건축기법

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

		한국의 서원	중국의 서원	일본의 시주쿠
도입 시기		16세기	7세기	17세기
설립 목적		성리학 지식인 양성 지역 기반 선현 제향	유학 지식인 양성 → 관료 양성 관학 보조	지식인 양성
교육 대상		지역 유생	제한 없음	무사, 가신 그룹
교육 학문		성리학	유학	유학,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 다양
제향	인물	지역단위 선현	주로 공자 등 성현	크게 중시하지 않음
	의례	현재까지 존속	일부 서원만 유지	
사회적 기능		지역 공론 중심지 지역 교화 중심지	국가정책 따라 변동	근대사회 전환 기여
건축	입지	제향인물 연고지 자연 경관 고려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등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기능	제향-강학-유식	강학-제향-장서	강학
	구성 요소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반지 과거합격 비석군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배치 유형	공통의 배치 유형 존재	서원별 개별성 강함	단일건물 중심
	경관 구성	자연친화적 개방과 관입 구현	인위적 폐쇄적	인위적 폐쇄적
	지역성	좌식 생활 구조 온돌, 마루의 조화	입식 생활 구조 의자, 화로	좌식 생활 구조 다다미, 화로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성균관(成均館)

- 중앙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최고 교육기관
- 공자<sup>孔子</sup>와 그의 제자를 비롯한 중국 현인<sup>賢人</sup>들과 우리나라 현인을 제사지내는 문묘, 강학 공간인 명륜당 갖추

향교(鄕校)

- 지방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주로 향촌에 가까운 곳에 입지
-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문묘, 명륜당 갖추

## 서원과 향교, 성균관 비교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 주체	사림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포	지역별 다양	군현별 1개	수도에 1개
설립 목적	인성교육 선현제향 사림 활동 기반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사회적 역할	지역 공론 형성 지역 문화 교류		유생 공론 형성
입지	제향 대상과 관련 교육 목적에 부합	지방 행정 중심지	수도
구성 요소	사우(선현),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유형	제향-강학-교류, 유식	강학-제향	강학-제향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서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어득강(魚得江, 1470~1550)의 상소

## 2) 세계유산 가치

##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 등재 기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충족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
-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 토착화되는 과정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

##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

##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
- 활용과 기능,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
-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무형유산,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

## 보호 및 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증축,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

##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 연속유산이란

-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
-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

## ‘한국의 서원’ 입지 특성

###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

-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sup>先賢</sup>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
-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
-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 관련

## 수려한 주변 경관

-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
-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
-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
- 특히 정자,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

## ‘한국의 서원’ 건축 특성

### 보편성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건립되며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
-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
- 대부분의 서원은 아래와 같이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

### 독자성

-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
-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
-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 건축 구조 형성



## 공간 구분

### 제향공간

- 건물: 사우, 전사청, 제기고 등
-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
-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 별도 출입문 설치
  - 사우: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
  - 전사청: 제물,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
  - 제기고: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

### 강학공간

- 건물: 강당, 재사, 장서각, 장판각 등
-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
  - 강당: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
  - 재사: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 서재로 구성, 학생들의 기거 공간
  - 장서각, 장판각: 목판이나 도서 보관

### 교류와 유식공간

- 건물: 누각, 정자 등
- 누각은 누정,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좌식공간관습 가지는 한국의 건축 전통과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결합된 건축형식
- 연못,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

## 기타

- 고직사, 교육시설, 하마비, 홍살문, 기념비 등
- 하마비,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
  - 고직사: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
  - 교육시설: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 전통 건축기법 토대로 건립
  - 하마비: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
  - 홍살문: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

## ‘한국의 서원’ 서원별 세계유산가치

서원명	세계유산가치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로 건립된 서원</li> <li>강학,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li> </ul>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li> <li>사당과 강당이 일렬로 배치되는 서원 건축의 정형적 배치방식</li> </ul>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li> <li>누마루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li> </ul>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li> <li>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li> </ul>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li> <li>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규,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li> <li>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안동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li> <li>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li> </ul>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li> <li>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li> </ul>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li> <li>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li> </ul>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 3) 등재 과정

### 등재 추진 배경

- 서원이 건축, 공간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적 가치도 우수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

### 추진 관련 기관

- 2010년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 2012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발족
- 2015년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출범

### 1차 등재 추진 경위

- 2011년 12월 한국의 9개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sup>1</sup>
- 2015년 1월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유네스코에 제출
- 2015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 현지 조사 후 철회 권고
- 2016년 4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철회

1. 1871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과 사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 충족 여부 확인하여 9개 서원 선정

# 등재 재추진 경위

- 2016년 8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 의결
- 2018년 1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 2018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의 현지 실사
- 2019년 5월 이코모스 평가결과 등재 권고
-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확정





# 02

**함양 남계서원**



# 1. 함양 남계서원 개요

주요 내용은 『함양 남계서원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4 참고

## 1) 함양 남계서원의 역사

### (1) 건립

#### 강익의 건립 동기

-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학행은 고을의 의표儀表이자 학사學士의 모범
- 정여창의 고향에 서원을 건립하지 않는 것은 고을의 수치
- 정여창의 유풍遺風, 유훈遺訓을 통해 후학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서원 창건 반대 여론

- 비방과 분분한 의견으로 초기 건립에 어려움 있었음
- 기존 유림 조직인 유향소에서 반대
- 국내의 서원에 대한 견문과 식견이 부족
- 향교가 학교 역할 수행 가능하여 별도건립 불필요 (+남계서원경임안서)

#### 건립 과정

- 1552년 강익姜翼, 1523~1567의 주도 하에 함양 유림 박승임朴承任, 1517~1586, 노관盧祿, 1522~1574, 정복현鄭復顯, 1521~1591, 임희무林希茂, 1527~1577 등 서원 건립 결의
- 1555년 군수 서구연徐九淵, 1502~1562의 지원으로 강당을 세웠으나 상喪을 당한 서구연의 체직遞職과 흉년, 후임 군수의 미온적인 지원으로 공사 중단

- 1559년 강익이 군수 윤확尹確의 지원으로 공사 재시작
- 1561년 서원 묘우를 강당 동쪽에 완공
- 1561년 2월 정여창 위판 봉안
- 1564년 함양군수 김우홍金宇弘, 1522~1590의 지원으로 동재·서재 건립 및 작은 못과 주변 조경

#### 남계서원 재건

- 1595년 정유재란 때 왜군에 의해 남계서원 전소
  - \* 남계서원은 16세기 후반 왜군에 대한 의병활동 주도
- 1599년 땅 속에 묻어둔 정여창의 위판은 보존되어 임시로 두 칸의 사우를 지어 봉안 후 제례
- 1600년 신계서원新溪書院과 함께 나촌羅村으로 이건 계획했으나 신계서원의 노진과 남계서원의 강익의 위차 문제로 함양의 사론 대립
- 1612년 옛 자리에 서원건물 짓고 남계서원 재건

#### 남계서원 재정 마련

- 초기에 고을의 유림 및 인근 고을에서 쌀과 곡식 기부
- 초기 강당 공사 후 남은 재물의 증식
- 지례知禮, 거창居昌, 부안扶安, 산음山陰, 안음安陰, 단성丹城 수령의 기부
- 함양, 산음, 거창지역 사림의 기부
- 경상도 관찰사들에게 요청하여 소금, 어물, 종이 등 필수 품목을 봄, 가을로 받고, 노비 등을 지원받음

## 서원 재원 관리[원규]

- 유사<sup>有司</sup>가 인수인계 시 재산과 물품을 반드시 대조한 후 인계할 것
- 서원 토지세는 소작세로 충당하고 만약 재난이 있으면 추수 전 농작물의 풍흉을 살피볼 것
- 향례에 쓰이는 비용은 소작세에서 봄, 가을로 각 15석씩 예봉<sup>例封</sup>하여 맞추어 사용할 것
- 소를 잡는 가격은 150냥으로 정할 것
- 서원에서 재물 사용시 증명 없이는 시행할 수 없음
- 유사가 공적으로 접대하는 비용은 15냥 이내로 정할 것
- 만약 알묘<sup>謁廟</sup> 참여 인원에 대한 접대 비용이 과하면 헤아려서 삭감할 것

### 남계서원 재정 관련 유물

#### 부보록

- 창건부터 19세기까지 지방 수령 및 사림의 기부 내역과 관련된 장부
- 명단, 액수, 물품 등 기재
- 초창기 서원 창건에 필요한 경제적 규모, 수령의 지원 상황 확인

## (2) 사액

### 남계서원 사액

- 강익을 비롯한 함양 사람들의 사액 요청
- 1566년 경상도 관찰사 강사상<sup>姜士尙</sup>, 1519~1581이 계를 올림
  - \* 정여창의 학문, 행적 칭송 및 서원 건립 과정 설명
  - \* 소수서원과 임고서원과 같이 사액 요청
  - \* 서원의 지속을 위하여 사액 요청
- 1566년 6월 예조에서 논의 후 편액과 서책 권장 요청
- 1566년 7월 남계<sup>瀼溪</sup>로 사액
  - \* 노진<sup>盧禎</sup>, 1518~1578, 양희<sup>梁喜</sup>, 1515~1580, 이후백<sup>李後白</sup>, 1520~1578이 사액 과정에서 힘을 보탬

### 남계(瀼溪)의 의미

- 서원 곁 시내의 이름

### (3) 운영

#### 남계서원 원규

- 제생들은 독서할 때 사서오경四書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문호로 삼아 국가가 진작시키고 양성하는 방도를 따르며 성현의 친절한 가르침을 따르라
- 제생들은 견고하게 뜻을 세우고 따르고 향하는 바를 바르고 곧게 하여, 학업을 원대하게 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고 행동은 도의道義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이다
- 제생들은 항상 마땅히 각자 서재에 조용히 거처하며 오로지 독서에 전념하라
- 성균관 명륜당에는 이천伊川 선생의 사물잡四勿箴과 회암晦庵 선생의 백록동규白鹿洞規가 열 가지 가르침, 진무경陳茂卿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이 걸려 있는데, 이것들의 뜻이 매우 좋으니 서원에 여러 벽 위에 걸어두고 서로 경계하라
- 책은 밖으로 내지 말고, 여색을 문 안에 들이지 말며, 술을 빚지 말고 형벌을 사용하지 마라
- 서원의 유사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청렴하고 유능한 품관品官 1인에게 일을 맡기고, 유사儒士 중 일의 이치를 알고 옳은 일을 행하여 사람들이 받들고 따르는 자 1인을 상유사上宥司로 삼되, 모두 2년마다 교체하라
- 제생과 유사는 예를 지켜 서로를 대하고, 공경과 믿음으로 서로 대우하도록 힘써라
- 서원에 속한 사람을 너그려이 돌보아라
- 서원을 세워 선비를 기르는 것은 국가가 문文을 숭상하고 학교를 일으켜 새로운 인재를 일으키려는 뜻이니, 사람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라
- 동몽童蒙은 수업을 받거나 부름을 받지 않으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 임시 원생은 관례 여부에 상관없이 정원은 없고 인재라면 곧 서원에 천거하라
- 서원을 짓기 시작할 때는 영구히 전해지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후에 때때로 고치고 지붕을 이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니 만일 비가 새서 허물어지려고 하면 유사가 곧 관官에 알려 때에 맞춰 수리하라

- 모든 원생 및 서원을 찾은 선비들이 알묘謁廟할 때는 정자관程子冠과 검은 단령團領을 입고 예를 행하라

\* 원규의 앞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함양 남계서원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참고

#### 남계서원 서적 관리[원규]

- 서원의 서책은 서원 안에서 책을 읽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면 일체 빌려주지 말 것
- 서책은 매년 여름이 지난 후 수효를 맞추어보고 햇빛에 말릴 것
- 미진한 조목은 추후에 보강할 것

## 2) 함양 남계서원의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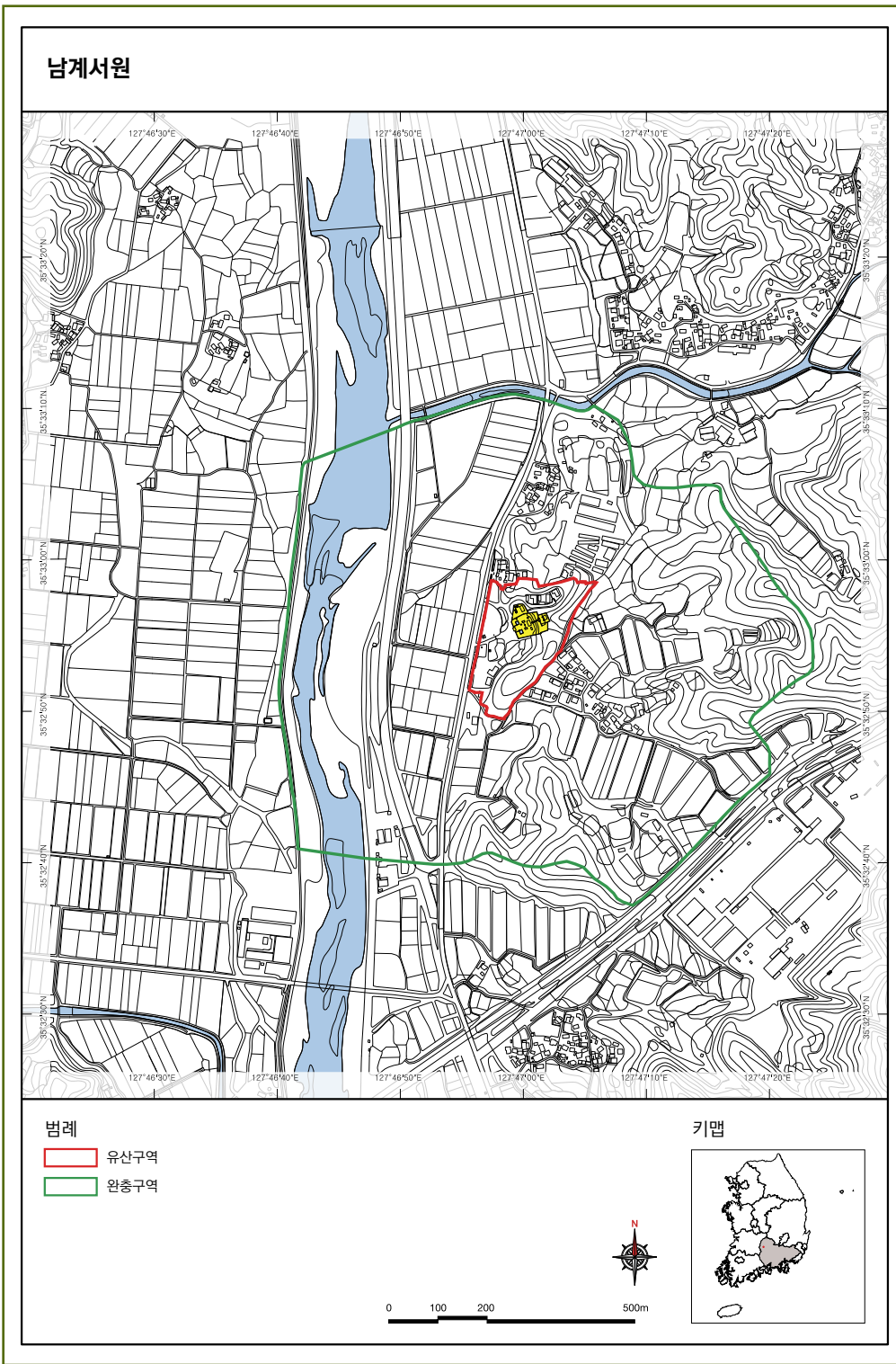
#### 남계서원의 입지

-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
- 연화산 끝자락 전면에 들판이 조성된 탁 트인 경사지에 입지
- 지리산과 덕유산의 중간지역 분지
- 남계천(藍溪川)이 북에서 남으로 흐름
- 서향으로 배치되어 남쪽을 바라보는 입지
- 선현인 정여창의 묘역 및 거주지 부근에 입지



남계서원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 및 인접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



남계서원 건물배치도

- 현재 배치는 1612년에 이루어짐
- 홍살문, 풍영루, 강학공간, 제향공간이 종축선에 맞추어 배치된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배치



## (1) 강학

### 건물

#### 명성당(明誠堂)

- 목적: 유림 모임 및 학문 강론의 장소
- 창건연도: 1561년
- 명성明誠: 『중용中庸』의 밝게 되면 정성스럽게 된다[明則誠]에서 취한 것으로 교육을 통해 참됨에 이르게 한다는 뜻
-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 정면 4칸 강당 구성은 초기 서원에서 주로 보임
- 왼쪽 협실: 거경재居敬齋 / 오른쪽 협실: 집의재集義齋

#### 명륜당 관련 유물

##### 남계서원 현판

- ‘남계濬溪’와 ‘서원書院’을 두 자씩 떼어 별도 현판으로 만듦
- ‘서원’ 현판 끝에 새겨 놓은 ‘가정사십오년병인칠월일嘉靖四十五年丙寅七月日’을 통해 1566년(가정 45년 병인)에 사액 사실 확인

##### 명성당 현판

- 2칸 대청 중 우측 칸의 뒷벽 상부에 있음
- 현판의 글씨는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의 제자 매암梅菴 조식曹湜, 1526~1572이 쓴 것

##### 거경재, 집의재 현판

- 대청 좌우 온돌방 앞에 위치
- 거경居敬: 정자程子의 가르침 거경궁리居敬窮理에서 취한 것으로 몸가짐과 언행을 삼가서 바르게 가지는 것

- 집의集義: 『맹자孟子』의 집의이생集義以生에서 취한 것으로 집의는 적선積善과 같아 옳은 일을 쌓아 기氣를 기르는 것

#### 남계서원기(濬溪書院記)

- 강익이 지은 기문
- 남계서원 건립 과정과 정여창의 학덕을 칭송
- 남계서원이 두 번째로 창건되었다는 사실과 건립을 주도한 서구연, 윤확, 김우홍의 공을 칭송하는 내용 담김
- 『일두집一蠹集』, 『개암집介庵集』 등에 수록

#### 남계서원 춘추향사 집사분정판

배위	사생	학생	존작	봉작	봉로	봉향	사준	장찬	장생	판진설	찬인	집례	대축	종헌관	아헌관	초헌관	향집사분정	남계서원춘추
----	----	----	----	----	----	----	----	----	----	-----	----	----	----	-----	-----	-----	-------	--------



제	학생	존작	봉작	봉로	봉향	사준	판진설	찬인	별묘	존작	봉작	봉로	봉향	사준
---	----	----	----	----	----	----	-----	----	----	----	----	----	----	----



#### 남계서원 원규(院規)

- 13개 조항으로 구성
- 남계서원 운영의 전반을 보여줌
- 내용은 위의 남계서원 원규에서 확인

#### 국기(國忌)판

- 조선 역대 국왕(태조~고종)과 왕비의 기일 나열

## 양정재(養正齋)·보인재(輔仁齋)

- 목적: 학생들의 기숙 및 개인 학습 공간
- 창건연도: 1564년 / 중건연도: 1612년
-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양정養正: 『주역周易』의 몽이양정蒙以養正에서 취한 것으로 어리고 몽매할 때 올바르게 기르라는 교육을 가리킴
- 보인輔仁: 『논어論語』의 이우보인以友輔仁에서 취한 것으로 부족한 인仁을 친구와 서로 권하여 돕는다는 뜻
- 강당 중심으로 기숙사가 배치된 최초의 형태

### 양정재·보인재 관련 유물

#### 양정재 현판

- 16세기 제작
- 온돌방 앞 위치

#### 애련헌 현판

- 양정재의 누마루 위에 위치
- 정여창은 송의 성리학자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영향을 받아 연꽃과 매화를 좋아해서 동, 서재의 이름을 각각 애련헌, 영매헌으로 지음

#### 보인재 현판

- 16세기 제작
- 온돌방 앞 위치

#### 영매헌 현판

- 보인재의 누마루 위에 위치

## 장판각

- 목적: 강학 활동과 연관된 교재, 목판 등 보관
- 중건: 1922년
- 정면 2칸, 측면 각 1칸의 우진각지붕 건물
- 전면 상부 판벽에 호랑이와 까치 그림이 있음
- 보관되어 있던 책들은 현재 함양박물관 소장

### 장판각 관련 유물

#### 부보록(裋寶錄)

- 정유재란 당시 서원이 파괴되기 전까지 서원이 소장한 서적 목록 확인
- 서적의 상당수는 지방관이 기증
- 정유재란 후 서책을 다시 기증 받거나 구입, 판본이 있는 다른 고을에 종이를 보내 찍어 옴
- 수집한 서책의 출처, 서명을 통해 전체적인 현황 확인
- 남계서원 자체적으로 도서 간행 진행

## 묘정비각

- 보인재 남측에 위치
- 정면 및 측면이 각 1칸의 맞배지붕

### 묘정비각 유물

#### 남계묘정비

- 남계서원 제향인물들을 칭송하기 위해 1779년 건립된 비석
- 우리나라 유학과 서원의 내력, 정여창, 강익, 정운의 주요 행적을 기술
- 김종후金鍾厚, 1721~1780가 지음
- \* 자세한 내용은 『함양 남계서원 정밀실증조사보고서』, 『함양 남계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참고



## 교육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서원의 주요 기능
- 서원의 건립과 재건을 주도한 강익은 교육활동에 많은 노력 기울임

## 교육과정

- 강당이 있던 1562년 교육활동 시작
- 초기에는 서원 향사를 지낸 후 유학 경전을 가지고 논변
- 제사의례 후 경전을 강독하는 통독 진행
- 매달 초 제생들을 모아 강독
- 비정기적으로 유명학자 모셔 경전 내용 듣는 강회 진행
- 동재, 서재 완성 후 일정기간 유생들이 기숙하며 집중 교육 진행
- 남계서원의 강회에는 약 20~30명에 달하는 인물이 참석

## (2) 제향

## 배향인물

### 정여창(鄭汝昌)

- 명나라 사신 장영張寧이 정여창을 보고 기특히 여겨 이름을 지어줌
- 자는 백옥伯翕, 호는 일두一蠹, 수옹睡翁, 시호는 문헌文獻
- 일두는 북송의 유학자 정이천程伊川, 1033~1077의 천지간 한 마리 좀벌레天地間一蠹에서 취한 것으로 책만 보는 서생이라는 의미, 겸양의 표현
- 수옹은 잘 조는 노인이라는 뜻
- 저서: 『일두유집一蠹遺集』

### ① 출생

- 본관은 하동河東, 아버지 정육을鄭六乙, ?~1467은 함길도병마우후咸吉道兵馬虞侯, 종3품을 지냈고, 조선 세조世祖, 재위 1455~1468 즉위 때 공을 세워 정난공신靖難功臣에 봉해졌으며, 후에 한성부좌윤漢城府佐尹, 종2품 추증
- 정여창은 1450년 경상도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18세에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던 부친이 전사하자 조정에서는 전례에 따라 정여창을 군직軍職에 서용하려 했으나 사양
- 1472년 23세에 친구 김굉필金宏弼, 1454~1504과 함께 김종직金宗直, 1431~1492에게 수학
- 1486년 37세에 소과 급제
- 1490년 41세에 별시 문과 급제 후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정9품에 보임
- 1491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설서設書가 되어 연산군燕山君, 재위 1494~1506 교육
- 1494년 안읍 현감 재직
- 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유배 후 유배지에서 사망

### ③ 학문

- 경기도 이천에서 일민逸民으로 명망 높던 이관의李寬義에게 수학
- 지리산에 들어가 수학하며 우주의 이치를 궁구하고 사색하여 힘써 실천하는 것 위주의 유학 경향
- 김종직 문하에서 수학하며 김굉필, 김일손金駟孫, 1464~1498, 남효온南孝溫, 1454~1492 등과 교류
- 정감에 호소하는 시詩가 마음을 다스리고 본성을 기르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종래의 사장학詞章學 비판하며 경학經學, 성리학性理學 지향
- 『소학小學』을 강조하며 기본 유교윤리의 실천성 주목

## ④ 평가

- 후대에 불교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받을 정도로 폭이 넓고 유연
- 국가 경영에 필요한 실무에 해박하였음
- 경학은 오경의 뜻을 탐구하되 『중용中庸』, 『대학大學』을 정밀히 공부하여 인정받음

## ⑤ 배향 경위

- 1552년 강익을 중심으로 함양지역 사림이 연산군 때 죽임을 당한 정여창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서원 건립 착수
- 1561년 묘우 완공되고 정여창의 위판 봉안
- 1579년 정유재란시 정경운鄭慶雲, 1556~?이 위판을 묻었다가 온전하게 찾아내 위판 재봉안

## ⑥ 시호 하사 및 문묘종사

- 중종 반정 이후 사회에 연루된 정여창의 신원, 관작복구
- 1575년 문헌 시호 내려짐
- 선조 대에 동방오현東方五賢 문묘종사운동이 벌어지고, 광해군 2년(1610)에 정여창 문묘 종사

## 정온(鄭蘊)

- 자는 휘원輝遠, 호는 동계桐溪, 고고자鼓鼓子, 시호는 문간文簡
- 저서: 『동계집桐溪集』, 『덕변록德辨錄』

## ① 출생

- 본관은 초계草溪, 아버지 정유명鄭惟明은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
- 정온은 1569년 경상도 안음현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어린 시절 스승은 성팽년成彭年, 1540~1594, 임훈林薰, 1500~1584
- 1592년 24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친과 함께 의병 활동
- 1599년 31세에 정인홍鄭仁弘, 1536~1623과 사제의 연을 맺고 남명학통에 입문
- 1606년 진사시 급제, 1610년 별시문과 급제 후 시강원설서侍講院設書,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정6품을 역임
- 임해군臨海君, 1572~1609 옥사 때 목숨을 살리자는 전은설全恩設 주장, 폐모살제廢母殺弟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제주도로 유배
-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즉위 후 대사간大司諫, 정3품, 대제학大提學, 정2품 등 청요직 역임
-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당시 화친을 비판하며 결사항전 주장
- 1637년 인조의 항복 소식을 듣고 자결 시도했으나 실패 후 은거
- 1641년 사망

## ③ 학문

- 안음 지역은 정여창, 조식, 임훈으로 이어지는 학통에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정온도 이를 계승, 퇴계학파의 입장도 수용

- 관직 출사와 상관없이 지경持敬을 지향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서 수기修己를 실천
- 사서육경, 『소학小學』, 『근사록近思錄』, 『주자가례朱子家禮』 등의 주자학 텍스트 공부하며 이를 실천과 결부시켜 덕성과 인격 함양에 주안점

#### ④ 평가

- 출사 후 엄정한 태도로 곧은 말을 잘함
- 효도와 충성을 다하며 곧은 도로써 실천하여 인륜을 세움

### 강익(姜翼)

- 자는 중보仲輔, 호는 개암介庵, 송암松庵
- 저서: 『개암집介庵集』

#### ① 출생

- 본관은 진주晉州, 아버지 강근우姜謹友는 승사랑承仕郎, 경기 참봉 지냄
- 강익은 1525년 함양군 동쪽 효우촌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부친의 권유로 정희보鄭希輔의 문하에서 수학
- 조식曹植, 1501~1572 문하에서 수학
- 1549년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재사(齋舍)나 누정을 만들고 선비들과 교유하며 학문에 전념
- 30세 전후로는 그의 명성을 듣고 온 제자들 교육, 후학양성
- 정여창을 경모하여 남계서원 건립을 추진하고, 건립 후에는 남계서원에서 유생 교육
- 45세에 소격서참봉昭格署參奉을 제수 받았으나 병이 깊어져 사망

#### ③ 학문

- 공부에 전념하고 자질이 뛰어나 책 한권으로도 문리가 통할 정도
-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학문을 지향함으로써 인간 본성을 발현하려는 실천적인 경향이 강함
- 개인의 성찰을 통한 수기修己의 실천을 중시

#### ④ 평가

- 용이 날고 봉황이 우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능한 것과 같음
- 사람됨을 인정받아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평가
- 몸가짐이 간명하고 진중하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온화하고 일정하였음
- 배운 후 스스로 능히 분발하여 깨달았고, 성리학을 공부하여 원천을 탐구

## 건물

### 사우

- 제향인물의 위패가 봉안된 곳
- 정면 3칸, 측면 한 칸 반의 맞배지붕 건물
- 대부분의 서원에는 당호堂號가 있지만 남계서원의 사당에는 없음

### 전사청

- 목적: 제향과 관련된 제기 보관, 제향 준비용 건물
- 정면 3칸, 측면 1.5칸의 맞배지붕 건물
- 좌측 1칸은 우물마루 바닥, 중앙칸은 온돌, 우측 1칸은 부엌으로 구성



## 의례

### 남계서원 향사(享祀)

- 정여창의 유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목적
-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sup>中丁日</sup>에 춘추향사 거행
  - \* 중정일: 한 달 중 십간의 정<sup>丁</sup>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 매월 초하루, 보름 분향례 거행
- 정여창을 주향으로 모시고, 정온과 강익을 좌우에 배향

### 남계서원 분향례(焚香禮)

- 내·외임 유사<sup>有司</sup>들이 하루 전날 서원 입재
- 날이 밝기 전 사당에 올라 예를 올림
- 주향을 시작으로 3위에 차례로 분향 후 한꺼번에 재배

### 남계서원 향사 준비

- 매년 음력 2월, 8월 중정일 오전 5시 거행
- 명성당에서 원회<sup>院會</sup>가 소집되어 헌관 및 주요 제관 선출
- 제관 선임 후 제관선정기를 강당에 붙여 공고

#### ① 제수 구입

- 유사가 향사 이틀 전 품질이 좋고 정갈한 제수 구입
- 가격을 흥정하지 않음

#### ② 제물 근봉

- 고직사에서 제물 손질 후 주향위, 종향위 구분하여 근봉<sup>謹封</sup>

#### ③ 입재

- 제사를 앞두고 음식과 행동을 조심하며 재계
- 본래 향사 3일 전에 입재하였으나 지금은 전일 입재
- 입재 후 서원 밖 출입 통제

#### ④ 제관 분정

- 유고가 없으면 지난 원회에서 선임한대로 분정

#### ⑤ 성생례(省牲禮)

- 제관들이 제향에 올릴 희생<sup>犧牲</sup> 감정
- 대축이 돼지가 희생으로서 충분한지 세 번 물으면 초헌관이 세 번 답함
  - \* 축이 충<sup>充</sup>하고 세 번 물고, 헌관이 돌<sup>臚</sup>이라고 하여 충분히 살쥔다고 답함, 서원에 따라 질문하는 제관과 충, 돌의 질답 순서가 바뀌기도 함

#### ⑥ 제수 감정

- 근봉한 제수를 풍영루 2층 다락으로 옮겨 진설 전 품목과 상태 최종 점검

#### ⑦ 사축(寫祝)

- 입재 당일 해가 지기 전 대축이 사당 앞 월대 위에서 축문 작성

#### ⑧ 진설(陳設)

- 제수를 제기에 담고 법식에 맞게 제상 위에 차리는 것
- 향사 전일 오후 6시 제수를 사당으로 옮김
- 문헌공위, 정온위, 강익위 순으로 진설

## 남계서원 향사 절차

- 당일 오전 3시 제관들이 기상하여 세수하고 의관 정제
- 유사가 향사의 마지막 준비 완료
- 강당에 모여 오전 5시 상읍례를 행하고 향사 시작

### ① 초헌례(初獻禮)

-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림
- 남계서원에서는 향을 올리고 신주 앞에 폐백을 드리는 전폐례(奠幣禮)와 함께 진행

### ② 아헌례(亞獻禮)

- 신위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림

### ③ 종헌례(終獻禮)

- 신위께 세 번째 술잔을 올림

### ④ 음복수조(飲福受胙)

-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 맛봄

### ⑤ 철변두(撤籩豆)

-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둠
- 의례가 끝난 후 제관들이 명성당에 모여 개좌하여 별도의 음복 없이 향사에 대한 간단한 평가

## 남계서원 향사의 특징

- 매월 삭망 분향례를 유사가 전일 입재하여 행함
- 춘추향사에서 제관들이 전일 입재하여 향사준비를 옛 법식에 맞추어 행함
- 초헌례 때 전폐례와 헌작례를 함께 행함

\* 자세한 사항은 『서원향사』 남계서원 참고

## (3) 교류와 유식

- 교류와 유식 공간은 유산을 둘러싼 자연과 통하는 공간으로서 정자, 누마루 등으로 구성
- 서원과 서원, 유학자와 유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
- 유식 공간으로써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등 보다 자유로운 학습 공간

\* 남계서원은 유식 공간의 개념을 구현한 최초의 서원

## 건물

### 풍영루(風詠樓)

- 출입문 및 회합과 유식의 기능
-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 풍영: 『논어(論語)』에 ‘기수(沂水)에 가서 목욕하고 무우(舞雩), 제단에서 바람 쐬고 시를 읊조리며 돌아오겠다’는 것에서 취함
- 1847년 화재로 소실, 1849년 중건, 1937년 대대적 수리
- 서원 건축에서 누마루가 보편화 되었던 18세기 이르러 건립
- 창건 당시에는 ‘준도문(遵道門)’이라고 불리며 출입문의 기능만 한 것으로 추정

**풍영루 관련 유물**풍영루 현판

- 풍영루 정면 어칸 상부처마 아래 위치

준도문 현판

- 누각 배면, 어칸 상층 처마 아래 작은 현판
- ‘준도<sup>遵道</sup>’: 군자는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도를 좇아 행한다는 의미

풍영루기(風詠樓記)

- 1841년 정여창의 후손 정환필<sup>鄭煥弼</sup> 지음
- 1840년 풍영루 증축을 결정하고, 이듬해 6월 완공한 사실을 담고 있음

풍영루중건기(風詠樓重建記)

- 1849년 기정진의 기문
- 풍영루에 올라서 느끼는 기상을 정여창의 기상으로 비유
- 1847년 화재를 입은 풍영루를 1849년 중건한 사실을 기록

풍영루중건기(風詠樓重建記)

- 1937년 낡은 풍영루를 고쳐 지은 것과 기문을 작성하게 된 내력 기재
- 1940년 민병승<sup>閔丙承</sup>, 1865~1947 작성

애련헌(愛蓮軒)·영매헌(詠梅軒)

- 양정재와 보인재의 1칸을 누마루 형식으로 만들
- 사람들 간의 화합과 유식을 위한 공간

**연당**

- 유식 기능을 목적으로 인공 조성한 연못

\* 자세한 사항은 『함양 남계서원 정밀실측조사보고서』, 『함양 남계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참고

**(4) 기타 시설****고직사**

- 서원의 보존관리 및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는 이들이 기거하던 곳
-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홍살문 & 하마비**

- 남계서원의 입구를 나타냄
- 홍살문은 서원이 신성한 구역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문
- 하마비는 이 앞을 지날 때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내용

**3) 함양 남계서원의 특징**

-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서 재사 앞에 1칸의 누마루 형식으로 만든 애련헌, 영매헌
- 경상남도에서 훼손을 면한 유일한 서원
- 16세기 후반 왜군에 대한 의병 활동을 주도한 서원
- 서원으로서는 드물게 강당을 정면 4칸으로 구성하고 양쪽 협실을 두었음
- 강당 대청 정면에 걸린 남계서원의 현판도 남계, 서원 두 자씩 떼어 별도 현판으로 구성
- 처음에는 서원의 출입문이었던 준도문을 후대에 누각 형식의 풍영루로 개축
- 서원 앞을 흐르는 남계천<sup>南溪川</sup>
- 당호가 없는 사우



## 2. 함양 남계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 지역유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건립된 서원

- 1552년에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
- 최초로 지역의 사람들이 주도하여 서원 건립 및 운영
- 건물을 위계적으로 배치, 전학후묘前學後廟라는 한국 서원의 독창적 건축 배치 정형 제시
- 조선시대 명현名賢을 봉사한 최초의 서원
- 제향-강학-교류와 유식공간 영역을 구분하여 하나의 축선 상에 일렬로 배치
- 최소한의 공간구성을 통해 서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창건 및 사액 : 1552년 건립 / 1566년 사액**

**주향 인물 : 정여창(鄭汝昌, 1450-1504)**

### 주요 특징

#### - 구성 및 입지

- 제향-강학-교류-유식으로 구성된 상하 축선 배치형식을 최초로 제시함. 전면에 임야와 하천인 남계를 바라보는 야경野景 입지의 전형을 제시함

#### - 특징

- 한국 서원 중에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인 사람이 주도하여 최초로 건립되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건립·운영한 사립학교로서의 전형을 제시함
- 풍영루 / 남계서원의 건립 당시에는 서원 입구에 누마루가 존재하지 않고, 재사 누마루 앞마당에 연지蓮池를 조성함. 19세기에 이르러 별도의 누각인 풍영루가 건립되어 사우-강당-누마루로 한국 서원의 정형을 구성함. 입구 누각의 도입 등 서원 배치의 변화 양상을 보여줌.

### 지정문화재

#### - 시도지정 2건(유형문화재 2건)

- 일두선생 문집 책판(시도지정문화재)·개암선생 문집 책판(시도지정문화재) : 남계서원의 배향 인물인 정여창과 강익의 문집 책판. 서원은 제향·강학 뿐만 아니라, 출판의 중심지로 기능함. 특히 서원에서는 배향인물의 행적과 유문을 수집·간행하였는데, 남계서원의 문집 목판은 이러한 증거임

남계서원 지정문화재

서원	종별	지정	명칭	구분	지정일
남계서원	국가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부동산	2009.05.26.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66호	일두선생 문집 책판	동산	1979.12.29.
		유형문화재 제167호	개암선생 문집 책판		1979.12.29.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 교재

- 옥산서원 -





# 목차

들어가며	04
------	----

1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

1. 유네스코와 유산	10
-------------	----

- 1) 유네스코와 유산
- 2) 유산 해석과 설명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6
------------------	----

- 1) 서원의 이해
- 2) 세계유산 가치
- 3) 등재 과정

2부 경주 옥산서원	
------------	--

1. 경주 옥산서원 개요	40
---------------	----

- 1) 경주 옥산서원의 역사
  - (1) 건립
  - (2) 사액
  - (3) 운영
- 2) 경주 옥산서원의 공간 구성
  - (1) 강학
  - (2) 제향
  - (3) 교류와 유식
  - (4) 기타 시설

- 3) 경주 옥산서원의 특징

2. 경주 옥산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66
---------------------	----



# 들어가며

## 일러두기

-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재
- 심화학습 자료, 관련 사이트는 QR코드를 참고

## 범례

-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서원을 지칭하고, 서원은 조선에서 세워진 서원을 통칭함



## ‘한국의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 / 사액 연도	주향 인물	비고
영주 소수서원	1543년/1550년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사적(1963)
함양 남계서원	1552년/1556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사적(2009)
경주 옥산서원	1572년/1574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사적(1967)
안동 도산서원	1574년/157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사적(1969)
장성 필암서원	1590년/1662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사적(1975)
달성 도동서원	1605년/1607년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사적(2007)
안동 병산서원	1613년/1863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사적(1978)
정읍 무성서원	1615년/1696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사적(1968)
논산 돈암서원	1634년/1660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사적(1993)



##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이해

### 전담해설사 제도의 목적

-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으로서 성격 소개
- 각 서원의 역사, 건축적 성격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연속유산인 9개 서원 이해, 해당 내용을 방문객에게 비교·전달

### 전담해설사 정의와 역할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정된 ‘한국의 서원’만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자, 하나의 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을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표준교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필요한 지식과 실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력

### 전담해설사 필요역량

- 방문객의 국적, 연령, 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해설을 제공
- 유산의 각 공간에서 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각 서원은 개별적으로 중요한 국내 유산이며 동시에 9개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세계 유산의 일부임
- 유산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되 지식과 정보의 일방적 주입 지양
- 해설 목적은 방문객과 유산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 근거 있는 정보 수집 경로 제시





#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1. 유네스코와 유산

## 1) 유네스코와 유산

### 유네스코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
-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 세계무형문화유산

-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로서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름
-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

### 세계기록유산

-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
-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단독 기록이거나 기록의 모음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

※ 근거: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 **완전성과 진정성** 개념을 충족했는지
  -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보호관리계획**을 갖추었는지
- \* 등재 기준, 진정성과 완전성,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

### 완전성(Integrity)이란?

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특성에 대해 전체, 본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 진정성(Authenticity)이란?

본래 또는 역사의 과정에서 지니게 되는 가치에 대한 진실성,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것

### 세계유산 구역: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범위
- 유산구역: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역
- 완충구역: 유산구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며 인접한 주변 환경과 중요한 경치 등 포함

## 세계유산 등재 기준

구분	등재 기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에 의한 <b>결작</b>
	(ii)	일정한 기간,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b>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b>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b>독보적인 증거</b>
	(iv)	<b>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b> 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
	(v)	하나(혹은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b>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b> 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b>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b>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독보적인 <b>자연미</b> 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의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특징물 등 <b>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b>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b>생태적·생물학적 과정</b> 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x)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b>멸종 위기 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b> 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

- 등재 기준 중 (i)부터 (vi)까지는 문화유산, (vii)부터 (x)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됨,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세계유산협약이란?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약자
- 유네스코가 1872년 11월 제17차 총회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협약

## 세계유산협약의 배경

- 인류가 이룩해 온 역사적 유산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
- 1950년대 이집트에서 전력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 하이댐의 건설을 시도하면서 아부심벨 신전 등 고대 이집트 유적이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 세계유산제도 시행의 결정적 계기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

- 세계유산목록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유산 등재
- 세계유산의 보호와 보존
- 세계유산기금 하의 국제지원 공여
- 협약에 도움이 되는 국내 및 국제적 지원의 확보

※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세계유산협약 전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2) 유산 해석 Interpretation 과 설명 Presentation

### 세계유산의 ‘해석’

-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인 활동
-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쇄물, 전자출판, 강의,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등이 포함

### 세계유산의 ‘설명’

- 해석 정보의 배열, 사람들의 접근 방식, 해석 시설 구조 등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잘 디자인하여 전달하는 것
- 현장에서의 소통에 중점
- 박물관 전시, 정형화된 투어, 안내 프로그램이 포함

### 유산 해석 등장 배경

- 유산의 다양한 형태, 가치를 함께 고려
- 전문가 관점에 국한되지 않은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 유산 가치 중요

※ 해설사 = 중요한 이해관계자

### 유산 해석·설명 의 국제적 담론

- 프리먼 틸든의 해석 6원칙(1957)
- 에나메 헌장(2008)
- 현 시대에 맞는 유산 해석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문화유적지의 해석과 설명에 관한 ICOMOS(이코모스)<sup>1</sup> 헌장

1.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약자로 국제기념물협의회라고도 칭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

### 프리먼 틸든의 ‘우리의 유산 해석하기’ (1957)

1. 좋은 해석은 방문객의 경험이나 사고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2. 정보 그 자체는 해석이 아니지만, 반드시 정보에 바탕을 한 내용이어야 한다.
3. 해석은 과학, 역사 및 건축이 접목된 종합 예술이다.
4. 해석이 주된 목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5. 해석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전달해야 한다.
6.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석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해석을 단순화해서 만들면 안 된다.

### 해석과 설명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

1. 접근과 이해 향상(Access and Understanding)  
: 대중들의 해당 유적지에 대한 지적, 물리적 접촉이 쉬워야 함
2. 정보의 확실한 출처(Information Sources)  
: 검증된 과학 학술적 방법, 살아있는 문화 전통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에 기초해야 함
3. 환경과 맥락의 중요성(Setting and Context)  
: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맥락과 주변 환경을 연관시켜야 함
4. 진정성의 보존(Preservation of Authenticity)  
: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sup>2</sup> 정신에 입각한 기본 원리 존중해야 함
5. 지속성에 대한 계획(Planning of Sustainability)  
: 사회적, 재정적, 환경의 지속성 중 주요 목표들과 함께 유적지의 자연적 문화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
6. 포용성에 대한 고려(Concern for Inclusiveness)  
: 전문가, 소유자와 관련 공동체, 이해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협력의 결과물이어야 함

2. 나라문서(1994):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보존과 관련된 문화 다양성,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대한 필요성 언급

##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1) 서원의 이해

#### 서원이란?

-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
-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 선현先賢 제사,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
-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 지역 문화 선도

#### 서원의 기원

-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 재위 712~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담당한 '여정서원'이 최초
-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 제사기능,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
-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 1130~1200가 세운 '백록동서원'은 학규,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
-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모티브

#### 한국에서 서원 성립

-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 국학(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육 권장

-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저하,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
-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 중국의 서원 제도 주목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 건립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 확산

#### 서원의 구성원: 사람

- 향촌 지식인집단
-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
-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
- 관련 자료: 『원장안院長案』,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등

구성원

구분	역할
원장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의 일 총괄</li> <li>•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 관리 주체</li> <li>• 임기는 1~2년, 대체로 연임 허용</li> </ul>
원임院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li> <li>•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로도 불림</li> <li>• 서원 내 규찰, 재정 문제 담당</li> <li>•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li> </ul>
원생院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li> <li>•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 통해 최종 선발</li> <li>•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li> </ul>

## 서원의 규약(規約)

- 원규院規 : 강학 제향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
- 학규學規, 강규講規 :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
- 절목節目 :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세칙
- 완의完議, 입의立議 :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 서원의 재정

- 대체로 지역 사람의 자발적 출연 통한 토지, 노비,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
- 사액서원에는 서적, 토지, 노비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
- 관련 자료: 『전답안田畓案』, 『노비안奴婢案』,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 서원의 주요 기능: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 강학

- 성리학 교육을 통한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 개별학습인 독서,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
-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
-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
- 강학 활동은 ‘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과 ‘공식적·의례적강학으로서 강회講會’로 구분

### 강학의 종류

구분	내용
거접居接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문회文會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
거재居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순제旬題	지방의 향교鄉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통독通讀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향사 후의 강회講會	향사享祀를 지낸 후, 「백록동규白鹿洞規」나 「여씨향약呂氏鄉約」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講生들이 강장講長 앞에서 진강進講을 하는 순서로 진행. 진강을 하는 방식은 씨[姓: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추첨 기구]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

### 강학 의례

구분	내용
흥미를 갖춘 공식적 의례	정음례庭揖禮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 음례揖禮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
	상음례 큰 음揖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강습례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陳設;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침배瞻拜;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상음相揖;서로간 음례를 거행함-승당升堂;당에 오름-독규讀規;규약을 읊음-배독拜讀;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진강進講-예필禮畢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경독 敬讀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 <sup>白鹿洞規</sup> , 사물잡 <sup>四勿箴</sup> , 심잠 <sup>心箴</sup> , 경재잠 <sup>敬齋箴</sup> , 숙흥야매잠 <sup>夙興夜寐箴</sup> 을 낭독하는 것이다.
관습적 의례 개접례, 입접례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파접례, 후접례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귀가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수창시	수창시는 ‘회강’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 제향

-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
-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 정신 이어나갈 것을 다짐, 결속 다지는 기회

### 제향의 종류

구분	명칭	시기
정기	춘추 향사	매년 봄·가을
	삭망례	매월 초하루, 보름
	정알례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6일
비정기	이안제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환안제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위안제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예성제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사액례	사액을 받을 경우
	치제	국가에서 제관 보내어 지내는 경우



입재



성생례



집사분정



분향례



사우입장



제물근봉



초헌례



중헌례



철변두



파제



향약낭독



음복례

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



## 교류와 유식

- 교류<sup>交流</sup>: 서원의 구성원, 서원에 방문한 명사,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 물질 교류
- 유식<sup>遊息</sup>
  -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 『예기』 권17, 학기 18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sup>藏修</sup>: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
  -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양성 방식의 일환.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sup>品格</sup>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
-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
-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
-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
- 해주향약, 남전향약, 예안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
- 관련 자료: 『심원록』 등

##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

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

### 성립과 발전 과정

#### 중국 서원(書院)

- 남송 시기 관학 쇠퇴와 과거제도 부패 비판하며 흥성
- 남송 이후 과거시험과 관련된 관학의 보조적 성격으로 전환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으로 변모



#### 일본 시주쿠(私塾)

- 17~19세기 걸쳐 유학에 기반을 둔 고등 교육기관으로 설립
- 설립자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의학, 산학, 서양학문도 함께 교육
- 중국, 한국에 비해서 유학이 제도,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과거제도가 없어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형태로 발전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 대학으로 발전



#### 한국의 서원(書院)

- 16세기 중반 태동, 지역 성리학 집단인 사림<sup>士林</sup>의 주도로 성장
- 관학적 성격이나 국가의 관료선발과정에 관련되지 않음
- 19세기 말 교육 기능 종료까지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일관적으로 운영
- 근대화 과정에서도 명맥 유지

## 사회적 기능

### 중국 서원

- 송 시기 학문 중심기구, 여론 형성기구
- 점차 관학 보조기구로 정착되며 정치, 사회활동 성격 약화

### 일본 시주쿠

- 유학이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되지 못하여 포괄적 기능 수행에 한계
- 사숙 출신 학생이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사상 선도

### 한국 서원

- 지성 활동, 공론 형성이라는 실천적 성격
- 공론을 국가에서 억압하거나 규제하지 않음
- 성리학 이념에 기반을 둔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 제정하여 향촌 교화

## 건축물 배치

### 중국 서원

- 강학, 제향, 장서루로 구분되어 구성
- 특히 장서루 공간이 크게 발달되어 중시
-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이 상호 대등한 위치 차지하며 관계 자유로움
- 앞쪽 경계에 반수(泮水)로 이루어진 인공적 조경에 의존
- 건축 배치 정형을 규정하기 어려움



중국 백록동 서원 반수

### 일본 시주쿠

- 정형화된 배치 및 건축 형식 없음
- 제향기능을 갖추지 않음
- 단일 건물 사용하여 기능별로 공간 구획

### 한국 서원

- 공유된 건축 정형 갖춤
-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을 하나의 축선 상에 위치시켜 유기적 연결
- 제향 공간인 사우를 높은 위계건축으로 형성
- 자연지세를 활용한 독특한 한국적 건축기법

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

		한국의 서원	중국의 서원	일본의 시주쿠
도입 시기		16세기	7세기	17세기
설립 목적		성리학 지식인 양성 지역 기반 선현 제향	유학 지식인 양성 → 관료 양성 관학 보조	지식인 양성
교육 대상		지역 유생	제한 없음	무사, 가신 그룹
교육 학문		성리학	유학	유학,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 다양
제향	인물	지역단위 선현	주로 공자 등 성현	크게 중시하지 않음
	의례	현재까지 존속	일부 서원만 유지	
사회적 기능		지역 공론 중심지 지역 교화 중심지	국가정책 따라 변동	근대사회 전환 기여
건축	입지	제향인물 연고지 자연 경관 고려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등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기능	제향-강학-유식	강학-제향-장서	강학
	구성 요소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반지 과거합격 비석군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배치 유형	공통의 배치 유형 존재	서원별 개별성 강함	단일건물 중심
	경관 구성	자연친화적 개방과 관입 구현	인위적 폐쇄적	인위적 폐쇄적
	지역성	좌식 생활 구조 온돌, 마루의 조화	입식 생활 구조 의자, 화로	좌식 생활 구조 다다미, 화로

##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 성균관(成均館)

- 중앙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최고 교육기관
- 공자<sup>孔子</sup>와 그의 제자를 비롯한 중국 현인<sup>賢人</sup>들과 우리나라 현인을 제사지내는 문묘, 강학 공간인 명륜당 갖추

### 향교(鄕校)

- 지방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주로 향촌에 가까운 곳에 입지
-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문묘, 명륜당 갖추



서원과 향교, 성균관 비교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 주체	사림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포	지역별 다양	군현별 1개	수도에 1개
설립 목적	인성교육 선현제향 사림 활동 기반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사회적 역할	지역 공론 형성 지역 문화 교류		유생 공론 형성
입지	제향 대상과 관련 교육 목적에 부합	지방 행정 중심지	수도
구성 요소	사우(선현),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유형	제향-강학-교류, 유식	강학-제향	강학-제향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



서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어득강(魚得江, 1470~1550)의 상소

## 2) 세계유산 가치

###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 등재 기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충족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
-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 토착화되는 과정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

####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

####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
- 활용과 기능,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
-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무형유산,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

## 보호 및 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증축,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

##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 연속유산이란

-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
-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

## ‘한국의 서원’ 입지 특성

###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

-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sup>先賢</sup>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
-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
-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 관련

## 수려한 주변 경관

-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
-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
-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
- 특히 정자,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

## ‘한국의 서원’ 건축 특성

### 보편성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건립되며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
-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
- 대부분의 서원은 아래와 같이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

### 독자성

-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
-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
-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 건축 구조 형성

## 공간 구분

### 제향공간

- 건물: 사우, 전사청, 제기고 등
-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
-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 별도 출입문 설치
  - 사우: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
  - 전사청: 제물,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
  - 제기고: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

### 강학공간

- 건물: 강당, 재사, 장서각, 장판각 등
-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
  - 강당: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
  - 재사: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 서재로 구성, 학생들의 기거 공간
  - 장서각, 장판각: 목판이나 도서 보관

### 교류와 유식공간

- 건물: 누각, 정자 등
- 누각은 누정,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좌식공간관습 가지는 한국의 건축 전통과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결합된 건축형식
- 연못,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

## 기타

- 고직사, 교육시설, 하마비, 홍살문, 기념비 등
- 하마비,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
  - 고직사: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
  - 교육시설: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 전통 건축기법 토대로 건립
  - 하마비: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
  - 홍살문: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



## ‘한국의 서원’ 서원별 세계유산가치

서원명	세계유산가치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로 건립된 서원</li> <li>강학,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li> </ul>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li> <li>사당과 강당이 일렬로 배치되는 서원 건축의 정형적 배치방식</li> </ul>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li> <li>누마루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li> </ul>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li> <li>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li> </ul>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li> <li>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규,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li> <li>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안동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li> <li>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li> </ul>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li> <li>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li> </ul>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li> <li>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li> </ul>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 3) 등재 과정

### 등재 추진 배경

- 서원이 건축, 공간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적 가치도 우수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

### 추진 관련 기관

- 2010년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 2012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발족
- 2015년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출범

### 1차 등재 추진 경위

- 2011년 12월 한국의 9개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sup>1</sup>
- 2015년 1월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유네스코에 제출
- 2015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 현지 조사 후 철회 권고
- 2016년 4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철회

1. 1871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과 사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 충족 여부 확인하여 9개 서원 선정

# 등재 재추진 경위

- 2016년 8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 의결
- 2018년 1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 2018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의 현지 실사
- 2019년 5월 이코모스 평가결과 등재 권고
-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확정



# 02

경주 옥산서원





# 1. 경주 옥산서원 개요

주요 내용은 『경주옥산서원 종합정비계획』, 2014 참고

## 1) 경주 옥산서원의 역사

### (1) 건립

#### 건립 배경

-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추송
- 성리학의 도통이 확정되고 이언적이 동방사현彦東方四賢으로 추존
  - \* 동방사현은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김굉필 후에 이황이 추가되어 동방오현
- 1569년 시호 하사 후 명종 묘정廟廷 배향
- 1610년 문묘文廟 배향되며 영향력 증대
- 이언적에 대한 신원과 추증 과정에서 옥산서원 건립 추진

#### 건립 과정

- 경주부윤慶州府尹 이제민李齊閔, 1528~1608이 13개 고을의 바람을 채납하여 서원의 터를 정한 후 경상감사慶尙監司에게 서원 세우기를 청함
- 경상감사 임열任設, 1510~1591이 예조에 장狀을 올림
- 1572년 2월 역사 시작하여 8월에 완공
- 사우祠宇, 강당, 동재·서재, 전면의 누樓까지 40여 칸
- 1573년 서악西岳 향현사響賢詞에서 이언적의 위패를 옮겨와 봉안
  - \* 일반적으로 서원에는 연혁을 기록한 『고왕록考往錄』이 있는데, 옥산서원에는 19세기 『고왕록』 1권만 전함

## 옥산서원 재정 마련

- 경주부의 여유 재정을 주로 지원, 고을의 원로, 선비들이 힘을 보탬
- 경주부윤 이제민은 인근의 정혜사定惠寺, 두덕사斗德寺 및 사기沙器, 수철水鐵, 야철冶鐵 각 점店을 서원에 소속시켜 경제적 기초 마련
- 이제민의 후임 박승임朴承任, 1517~1586은 서원 창건에 쓰이는 목재 등 기부
- 관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경주사람들의 협력 하에 경주에 서원전을 둠
- 이언적의 서손庶孫 이준李濬이 청도와 밀양의 땅 기부
- 1478년 고직庫直, 도척刀尺, 반모飯母 각 1구와 속공노비 이속

### (2) 사액

#### 옥산서원 사액

- 1573년 경상감사 김계휘金繼輝, 1526~1582가 사액 및 서적 하사 요청
- 편액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산해李山海, 1539~1609가 교서 받들어 씀
- 1574년 5월 현판 게액
- 1839년 강당인 구인당의 화재로 편액 소실 후 다시 사액 받음, 당대의 명필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씀

#### 옥산의 의미

- 자옥산紫玉山 기슭에 서원이 건립되어 명명

### (3) 운영

#### 옥산서원 원규

\* 이산서원 원규를 모범으로 하되 소수서원 원규 차용

\* 옥산서원의 당대 사안에 맞게 수정하여 별도의 조항 신설

- 제생들은 독서할 때 사서오경四書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문호로 삼아 국가가 진작시키고 양성하는 방도를 따르며 성현의 친절한 가르침을 따르라
- 제생들은 견고하게 뜻을 세우고 따르고 향하는 바를 바르고 곧게 하여, 학업을 원대하게 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고 행동은 도의道義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이다
- 제생들은 항상 마땅히 각자 서재에 조용히 거처하며 오로지 독서에 전념하라
- 까닭 없이 알리지 않고 자주 출입해서는 안 된다
- 성균관 명륜당에는 이천伊川 선생의 사물잠四勿箴과 회암晦庵 선생의 백록동규白鹿洞規가 열 가지 가르침, 진무경陳茂卿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이 걸려 있는데, 이것들의 뜻이 매우 좋으니 서원에 여러 벽 위에 걸어두고 서로 경계하라
- 제사를 공경히 할 것, 어진 이를 예우할 것, 건물을 보수할 것, 창고(물자)를 채울 것, 책을 점검할 것
- 학문을 업으로 하는 사람 중 믿음직하고 언행과 몸가짐을 삼가는 사람 1인을 특별히 선택하여 원장院長으로 삼음, 또 1인을 택하여 두 번째로 삼아 함께 서원의 일을 주관토록 하라
- 서원에 들어오는 선비는 사마司馬, 초시 입격자 순으로 하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문을 향한 태도와 행동이 있는 자로서 입학을 원하면 유사가 사문에게 아뢰고 맞이
- 『입원록入院錄』을 별도로 두어 서원에 들어오는 모든 선비가 반드시 스스로 성명, 들어와서 머무른 연·월·일을 기록하게 하라
-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의 자제들이 머물면서 폐를 끼치거나 서책을 멋대로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 활쏘기나 잔치하고 노는 것을 금한다
- 역을 면제시켜 수직守直하는 집은 누구도 일을 시킬 수 없고, 관官에서도 박탈할 수 없다
- 무릇 서원 소속은 공적인 일이 아니면 공물公物을 사적으로 쓰지 말라
- 원생 중 춘추향사春秋享祀 때 까닭 없이 불참하는 자는 사문斯文에서 엄중히 벌하라(옥산서원만의 규정)
- 무릇 서원의 일을 하는 자가 혹 맡은 바를 근면하게 하지 않거나 혹 재물을 지킴에 청렴하지 않으면 사문斯文에서 함께 논의하여 그를 쫓아내라(옥산서원만의 규정)
- 서원의 책 및 기물은 일체 서원 문을 나갈 수 없다
- 무릇 관례를 치르지 않은 자가 재사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여 기와를 훼손하고 벽에 금을 긋고 서책에 점을 찍어 더럽히도록 하지마라

#### 옥산서원 원임(院任)

- 옥산서원 원임 명단 『수부임안首副任案』은 원장을 수임首任, 유사를 부임副任으로 표기
- 현전하는 고문서와 『집사기執事記』에는 원장, 유사로 표기
- 17세기부터 원장, 유사 외에 별유사別有司인 전곡유사典穀有司를 둠
- 원장(수임): 향대부鄉大夫와 성내省內에 관작官爵이 있는 자로서 선출
- 유사(부임): 별열閥閥로서 재행才行을 겸비한 자로 선출

#### 1755년 옥산서원 운영

\* 1755년 경주 옥산서원 당중 완의完議

- 재주와 학문이 있는 선비를 선발할 때는 『중용中庸』, 『대학大學』, 『소학小學』, 『가례家禮』를 암송하는 시험을 본 후에 이름을 유적儒籍에 올리도록 한다
- 재실과 사우는 훼손될 때마다 고치는 것은 서원에서 급한 일이다
- 주산主山과 안산案山, 왼쪽의 용과 오른쪽의 호랑이 자리의 소나무 숲에서는 나무하는 일을 금하라

- 날마다 쓴 것을 모두 계산하고 재임(齎任)이 매월 초하루에 바로잡아서 수임에게 나아가 감사 받는다
  - 간소(刊所)의 곡물은 비록 적더라도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 송사 중인 사람은 서원 문에 출입할 수 없다
  - 절기마다 노비를 추쇄(推刷)하는 것은 일을 맡은 자의 제일의 급무이다
- \* 원규의 앞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 참조



1755년 경주 옥산서원 당중 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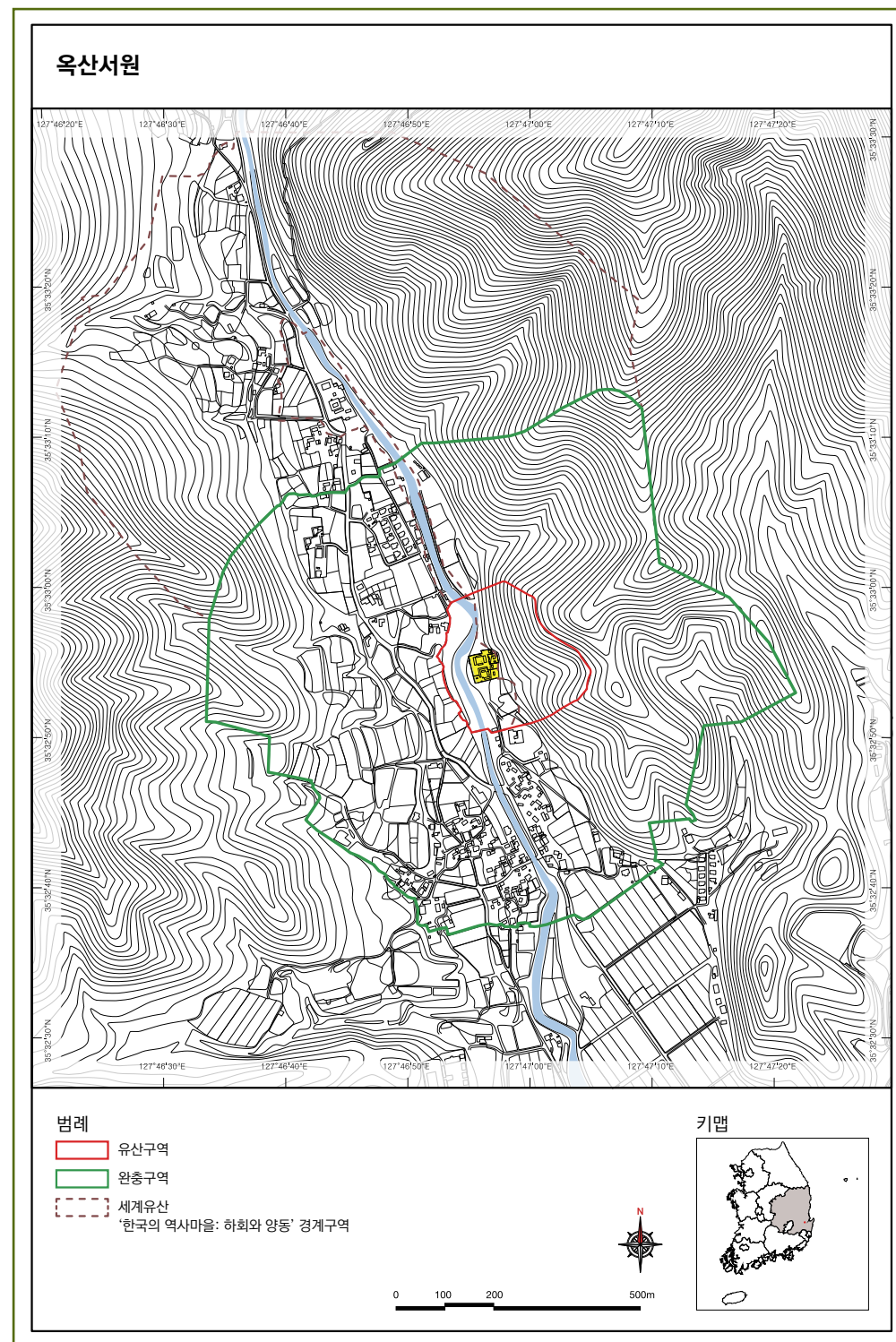
## 2) 경주 옥산서원의 공간 구성

### 옥산서원의 입지

-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
- 앞뒤로 자옥산(紫玉山)과 화개산(華蓋山)이 둘러쌈
- 자옥산을 바라보는 서향
- 자계천(紫溪川)이 휘돌아가는 경사지에 입지
- 예전에는 현재의 진입로와 달리 서쪽 자옥산 자락의 하마비를 지나 자계천을 가로지르는 외나무다리로 진입
- 선현인 이언적의 독서처, 거주지 부근에 입지

### 옥산서원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 및 인접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





## 옥산서원 건물배치도

- 누마루 건축물을 처음으로 서원 건축에 도입, 자연친화적 경관 구성 극대화
- 출입문, 누, 강학공간, 제향공간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에 건물들 배치 후 기타 건물은 중심축 좌우로 병렬하여 배치
- 전형적인 전학후묘 배치



## (1) 강학

### 건물

#### 구인당(求仁堂)

- 목적: 학생들의 강학을 위한 강당
- 창건연도: 1572년
- 1839년 화재로 소실 후 후손, 향중 사림, 도내 향교 및 서원, 문중 등의 기부로 1840년 중수
- 구인求仁: 『논어論語』에 있는 문구, 이언적의 『구인록求仁錄』에서 취함, 성현의 학문은 오로지 인仁을 구하는 데 있다는 의미
-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 가운데 대청과 좌우로 원장과 원임의 공간으로 구성
- 영의정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이 이름 지음

#### 구인당 관련 유물

##### 옥산서원 현판(내부)

- 이언적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 편액
- 창건 당시 선조에게 하사받은 편액, 이산해의 글씨
- 현재 편액은 1839년 구인당 화재로 소실 후 이산해의 글씨를 구하여 모각

##### 옥산서원 현판(외부)

- 1839년 구인당이 화재로 소실된 이후 다시 받은 편액
-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글씨
- 현판 좌측에 1574년 사액 후 266년이 지난 1839년에 화재로 다시 써서 사액한 다는 내용 새김

구인당 현판

- 노수신이 이름 짓고, 한호韓濩, 1543~1605가 글씨 작성
- 현판 좌측에 노수신이 4언 4구 형식으로 ‘구인’의 의미 기록
- 마음의 덕德이 어찌 줄겠는가, 내버려두고서 멀다고 말한다, 한번 생각하여 돌이 킴을 알면 이것이 바로 근본이다
- 1839년 화재로 손상된 것을 다시 새김

양진재(兩進齋)·해립재(偕立齋)

- 구인당 좌측, 우측 협실의 편액
- 노수신이 이름 짓고, 한호가 글씨 작성
- 양진兩進: 명明과 성誠을 갖추어 정진함을 의미
- 선善을 택하여 밝아지고 자신을 돌이켜 삼가게 되니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가벼운가, 성현과 함께 행하리라
- 해립偕立: 경敬과 의義를 함께 세움을 의미
- 경敬은 곧고 의義는 방정하니 안팎이 서로 돕는다, 오직 경과 의를 잡고서 잊지 않으면 하늘의 덕이 빛나리라

백록동규(白鹿洞規)

- 구인당 왼쪽 벽에 걸린 현판
-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가 백록동서원을 복구하며 지은 원규
- 참된 군자로서 수행해야 할 오교지목五教之目, 위학지서儒學之書,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 등의 내용 기재
- 1839년 화재로 손상된 것을 다시 새김

전교등서(傳敎謄書)

- 1676년 게판, 1839년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작성
-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2년에 예안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등에서 모집하여 들인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두라는 내용의 명령을 옮겨 적음

어제제문(御製祭文)

- 1792년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의 명으로 옥산서원의 치제致祭할 당시의 직접 지은 제문
- 이언적의 학문과 성품, 배향 등의 내용 기재
- 1839년에 강당에 화재로 소실된 이후 다시 아뢰어 받았다는 내용 기재

옥산서원기(玉山書院記)

- 이언적의 문인 권덕린權德麟, 1529~1573, 서손 이준의 노력에 의해 당시 대사성인 허엽許曄, 1517~1580이 작성
- 옥산서원기를 작성하게 된 내력, 옥산서원 창건 경위, 사액 내용 등을 기재



『회재집(晦齋集)』 「옥산서원기(玉山書院記)」

사물잠(四勿箴)

- 남송의 유학자 정이程頤, 1033~1107가 지음
- 안회顔回, BC521~BC481가 스승 공자에게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조목을 묻자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며,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음

경재잠(敬齋箴)

- 남송의 유학자 주희가 지음
- 주희가 친구 장식張栻, 1133~1180의 〈주일잠主一箴〉을 보고 만듦
- 이황은 경재잠도敬齋箴圖를 성학십도聖學十圖에 포함
- \* 성학십도: 이황이 성학聖學의 개요를 열 폭의 도식圖式으로 설명한 글



경재잠(敬齋箴)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 남송의 유학자 진백陳栢, 진남당陳南塘이 지음
-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하여 지은 글로 경재잠과 표리表裏를 이룸
- 이황은 숙흥야매잠도를 성학십도에 포함

**원규(院規)**

- 17조항으로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앞의 운영 관련 원규에서 확인

**민구재(敏求齋)·암수재(闇修齋)**

- 목적: 학생들의 기숙과 개인 학습
- 강당 좌우에 위치
- 정면 5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앞쪽에 쪽마루를 달았음

**민구재·암수재 관련 유물****민구재 현판**

- 민구敏求: 『논어』에서 취한 것. 나면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좋아하여 재빨리하여 구한다는 의미로 배우기를 권면하는 뜻
- 허엽이 이름 짓고 승지 배대유裴大維, 1563~1632가 글씨 작성

**암수재 현판**

- 암수闇修: 주희가 자신의 학문에 대해 드러나지 않고 나날이 새롭고 밝게 학문을 펼쳤다闇然自修고 한 것에서 취함
- 허엽이 이름 짓고 배대유가 글씨 작성

**경각(經閣)**

- 목적: 어서御書, 어필御筆 및 강학활동과 관련된 교재, 성적표 등 보관
-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원래 어서각御書閣이었으나 현판을 옥산서원 유물전시관으로 옮김

**경각 관련 유물****경각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서원서책불출원문(書院書冊不出院門)**

- 옥산서원 도서관리 규범
- ‘서책을 서원 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이황이 처음 정한 규정과 300년 후 정조가 이에 대해 내린 명령 기재

**문집판각(文集判閣)**

- 목적: 서원에서 만든 목판 보관
-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보관되던 목판은 현재 옥산서원 유물전시관에 보관

**문집판각 관련유물 유물****문집판각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 교육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서원의 주요 기능
- 이언적의 학통을 계승
- 건립 당시부터 다수의 서적 구비, 국가로부터 수차례 서적 하사
- 현존하는 서원 중 가장 많은 고문서, 필사본, 고서 소장

## 원생 선발

- 재주와 학문이 있는 선비를 선발할 때는 『중용中庸』, 『대학大學』, 『소학小學』, 『가례家禮』를 암송하는 시험 시행
- 천거자의 천거를 받아 가부可否를 물어 이름을 유적儒籍에 올림
- 천거자는 유생에게 문제 있을 경우 함께 처벌

## 교육 내용

- 교수,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강회講會, 거접居接: 일정기간 거주하며 독서와 제술, 백일장 등이 열림
- 유생들이 배운 것을 익히고 반복하여야 함
- 강회를 개설하는 날에는 원장이 직접 강의할 내용을 추천하여 당중堂中에 두루 보여 강회에 응하게 하여야 함
- 만약 구두句讀를 잘못 외거나 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드시 내쫓기를 엄히 해야 함

## 옥산서원 서적 및 고문서

- 문헌자료를 통해 서원의 강학을 비롯한 활동과 운영의 구체적인 실상 확인
- 『전여기傳與記』는 원임 교체시 작성한 인수인계 장부로 서책, 제복, 제기, 책판 등의 목록 기재

### 교육 관련

- 『논어論語』, 『맹자孟子』를 비롯한 사서육경四書六經,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언해소학諺解小學』, 『사서언해四書諺解』 등 유학 서적
- 『삼국사기三國史記』, 『진서晉書』, 『한서漢書』 등 역사서
- 『입학기立學記』, 『강지講紙』 등 원생들의 교육 관련 기록

### 고문서류

- 『고왕록考往錄』: 서원의 역사를 간략히 기록
- 『심원록尋院錄』: 서원을 방문한 이들의 방문록
- 등록騰錄, 완의完議: 옥산서원 운영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작성된 공문서, 규정을 엮은 것  
ex 『정서등록呈書騰錄』: 토지안土地案, 노비안奴婢案, 원속안院屬案 및 각종 회계록, 도록 등

## (2) 제향

## 배향인물

### 이언적(李彦迪)

-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 자계옹紫溪翁, 시호는 문원文元
- 초명은 이적李迪이었으나 31세 때 중종의 명으로 언彦을 더함
- 회재는 회암晦菴 주희의 학문을 따른다는 것을 드러낸 것
- 저서: 『회재집晦齋集』, 『구인록求仁錄』,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 등

## ① 출생

- 본관은 여강驪江: 현재 여주, 아버지 이번李蕃은 성균관의 생원으로서 의정부 좌찬성議政府 左贊成에 추증됨
- 이언적은 1491년 경주부慶州府 양좌촌良佐村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1513년 생원시 합격, 이듬해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출사
- 시강원설서侍講院設書가 되어 인종仁宗, 재위 1544~1545 교육
- 1523년 천거로 병조좌랑兵曹佐郎, 정6품, 이조좌랑吏曹佐郎, 정6품 제수
- 모친의 봉양을 위해 외직外職을 청하여 인동현감仁同縣監 부임
- 이조정랑吏曹正郎, 정5품,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종3품,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종3품 역임
- 1531년 김안로金安老, 1481~1537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좌천 후 파직되어 경주 자옥산紫玉山에 독락당獨樂堂을 짓고 학문에 몰두
- 1537년 김안로의 패사敗死 후 재등용되어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정3품,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종2품, 이조판서吏曹判書, 정2품, 우찬성右贊成, 종1품, 좌찬성左贊成, 종1품 등을 제수 받았으나 대부분 사양하거나 모친 봉양을 위해 외직 부임
-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유배 후 1553년 사망

## ③ 학문

- 1502년 외숙이자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문인 손중돈孫仲墩, 1463~1529에게 수학
- 조선 최초의 철학논쟁이라 할 수 있는 무극태극無極太極 논쟁에 참여, 만물의 본질인 진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깨달아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
- 해당 논쟁에서 이기론理氣論의 주리론적 견해로서 이선기후설理先氣後說과 이기불상잡설理氣不相雜說을 강조하며 리理를 강조한 주장은 후대 이황李滉, 1501~1570으로 계승됨
- 『대학장구보유』,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은 이언적의 사상을 잘 드러냄, 주희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순서를 바꾸거나 보완하여 편찬

- 『봉선잡의奉先雜儀』는 조선 예학 발달의 선구가 되는 저술,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기본으로 하고 도학의 실천적 규범들을 덧붙임

## ④ 평가

- 과거 급제시 고관考官이 이언적의 책문策文을 보고 왕을 보필할 재상감이라고 감탄
- 귀향처에서 많은 성리학 저술을 남김으로서 최초로 사림파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체계화를 달성한 인물로 평가
- 외직에 있을 때 백성을 다스리고 아전을 거느리는 데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조리와 법도가 있어 아전들이 행동을 삼가고 백성들은 덕에 감복, 전주에서는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우기도 함
- 영조英祖, 재위 1724~1776, 정조正祖, 재위 1777~1800가 『대학大學』에 관심을 가지며 이언적의 학문 주목, 존송하며 옥산서원도 특별 대우를 받음
- 『회재집』의 회재 이 선생 행장晦齋李先生行狀에는 이황의 이언적에 대한 평가가 잘 드러남



이언적 행장, 『회재집』 부록

## ⑤ 배향 경위

- 1569년 문원이라는 시호 받고, 명종明宗 재위 1545~1567 묘정에 배향
- 1572년 고을 사람들이 독락당 아래에 서원 건립
- 1573년 서악 향현사의 위패를 모셔 서원에 안치

## 건물

### 체인묘(體仁廟)

- 제향인물인 이언적의 위패 봉안
- 창건연도: 1572년 / 1905년 중수, 1992년 보수
- 체인體仁: 인仁을 체득하여 실천한다는 의미, 성리학의 주요 사상이자 이언적 사상의 근간
-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

#### 체인묘 관련 유물

##### 체인묘 현판

- 노수신이 이름 짓고, 한호가 글씨 작성
- 현판 좌측에 노수신이 4언 4구 형식으로 '체인'의 의미 기록
- 만물을 낳는 봄이 나에게는 인仁이 되니, 몸으로 인을 체득하면 어찌 으뜸되는 사람이 되지 못하리

## 전사청

- 목적: 제향과 관련된 제물, 제기 보관, 제향 준비
- 전사청은 체인묘와 90도를 이루며 배치됨
-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의례

### 옥산서원 향사(享祀)

- 이언적의 학문과 도덕을 향례를 통해 기리기 위한 목적
-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춘추향사 거행
  - \* 중정일: 한 달 중 십간의 정丁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 정월 초의 정알례正謁禮를 가지며, 알묘관은 유사가 맡음
- 매달 초하루와 보름의 삭망례朔望禮는 유사가 분향, 재배로 간단히 진행

### 옥산서원 향사 준비

- 제향이 새벽 1시경 시작
- 과거에는 사흘 전에 입재하여 제수 장만 등을 진행

#### ① 초집(招執)

- 춘계향사의 경우 바로 전의 삭망례와 연결하여 진행
- 서원 임원이 모여 헌관獻官 3명, 대축大祝 1명, 집례集執 1명 선정 후 망지望紙 작성

#### ② 제주(祭酒) 담그기

- 고직사庫直舍에서 향례 7~8일 전 제주를 담금
- 술독 입구를 한지로 봉한 다음 근봉謹封 기재

#### ③ 제수 준비

- 향례 사흘 전 희생犧牲, 폐백幣帛 구입
- 향례 이틀 전 유사, 임원, 삼헌관, 대축, 집례가 구인당 모여 개좌음례 후 향례에 참여할 집사를 정하고 역할 정함, 집사분정執事分定
- 향례 이틀 전 제물 손질



## ④ 입재

- 향례가 새벽 1시 경 시작되므로 참여자는 제사 하루 전일 오전에 서원 도착
- 정문인 역락문 앞에서 의관을 갖추

## ⑤ 감생례

- 희생으로 쓰일 돼지를 검사하는 의례

\* 참고: 감생(瞰牲, 鑑牲) 절차

- 역락문 밖 단과 모든 유생의 자리 설치
- 헌관 이하 모든 집사가 차례로 나와 섬
- 시생(豕牲: 생돼지) 담당자가 의대(衣帶) 갖추어 시생을 메고 나아가면 모두가 읊례
- 헌관이 시생 남북향으로 서면 재유사가 서쪽에서부터 좌로 돌며 세 번 손 씻고 닭은 다음 꿩  
어 앉아 시생을 문지르고 헌관을 향하여 읊을 하며 돌(臚)을 고하면 헌관이 충(充)으로 답함
- 감생을 마친 후 시생을 주사(廚舍)로 옮겨 제수준비

## ⑥ 집사분정

- 미리 정한 삼헌관, 대축, 집례 이외의 역할 말을 집사 선출
- 내용을 적은 제향집사분정기를 강당 벽에 걸어놓음

## ⑦ 사축(寫祝)

- 입재 당일 해가 지기 전 대축이 사당 앞 월대 위에서 축문 작성

## ⑧ 제수 근봉

- 희생을 가자(架子)에 실어 중문을 통해 운반
- 제관들이 전사청에서 손질한 제수를 제기에 담고 근봉 기재

## ⑨ 식상개좌(食床開座)

- 제수 근봉 절차 후 구인당에 모여 저녁 식사

## ⑩ 진설(陳設)

- 희생이 미리 진설된 상태에서 신위를 중심으로 제수를 제상 위에 차림

## 옥산서원 향사 절차

- 당일 새벽 1시경 시작
- 제향 반시간 전에 모든 제관이 의관을 정제하고 대청 또는 서재에서 야하(夜下: 제사  
전 제공하는 미음 간식)를 받음
- 향례 전 집사들이 구인당 강당에 모여 상읍례 후 초헌관이 사당에 들어가 제수 확인

## ① 분향례(焚香禮)

- 초헌관이 알자의 도움을 받아 신위 앞에 세 번 분향

## ② 전폐례(奠幣禮)

- 초헌관이 신위 앞에 폐백을 올림

## ③ 초헌례(初獻禮)

-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림
- 술잔을 올린 후 대축이 이언적의 학문과 도덕을 향례로 기린다는 뜻을 담긴 축문 읽음

## ④ 아헌례(亞獻禮)

- 신위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림

## ⑤ 종헌례(終獻禮)

- 신위께 세 번째 술잔을 올림

### ⑥ 음복수조(飲福受胙)

-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 맛봄

### ⑦ 철변두(撤籩豆)

-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변과 두를 조금씩 움직여 예를 포함

### ⑧ 망료례(望燎禮)

- 축문을 구덩이에 묻거나 태워 넣음

## 옥산서원 향사의 특징

- 제물로서 희생(犧牲)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감생 절차를 볼 수 있음
- 전체 진행에서 유사(유사)의 비중이 큼
- 시장기가 심할 때 나는 입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야하(夜下)를 받음

## (3) 교류와 유식

- 교류와 유식 공간은 유산을 둘러싼 자연과 통하는 공간으로서 정자, 누마루 등으로 구성
- 서원과 서원, 유학자와 유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
- 유식 공간으로써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등 보다 자유로운 학습 공간
- 옥산서원은 최초로 교류와 유식 영역으로써 누마루 건축물을 도입

## 건물

### 무변루(無邊樓)

- 목적: 서원 내외부 사람들의 교류 및 유식
- 한국 서원 중 최초로 건립된 누마루 형태
- 정면 7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
- 편액이 정면 앞이 아닌 2층 대청 안쪽 벽 위에 있음
- 본래 이름은 납청루(納靑樓)로 누에 오르면 맑은 기운을 길러 도(道)를 맺게한다는 뜻
- 무변(無邊): 주희가 주돈이(周敦頤, 960~1127)의 인품을 칭송한 글인 「주염계찬(周廉溪贊)」의 풍월무변(風月無邊)에서 취함, 끝없이 펼쳐진 서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리키기도 함

#### 무변루 관련 유물

##### 무변루 현판

- 옥산서원 2층 누대 편액
- 노수신이 이름 짓고, 한호가 글씨 작성
- 현판 좌측에 노수신이 4언 4구 형식으로 시를 기록
-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끝도 없고 시작도 없구나, 빛나고 맑음이며 태허(太虛)에서 놀 것이라

## 역락문(亦樂門)

- 서원의 외삼문
- 앞에는 자계천이 흘러, 안으로 들어서면 작은 내를 건너도록 한 진입문
- 삼문 중 중앙문은 신이 출입하는 문, 사람은 우측문으로 출입하도록 하여 평소에는 우측문만 개방
-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

### 역락문 관련 유물

#### 역락문 현판

- 역락<sup>亦樂</sup>: 『논어』에서 취한 것으로 뜻이 맞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기쁘다는 의미
- 노수신이 이름 짓고, 한호가 글씨 작성
- 현판 좌측에 노수신이 4언 4구 형식으로 '역락'의 의미 기록
- 풍문을 듣고 돌아오며 도<sup>道</sup>를 양망하며 오니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나라의 영재들 이어

## (4) 기타 시설

### 세심대(洗心臺)

- 서원 남서부에 계곡을 바라보는 방향에 있는 석각
- 세심<sup>洗心</sup>: 계곡의 맑은 시냇물을 보며 마음을 씻으라는 의미
- 이언적이 명명한 사산오대<sup>四山五臺</sup> 중 하나
  - \* 사산오대: 이언적이 귀향 후 자신의 거쳐 주위 뛰어난 경치에 대해 이름을 지음 / 화개산, 자옥산, 무악산, 도덕산 / 세심대, 관어대, 탁영대, 영귀대, 징심대
- 이황의 글씨

## 고직사(庫直舍)

- 서원의 보존관리와 운영 보조업무를 하던 이들이 기거하던 건물
-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신도비각(神道碑閣)

-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각지붕 건물
- 1577년에 이언적의 신도비를 모심
- 제향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
- 비문은 기대승<sup>奇大升</sup>, 1527~1572이 짓고, 이산해가 작성



이언적 신도비명, 『회재집』 부록

## 하마비(下馬碑)

- 서원의 입구에 있음
- 이 구역부터 방문자들은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서원으로 진입해야 함



## 4) 경주 옥산서원의 특징

-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서원이자 경주권 내 수원<sup>首院</sup>, 이를 보여주는 월등하게 많은 분량의 『심원록』
- 자계천 상류에서 물길을 내어 서원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역락문을 들어서 무변루로 가기 전에 흐르는 관개수로
- 도산서원, 병산서원과 더불어 3,000책 이상을 보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유교책판(2015)에 포함된 복제 개혁 반대 만인소
- 서원 주요 건축물 남서쪽에서 계곡을 바라보는 곳에 있는 세심대
- 최초의 누마루 형식 건축물 무변루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의 일부 요소로 포함

## 2. 경주 옥산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 교육 내용과 장서 관리가 탁월한 서원

- 1572년에 건립된 서원
- 경주지역 사림의 주도로 건립된 서원
- 출판 및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의 학문적 역할 정립
- 입학 규정, 교육 평가 내용 담긴 고문서 통해 서원의 구체적 교육 방식 확인
- 전학후묘前學後廟의 건물 배치
- 최초로 누마루 건축물을 도입, 교류와 유식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창건 및 사액 : 1572년 건립 / 1573년 사액**

**주향인물 : 이언적(李彦迪, 1491-1553)**

#### 주요특징

##### - 구성 및 입지

- 서원의 누마루 건축의 매우 이른 사례. 자계천에 둘러싸여 전면에 자옥산을 바라 보는 계경溪景 입지의 전형을 제시함

##### - 특징

- 한국 서원 중에서 교육(강학) 관련 자료가 다수 소장되어 서원의 교육 운영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음. 현존하는 한국 서원 중에서 보유 서적의 종수種數가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음

- 무변루 / 서원에 출입문의 역할을 겸하는 별도의 누마루 건축을 도입하여 유림들의 유식이나 회합 공간으로 사용한 매우 이른 사례로 생각됨. 이후 건립된 서원들은 누마루를 두어 서원 건축의 정형을 형성해 나감

###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 7건(보물 7건), 시도지정 1건(유형문화재 1건)

『삼국사기』(보물)

- 『삼국사기』는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이 1145년(고려 인종 23년)에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전체로 편찬한 것이다. 옥산서원 소장 『삼국사기』는 1573년(선조 6) 경주부慶州府에서 인출印出하여 옥산서원에 보내준 것으로, 고려시대에 처음 새긴 원판과 조선 태조 때에 개각改刻한 것, 중종 때 다시 개각한 것 등 3종의 판이 종류별로 섞여 있는 것이 특징. 총 9책으로 구성된 완질본完帙本이자 인출 상태와 보존 상태도 양호함.

옥산서원 지정문화재

서원	종별	지정	명칭	구분	지정일
옥산서원	국가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부동산	1967.03.08.
		보물 제413호	독락당		1964.11.14.
		보물 제524-1호	여주이씨 옥산문중 전적-사마방목	동산	1970.12.30.
		보물 제524-2호	여주이씨 옥산문중 전적		2006.07.18.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		1970.12.30.
		보물 제526-1호, 2호	여주이씨 옥산문중 유목		1970.12.30.
		보물 제586호	이언적 수고본 일괄		1975.05.01.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문원공 회재 이언적신도비	부동산	2006.01.02.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 교재

- 도산서원 -





# 목차

## 들어가며 04

### 1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1. 유네스코와 유산 10

- 1) 유네스코와 유산
- 2) 유산 해석과 설명

####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6

- 1) 서원의 이해
- 2) 세계유산 가치
- 3) 등재 과정

### 2부 안동 도산서원

#### 1. 안동 도산서원 개요 40

- 1) 안동 도산서원의 역사
  - (1) 건립
  - (2) 사액
  - (3) 운영

- 2) 안동 도산서원의 공간 구성
  - (1) 강학
  - (2) 제향
  - (3) 교류와 유식
  - (4) 기타 시설

- 3) 안동 도산서원의 특징

#### 2. 안동 도산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68



## 들어가며

### 일러두기

-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재
- 심화학습 자료, 관련 사이트는 QR코드를 참고

### 범례

-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서원을 지칭하고, 서원은 조선에서 세워진 서원을 통칭함

01 영주 소수서원



02 함양 남계서원



03 경주 옥산서원



03 안동 도산서원



04 장성 필암서원



05 달성 도동서원



07 안동 병산서원



08 정읍 무성서원



09 논산 돈암서원



## ‘한국의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 / 사액 연도	주향 인물	비고
영주 소수서원	1543년/1550년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사적(1963)
함양 남계서원	1552년/1556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사적(2009)
경주 옥산서원	1572년/1574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사적(1967)
안동 도산서원	1574년/157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사적(1969)
장성 필암서원	1590년/1662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사적(1975)
달성 도동서원	1605년/1607년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사적(2007)
안동 병산서원	1613년/1863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사적(1978)
정읍 무성서원	1615년/1696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사적(1968)
논산 돈암서원	1634년/1660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사적(1993)

##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이해

### 전담해설사 제도의 목적

-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으로서 성격 소개
- 각 서원의 역사, 건축적 성격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연속유산인 9개 서원 이해, 해당 내용을 방문객에게 비교·전달

### 전담해설사 정의와 역할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정된 ‘한국의 서원’만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자, 하나의 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을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표준교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필요한 지식과 실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력

### 전담해설사 필요역량

- 방문객의 국적, 연령, 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해설을 제공
- 유산의 각 공간에서 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각 서원은 개별적으로 중요한 국내 유산이며 동시에 9개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세계 유산의 일부임
- 유산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되 지식과 정보의 일방적 주입 지양
- 해설 목적은 방문객과 유산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 근거 있는 정보 수집 경로 제시





# 01

##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1. 유네스코와 유산

## 1) 유네스코와 유산

### 유네스코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
-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 세계무형문화유산

-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로서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름
-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

### 세계기록유산

-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
-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단독 기록이거나 기록의 모음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

※ 근거: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 **완전성과 진정성** 개념을 충족했는지
  -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보호관리계획**을 갖추었는지
- \* 등재 기준, 진정성과 완전성,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

### 완전성(Integrity)이란?

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특성에 대해 전체, 본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 진정성(Authenticity)이란?

본래 또는 역사의 과정에서 지니게 되는 가치에 대한 진실성,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것

### 세계유산 구역: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범위
- 유산구역: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역
- 완충구역: 유산구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며 인접한 주변 환경과 중요한 경치 등 포함



## 세계유산 등재 기준

구분	등재 기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에 의한 <b>결작</b>
	(ii)	일정한 기간,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b>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b>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b>독보적인 증거</b>
	(iv)	<b>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b> 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
	(v)	하나(혹은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b>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b> 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b>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b>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독보적인 <b>자연미</b> 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의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특징물 등 <b>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b>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b>생태적·생물학적 과정</b> 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x)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b>멸종 위기 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b> 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

- 등재 기준 중 (i)부터 (vi)까지는 문화유산, (vii)부터 (x)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됨,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세계유산협약이란?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약자
- 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17차 총회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협약

## 세계유산협약의 배경

- 인류가 이룩해 온 역사적 유산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
- 1950년대 이집트에서 전력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 하이댐의 건설을 시도하면서 아부심벨 신전 등 고대 이집트 유적이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 세계유산제도 시행의 결정적 계기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

- 세계유산목록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유산 등재
- 세계유산의 보호와 보존
- 세계유산기금 하의 국제지원 공여
- 협약에 도움이 되는 국내 및 국제적 지원의 확보

※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세계유산협약 전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2) 유산 해석 Interpretation 과 설명 Presentation

### 세계유산의 ‘해석’

-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인 활동
-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쇄물, 전자출판, 강의,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등이 포함

### 세계유산의 ‘설명’

- 해석 정보의 배열, 사람들의 접근 방식, 해석 시설 구조 등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잘 디자인하여 전달하는 것
- 현장에서의 소통에 중점
- 박물관 전시, 정형화된 투어, 안내 프로그램이 포함

### 유산 해석 등장 배경

- 유산의 다양한 형태, 가치를 함께 고려
  - 전문가 관점에 국한되지 않은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 유산 가치 중요
- ※ 해설사 = 중요한 이해관계자

### 유산 해석·설명 의 국제적 담론

- 프리먼 틸든의 해석 6원칙(1957)
- 에나메 헌장(2008)
- 현 시대에 맞는 유산 해석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문화유적지의 해석과 설명에 관한 ICOMOS(이코모스)<sup>1</sup> 헌장

1.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약자로 국제기념물협의회라고도 칭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

### 프리먼 틸든의 ‘우리의 유산 해석하기’ (1957)

1. 좋은 해석은 방문객의 경험이나 사고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2. 정보 그 자체는 해석이 아니지만, 반드시 정보에 바탕을 한 내용이어야 한다.
3. 해석은 과학, 역사 및 건축이 접목된 종합 예술이다.
4. 해석이 주된 목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5. 해석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전달해야 한다.
6.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석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해석을 단순화해서 만들면 안 된다.

### 해석과 설명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

1. 접근과 이해 향상(Access and Understanding)  
: 대중들의 해당 유적지에 대한 지적, 물리적 접촉이 쉬워야 함
2. 정보의 확실한 출처(Information Sources)  
: 검증된 과학 학술적 방법, 살아있는 문화 전통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에 기초해야 함
3. 환경과 맥락의 중요성(Setting and Context)  
: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맥락과 주변 환경을 연관시켜야 함
4. 진정성의 보존(Preservation of Authenticity)  
: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sup>2</sup> 정신에 입각한 기본 원리 존중해야 함
5. 지속성에 대한 계획(Planning of Sustainability)  
: 사회적, 재정적, 환경의 지속성 중 주요 목표들과 함께 유적지의 자연적 문화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
6. 포용성에 대한 고려(Concern for Inclusiveness)  
: 전문가, 소유자와 관련 공동체, 이해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협력의 결과물이어야 함

2. 나라문서(1994):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보존과 관련된 문화 다양성,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대한 필요성 언급

##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1) 서원의 이해

#### 서원이란?

-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
-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 선현先賢 제사,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
-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 지역 문화 선도

#### 서원의 기원

-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 재위 712~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담당한 '여정서원'이 최초
-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 제사기능,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
-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 1130~1200가 세운 '백록동서원'은 학규,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
-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모티브

#### 한국에서 서원 성립

-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 국학(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육 권장

-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저하,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
-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 중국의 서원 제도 주목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 건립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 확산

#### 서원의 구성원: 사람

- 향촌 지식인집단
-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
-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
- 관련 자료: 『원장안院長案』,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등

구성원

구분	역할
원장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의 일 총괄</li> <li>•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 관리 주체</li> <li>• 임기는 1~2년, 대체로 연임 허용</li> </ul>
원임院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li> <li>•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로도 불림</li> <li>• 서원 내 규찰, 재정 문제 담당</li> <li>•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li> </ul>
원생院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li> <li>•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 통해 최종 선발</li> <li>•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li> </ul>

## 서원의 규약(規約)

- 원규院規 : 강학 제향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
- 학규學規, 강규講規 :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
- 절목節目 :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세칙
- 완의完議, 입의立議 :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 서원의 재정

- 대체로 지역 사람의 자발적 출연 통한 토지, 노비,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
- 사액서원에는 서적, 토지, 노비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
- 관련 자료: 『전답안田畓案』, 『노비안奴婢案』,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 서원의 주요 기능: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 강학

- 성리학 교육을 통한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 개별학습인 독서,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
-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
-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
- 강학 활동은 ‘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과 ‘공식적·의례적강학으로서 강회講會’로 구분

강학의 종류

구분	내용
거접居接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문회文會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
거재居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순제旬題	지방의 향교鄉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통독通讀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향사 후의 강회講會	향사享祀를 지낸 후, 「백록동규白鹿洞規」나 「여씨향약呂氏鄉約」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講生들이 강장講長 앞에서 진강進講을 하는 순서로 진행. 진강을 하는 방식은 씨[姓: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추첨 기구]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

강학 의례

구분	내용
흥미를 갖춘 공식적 의례	정음례庭揖禮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 음례揖禮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
	상음례 큰 음揖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강습례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陳設;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침배瞻拜;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상음相揖;서로간 음례를 거행함-승당升堂;당에 오름-독규讀規;규약을 읊음-배독拜讀;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진강進講-예필禮畢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관습적 의례	경독 敬讀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 <sup>白鹿洞規</sup> , 사물잡 <sup>四勿箴</sup> , 심잠 <sup>心箴</sup> , 경재잠 <sup>敬齋箴</sup> , 숙흥야매잠 <sup>夙興夜寐箴</sup> 을 낭독하는 것이다.
	개접례, 입접례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파접례, 후접례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귀가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수창시	수창시는 ‘회강’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 제향

-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
-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 정신 이어나갈 것을 다짐, 결속 다지는 기회

### 제향의 종류

구분	명칭	시기
정기	춘추 향사	매년 봄·가을
	삭망례	매월 초하루, 보름
	정알례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6일
비정기	이안제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환안제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위안제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예성제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사액례	사액을 받을 경우
	치제	국가에서 제관 보내어 지내는 경우



입재



성생례



집사분정



분향례



사우입장



제물근봉



초헌례



중헌례



철변두



파제



향약낭독



음복례

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

## 교류와 유식

- 교류<sup>交流</sup>: 서원의 구성원, 서원에 방문한 명사,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 물질 교류
- 유식<sup>遊息</sup>
  -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 『예기』 권17, 학기 18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sup>藏修</sup>: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
  -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양성 방식의 일환.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sup>品格</sup>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
-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
-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
-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
- 해주향약, 남전향약, 예안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
- 관련 자료: 『심원록』 등

##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

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

### 성립과 발전 과정

#### 중국 서원(書院)

- 남송 시기 관학 쇠퇴와 과거제도 부패 비판하며 흥성
- 남송 이후 과거시험과 관련된 관학의 보조적 성격으로 전환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으로 변모



#### 일본 시주쿠(私塾)

- 17~19세기 걸쳐 유학에 기반을 둔 고등 교육기관으로 설립
- 설립자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의학, 산학, 서양학문도 함께 교육
- 중국, 한국에 비해서 유학이 제도,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과거제도가 없어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형태로 발전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 대학으로 발전



#### 한국의 서원(書院)

- 16세기 중반 태동, 지역 성리학 집단인 사림<sup>士林</sup>의 주도로 성장
- 관학적 성격이나 국가의 관료선발과정에 관련되지 않음
- 19세기 말 교육 기능 종료까지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일관적으로 운영
- 근대화 과정에서도 명맥 유지



## 사회적 기능

### 중국 서원

- 송 시기 학문 중심기구, 여론 형성기구
- 점차 관학 보조기구로 정착되며 정치, 사회활동 성격 약화

### 일본 시주쿠

- 유학이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되지 못하여 포괄적 기능 수행에 한계
- 사숙 출신 학생이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사상 선도

### 한국 서원

- 지성 활동, 공론 형성이라는 실천적 성격
- 공론을 국가에서 억압하거나 규제하지 않음
- 성리학 이념에 기반을 둔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 제정하여 향촌 교화

## 건축물 배치

### 중국 서원

- 강학, 제향, 장서루로 구분되어 구성
- 특히 장서루 공간이 크게 발달되어 중시
-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이 상호 대등한 위치 차지하며 관계 자유로움
- 앞쪽 경계에 반수(泮水)로 이루어진 인공적 조경에 의존
- 건축 배치 정형을 규정하기 어려움



중국 백록동 서원 반수

### 일본 시주쿠

- 정형화된 배치 및 건축 형식 없음
- 제향기능을 갖추지 않음
- 단일 건물 사용하여 기능별로 공간 구획

### 한국 서원

- 공유된 건축 정형 갖춤
-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을 하나의 축선 상에 위치시켜 유기적 연결
- 제향 공간인 사우를 높은 위계건축으로 형성
- 자연지세를 활용한 독특한 한국적 건축기법



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

		한국의 서원	중국의 서원	일본의 시주쿠
도입 시기		16세기	7세기	17세기
설립 목적		성리학 지식인 양성 지역 기반 선현 제향	유학 지식인 양성 → 관료 양성 관학 보조	지식인 양성
교육 대상		지역 유생	제한 없음	무사, 가신 그룹
교육 학문		성리학	유학	유학,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 다양
제향	인물	지역단위 선현	주로 공자 등 성현	크게 중시하지 않음
	의례	현재까지 존속	일부 서원만 유지	
사회적 기능		지역 공론 중심지 지역 교화 중심지	국가정책 따라 변동	근대사회 전환 기여
건축	입지	제향인물 연고지 자연 경관 고려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등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기능	제향-강학-유식	강학-제향-장서	강학
	구성 요소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반지 과거합격 비석군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배치 유형	공통의 배치 유형 존재	서원별 개별성 강함	단일건물 중심
	경관 구성	자연친화적 개방과 관입 구현	인위적 폐쇄적	인위적 폐쇄적
	지역성	좌식 생활 구조 온돌, 마루의 조화	입식 생활 구조 의자, 화로	좌식 생활 구조 다다미, 화로

##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 성균관(成均館)

- 중앙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최고 교육기관
- 공자<sup>孔子</sup>와 그의 제자를 비롯한 중국 현인<sup>賢人</sup>들과 우리나라 현인을 제사지내는 문묘, 강학 공간인 명륜당 갖추

### 향교(鄕校)

- 지방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주로 향촌에 가까운 곳에 입지
-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문묘, 명륜당 갖추

## 서원과 향교, 성균관 비교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 주체	사림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포	지역별 다양	군현별 1개	수도에 1개
설립 목적	인성교육 선현제향 사림 활동 기반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사회적 역할	지역 공론 형성 지역 문화 교류		유생 공론 형성
입지	제향 대상과 관련 교육 목적에 부합	지방 행정 중심지	수도
구성 요소	사우(선현),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유형	제향-강학-교류, 유식	강학-제향	강학-제향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서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어득강(魚得江, 1470~1550)의 상소

## 2) 세계유산 가치

##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 등재 기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충족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
-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 토착화되는 과정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

##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

##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
- 활용과 기능,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
-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무형유산,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

## 보호 및 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증축,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

##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 연속유산이란

-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
-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

## ‘한국의 서원’ 입지 특성

###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

-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sup>先賢</sup>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
-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
-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 관련

## 수려한 주변 경관

-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
-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
-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
- 특히 정자,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

## ‘한국의 서원’ 건축 특성

### 보편성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건립되며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
-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
- 대부분의 서원은 아래와 같이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

### 독자성

-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
-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
-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 건축 구조 형성



## 공간 구분

### 제향공간

- 건물: 사우, 전사청, 제기고 등
-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
-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 별도 출입문 설치
  - 사우: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
  - 전사청: 제물,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
  - 제기고: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

### 강학공간

- 건물: 강당, 재사, 장서각, 장판각 등
-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
  - 강당: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
  - 재사: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 서재로 구성, 학생들의 기거 공간
  - 장서각, 장판각: 목판이나 도서 보관

### 교류와 유식공간

- 건물: 누각, 정자 등
- 누각은 누정,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좌식공간관습 가지는 한국의 건축 전통과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결합된 건축형식
- 연못,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

## 기타

- 고직사, 교육시설, 하마비, 홍살문, 기념비 등
- 하마비,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
  - 고직사: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
  - 교육시설: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 전통 건축기법 토대로 건립
  - 하마비: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
  - 홍살문: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

## ‘한국의 서원’ 서원별 세계유산가치

서원명	세계유산가치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로 건립된 서원</li> <li>강학,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li> </ul>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li> <li>사당과 강당이 일렬로 배치되는 서원 건축의 정형적 배치방식</li> </ul>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li> <li>누마루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li> </ul>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li> <li>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li> </ul>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li> <li>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규,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li> <li>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안동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li> <li>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li> </ul>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li> <li>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li> </ul>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li> <li>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li> </ul>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 3) 등재 과정

### 등재 추진 배경

- 서원이 건축, 공간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적 가치도 우수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

### 추진 관련 기관

- 2010년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 2012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발족
- 2015년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출범

### 1차 등재 추진 경위

- 2011년 12월 한국의 9개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sup>3</sup>
- 2015년 1월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유네스코에 제출
- 2015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 현지 조사 후 철회 권고
- 2016년 4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철회

3. 1871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과 사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 충족 여부 확인하여 9개 서원 선정

# 등재 재추진 경위

- 2016년 8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 의결
- 2018년 1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 2018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의 현지 실사
- 2019년 5월 이코모스 평가결과 등재 권고
-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확정





02

안동 도산서원



# 1. 안동 도산서원 개요

주요 내용은 『도산서원 종합정비계획』, 2013 참고

## 1) 안동 도산서원의 역사

### (1) 건립

#### 건립 배경

- 1551년 이황李滉, 1501~1570이 도산서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계상서당溪上書堂 건립
- 이황 사후 추송 사업 진행
  - \* 묘도문자墓道文字: 묘비, 묘지에 고인의 행적을 새김
  - \* 문집文集: 학문과 사상을 드러내어 학풍을 계승하기 위해 편간
  - \* 문묘文廟 종사: 공자의 도통을 계승하는 제자 반열에 오르는 것, 공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이언적李彦迪, 1491~1553에 이어 1610년 실현
  - \* 종묘宗廟 배향: 선조宣祖, 재위 1567~1608의 치세를 보필한 대표적인 신하로 인정받아 1610년 선조 묘정에 배향
- 이황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추송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산서원 건립

#### 건립 과정

- 1557년 금응훈琴應薰, 1540~1616 등 문인들이 간청하여 도산陶山 남쪽에 서당 지을 땅 마련
- 1558년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옥사도자屋舍圖子를 보내어 승려 법련法蓮과 논의하도록 하여 착공

- 1561년 승려 정일淨一 완공, 도산서당과 기숙사인 농운정사隴雲精舍 건립
- 1572년부터 고을 선비들이 이황이 도를 강론하던 곳에 서원이 있어야 한다며 서당 뒤의 땅에 사묘 건립 논의
- 1574년 상덕사尙德祠, 전교당典敎堂, 동재, 서재 등 건립 후 상덕사에 이황의 위패 봉안

#### 도산서원 재정 마련

- 이황의 발의로 고려 말의 학자 우탁禹倬, 1262~1342을 제향하는 역동서원易東書院을 세우느라 예안禮安 사림의 물력이 바닥난 상황
- 서당 당시 전답田畓을 서원에 이속
- 경상감사의 협조를 약속받아 건립 논의 재개, 지방관의 지원 지속
- 조목趙穆, 1524~1606, 이덕홍李德弘, 1541~1596, 김부필金富弼, 1516~1577, 금응협琴應夾, 1526~1596 등 문인 주도
- 건립 초 경상감사 윤두수尹斗壽, 1533~1601는 폐사廢寺인 진흥사眞興寺의 토지를 도산서원에 분속
- 이황을 제향하는 안동 여강서원廬江書院, 봉화 창해서원滄海書院의 전답 일부 이속

### (2) 사액

#### 도산서원 사액

- 1575년 이황의 위패 봉안 전 조정으로부터 도산서원 편액 하사
- 한호韓濩, 1543~1605가 편액 작성

## 도산의 의미

- 영지산靈芝山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있는 산
- 산이 두 번 이루어졌다, 옛날 산 중에 질그릇을 굽던 곳이 있다는 설이 있음
- 이황은 도산서당이 완성된 이후 호를 도옹陶翁이라 함

## (3) 운영

### 도산서원 원규

\* 도산서원은 1559년 이황이 작성한 이산서원伊山書院 원규를 적용

- 제생들은 독서할 때 사서오경四書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문호로 삼아 국가가 진작시키고 양성하는 방도를 따르며 성현의 친절한 가르침을 따르라
- 제생들은 견고하게 뜻을 세우고 따르고 향하는 바를 바르고 곧게 하여, 학업을 원대하게 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고 행동은 도의道義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이다
- 제생들은 항상 마땅히 각자 서재에 조용히 거처하며 오로지 독서에 전념하라
- 까닭 없이 알리지 않고 자주 출입해서는 안 된다
- 성균관 명륜당에는 이천伊川 선생의 사물잠四勿箴과 회암晦庵 선생의 백록동규白鹿洞規 열 가지 가르침, 진무경陳茂卿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이 걸려 있는데, 이것들의 뜻이 매우 좋으니 서원에 여러 벽 위에 걸어두고 서로 경계하라
- 책은 밖으로 내지 말고, 여색을 문 안에 들이지 말며, 술을 빚지 말고 형벌을 사용하지 마라

- 서원의 유사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청렴하고 유능한 품관品官 2인에게 일을 맡기고, 또 유사儒士 중에 일의 이치를 알고 옳은 일을 행하여 사람들이 받들고 따르는 자 1인을 상유사上有司로 삼되, 모두 2년마다 교체하라
  - 제생과 유사는 예를 지켜 서로를 대하고, 공경과 믿음으로 서로 대우하도록 힘써라
  - 서원에 속한 사람을 너그럽이 돌보아라
  - 서원을 세워 선비를 기르는 것은 국가가 문文을 숭상하고 학교를 일으켜 새로운 인재를 일으키려는 뜻이니, 사람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라
  - 동몽童蒙은 수업을 받거나 부름을 받지 않으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 임시 원생은 관례 여부에 상관없이 정원은 없고 성재成才라면 곧 서원에 천거하라
- \* 원규의 앞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

### 도산서원 원임(院任)

- 서원의 재정 및 유생들의 생활 전반 관리
- 원규에 상유사上有司, 하유사下有司 체제로 명시된 것을 도산서원에서 그대로 유지
- 입원생 중에서 상유사 선출
- 『전임안前任案』, 『전장책傳掌』을 통해 유사 명단, 재임 기간 등 확인
- 도산서원에서는 일시적이지만 현직관료가 원장을 맡기도 함
- 서원의 중대한 일에 따라 별유사別有司를 두기도 함

### 원생(院生)

- 서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요소
- 일정한 나이 이상, 기본적인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함
- 서원에 들어올 때 공론公論으로 허락받지 못하면 입원할 수 없음
- 천거자는 7~8명을 추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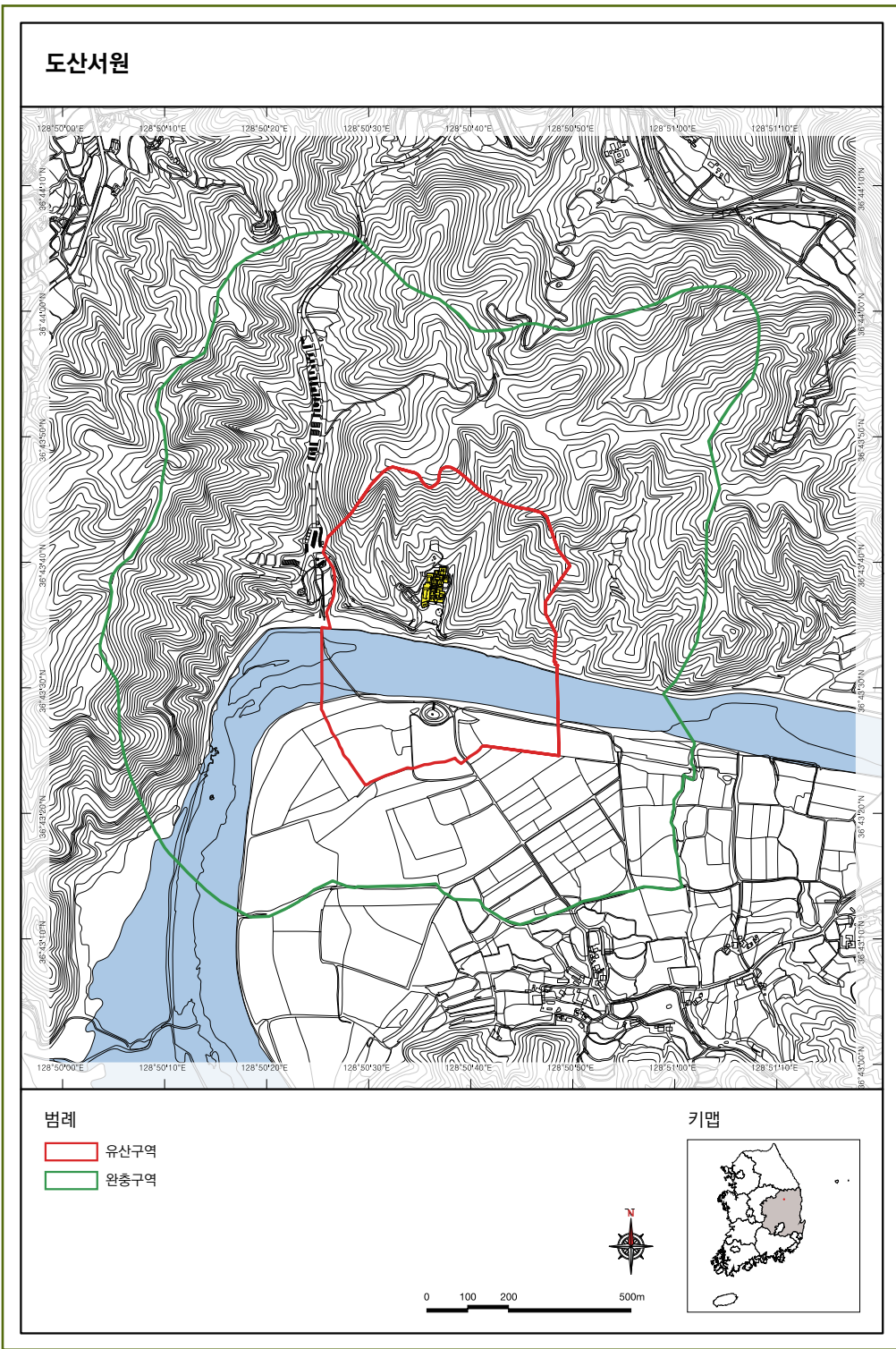
## 2) 안동 도산서원의 공간 구성

### 도산서원의 입지

-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
- 전면에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탁 트인 경사지에 입지
- 서원 건물은 낙동강과 평야를 바라보도록 구성
- 강학 공간 전면에 도산서당이 자리잡고 있음
- 자연친화적 경관입지를 구현하여 한국 서원의 전형
- 선현인 이황의 강학처에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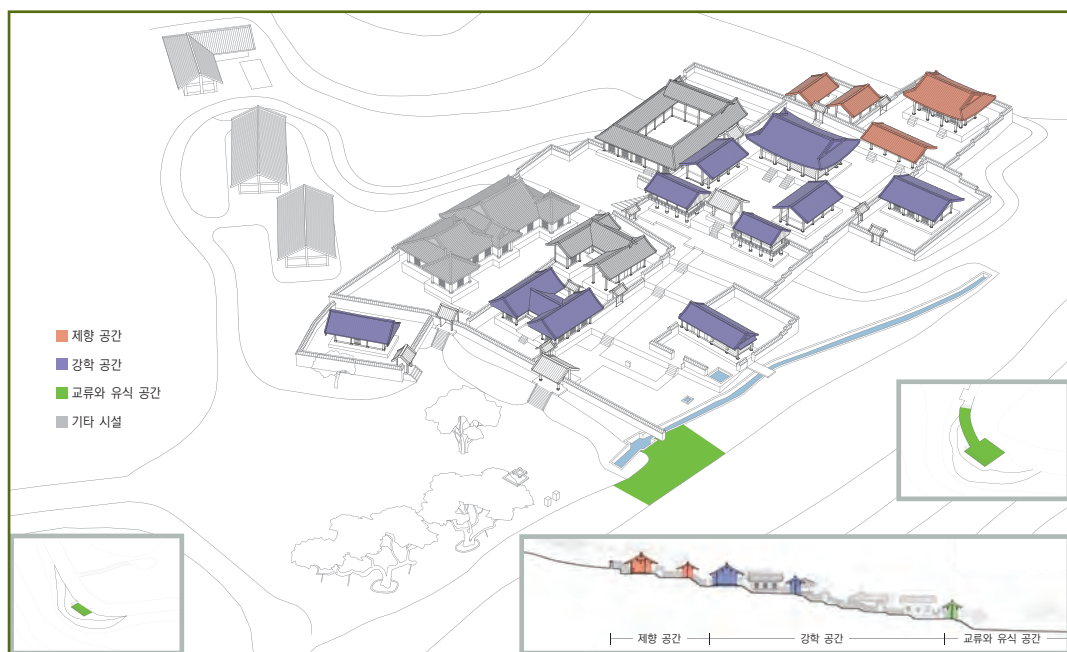
### 도산서원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 및 인접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



## 도산서원 건물배치도

- 경사지의 지형조건을 활용하여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배치 정형을 최초로 제시
- 강학공간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배열
- 제향공간인 상덕사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입구에서부터 경사지를 활용한 예禮 경관 구축
- 전형적인 전학후묘 배치



## (1) 강학

### 건물

#### 전교당(典敎堂)

- 목적: 서원 강학활동 및 주요 의례 집행
- 창건연도: 1574년 / 보수: 1969년
- 전교典敎: 전典은 오전五典, 즉 오륜五倫을 가리키며 전교는 오륜을 가르침으로써 인륜을 밝힌다는 의미
-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 원장실인 한존재閑存齋와 강당으로 구성

#### 전교당 관련 유물

- 현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산서원 이야기』 참고

#### 도산서원 현판

- 한호의 글씨
- 만력萬曆 3년1575 6월 일 사액 받음
- 이황 생전에 진리를 강론하던 도산서당의 이름을 이어받음

#### 전교당 현판

- 글씨는 이일삼李日三, 1626~1700 또는 심인조沈仁祚, 1555~1605가 작성했다고 전해짐

#### 한존재(閑存齋)

- 도산서원 정당의 서쪽 협실 편액
- 한존閑存: 『주역周易』의 ‘사악함을 막고 그 성실함을 보존한다閑邪存其誠’는 것에서 취함, 사악함을 막으면 자연히 성실함이 보존되는 것으로 이황 철학의 핵심 요소

원규(院規)

- 이황이 1559년 작성한 이산서원伊山書院의 원규院規
- 영남지역 서원 원규의 모범으로 도산서원도 적용
- 유생들의 교과과정, 공부 방법, 서적 관리 등을 규정

백록동규(白鹿洞規)

- 전교당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
-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가 백록동서원을 복구하며 지은 학규
- 참된 군자로서 수행해야 할 오교지목五教之目, 위학지서儒學之書,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 등의 내용 기재

사물잠(四勿箴)

- 전교당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
- 남송의 유학자 정이程頤, 1033~1107가 지음
- 안회顔回, BC521~BC481가 스승 공자에게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조목을 묻자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며,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음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 전교당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
- 남송의 유학자 진백陳栢: 진남당陳南塘이 지음
-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하여 지은 글로 경재잠敬齋箴과 표리表裏를 이룸
- 이황은 숙흥야매잠도를 성학십도聖學十圖에 포함

국기(國忌)판

- 전교당 북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두 개로 나뉨
- 조선 역대 국왕(태조~정조)과 왕비의 기일, 정조의 왕비 효의왕후 김씨孝懿王后 金氏, 1753~1821부터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 閔氏, 1851~1895까지 기술

기일(忌日)판

- 전교당 서쪽에 걸린 현판
- 선현인 이황과 종향위從享位 조목의 기일 기재
- 이황: 12월 초8일
- 조목: 10월 29일

도산서원 춘추향사 집사분정판

- 전교당 북쪽 벽에 걸린 현판
- 도산서원 춘추향사 때 헌관, 집사의 직임과 명단 기재
- 다른 서원에 비해 많이 생략

존	봉	봉	봉	사	찬	알	찬	축	집	분	종	아	초	헌	헌	향
작	작	로	향	준	인	자	자		사	헌	헌	헌	헌	관	관	사
										관	관	관	관		집	시

정조(正祖) 전교(傳敎)

- 전교당 중앙 들보 위에 걸린 현판
- 1792년 정조가 이만수李晩秀, 1752~1820를 도산서원으로 보내 제문을 지어 치제致祭하고 시험을 치르게 한다고 전교한 내용
- \* 치제: 국가에서 왕족이나 대신, 국가를 위하여 죽은 사람에게 제문과 제물을 갖추어 지내 주는 제사

도산서원견각신치제문(陶山書院遣閣臣致祭文)

- 전교당 중앙 들보 위에 걸린 현판
- 1792년 정조가 이만수를 도산서원으로 보내 치제한 제문
- 정조의 전교를 받들어 이만수가 작성

숙종(肅宗) 전교(傳敎)

- 1676년에 도산서원 노비에 대한 면역 지시를 1690년에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



**향립약조(鄉立約條)**

- 예안의 향촌사회를 계도하기 위해 제정한 규칙
- 예안향약이라고도 함
- 2019년 전교당 보수를 하면서 걸었음



『퇴계집』 권42, 향립약조 서 (序)

**박약재(博約齋)·홍의재(弘毅齋)**

- 목적: 학생들의 기숙과 개인 학습
- 전교당의 좌우에 위치하여 서로 바라보며 배치
-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
- 학생 수가 증가하며 점차 확대 건립
- 박약博約: 『논어論語』에서 공자孔子는 ‘군자는 문文에 대해 널리 배우고 예禮로써 요약하면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것에서 취함
- 홍의弘毅: 『논어』에서 증자曾子가 ‘선비는 마음이 넓고 굳세어야 무거운 소임을 다하여 원대한 길에 이른다’고 한 것에서 취함
- 동재인 박약재 기숙 원생이 서재인 홍의재 원생보다 선배로서 홍의재에는 직책이 없는 사람이나 일반 유생이 기거

**박약재·홍의재 관련 유물****박약재 현판**

- 글씨는 이일삼이 작성했다고 전해짐

**홍의재 현판**

- 글씨는 이일삼이 작성했다고 전해짐

**동광명실(東光明室)·서광명실(西光明室)**

- 목적: 서책을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곳
- 진도문을 가운데 두고 동·서 두 곳으로 나뉨
- 습해濕害 방지를 위해 누각식으로 설립
- 역대 왕의 하사한 서적과 이황이 보던 수택본手澤本, 문집 등을 보관
- 1871년 역동서원易東書院이 철폐되며 서적, 현판 등을 도산서원으로 옮김
- 광명光明: 주희가 ‘우리에게 광명을 베풀어주네惠我光明’라고 한 것에서 취함

**동광명실·서광명실 관련 유물****동광명실 현판**

- 1775년에 전교당 동쪽에 서각書閣을 지어 역동서원의 광명실 현판을 모각하여 걸었다가, 1819년 동광명실을 신축하며 다시 걸었음

**서광명실 현판**

- 1939년 서광명실을 증축하며 역동서원에 걸었던 현판을 걸었음

**이주부공사적(李主簿公事蹟)**

- 동광명실 건물 뒤쪽 벽면에 걸린 현판
- 1678년 만든 구판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 닳게 되어 이휘녕李彙寧, 1788~1861에게 새로 지어 게판하도록 함
- 임진왜란 때 도산서원의 서적과 퇴계 선생의 위패를 보관한 이운李芸, 1568~1638의 사적을 기록한 글

## 장판각(藏板閣)

- 목적: 서원의 출판소, 책판 보관
- 전교당 동쪽에 위치
-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 퇴계의 문집, 유묵, 언행록 등 2,790여 장의 판각 소장, 현재는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이관

## 도산서당(陶山書堂)

- 퇴계 이황이 거쳐하며 제자를 가르치던 곳
- 서원 내 가장 오래된 건물, 이황이 직접 설계
- 1557년 착공, 1561년 완공
- 정면 3칸, 측면 1칸 건물, 후대에 부엌 반 칸, 마루 1칸 추가하여 정면 5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
- 방: 완락재(玩樂齋)
- 대청마루: 암서헌(巖栖軒)

### 도산서당 관련 유물

#### 도산서당 현판

- 1561년 이황이 61세 때 도산서당을 창건하고 직접 글씨 작성

#### 완락재(玩樂齋) 현판

- 도산서원 건물 안에 있는 퇴계가 기거하던 작은 방의 편액
- 완락(玩樂): 주희가 「명당실기(明堂實記)」에서 『중용(中庸)』의 ‘수도지교(修道之教)’, 『대학(大學)』의 ‘명덕(明德)’,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의 내용을 즐기며 완미(玩味)하겠다고 한 것에서 취함

## 암서헌(巖栖軒) 현판

- 암서(巖栖): 주희의 「운곡이십육영(雲谷十二詠)」의 ‘스스로 오랫동안 능하지 못하다고 믿어 바위에서 살며 작은 효과를 바란다(自信久未能 巖棲冀微效)’에서 취한 것  
\*栖와棲는 통용됨
- 이황의 글씨

## 농운정사(隴雲精舍)

- 목적: 이황 문인들이 거쳐하면서 공부하던 곳
- 이황이 직접 설계
- 8칸 규모, 공(工)자 형태의 건물
- 농운(隴雲): 양나라 도홍경(陶弘景, 458~536)의 시에서 인용

### 농운정사 관련 유물

#### 농운정사 현판

- 이황의 글씨

#### 관란헌(觀瀾軒) 현판

- 농운정사 서쪽 마루에 걸린 편액
- 이황의 글씨
- 관란(觀瀾): 『맹자』의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아야 한다(觀水有術 必觀其瀾)’에서 인용, 물결이 세찬 물은 그 원천이 깊듯이 성인의 학문도 그 근원이 깊음을 의미

#### 시습재(時習齋) 현판

- 농운정사 동쪽 마루에 걸린 편액
- 시습(時習): 『논어』의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에서 인용, 학문에 부지런히 매진하라는 의미
- 이황의 글씨

## 역락서재(亦樂書齋)

- 목적: 도산서당 제자들의 기숙사
-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도산서당과 같은 시기에 건립

### 역락서재 관련 유물

#### 역락서재 현판

- 정두鄭耆, 1508~1576가 도산서당에서 수학하는 아들 정사성鄭士誠, 1545~1607과 정사신鄭士信, 1558~1619을 위해 지은 건물 편액
- 역락亦樂: 『논어』에서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에서 인용

## 교육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서원의 주요 기능
- 도산서원은 토론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형태의 강학 활동 존재
- 소장 자료를 통해 서원의 교육 방식 입증
- 다양한 철학적 논쟁을 통해 학파의 통일된 의견 종합
- 관련 유물: 『강회록講會錄』, 『강회일기講會日記』 등

## 이황의 강학 활동

- 1551년 귀향한 이황은 계상서당을 지어 후학 교육
- 1557년~1561년 다시 낙향한 이황이 문인들의 요구에 따라 도산서당 건립
- 스스로 깨우치는自得 공부의 중요성 강조
- 거접居接이나 강회講會 등 집단적인 학술행동을 중요시
- 책을 통하여 성현의 언행을 마음에 체득하고 침잠하여 탐구할 것을 당부
- 책을 읽을 때 정독과 숙독을 강조하며 제한된 종류의 책 강학
- 차례를 뛰어 넘는 엽등獵等의 공부 경계
  - \* 참고: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이 남긴 이황의 강학
- 측천무후則天武后, 624~705와 양귀비楊貴妃, 719~756 등의 내용이 담긴 역사서 교육
- 『심경心經』의 수신재정기심修身在正其心 등에 대해 묻자, ‘경經’에 대해 교육
- 『예기禮記』 「악기樂記」의 ‘예악불가사수거신禮樂不可斯須去身’, 『심경부주心經附註』의 ‘언충신행독경言忠信行篤敬’에 대해 묻자 이에 대해 답변



이황의 강학 내용, 『간재집(艮齋集)』 권5~6



## 도산서원 강회

- 학파의 학설을 넘나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강장講長은 당대 퇴계 학단을 이끌던 인물 선출, 강생講生도 대부분 주요 가문 대표하는 신진기에
- 1596년 작성 문서에는 거접시에 지출 목록 확인: 목면으로 『예설禮說』, 『시서언해詩書諺解』, 『여문정선儷文程選』 등 구매
- 을묘강회<sup>1795</sup>, 갑인강회<sup>1854</sup> 등의 기록 남음
- 1795년 을묘강회는 정조의 책 하사, 치제 등의 분위기에 힘입어 석전釋奠 파재일에 맞추어 개설

## 도산서원 장서 관리

- 도산서원의 장서에는 서책과 관련 기록물이 풍부하게 남아있음
- 서책만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전장기傳掌記 존재
- 도산서원의 총칙 광명실光明室 개폐 규정은 점검과 출입에 대한 규정을 둠
  - \* 반드시 3임원장, 재유사, 별유사이 모두 모이거나 당회시에만 개폐가 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원임院任에게 품의하여 처리
  - \* 서책은 별도의 장부를 비치해두어야 하고, 유사가 교체될 때는 먼저 목록을 가지고 확인한 뒤 포쇄하거나 당회가 있을 때 하나하나 대조 확인해야 함
- 상재협실上齋夾室, 책방冊房, 광명실光明室에서 장서 보관
- 7년 간격으로 종합목록 만들고, 이를 기초로 새로 입고한 도서 추록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서책을 별도 목록화
  - \* 목록에 ○, ●, 中 등의 점검 표시
- 관련 유물: 『서책치부書冊置簿』(1775)

## 도산서원 출판

- 1600년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을 가장 먼저 출판
- 『퇴계집退溪集』, 『월천집月川集』, 『온계집溫溪集』, 『송재집松齋集』 등 문집 간행
-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역해참고易解參攷』 등 성리학 서적 간행
- 특정 가문 인사들의 문집을 간행, 목판 보관
- 출판시 간소刊所라는 별도의 기구를 두어 주관

## (2) 제향

### 인물

#### 이황(李滉)

-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 퇴도退陶, 도수陶叟, 도옹陶翁, 시호는 문순文純
- 저서: 『주자서절요』, 『역학계몽전의易學啓蒙傳疑』, 「성학십도聖學十圖」 등

#### ① 출생

- 본관은 진보眞寶: 지금의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아버지 이식李植, 1463~1502은 1501년 진사시에 급제하였고, 송정대부崇政大夫 좌찬성左贊成 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에 추증됨
- 이황은 1501년 예안현禮安縣 온계리溫溪里 출생
- 공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황을 낳았다 하여 대문을 성림문聖臨門이라 함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1523년 처음으로 성균관에서 공부
- 1527년 경상도 향시鄉試의 진사시進士試에서 수석, 생원시生員試에서 2등으로 급제, 이듬해 진사시 회시 2등 급제, 1532년에는 문과 별시의 초시 2등으로 급제
- 1534년 문과 급제 후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 종9품로 출사, 박사博士, 정7품, 호조좌랑戶曹佐郎, 정6품을 거침
- 1537년 어머니의 상사喪事로 고향에서 3년상을 치름
- 1539년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 종6품에 임명
-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 정5품,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정5품,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정6품 등을 거쳐 1543년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종3품이 되었다가 낙향

- 1548년 외직을 요청하여 단양군수에 부임하였다가 형 이해李滢, 1496~1550가 충청 감사가 되자 풍기군수로 전임 휴 백운동서원의 사액 요청
  - 이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정3품,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정3품 등에 제수됨
  - 1560년 기대승奇大升, 1527~1572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단칠정四端七情을 논함
  - 이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종2품,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정2품 등에 제수된 후 수 차례 치사致仕 요청
  - 1568년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올림
  - 1570년 정침에서 자리를 정돈하게 하고 일어나 앉은 자세로 편안히 사망
- \* 자세한 사항은 「퇴계선생연보」 참고



『퇴계집』「퇴계선생연보」 1, 2

### ③ 학문

- 1512년 숙부인 이우李堉, 1469~1517에게 『논어論語』 수학
  - 천명天命을 깊이 이해하여 자연과 인간, 인식주체인 나와 인식 대상으로서의 객체 간의 대립과 간극을 없애고자 함
  - 서원을 통해 사림세력을 교육하고 길러내어 유학의 도학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서원의 건립 및 사액에 적극 간여
  - 이황은 『주자대전朱子大全』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추려서 『주자서절요』를 완성
  - 이기심성론의 이론적 심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이황과 기대승 사이의 사단칠정논쟁은 조선 학자들의 주자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 \* 이황은 4단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르는 것이고, 7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그것에 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능동성, 자발성 강조
- 일본 유학의 기몬학파崎門學派, 구마모토학파熊本學派에 결정적인 영향 끼침

### ④ 평가

- 이황을 가르친 이우는 이황이 글의 뜻을 안다, 가문을 보존할 것이라고 평가
- 김인후金麟厚, 1510~1560는 이황을 영남의 수재이자 이백李白, 701~762과 두보杜甫, 712~770의 문장에 왕희지王羲之, 307~365와 조맹부趙孟頫, 1254~1322의 글씨라고 평가
- 성현의 도가 두절된 뒤 탄생하여 스승 없이 초연히 도학을 획득했다는 평가

### ⑤ 시호 하사 및 문묘종사

- 1570년 사망 후 영의정에 추증되고, 1576년 문순文純 시호 하사
- 선조 대에 동방오현東方五賢 문묘종사운동이 벌어지고, 광해군 2년1610에 이황 문묘 종사

### 조목(趙穆)

- 자는 사경士敬, 호는 월천月川
- 저서: 『월천집月川集』, 『곤지잡록困知雜錄』

### ① 출생

- 본관은 횡천橫川, 지금의 강원도 횡성군, 아버지 조대춘趙大春, 1487~1573은 학자로서 교육에 힘썼고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됨
- 조목은 1524년 예안현禮安縣 월천리月川里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5세에 글을 읽고, 12세에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읽음
- 1536년 현사사玄沙寺에서 독서
- 1538년 15세에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
- 1541년 향시 생원시에 급제
- 1552년 생원 회시會試에 급제

- 1555년 향시 별시別試에 급제
- 1566년 천거를 받아 공릉참봉恭陵參奉, 종9품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1568년 집경전集慶殿 참봉에 부임했다가 곧 사직
- 안동향교, 광흥사廣興寺,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성균관, 역동서원易東書院, 도산서원 등에서 독서 및 유학, 강론
- 누차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거나 사직, 1604년 공조참판工曹參判, 종2품에 제수되었으나 겸양하여 나아가지 않음
- 1584년 『퇴계선생문집』 편집 및 교정, 간행
- 1587년 합천군수에 제수되어 1588년 부임
- 1606년 정침에서 임종

### ③ 학문

- 이황을 30년 이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며 가르침을 받으며 말하고 일함에 스승을 본받음
- 산림山林의 학자로서 시사時事에 대해 말하기를 아끼고 학문에 증진하여 위기지학爲己之學에 힘씀
- 『심경부주心經附註』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였고, 이황이 이를 받아들여 지은 「심경후론心經後論」은 후대 성리학자들의 지침이 됨

### ④ 평가

- 이황은 조목을 두고 독실함은 조목만한 이가 없다, 뜻한 바가 매우 아름답다고 평가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은 조목의 글을 보고 장강長江과 대하大河처럼 넓고 광대하여 끝이 없으니 당나라의 문장가인 한유韓愈, 768~824에 뒤지지 않는다고 함
- 이조吏曹에서 조목에게 공조참판을 제수하고자 하며 학행學行이 우뚝하여 선비들의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

### ⑤ 배향경위

- 도산서원을 건립하여 활발한 강학활동을 통해 이황의 학풍을 계승하고 확대하는 데 중심적 역할
- 『퇴계문집』의 간행을 통해 적통제자로서 확고한 지위 확보
- 1674년 이덕형李德馨, 1561~1613, 이원익李元翼, 1574~1634의 주청으로 임금의 재가를 받아 종향



『월천집(月川集)』

## 건물

### 상덕사(尙德祠)

- 제향인물인 이황과 조목의 위패 봉안
- 창건연도: 1574년 / 1969년 보수
- 상덕尙德: 『논어論語』의 ‘군자로다, 이 같은 사람이여! 덕을 숭상하도다, 이 같은 사람이여!(君子哉 若人 尙德哉 若人)’에서 인용, 이황의 학덕을 숭상한다는 의미
- 주향위로 정면 중앙에서 남향으로 이황의 위패를 모시고, 종향위로 동쪽 벽에서 서향으로 조목의 위패를 모심
-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정침 동쪽에 사우祠宇를 세운다’는 내용에 따라 강당 뒤 동쪽에 배치된 대표적 사례
-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 상덕사 관련 유물

##### 상덕사 현판

- 글씨는 이일삼이 작성했다고 전해짐



## 전사청

- 목적: 제향과 관련된 제기 보관 및 제향준비를 위한 건물
- 2칸으로 된 건물로 동쪽이 주청, 서쪽은 제기고
- 식재료를 옮기는 고직사와 사당 사이 위치
- 도산서원 이후부터 사우와 전사청의 공간 구분이 이루어짐

## 의례

### 도산서원 향사(享祀)

- 이황의 유덕(遺德)을 기리고 추모하는 목적
-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춘추향사 거행
  - \* 중정일: 한 달 중 십간의 정(丁)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 중정일이 국기일(國忌日)에 해당하거나 유고가 있으면 하정일(下丁日)에 행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해일(亥日)에 진행
- 과거에는 2박 3일, 심야에 치르던 것을 2009년부터 1박 2일로 단축하고 오전 11시로 변경

### 알묘례(謁廟禮)

- 선현의 위패 혹은 신주를 참배하는 의식
- 일반알묘: 내방객이 사당 참배
- 향알(香謁): 서원의 유사(有司)가 매월 초하루, 보름에 분향 및 참배
- 정알(正謁): 매년 정월 초5일에 유사, 유생이 함께 알묘
- 알묘례(謁廟禮): 춘추 향사 전날 모든 집사들이 참배

## 도산서원 향사 준비

### ① 차제(差祭)

- 제관(祭官)을 임명하는 절차
- 유사를 선출하는 천망(薦望) 이후 제관 후보에게 사령장(辭令狀)인 망기(望記)를 보냄

### ② 재계(齋戒)

- 향사 거행 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향 준비
- 과거에 유사는 향사 3일 전 입재, 헌관 및 촉관, 집례, 유생은 2일 전 입재
- 2009년 향사부터 향사 하루 전 오전 10시까지 입재

### ③ 정재일(正齋日) 알묘례

- 3일 전에 헌관 이하 집사가 입재하여 정재일 이른 아침에 진행
- 2009년 춘향부터 오전 11시 무렵으로 변경

### ④ 척기례(滌器禮)

- 재유사들이 전사청에서 제기(祭器) 점검

### ⑤ 집사분정(執事分定)

- 헌관 이하 모든 유생이 전교당으로 이동하여 헌관 및 집사 선정
- 전교당 벽에 걸린 분정판에 한지를 붙여 기록

### ⑥ 축문(祝文) 작성

- 촉관(祝官)이 사당에 들어가서 축판(祝板)을 가지고 축문 작성

### ⑦ 독약(讀約)

- 백록동규(白鹿洞規), 예안향약(禮安鄉約), 여씨향약(呂氏鄉約) 등을 소리내어 읽음

⑧ 생간품(牲看品)

- 향사에 사용할 제수祭需 점검
- 유사가 희생 앞에서 충充이라 고하면 헌관이 돌窸이라고 답함
- 도산서원에서는 원래 계성鷄腥을 사용하다가 시豕로 바뀜

⑨ 봉준(奉遵)

- 전사청에서 제주祭酒 점검

⑩ 석미(浙米)

- 제사에 사용할 쌀과 기장을 씻음

⑪ 습례(習禮)

- 향사에 필요한 범절, 절차, 순서를 미리 익힘

⑫ 진설(陳設)

- 홀기에 근거하여 제수를 제상 위에 차림

도산서원 향사 절차

① 초헌례(初獻禮)

-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림

② 독축(讀祝)

- 축관이 축문을 읽음

③ 아헌례(亞獻禮)

- 신위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림

④ 종헌례(終獻禮)

- 신위께 세 번째 술잔을 올림

⑤ 음복수조(飲福受胙)

-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고기를 맛봄

⑥ 철변두(撤籩豆)

-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둠

⑦ 망예(望瘞)

- 축문을 구덩이에 묻거나 태워 넣음

\* 자세한 사항은 『도산서원 춘추향사 조사보고서』, 『도산서원 종합정비계획』 참고

### (3) 교류와 유식

- 교류와 유식 공간은 유산을 둘러싼 자연과 통하는 공간으로서 정자, 누마루 등으로 구성
- 서원과 서원, 유학자와 유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
- 유식 공간으로써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등 보다 자유로운 학습 공간

#### 천연대(天淵臺)·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

- 목적: 서원의 교류와 유식을 위한 기능
- 서원 전면의 낙동강을 조망하는 곳에 조성

#### 절우사(節友社)

- 이황이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를 심고 감상하며 성리학의 원리를 터득한 곳

### (4) 기타 시설

#### 고직사(庫直舍)

- 목적: 서원의 보존관리와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이들이 기거하던 곳
- 구분을 위해 서원의 고직사를 상고직사<sup>上庫直舍</sup>, 서당 영역 고직사를 하고직사<sup>下庫直舍</sup>라 함
- 상고직사의 지금 건물은 1932년 옮겨 지은 것

### 옥진각(玉振閣)

- 퇴계 선생의 유물전시관으로 1970년 완공
- 옥진<sup>玉振</sup>: 원래 처음과 끝을 두루 갖춘 공자의 성덕을 음악에 비유하여 찬양한 말이지만, 여기서는 퇴계가 추구했던 학문을 높여 표현한 것

#### 옥진각 관련 유물

##### 옥진각 현판

- 도산서원 유물전시관 입구에 걸린 편액
- 이황의 후손 이가원<sup>李家源</sup>, 1917~2000이 작성

### 3) 안동 도산서원의 특징

- 배향인물의 사후 서원이 설립된 것과 달리 도산서원은 이황이 건립에 참여하고 강학하였던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바탕으로 건립
- 18세기 이후 조정의 우례<sup>優禮</sup> 하에서 전국의 으뜸가는 서원으로 부상
- 조선 후기 영남학파의 정신적 지주인 이황을 배향하는 대표적인 서원
-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도산서원 초기 장서 목록의 수록 서책과 실물
-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유교책판<sup>2015</sup>에 포함된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
-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서 천연대와 천광운영대, 절우사
- 우리나라 서원 처음으로 여성이 초헌관을 맡아 향사에 참여



## 2. 안동 도산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 학문, 학파의 중심지로 성장한 서원

- 1574년 건립된 서원
- 예안과 안동 인근의 사림과 이황의 제자들이 건립하여 서원 운동의 중심지로서 학술·정치·사회적 영향력 발휘
- 제향의례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국 서원 제향의 정향
- 성리학 관련 고서, 목판을 가장 많이 보유
- 자연친화적 경관입지를 구현한 한국 서원의 전형
- 성리학적 예학 건축이론을 한국적 방식으로 재해석 하여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을 비대칭으로 설정한 서원 건축의 혁신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창건 및 사액 : 1574년 건립 / 1575년 사액**

**주향인물 : 이황(李滉, 1501-1570)**

#### 주요특징

##### - 구성 및 입지

- 낙동강을 전면으로 한 강경(江景) 입지의 전형을 제시함

#### - 특징

- 이황이 제자들과 함께 강학 활동을 했던 도산서당을 모태로 건립되었음. 퇴계학파의 근원지.

#### 도산서당

- 서원 전면에 위치하며 이황이 강학 활동을 했던 장소이다. 검박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이황의 검소한 가치관을 볼 수 있다. 도산서당을 바탕으로 수많은 이황의 제자들이 양성되었으며, 이를 모태로 서원으로 발전.

### 지정문화재

#### - 국가지정 2건(보물 2건), 시도지정 2건(유형문화재 2건)

##### 전교당(보물)

- 전교당은 강학공간인 강당으로서, 전교당의 앞마당 좌우에는 유생들이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가 자리하고 있음. 조선 선조 7년<sup>1574</sup>에 지은 것을 1969년에 보수. 규모는 앞면 4칸·옆면 2칸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고 온돌방과 대청마루로 이루어져 있음. 매우 간소하게 지은 건물로 선조가 서원에 내려준 ‘도산서원’이라는 현판 글씨는 명필 한석봉이 임금님 앞에서 쓴 글씨라고 전해짐.

#### 도산서원 지정문화재

서원	종별	지정	명칭	구분	지정일
도산서원	국가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부동산	1969.05.28.
		보물 제210호	전교당	동산	1963.01.21.
		보물 제211호	상덕사 및 삼문		1963.01.21.
		보물 제522호	도산서원도		1970.08.27.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	시사단	부동산	1973.08.31.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 교재

- 필암서원 -





# 목차

들어가며	04
------	----

1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

1. 유네스코와 유산	10
-------------	----

- 1) 유네스코와 유산
- 2) 유산 해석과 설명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6
------------------	----

- 1) 서원의 이해
- 2) 세계유산 가치
- 3) 등재 과정

2부 장성 필암서원	
------------	--

1. 장성 필암서원 개요	40
---------------	----

- 1) 장성 필암서원의 역사
  - (1) 건립
  - (2) 사액
  - (3) 운영

- 2) 장성 필암서원의 공간 구성
  - (1) 강학
  - (2) 제향
  - (3) 교류와 유식
  - (4) 기타 시설

- 3) 장성 필암서원의 특징

2. 장성 필암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66
---------------------	----



## 들어가며

### 일러두기

-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재
- 심화학습 자료, 관련 사이트는 QR코드를 참고

### 범례

-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서원을 지칭하고, 서원은 조선에서 세워진 서원을 통칭함

01 영주 소수서원 02 함양 남계서원 03 경주 옥산서원



03 안동 도산서원 04 장성 필암서원 05 달성 도동서원



07 안동 병산서원 08 정읍 무성서원 09 논산 돈암서원



## ‘한국의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 / 사액 연도	주향 인물	비고
영주 소수서원	1543년/1550년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사적(1963)
함양 남계서원	1552년/1556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사적(2009)
경주 옥산서원	1572년/1574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사적(1967)
안동 도산서원	1574년/157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사적(1969)
장성 필암서원	1590년/1662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사적(1975)
달성 도동서원	1605년/1607년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사적(2007)
안동 병산서원	1613년/1863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사적(1978)
정읍 무성서원	1615년/1696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사적(1968)
논산 돈암서원	1634년/1660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사적(1993)

##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이해

### 전담해설사 제도의 목적

-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으로서 성격 소개
- 각 서원의 역사, 건축적 성격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연속유산인 9개 서원 이해, 해당 내용을 방문객에게 비교·전달

### 전담해설사 정의와 역할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정된 ‘한국의 서원’만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자, 하나의 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을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표준교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필요한 지식과 실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력

### 전담해설사 필요역량

- 방문객의 국적, 연령, 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해설을 제공
- 유산의 각 공간에서 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각 서원은 개별적으로 중요한 국내 유산이며 동시에 9개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세계유산의 일부임
- 유산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되 지식과 정보의 일방적 주입 지양
- 해설 목적은 방문객과 유산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 근거 있는 정보 수집 경로 제시





# 01

##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1. 유네스코와 유산

## 1) 유네스코와 유산

### 유네스코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
-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 세계무형문화유산

-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로서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름
-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

### 세계기록유산

-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
-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단독 기록이거나 기록의 모음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

※ 근거: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 **완전성과 진정성** 개념을 충족했는지
-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보호관리계획**을 갖추었는지
- \* 등재 기준, 진정성과 완전성,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

### 완전성(Integrity)이란?

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특성에 대해 전체, 본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 진정성(Authenticity)이란?

본래 또는 역사의 과정에서 지니게 되는 가치에 대한 진실성,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것

### 세계유산 구역: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범위
- 유산구역: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역
- 완충구역: 유산구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며 인접한 주변 환경과 중요한 경치 등 포함

## 세계유산 등재 기준

구분	등재 기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에 의한 <b>결작</b>
	(ii)	일정한 기간,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b>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b>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b>독보적인 증거</b>
	(iv)	<b>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b> 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
	(v)	하나(혹은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b>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b> 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b>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b>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독보적인 <b>자연미</b> 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의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특징물 등 <b>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b>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b>생태적·생물학적 과정</b> 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x)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b>멸종 위기 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b> 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

- 등재 기준 중 (i)부터 (vi)까지는 문화유산, (vii)부터 (x)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됨,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세계유산협약이란?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약자
- 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17차 총회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협약

## 세계유산협약의 배경

- 인류가 이룩해 온 역사적 유산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
- 1950년대 이집트에서 전력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 하이댐의 건설을 시도하면서 아부심벨 신전 등 고대 이집트 유적이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 세계유산제도 시행의 결정적 계기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

- 세계유산목록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유산 등재
- 세계유산의 보호와 보존
- 세계유산기금 하의 국제지원 공여
- 협약에 도움이 되는 국내 및 국제적 지원의 확보

※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세계유산협약 전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2) 유산 해석 Interpretation 과 설명 Presentation

### 세계유산의 ‘해석’

-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인 활동
-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쇄물, 전자출판, 강의,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등이 포함

### 세계유산의 ‘설명’

- 해석 정보의 배열, 사람들의 접근 방식, 해석 시설 구조 등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잘 디자인하여 전달하는 것
- 현장에서의 소통에 중점
- 박물관 전시, 정형화된 투어, 안내 프로그램이 포함

### 유산 해석 등장 배경

- 유산의 다양한 형태, 가치를 함께 고려
  - 전문가 관점에 국한되지 않은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 유산 가치 중요
- ※ 해설사 = 중요한 이해관계자

### 유산 해석·설명 의 국제적 담론

- 프리먼 틸든의 해석 6원칙(1957)
- 에나메 헌장(2008)
- 현 시대에 맞는 유산 해석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문화유산지의 해석과 설명에 관한 ICOMOS(이코모스)<sup>1</sup> 헌장

1.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약자로 국제기념물협의회라고도 칭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

### 프리먼 틸든의 ‘우리의 유산 해석하기’ (1957)

1. 좋은 해석은 방문객의 경험이나 사고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2. 정보 그 자체는 해석이 아니지만, 반드시 정보에 바탕을 한 내용이어야 한다.
3. 해석은 과학, 역사 및 건축이 접목된 종합 예술이다.
4. 해석이 주된 목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5. 해석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전달해야 한다.
6.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석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해석을 단순화해서 만들면 안 된다.

### 해석과 설명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

1. 접근과 이해 향상(Access and Understanding)  
: 대중들의 해당 유적지에 대한 지적, 물리적 접촉이 쉬워야 함
2. 정보의 확실한 출처(Information Sources)  
: 검증된 과학 학술적 방법, 살아있는 문화 전통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에 기초해야 함
3. 환경과 맥락의 중요성(Setting and Context)  
: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맥락과 주변 환경을 연관시켜야 함
4. 진정성의 보존(Preservation of Authenticity)  
: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sup>2</sup> 정신에 입각한 기본 원리 존중해야 함
5. 지속성에 대한 계획(Planning of Sustainability)  
: 사회적, 재정적, 환경의 지속성 중 주요 목표들과 함께 유적지의 자연적 문화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
6. 포용성에 대한 고려(Concern for Inclusiveness)  
: 전문가, 소유자와 관련 공동체, 이해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협력의 결과물이어야 함

2. 나라문서(1994):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보존과 관련된 문화 다양성,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대한 필요성 언급



##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1) 서원의 이해

#### 서원이란?

-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
-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 선현先賢 제사,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
-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 지역 문화 선도

#### 서원의 기원

-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 재위 712~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담당한 '여정서원'이 최초
-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 제사기능,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
-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 1130~1200가 세운 '백록동서원'은 학규,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
-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모티브

#### 한국에서 서원 성립

-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 국학(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육 권장

-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저하,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
-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 중국의 서원 제도 주목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 건립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 확산

#### 서원의 구성원: 사람

- 향촌 지식인집단
-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
-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
- 관련 자료: 『원장안院長案』,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등

구성원

구분	역할
원장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의 일 총괄</li> <li>•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 관리 주체</li> <li>• 임기는 1~2년, 대체로 연임 허용</li> </ul>
원임院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li> <li>•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로도 불림</li> <li>• 서원 내 규찰, 재정 문제 담당</li> <li>•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li> </ul>
원생院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li> <li>•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 통해 최종 선발</li> <li>•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li> </ul>

## 서원의 규약(規約)

- 원규院規 : 강학 제향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
- 학규學規, 강규講規 :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
- 절목節目 :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세칙
- 완의完議, 입의立議 :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 서원의 재정

- 대체로 지역 사람의 자발적 출연 통한 토지, 노비,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
- 사액서원에는 서적, 토지, 노비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
- 관련 자료: 『전답안田畓案』, 『노비안奴婢案』,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 서원의 주요 기능: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 강학

- 성리학 교육을 통한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 개별학습인 독서,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
-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
-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
- 강학 활동은 ‘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과 ‘공식적·의례적강학으로서 강회講會’로 구분

### 강학의 종류

구분	내용
거접居接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문회文會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
거재居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순제旬題	지방의 향교鄉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통독通讀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향사 후의 강회講會	향사享祀를 지낸 후, 「백록동규白鹿洞規」나 「여씨향약呂氏鄉約」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講生들이 강장講長 앞에서 진강進講을 하는 순서로 진행. 진강을 하는 방식은 씨[姓: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추첨 기구]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

### 강학 의례

구분	내용
흥미를 갖춘 공식적 의례	정음례庭揖禮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 음례揖禮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
	상음례 큰 음揖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강습례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陳設;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침배瞻拜;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상음相揖;서로간 음례를 거행함-승당升堂;당에 오름-독규讀規;규약을 읊음-배독拜讀;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진강進講-예필禮畢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관습적 의례	경독 敬讀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 <sup>白鹿洞規</sup> , 사물잡 <sup>四勿箴</sup> , 심잠 <sup>心箴</sup> , 경재잠 <sup>敬齋箴</sup> , 숙흥야매잠 <sup>夙興夜寐箴</sup> 을 낭독하는 것이다.
	개접례, 입접례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파접례, 후접례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귀가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수창시	수창시는 ‘회강’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제향

-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
-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 정신 이어나갈 것을 다짐, 결속 다지는 기회

제향의 종류

구분	명칭	시기
정기	춘추 향사	매년 봄·가을
	삭망례	매월 초하루, 보름
	정알례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6일
비정기	이안제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환안제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위안제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예성제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사액례	사액을 받을 경우
	치제	국가에서 제관 보내어 지내는 경우



입재



성생례



집사분정



분향례



사우입장



제물근봉



초헌례



중헌례



철변두



파제



향약낭독



음복례

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



## 교류와 유식

- 교류<sup>交流</sup>: 서원의 구성원, 서원에 방문한 명사,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 물질 교류
- 유식<sup>遊息</sup>
  -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 『예기』 권17, 학기 18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sup>藏修</sup>: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
  -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양성 방식의 일환.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sup>品格</sup>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
-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
-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
-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
- 해주향약, 남전향약, 예안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
- 관련 자료: 『심원록』 등

##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

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

### 성립과 발전 과정

#### 중국 서원(書院)

- 남송 시기 관학 쇠퇴와 과거제도 부패 비판하며 흥성
- 남송 이후 과거시험과 관련된 관학의 보조적 성격으로 전환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으로 변모



#### 일본 시주쿠(私塾)

- 17~19세기 걸쳐 유학에 기반을 둔 고등 교육기관으로 설립
- 설립자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의학, 산학, 서양학문도 함께 교육
- 중국, 한국에 비해서 유학이 제도,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과거제도가 없어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형태로 발전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 대학으로 발전



#### 한국의 서원(書院)

- 16세기 중반 태동, 지역 성리학 집단인 사림<sup>士林</sup>의 주도로 성장
- 관학적 성격이나 국가의 관료선발과정에 관련되지 않음
- 19세기 말 교육 기능 종료까지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일관적으로 운영
- 근대화 과정에서도 명맥 유지

## 사회적 기능

### 중국 서원

- 송 시기 학문 중심기구, 여론 형성기구
- 점차 관학 보조기구로 정착되며 정치, 사회활동 성격 약화

### 일본 시주쿠

- 유학이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되지 못하여 포괄적 기능 수행에 한계
- 사숙 출신 학생이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사상 선도

### 한국 서원

- 지성 활동, 공론 형성이라는 실천적 성격
- 공론을 국가에서 억압하거나 규제하지 않음
- 성리학 이념에 기반을 둔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 제정하여 향촌 교화

## 건축물 배치

### 중국 서원

- 강학, 제향, 장서루로 구분되어 구성
- 특히 장서루 공간이 크게 발달되어 중시
-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이 상호 대등한 위치 차지하며 관계 자유로움
- 앞쪽 경계에 반수(泮水)로 이루어진 인공적 조경에 의존
- 건축 배치 정형을 규정하기 어려움



중국 백록동 서원 반수

### 일본 시주쿠

- 정형화된 배치 및 건축 형식 없음
- 제향기능을 갖추지 않음
- 단일 건물 사용하여 기능별로 공간 구획

### 한국 서원

- 공유된 건축 정형 갖춤
-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을 하나의 축선 상에 위치시켜 유기적 연결
- 제향 공간인 사우를 높은 위계건축으로 형성
- 자연지세를 활용한 독특한 한국적 건축기법

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

		한국의 서원	중국의 서원	일본의 시주쿠
도입 시기		16세기	7세기	17세기
설립 목적		성리학 지식인 양성 지역 기반 선현 제향	유학 지식인 양성 → 관료 양성 관학 보조	지식인 양성
교육 대상		지역 유생	제한 없음	무사, 가신 그룹
교육 학문		성리학	유학	유학,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 다양
제향	인물	지역단위 선현	주로 공자 등 성현	크게 중시하지 않음
	의례	현재까지 존속	일부 서원만 유지	
사회적 기능		지역 공론 중심지 지역 교화 중심지	국가정책 따라 변동	근대사회 전환 기여
건축	입지	제향인물 연고지 자연 경관 고려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등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기능	제향-강학-유식	강학-제향-장서	강학
	구성 요소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반지 과거합격 비석군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배치 유형	공통의 배치 유형 존재	서원별 개별성 강함	단일건물 중심
	경관 구성	자연친화적 개방과 관입 구현	인위적 폐쇄적	인위적 폐쇄적
	지역성	좌식 생활 구조 온돌, 마루의 조화	입식 생활 구조 의자, 화로	좌식 생활 구조 다다미, 화로

##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 성균관(成均館)

- 중앙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최고 교육기관
- 공자<sup>孔子</sup>와 그의 제자를 비롯한 중국 현인<sup>賢人</sup>들과 우리나라 현인을 제사지내는 문묘, 강학 공간인 명륜당 갖추

### 향교(鄕校)

- 지방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주로 향촌에 가까운 곳에 입지
-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문묘, 명륜당 갖추



서원과 향교, 성균관 비교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 주체	사림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포	지역별 다양	군현별 1개	수도에 1개
설립 목적	인성교육 선현제향 사림 활동 기반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사회적 역할	지역 공론 형성 지역 문화 교류		유생 공론 형성
입지	제향 대상과 관련 교육 목적에 부합	지방 행정 중심지	수도
구성 요소	사우(선현),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유형	제향-강학-교류, 유식	강학-제향	강학-제향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



서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어득강(魚得江, 1470~1550)의 상소

## 2) 세계유산 가치

###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 등재 기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충족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
-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 토착화되는 과정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

####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

####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
- 활용과 기능,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
-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무형유산,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

## 보호 및 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증축,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

##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 연속유산이란

-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
-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

## ‘한국의 서원’ 입지 특성

###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

-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sup>先賢</sup>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
-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
-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 관련

## 수려한 주변 경관

-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
-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
-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
- 특히 정자,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

## ‘한국의 서원’ 건축 특성

### 보편성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건립되며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
-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
- 대부분의 서원은 아래와 같이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

### 독자성

-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
-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
-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 건축 구조 형성

## 공간 구분

### 제향공간

- 건물: 사우, 전사청, 제기고 등
-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
-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 별도 출입문 설치
  - 사우: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
  - 전사청: 제물,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
  - 제기고: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

### 강학공간

- 건물: 강당, 재사, 장서각, 장판각 등
-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
  - 강당: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
  - 재사: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 서재로 구성, 학생들의 기거 공간
  - 장서각, 장판각: 목판이나 도서 보관

### 교류와 유식공간

- 건물: 누각, 정자 등
- 누각은 누정,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좌식공간관습 가지는 한국의 건축 전통과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결합된 건축형식
- 연못,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

## 기타

- 고직사, 교육시설, 하마비, 홍살문, 기념비 등
- 하마비,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
  - 고직사: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
  - 교육시설: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 전통 건축기법 토대로 건립
  - 하마비: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
  - 홍살문: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



## ‘한국의 서원’ 서원별 세계유산가치

서원명	세계유산가치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로 건립된 서원</li> <li>강학,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li> </ul>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li> <li>사당과 강당이 일렬로 배치되는 서원 건축의 정형적 배치방식</li> </ul>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li> <li>누마루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li> </ul>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li> <li>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li> </ul>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li> <li>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규,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li> <li>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안동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li> <li>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li> </ul>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li> <li>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li> </ul>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li> <li>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li> </ul>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 3) 등재 과정

### 등재 추진 배경

- 서원이 건축, 공간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적 가치도 우수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

### 추진 관련 기관

- 2010년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 2012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발족
- 2015년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출범

### 1차 등재 추진 경위

- 2011년 12월 한국의 9개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sup>1</sup>
- 2015년 1월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유네스코에 제출
- 2015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 현지 조사 후 철회 권고
- 2016년 4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철회

1. 1871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과 사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 충족 여부 확인하여 9개 서원 선정

# 등재 재추진 경위

- 2016년 8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 의결
- 2018년 1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 2018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의 현지 실사
- 2019년 5월 이코모스 평가결과 등재 권고
-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확정





# 02

장성 필암서원



# 1. 장성 필암서원 개요

## 1) 장성 필암서원의 역사

### (1) 건립

#### 건립 배경

- 1564년 김인후를 제향하기 위하여 영귀정사<sup>詠歸亭祠</sup> 건립
- 1570년 순창<sup>淳昌</sup>에서 김인후를 추모하기 위하여 화산사<sup>華山祠</sup> 건립
- 김인후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필암서원 건립

#### 건립 과정

- 1590년 김인후의 문인 기효간<sup>奇孝諫</sup>, 1530~1593, 변성온<sup>卞成溫</sup>, 1540~1614, 변이중<sup>邊以中</sup>, 1546~1611 등이 뜻을 모아 장성부 서쪽 10리 기산<sup>岐山</sup> 아래에 사우<sup>祠宇</sup> 건립
- 전라감사<sup>全羅監司</sup> 윤두수<sup>尹斗壽</sup>, 1533~1601 발의, 정철<sup>鄭澈</sup>, 1536~1593 후원
-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왜군의 방화로 소실
- 1624년 김인후의 문인들이 필암서원의 복설 추진, 증산<sup>甞山</sup> 아래로 옮겨서 건립
- 1672년 증산동의 지대가 낮고 경사져서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사액서원답게 건물의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해타리<sup>海打里</sup>로 이건

## 필암서원 재정 마련

- 1672년 이건 당시 집권 서인세력의 전폭적 지원과 협조 확인
- 『원장선생안<sup>院長先生案</sup>』의 초대 원장으로 기록된 송준길<sup>宋浚吉</sup>, 1606~1672이 서원 이 건에 적극 참여
- 서인의 영수 송시열<sup>宋時烈</sup>, 1607~1689의 아우 송시도<sup>宋時燾</sup>, 1613~1689가 장성부사로 부임해 이건의 마무리 지원
- 유생 이실지<sup>李實之</sup>, 박승화<sup>朴升華</sup> 등이 참여하여 감독하며 서원 공사

### (2) 사액

#### 필암서원 사액

- 1658년 오이익<sup>吳以翼</sup>, 1618~1666을 소두<sup>疏頭</sup>로 하여 전라도 유생들의 연명 상소로 사액 요청
- 1659년 필암<sup>筆巖</sup>이라는 액호 결정
- 1662년 실제 사액 이루어지고, 조정에서 예관이 내려와 치제<sup>致祭</sup>

#### 필암의 의미

- 김인후의 태생지인 황룡면 맥호리 맥동마을 입구의 붓바위<sup>筆巖</sup>에서 비롯
- 풍수지리학에서 터를 잡은 곳에 붓 모양의 산이나 바위가 있으면 대학자가 난다고 함

### (3) 운영

\* 자세한 사항은 『장성 필암서원 정밀실증조사보고서』 2014, 『서원향사』 필암서원 참고

#### 필암서원 구원규(舊院規)

- 원장院長은 경향京鄕을 막론하고 지위가 높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천망薦望할 것
- 원이院貳는 본도本道 내의 지위가 높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천망할 것
- 진신장의摺紳掌議는 본도 내의 지위가 있고 학문이 특히 우수한 사람을 천망할 것
- 유림장의儒林掌議 도道, 군郡 간의 유림儒林 중 문행文行과 신망이 있는 사람을 천망할 것
- 유림색장儒林色掌도 유림 중 문행과 신망이 있고 서원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천망할 것
- 유사有司 3인 중 1인—속칭 당장堂掌—은 서재西齋의 유생 중 인품이 언행을 삼가고 글과 산수에 뛰어난 사람으로서 서원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을 택하여 일을 맡길 것
- 장재유사掌財有司는 본래 규례規例에 없다가 강수청講修廳을 설치한 하면서 처음 두었고, 본손本孫과 유림 중 청렴하고 공정하며 부유한 사람을 선정하여 겸임하게 할 것
- 원장과 원이가 본원本院을 대표할 것
- 장의와 색장은 월분향月焚香과 향사享祀 의식, 재산 수입과 지출 사무를 전담하여 사원祠院을 반드시 보존하고 유림의 기강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
- 유사는 향사 시 의절의 봉행과 서원 내의 집물什物 등을 자세히 조사, 보관, 일상적인 문서를 일일이 담당하여 맡을 것
- 장재유사는 장색掌色의 재산의 수입과 지출 통지에 의거하여 모두 인식하여 남으면 보관하고 부족하면 빌릴 것
- 원장, 원이는 임기가 없고 진신摺紳은 3년이며 장색은 3년을 채우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재임할 것
- 유사는 임기가 없지만 잘못이 있으면 바꾸어 뽑을 것
- 장재유사의 임기는 4년을 채우고 경우에 따라 재임할 것
- 춘추향사 소집 시 이외에 서원 내에 큰 일이 있으면 장색이 원장에게 아뢴 후에 진행할 것

- 의결은 회원의 다수에 따라 결정하고 가부가 반반이면 장의가 결정하여 처리할 것
- 재산의 경리經理에서 춘추향사비, 재산관리비, 영선비營繕費, 분향비, 회의 및 강회비는 지출 후 일용부日用簿에 의거하여 색장色掌이 연말에 통지하면 장재掌財가 매년 추향 회의에서 보고할 것
- 원임이 교체되어 문서와 장부를 인계할 시 신규 임원이 서책書冊, 제기祭器, 제구祭具, 집물을 점검하여 주고받으며 절대 문밖으로 빌려주지 말 것

#### 필암서원 신원규(新院規)

- 구원규 외에 부득이하여 고치치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이하라
- 도유사都有司는 경향京鄕을 막론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천망薦望하라
- 도장의道掌儀, 도색장道色掌은 도내 유림 중 덕망이 높은 자를 천망하라
- 장의, 색장은 향내 유림 중 문행文行이 있고 사물에 밝은 사람으로 선정하라
- 향사 후에 반드시 강회講會를 열고, 난잡한 술자리, 잡담, 시가詩歌, 바둑, 장기 등의 유희遊戱를 일절 금하라
- 제관祭官과 산양계원山仰契員은 반드시 유림 세가世家 중 학문이 있고 행동이 도리에 맞는 사람으로 하라
- 서책과 문적文蹟은 잠시라도 빌려나갈 수 없다
- 산양계山仰契는 오직 서원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별도로 임원을 두어 매 행사 후에 반드시 경리經理를 보고할 것
- 원임院任, 원유院儒가 된 사람은 반드시 학문을 연구하고 행실을 닦아 사림의 귀감이 되고자 기도하라

#### 필암서원 원임(院任)

- 원장院長, 원이院貳, 진신장의摺紳掌議, 유림장의儒林掌議, 유림색장儒林色掌, 유사有司 등으로 구성
- 원장, 원이는 중앙정계의 고위관료나 산림山林 선임

- 진신장의는 장성 또는 인근지역 지방관 선임
- 유림장의는 장성과 인근지역 사족 선임
- 경원장京院長은 서인 또는 노론의 영수가 맡음
- 원이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대체로 선출되지 않음
- 관련 유물: 『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

### 원생(院生)

- 서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요소
- 나이에 상관없이 학문에 힘쓰고자 하는 자를 모두 입원하도록 규정
- 신분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 없음
- 관련 유물: 『입원록入院錄』

### 필암서원 재정

- 『노비전답안奴婢田畓案』 등을 통해 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이 정립되는 단계 보여줌
- 서원의 경제적 기반, 관련 토지, 노비를 포함한 경제 운영 전반 기록이 상세하게 남음
- 노비의 명단과 계보도인 『노비보奴婢譜』 현존, 한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노비 족보로 출신, 가족관계 정보 수록
- 필암筆巖, 중동中洞, 장자壯子 세 마을이 서원촌으로서 향사 거행 시 각종 역과 제수祭需 담당
- 원속院屬들이 일정량의 돈이나 현물 납부

## 2) 장성 필암서원의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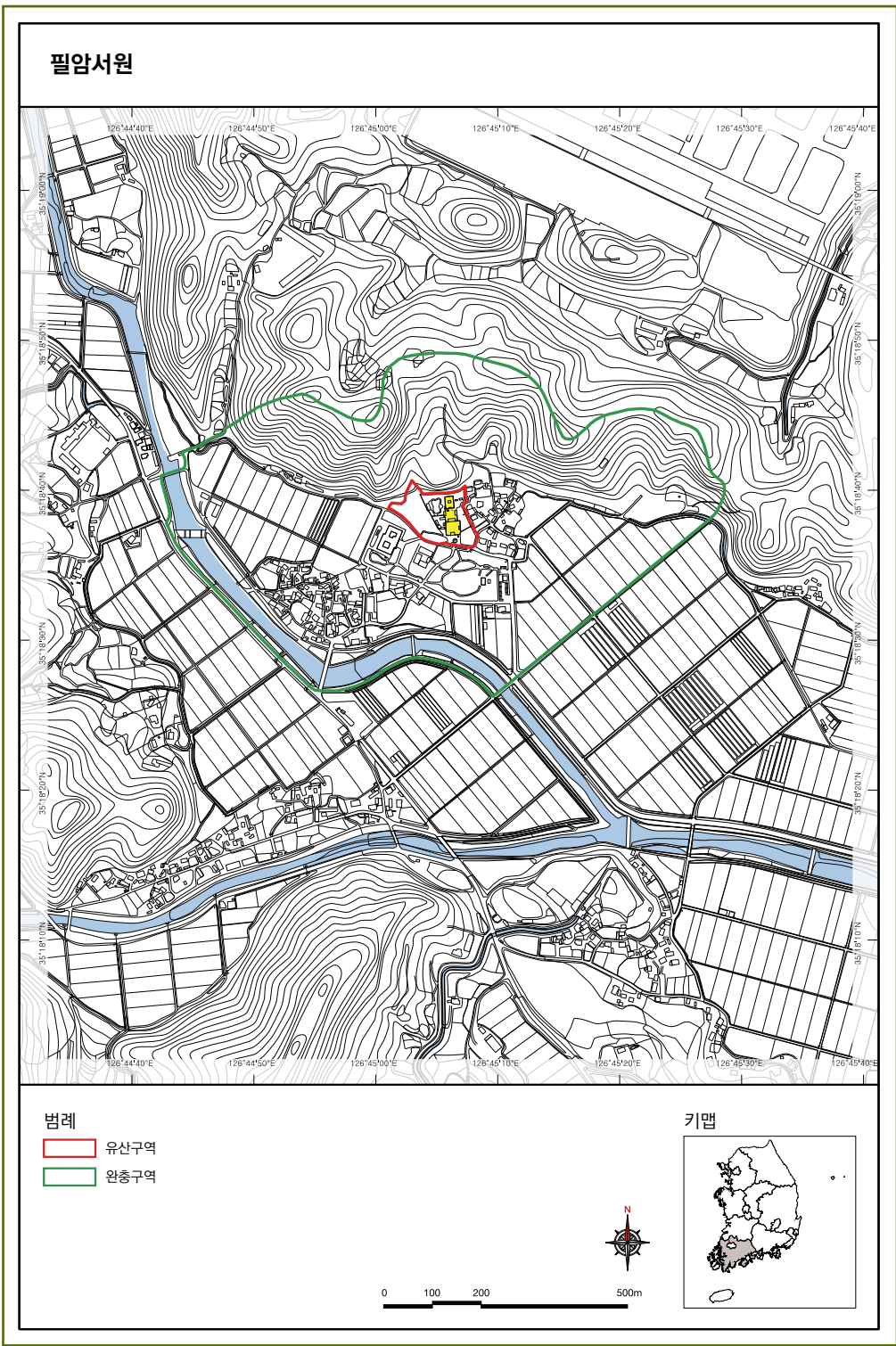
### 필암서원의 입지

-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
- 뒤편에 야산을 등지고 전면에 평야가 펼쳐진 평지에 입지
- 누마루인 확연루에서 야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음
- 평지형 서원 배치의 하나의 전형
- 기산은 김인후의 고향인 맥동 근처에 입지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 및 인접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



건물배치도

- 다른 서원과 달리 강당이 입구를 등지고 산 아래의 사당을 바라보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독특한 예경관 禮景觀 구현
- 중심축선상에 중심 건물이 있고 동재, 서재를 좌우 대칭으로 배열
- 누문 樓門 형식의 확연루
- 전형적인 전학후묘 배치



## (1) 강학

### 건물

#### 청절당(淸節堂)

- 목적: 원장과 원이의 기거, 학생의 강학, 회의
- 청절淸節: 인종仁宗, 재위 1544~1545이 승하하자, 절개를 지켜 몸을 숨기고 벼슬길을 끊은 김인후의 인의仁義를 상징
-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
- 중앙 3칸이 강당, 측면 1칸씩은 각각 원장과 원이가 기거하는 온돌방
- 본래 진원현珍原縣 객사를 1672년 옮겨온 것
  - \* 진원현: 전남 장성군 진원면의 옛 행정구역

#### 청절당 관련 유물

##### 필암서원 현판

- 1662년 사액
- 필암: 김인후의 고향 마을 입구에 있는 붓 모양의 바위 이름에서 기원
- 윤봉구尹鳳九, 1683~1767의 글씨
- 임인壬寅 정월正月 일에 사액

##### 청절당 현판

-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글씨로 전해짐

#### 전교(傳敎)

- 1691년 8월 숙종肅宗, 재위 1674~1720이 내린 전교
- 학교 설치를 통한 흥학興學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
- 숙종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1710년 계판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 8월 10일 기사

#### 백록동학규(白鹿洞學規)

-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가 백록동서원을 복구하며 지은 학규
- 참된 군자로서 수행해야 할 오교지목五敎之目, 위학지서僞學之書,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 등의 내용 기재
- 김인후는 평소 백록동 학규를 모범으로 제자 교육
- 후반부는 김인후가 지은 독백록동규讀白鹿洞規라는 시

#### 문묘종사반교문(文廟從祀頒敎文)

- 1796년 정조正祖, 재위 1777~1800가 김인후를 문묘에 종향한 후 그의 행적과 학문을 높이 칭송한 교서
-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구상具庠, 1730~?이 지음

#### 문묘종사교서(文廟從祀敎書), 문묘승배축문(文廟陞拜祝文)

-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한 후 정조가 내린 첫 번째 교서
- 김인후를 해동海東의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이자 호남湖南의 공자孔子로 칭송
- 김인후를 은殷나라의 뛰어난 신하인 부열傳說, 이윤伊尹에 비유
- 예문관제학 구상이 지음



『정조실록』 권45, 정조 20년 11월 8일 교서

강희 원년 치제문

- 1662년 예조정랑禮曹正郎 윤형계尹衡啓, 1594~1675가 왕명을 받아 치제할 때 지은 치제문致祭文
- 지제교知製敎 신상申恂, 1598~1662 작성
- 김인후의 정절, 성품 등을 칭송하는 내용

원중집강기(院中執綱記)

- 서원의 원임의 직임과 명단을 기재한 기판

집사분정기(執事分定記)

- 필암서원 춘추 향사 때 헌관, 집사의 직임과 명단 기재

척 기	세 작	장 생	전 사	사 준	찬 인	찬 차	알 자	전 작	봉 작	봉 로	춘 향	대 축	집 례	진 설	헌 관	헌 관	헌 관	집 사 분 정 기
--------	--------	--------	--------	--------	--------	--------	--------	--------	--------	--------	--------	--------	--------	--------	--------	--------	--------	-----------------------

갑 인 8 월 일 간	제 생	학 생	관 세
----------------------------	--------	--------	--------

고암선생(鼓巖先生) 추배시(追配時) 유림(儒林) 상언(上言)

- 고암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배향할 때 유림들이 상언한 내용과 의조儀曹, 예조의 회계回啓에 대한 임금의 비답批答
- 김이현金履鉉 작성

필암서원중수기(筆巖書院重修記)

- 1888년 군수郡守 김승집金升集 등이 필암서원을 중수한 내용
- 김승집 작성
- 1889년 3월에 게판

어자사제문(御製賜祭文)

- 1786년 정조의 명으로 치제를 시행할 때 제문
- 정조 작성
- 좌부승지左副承旨 박천행朴天行을 보내어 치제함

강수재(講修齋)

- 강수재의 원임의 직임 기재
- 강장講長, 접유사接有司, 장재유사掌財有司
- 계해癸亥 5월 일

진덕재(進德齋)·송의재(崇義齋)

- 목적: 학생들의 기숙과 개인 학습 공간
- 영조와 고종 때 중수, 개수
- 다른 서원과 달리 강당과 사우 사이에 재사 배치
- 진덕재는 1887년 중건
- 정면 4칸, 측면 1.5칸의 맞배지붕 건물

진덕재, 송의재 관련 유물진덕재 현판

-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작성

송의재 현판

- 송준길 작성



## 경장각(敬藏閣)

- 목적: 조선시대 국왕이 서원에 하사한 전적들과 서원의 강학 활동과 관련된 교재 등 보관
- 인종이 하사한 묵죽각판(墨竹刻板) 보관
- 장서들은 현재 유물전시관에서 보관
-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

### 경장각 관련 유물

#### 경장각 현판

-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할 때 정조가 내린 내탕금(內帑金)으로 세운 것
  - 정조의 어필
- \* 내탕금: 내탕(임금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던 곳)에 둔 금이나 돈

## 장판각(藏板閣)

- 서원에서 생산된 목판 등 보관
- 1971년 건립
- 현재까지 해당 건물에 목판 보관 중

### 장판각 관련 유물

#### 장판각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 교육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서원의 주요 기능

## 김인후의 강학 활동

- 스승 김안국(金安國, 1478~1543)으로부터 배운 『소학(小學)』을 중요시
- 순창 점암촌, 훈몽재, 장성 맥동에서 강학 활동
- 장성에서 강론을 하면서 철학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펼쳐 성리학 체계 정립

## 필암서원 강학

-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하고 청절당에서 강회 개최
- 원임이 강관(講官)이 되어 제술(製述), 강경(講經)을 나누어 강의를 맡음
- 우수자에게 종이를 상으로 내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벌로 종이를 내도록 함
- 불참자나 시간을 지키지 못한 자도 벌로 종이를 내도록 함
- 1775년 강수청(講受廳)을 만들고 강장(講長)을 두어 유생 교육 담당하도록 함

## 필암서원 문적(文籍)

- 나라에서 내려준 내사본(內賜本)이 많음
  - 1802년 『필암서원원적(筆巖書院院籍)』의 서책질(書冊秩)에는 서책 30종 234권, 책판질(冊版秩)에는 목판 6종 525입(立) 기재
  - 『오경백편』, 『좌전춘추』, 『아송』, 『규장전운』, 『향례합편』, 『삼강행실』, 『이륜행실』이 내사본
  - 1796년 김인후의 문집 판각, 김인후가 지은 『초천자문』, 『무이구곡』, 『백련초해』 등은 필암서원에서 판각하여 간행, 목판 보관
- \* 관련 유물: 「필암서원 문적일괄」, 「김인후 관련문서」

## (2) 제향

### 인물

#### 김인후(金麟厚)

-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 담재湛齋, 시호는 문정文靖
- 저서: 『하서집河西集』,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백련초해百聯抄解』 등

#### ① 출생

- 본관은 울산蔚山, 아버지 김령金齡, 1474~1549는 의릉참봉義陵參奉을 제수 받았음
- 김인후는 1510년 장성현長城縣 대맥동리大麥洞里 출생
- 김인후는 태어날 때부터 생김새가 단정하고 기개와 도량이 넓고 두터워서 아버지 김령이 기특하게 여기고 아꼈다고 함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1514년 5세에 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우고, 10세에 김안국에게 『소학』을 배웠으며, 18세에 최산두崔山斗, 1483~1536에게 찾아가 논학論學
- 1528년 19세에 성균관 칠석제七夕製에서 장원
- 1531년 성균관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후 성균관에서 유학하며 이황李滉, 1501~1570과 함께 강학講學
- 1540년 31세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 종9품로 출사
- 홍문관弘文館 저작著作, 정8품, 박사博士, 정7품,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設書, 정7품 등 역임
- 1543년 부모 봉양을 위해 외직을 청하여 옥과현감玉果縣監 부임
- 1545년 인종이 승하하자 사직하고 귀향한 이후 제수된 관직 사양

- 1557년 『주역관상편』, 『서명사천도』 저술
- 1560년 정침에서 사망
- \* 자세한 사항은 『하서집』 부록 연보 참고



『하서집』 부록 연보

#### ③ 학문

- 김인후는 도학을 존송하고 성현의 법에 따라 백성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함
- 태극음양설 논쟁에 대해 이기理氣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며 태극이 음양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체로 이理의 우위를 인정하여 태극음양이 일물一物이라는 것을 논박
- 인간의 문제로부터 우주의 문제에 접근하여 「하서천명도」를 작성, 성性을 중中으로 이해하였음
- 수양론에 있어서 성경誠敬을 주된 목표로 삼아 경敬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하여 마음 이 일신一身을 주재할 수 있게 된다는 주경설主敬說 주장

#### ④ 평가

- 송시열은 우리나라 인물 중 도학, 절의, 문장 세가지를 치우침 없이 온전히 갖추었다고 평가
- 『명종실록』에 있는 김인후의 졸기에는 타고난 자질이 맑고 순수하며 시문을 지음에 당시에 비길 사람이 드물다고 평가
- 정조는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다 갖춘 사람은 김인후 한 사람뿐이라고 함



『명종실록』 권26, 명종 15년 1월 김인후 졸기

### ⑤ 시호 하사 및 문묘종사

- 1669년 필암서원이 사액되며 이조판서吏曹判書, 정2품,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정2품에 추증, 문정文靖 시호 받음
- 1771년 전라도 유생 양학연梁學淵 등이 수차례에 걸쳐 김인후의 문묘 종향 소청
- 1796년 영의정領議政, 정1품 추증, 문정文으로 시호를 고쳐 받고, 문묘文廟에 종사

## 양자징(梁子澂)

- 자는 중명仲明, 호는 고암鼓岩
- 고암은 소재원 동쪽 웅정봉 뒷자락에 있는 바위 이름에서 유래

### ① 출생

- 본관은 제주濟州, 아버지 양산보梁山甫, 1503~1557는 기묘사화己卯士禍가 발생하자 소재원瀟灑園을 짓고 은거하며 김인후 등과 교유
- 양자징은 1523년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5세에 모친상을 당함
  - \* 모친상을 당한 후 병을 얻었는데, 약을 먹이자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몸을 보존하고자 약을 먹는 것은 불효라며 도망쳤다고 함
- 아버지로부터 『소학』을 배우고 이황, 김인후의 문하에서 수학
- 정철鄭澈, 1536~1593, 조헌趙憲, 1544~1592, 성혼成渾, 1535~1598 등과 교유
- 1569년 47세에 향시鄉試 합격
- 전라감사 정종영鄭宗榮, 1513~1589의 추천을 받아 참봉參奉, 종9품 임명
- 영의정 박순朴淳, 1523~1589의 천거를 받아 1581년 거창居昌 현감縣監 부임
- 석성石城 현감에 부임하였다가 두 아들이 '정여립鄭汝立, 1546~1589사건'에 휘말려 죽으며 파직
- 1594년 소재원 뒤편 고암굴에서 은거하다가 사망

### ④ 평가

- 김인후는 양자징을 매우 기특하게 여겨 사위로 삼았음
- 학문에 뜻을 기울여 조예가 날로 깊어져 이황, 이이李珥, 1536~1584, 성혼 등의 존중을 받음
- 전국의 숨은 인재를 추천하라는 선조의 명에 고을 사람들에 의해 효자로 추천됨
- 송시열은 그의 행장에서 학문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 으뜸이었다고 평가

### ⑤ 배향 경위

- 1697년 호남 유림이 소를 올려 양자징의 필암서원 배향 요청
- 1703년 전라도 생원 나천형羅天衡, 1658~? 등이 소를 올려 배향 요청
- 1786년 진사 이경집李敬緝 등의 소를 올려 청하자, 예조에서 주희의 사당에 그의 제자를 배향하는 것과 같다고 하며 요청
- 1786년 김인후의 사위로 학문의 전통을 이어받고, 여러 선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필암서원에 배향



## 건물

### 우동사(祐東祠)

- 제향인물인 김인후와 양자징의 위패 봉안
- 우동祐東: 김인후 신도비문에 있는 ‘하늘의 도움祐으로 동방東方에 태어났다’라는 의미
- 중앙 북쪽 벽에 김인후, 동쪽 벽에 양자징의 위패 봉안
- 전에는 필암서원 편액이 이곳에 걸려 있었음
-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

#### 우동사 관련 유물

##### 우동사 현판

- 안규옹安圭容, 1873~1959가 명명하여 주희의 글씨를 집자하여 작성

### 전사청(典祀廳)

- 목적: 제향 관련 제기 보관 및 제향 준비
- 정면 1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
- 사우를 두르는 담장 바깥이 정면으로 담장 안의 사우 공간에서 출입 불가

## 기타

### 계생비(繼牲碑)와 묘정비(廟庭碑)

- 전면: 계생비 / 후면: 묘정비
- 계생비는 향사에 쓸 가축을 매어 놓는 비
- 제사에 쓸 동물을 묶어 놓고 제관들이 그 주위를 돌면서 제물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충돌례 진행
- 묘정비는 서원의 건립 취지와 연혁, 서원에 모셔진 인물에 대해 기록한 비석, 서원 비書院碑라고도 부름

## 의례

### 필암서원 향사(享祀)

- 필암서원 향사 일시는 중춘仲春, 음력2월, 중추中秋, 음력 8월 중정일中丁日
  - \* 중정일: 한 달 중 십간의 정丁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 춘추 향사의 특징은 희생에 쓸 가축을 살피는 ‘성생례’를 성생단이 아닌 계생비繫牲碑에서 진행
- 일반 서원은 주향에만 독축을 하지만, 필암서원에서는 배향위에도 별도의 독축을 함

### 필암서원 향사 준비

#### ① 제관선정

- 필암서원의 경우 춘향례는 음력 1월 보름, 추향례는 7월 보름에 초집招集
- 향례를 진행할 삼헌관, 대축, 집례 및 집사들을 정하고, 이들에 대한 망기 작성

#### ② 제주(祭酒) 담그기

- 고직사에서 향사일을 계산하여 미리 담금
- 김인후가 즐겨 마신 술인 청명주를 빚음

#### ③ 제수 준비

- 유사와 임원이 2~3일 전에 가까운 장에서 장만

#### ④ 입재(入齋)

- 유사와 임원, 삼헌관과 대축, 집례는 향사 전날 서원에 모임
- 제물봉진례祭物奉進禮에 필요한 제수봉진기祭需奉進記 작성

## ⑤ 강회(講會)

- 헌관 및 집사가 향사 전날 강당에 모여 각자 평소 즐기던 문장을 돌아가며 낭독
- 향사일에는 시제에 따라 각자 시를 지어 발표
- 선현에 대한 존경과 가르침을 일깨우기 위하여 진행

## ⑥ 당일 입재

- 제관은 본래 전일 입재가 원칙, 일반 참가자들은 당일 입재
- 학연루 아래 시도소(時到所)에서 시도기(時到記) 작성

## ⑦ 집사분정(執事分定)

- 필암서원은 헌관을 중심으로 강당에 모여 집사자를 확인하여 재분정
- 분정 된 집사 이름을 각각 써서 청절당에 걸린 분정기판에 붙임

## ⑧ 제물봉진례(祭物奉進禮)

- 진설 전 여러 제관이 강당에 모여 제물을 호칭하며 확인
- 확인 후 제관들은 읊을 하고, 대축은 제수봉진기(祭需奉進記)에 확인 표시

## ⑨ 진설(陳設)

- 제물 확인이 끝나면 제물을 가자에 싣고 사우로 옮긴 후 진설

## ⑩ 사축

- 진설을 마치면 우동사 앞에서 축문 작성

## 필암서원 향사 절차

## ① 취위(就位)

- 향사 전 초헌관이 찬인과 알자의 인도 하에 사당으로 들어가 진설을 살펴봄
- 향사는 집례가 향례의 진행 순서를 적은 흘기(笏記)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
- 축이 사당 안으로 들어가 주향위와 배향위의 주독을 여는 개독(開讀) 시행

## ② 전폐례(奠幣禮)

- 초헌관이 찬인의 인도 하에 신위전에 세 번 향을 향로에 넣는 분향례,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로 구성
- 필암서원 행례 동선은 동입서출

## ③ 초헌례(初獻禮)

- 초헌관이 신위전에 처음으로 헌작하는 의례
- 필암서원은 주향위와 배향위 모두에 독축

## ④ 아헌례(亞獻禮)

- 아헌관이 신위전에 두 번째로 헌작하는 의례
- 독축이 없는 것 외에는 초헌례와 동일

## ⑤ 종헌례(終獻禮)

- 종헌관이 신위전에 세 번째로 헌작하는 의례
- 필암서원에서는 종헌례 후 음복례가 아닌 삼헌관이 함께 재배

## ⑥ 음복례(飮福禮) (철번두 포함)

- 초헌관이 대표로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신이 흠향한 술과 조육을 맛보는 의례

## ⑦ 망료례(望燎禮)

- 축문을 구덩이에 묻거나 태워 넣음

## ⑧ 강의와 음복(飮福)

- 다른 서원의 경우 제례를 마치면 이번 제향을 점검하는 제공사祭公事 또는 제사공론祭祀公論을 행함
- 필암서원의 경우 제물분포례祭物分脯禮를 하고, 초헌관의 강의를 들음
- 강의가 끝난 후 음복

## 필암서원 향사의 특징

- 예전에는 제물로 쓸 희생을 매어놓고 생간례 진행, 다른 서원의 경우 성생단省牲壇이 서원 밖이나 강당 옆에 있는데, 필암서원은 계생비를 사당문 앞에 세움
- 진설 전 강당에서 제물봉진례 시행
- 다른 서원은 동입동출이 원칙인 곳이 많지만, 필암서원의 경우 동입서출의 원칙 고수
- 향례를 마친 후 분포례를 별도로 봉행

## (3) 교류와 유식

- 교류와 유식 공간은 유산을 둘러싼 자연과 통하는 공간으로서 정자, 누마루 등으로 구성
- 서원과 서원, 유학자와 유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
- 유식 공간으로써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등 보다 자유로운 학습 공간

## 건물

## 확연루(廓然樓)

- 서원 내·외부 사람들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곳
- 확연廓然: ‘군자의 학문이 넓고廓然 공정하여, 사물이 이르면 순응한다’는 정호程顥, 1032~1085의 말에서 가져온 것
-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
- 2층 건물로 1층은 누문樓門 역할

## 확연루 관련 유물

## 확연루 현판

- 송시열이 이름 짓고, 글씨 작성

## 확연루기(廓然樓記)

- 확연이라는 이름의 기원과 뜻, 중건 과정을 밝힘
- 1760년 김시찬金時燾, 1700~1766이 지음

## 필암서원확연루중건상량문(筆巖書院廓然樓重建上樑文)

- 화재로 소실되었던 확연루를 중건하며 작성한 상량문
- 1752년 송명흠宋明欽, 1705~1768 작성
- 상량 후 유풍儒風이 넓어지고 장수와 유식의 공간으로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내용



## (4) 기타 시설

### 고직사(庫直舍)

- 목적: 서원의 보존관리와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곳
- 1926년 다시 지어진 이후 수리한 건물
- 정면 4.5칸, 측면 1.5칸의 맞배지붕 건물
- 현재에도 상주하며 서원의 관리 및 보수정비 관여

### 한장사(汗丈舍)

- 서원에 소속된 노복<sup>奴僕</sup>의 우두머리가 거처했던 건물
- 제향에 사용되는 도구 일부 보관
- 정면 3칸, 측면 1.5칸의 맞배지붕 건물

### 홍살문

- 서원이 신성한 영역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시설

## 3) 필암서원의 특징

- 강당이 사당을 바라보고 있는 독특한 예경관으로 평야라는 입지 조건 극복
- 정조가 쓴 편액인 경장각
-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전라남도 유일의 서원으로서 호남사족 여론의 중심 지이자 진원지
- 인종이 김인후에게 하사한 묵죽도<sup>墨竹圖</sup>
- 호남에서 유일하게 성균관 문묘에 배향된 김인후 배향
- 누문 역할을 하며 예전 규모로 중건한 확연루

## 2. 장성 필암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 평지형 서원 배치의 전형

- 1590년 건립된 서원
- 장성 지역 사림에 의해 건립
- 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
- 호남 지역 사림 여론 형성의 진원지이자, 명사들의 학문 토론 현장
- 강당과 동재·서재가 사우(祠宇)를 바라보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위계를 부여한 평지형 서원의 전형
- 강당을 지켜보는 사우가 의례적,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하도록 배치

**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창건 및 사액 : 1590년 건립 / 1659년 사액**

**주향인물 : 김인후(金麟厚, 1510-1560)**

### 주요특징

#### - 구성 및 입지

- 서원의 일반적 구성(사우, 강당, 재사, 누마루) 정조가 하사한 서책을 보존했던 경장각을 별도로 조성. 농지를 전면으로 한 야경(野景) 입지의 전형이며, 경사지가 아닌 평지에 입지

#### - 특징

- 「노비보」·「노비안」·「양안」 자료를 비롯하여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파악할 수 있는 고문서 자료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음.

### 지정문화재

#### - 국가지정 1건(보물 1건), 시도지정 2건(유형문화재 2건)

##### 필암서원 문적일괄(보물)

- 보물로 지정된 필암서원 문적일괄은 총 14책 64매로, 인조 2년(1624)부터 1900년경까지의 자료로 구성. 대표적인 자료로는 역대 원장들을 기록한 『원장선생안』, 교관, 강의에 참석자 명단 등을 기록한 『보강안』, 강회 참가자 명단인 『문계안』, 필암서원 소속 유생 명단인 『서재유안서』, 서원 재산을 기록한 『필암서원원적』 등. 필암서원의 운영과 구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조선시대 지방교육제도와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임.

##### 필암서원 지정문화재

서원	종별	지정	명칭	구분	지정일
필암서원	국가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	부동산	1975.04.23.
		보물 제587호	필암서원 문적일괄		1975.05.01.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15호	필암서원 하서선생 문집목판	동산	1999.07.05.
		유형문화재 제216호	필암서원 하서유묵 목판 일괄		1999.07.05.
	장성군	보호수(704)	은행나무 (200년)	부동산	1982.12.03.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 교재

- 도동서원 -





# 목차

## 들어가며 04

### 1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1. 유네스코와 유산 10

- 1) 유네스코와 유산
- 2) 유산 해석과 설명

####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6

- 1) 서원의 이해
- 2) 세계유산 가치
- 3) 등재 과정

### 2부 달성 도동서원

#### 1. 달성 도동서원 개요 40

- 1) 달성 도동서원의 역사
  - (1) 건립
  - (2) 사액
  - (3) 운영
- 2) 달성 도동서원의 공간 구성
  - (1) 강학
  - (2) 제향
  - (3) 교류와 유식
  - (4) 기타 시설
- 3) 달성 도동서원의 특징

#### 2. 달성 도동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64



# 들어가며

## 일러두기

-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재
- 심화학습 자료, 관련 사이트는 QR코드 참고

## 범례

-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서원을 지칭하고, 서원은 조선에서 세워진 서원을 통칭함

01 영주 소수서원    02 함양 남계서원    03 경주 옥산서원



03 안동 도산서원    04 장성 필암서원    05 달성 도동서원



07 안동 병산서원    08 정읍 무성서원    09 논산 돈암서원



## ‘한국의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 / 사액 연도	주향 인물	비고
영주 소수서원	1543년/1550년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사적(1963)
함양 남계서원	1552년/1556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사적(2009)
경주 옥산서원	1572년/1574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사적(1967)
안동 도산서원	1574년/157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사적(1969)
장성 필암서원	1590년/1662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사적(1975)
달성 도동서원	1605년/1607년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사적(2007)
안동 병산서원	1613년/1863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사적(1978)
정읍 무성서원	1615년/1696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사적(1968)
논산 돈암서원	1634년/1660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사적(1993)

##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이해

### 전담해설사 제도의 목적

-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으로서 성격 소개
- 각 서원의 역사, 건축적 성격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연속유산인 9개 서원 이해, 해당 내용을 방문객에게 비교·전달

### 전담해설사 정의와 역할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정된 ‘한국의 서원’만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자, 하나의 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을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표준교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필요한 지식과 실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력

### 전담해설사 필요역량

- 방문객의 국적, 연령, 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해설을 제공
- 유산의 각 공간에서 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각 서원은 개별적으로 중요한 국내 유산이며 동시에 9개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세계유산의 일부임
- 유산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되 지식과 정보의 일방적 주입 지양
- 해설 목적은 방문객과 유산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 근거 있는 정보 수집 경로 제시





# 01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1. 유네스코와 유산

## 1) 유네스코와 유산

### 유네스코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
-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 세계무형문화유산

-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로서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름
-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

### 세계기록유산

-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
-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단독 기록이거나 기록의 모음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

※ 근거: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 **완전성과 진정성** 개념을 충족했는지
  -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보호관리계획**을 갖추었는지
- \* 등재 기준, 진정성과 완전성,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

### 완전성(Integrity)이란?

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특성에 대해 전체, 본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 진정성(Authenticity)이란?

본래 또는 역사의 과정에서 지니게 되는 가치에 대한 진실성,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것

### 세계유산 구역: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범위
- 유산구역: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역
- 완충구역: 유산구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며 인접한 주변 환경과 중요한 경치 등 포함

## 세계유산 등재 기준

구분	등재 기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에 의한 <b>결작</b>
	(ii)	일정한 기간,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b>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b>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b>독보적인 증거</b>
	(iv)	<b>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b> 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
	(v)	하나(혹은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b>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b> 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b>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b>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독보적인 <b>자연미</b> 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의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특징물 등 <b>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b>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b>생태적·생물학적 과정</b> 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x)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b>멸종 위기 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b> 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

- 등재 기준 중 (i)부터 (vi)까지는 문화유산, (vii)부터 (x)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됨,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세계유산협약이란?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약자
- 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17차 총회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협약

## 세계유산협약의 배경

- 인류가 이룩해 온 역사적 유산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
- 1950년대 이집트에서 전력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 하이댐의 건설을 시도하면서 아부심벨 신전 등 고대 이집트 유적이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 세계유산제도 시행의 결정적 계기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

- 세계유산목록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유산 등재
- 세계유산의 보호와 보존
- 세계유산기금 하의 국제지원 공여
- 협약에 도움이 되는 국내 및 국제적 지원의 확보

※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세계유산협약 전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2) 유산 해석 Interpretation 과 설명 Presentation

### 세계유산의 ‘해석’

-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인 활동
-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쇄물, 전자출판, 강의,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등이 포함

### 세계유산의 ‘설명’

- 해석 정보의 배열, 사람들의 접근 방식, 해석 시설 구조 등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잘 디자인하여 전달하는 것
- 현장에서의 소통에 중점
- 박물관 전시, 정형화된 투어, 안내 프로그램이 포함

### 유산 해석 등장 배경

- 유산의 다양한 형태, 가치를 함께 고려
  - 전문가 관점에 국한되지 않은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 유산 가치 중요
- ※ 해설사 = 중요한 이해관계자

### 유산 해석·설명 의 국제적 담론

- 프리먼 틸든의 해석 6원칙(1957)
- 에나메 헌장(2008)
- 현 시대에 맞는 유산 해석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문화유산지의 해석과 설명에 관한 ICOMOS(이코모스)<sup>1</sup> 헌장

1.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약자로 국제기념물협의회라고도 칭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

### 프리먼 틸든의 ‘우리의 유산 해석하기’ (1957)

1. 좋은 해석은 방문객의 경험이나 사고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2. 정보 그 자체는 해석이 아니지만, 반드시 정보에 바탕을 한 내용이어야 한다.
3. 해석은 과학, 역사 및 건축이 접목된 종합 예술이다.
4. 해석이 주된 목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5. 해석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전달해야 한다.
6.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석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해석을 단순화해서 만들면 안 된다.

### 해석과 설명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

1. 접근과 이해 향상(Access and Understanding)  
: 대중들의 해당 유적지에 대한 지적, 물리적 접촉이 쉬워야 함
2. 정보의 확실한 출처(Information Sources)  
: 검증된 과학 학술적 방법, 살아있는 문화 전통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에 기초해야 함
3. 환경과 맥락의 중요성(Setting and Context)  
: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맥락과 주변 환경을 연관시켜야 함
4. 진정성의 보존(Preservation of Authenticity)  
: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sup>2</sup> 정신에 입각한 기본 원리 존중해야 함
5. 지속성에 대한 계획(Planning of Sustainability)  
: 사회적, 재정적, 환경의 지속성 중 주요 목표들과 함께 유적지의 자연적 문화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
6. 포용성에 대한 고려(Concern for Inclusiveness)  
: 전문가, 소유자와 관련 공동체, 이해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협력의 결과물이어야 함

2. 나라문서(1994):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보존과 관련된 문화 다양성,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대한 필요성 언급

##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1) 서원의 이해

#### 서원이란?

-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
-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 선현先賢 제사,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
-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 지역 문화 선도

#### 서원의 기원

-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 재위 712~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담당한 '여정서원'이 최초
-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 제사기능,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
-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 1130~1200가 세운 '백록동서원'은 학규,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
-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모티브

#### 한국에서 서원 성립

-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 국학(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육 권장

-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저하,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
-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 중국의 서원 제도 주목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 건립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 확산

#### 서원의 구성원: 사람

- 향촌 지식인집단
-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
-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
- 관련 자료: 『원장안院長案』,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등

구성원

구분	역할
원장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의 일 총괄</li> <li>•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 관리 주체</li> <li>• 임기는 1~2년, 대체로 연임 허용</li> </ul>
원임院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li> <li>•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로도 불림</li> <li>• 서원 내 규찰, 재정 문제 담당</li> <li>•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li> </ul>
원생院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li> <li>•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 통해 최종 선발</li> <li>•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li> </ul>

## 서원의 규약(規約)

- 원규院規 : 강학 제향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
- 학규學規, 강규講規 :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
- 절목節目 :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세칙
- 완의完議, 입의立議 :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 서원의 재정

- 대체로 지역 사람의 자발적 출연 통한 토지, 노비,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
- 사액서원에는 서적, 토지, 노비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
- 관련 자료: 『전답안田畓案』, 『노비안奴婢案』,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 서원의 주요 기능: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 강학

- 성리학 교육을 통한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 개별학습인 독서,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
-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
-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
- 강학 활동은 ‘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과 ‘공식적·의례적강학으로서 강회講會’로 구분

### 강학의 종류

구분	내용
거접居接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문회文會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
거재居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순제旬題	지방의 향교鄉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통독通讀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향사 후의 강회講會	향사享祀를 지낸 후, 「백록동규白鹿洞規」나 「여씨향약呂氏鄉約」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講生들이 강장講長 앞에서 진강進講을 하는 순서로 진행. 진강을 하는 방식은 卍柱: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추첨 기구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

### 강학 의례

구분	내용
흥미를 갖춘 공식적 의례	정음례庭揖禮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 음례揖禮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
	상음례 큰 음揖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강습례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陳設;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침배瞻拜;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상음相揖;서로간 음례를 거행함-승당升堂;당에 오름-독규讀規;규약을 읊음-배독拜讀;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진강進講-예필禮畢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관습적 의례	경독 敬讀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 <sup>白鹿洞規</sup> , 사물잡 <sup>四勿箴</sup> , 심잠 <sup>心箴</sup> , 경재잠 <sup>敬齋箴</sup> , 숙흥야매잠 <sup>夙興夜寐箴</sup> 을 낭독하는 것이다.
	개접례, 입접례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파접례, 후접례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귀가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수창시	수창시는 ‘회강’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제향

-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
-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 정신 이어나갈 것을 다짐, 결속 다지는 기회

제향의 종류

구분	명칭	시기
정기	춘추 향사	매년 봄·가을
	삭망례	매월 초하루, 보름
	정알례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6일
비정기	이안제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환안제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위안제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예성제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사액례	사액을 받을 경우
	치제	국가에서 제관 보내어 지내는 경우



입재



성생례



집사분정



분향례



사우입장



제물근봉



초헌례



중헌례



철변두



파제



향약낭독



음복례

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

## 교류와 유식

- 교류<sup>交流</sup>: 서원의 구성원, 서원에 방문한 명사,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 물질 교류
- 유식<sup>遊息</sup>
  -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 『예기』 권17, 학기 18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sup>藏修</sup>: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
  -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양성 방식의 일환.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sup>品格</sup>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
-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
-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
-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
- 해주향약, 남전향약, 예안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
- 관련 자료: 『심원록』 등

##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

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

### 성립과 발전 과정

#### 중국 서원(書院)

- 남송 시기 관학 쇠퇴와 과거제도 부패 비판하며 흥성
- 남송 이후 과거시험과 관련된 관학의 보조적 성격으로 전환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으로 변모



#### 일본 시주쿠(私塾)

- 17~19세기 걸쳐 유학에 기반을 둔 고등 교육기관으로 설립
- 설립자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의학, 산학, 서양학문도 함께 교육
- 중국, 한국에 비해서 유학이 제도,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과거제도가 없어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형태로 발전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 대학으로 발전



#### 한국의 서원(書院)

- 16세기 중반 태동, 지역 성리학 집단인 사림<sup>士林</sup>의 주도로 성장
- 관학적 성격이나 국가의 관료선발과정에 관련되지 않음
- 19세기 말 교육 기능 종료까지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일관적으로 운영
- 근대화 과정에서도 명맥 유지



## 사회적 기능

### 중국 서원

- 송 시기 학문 중심기구, 여론 형성기구
- 점차 관학 보조기구로 정착되며 정치, 사회활동 성격 약화

### 일본 시주쿠

- 유학이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되지 못하여 포괄적 기능 수행에 한계
- 사숙 출신 학생이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사상 선도

### 한국 서원

- 지성 활동, 공론 형성이라는 실천적 성격
- 공론을 국가에서 억압하거나 규제하지 않음
- 성리학 이념에 기반을 둔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 제정하여 향촌 교화

## 건축물 배치

### 중국 서원

- 강학, 제향, 장서루로 구분되어 구성
- 특히 장서루 공간이 크게 발달되어 중시
-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이 상호 대등한 위치 차지하며 관계 자유로움
- 앞쪽 경계에 반수(泮水)로 이루어진 인공적 조경에 의존
- 건축 배치 정형을 규정하기 어려움



중국 백록동 서원 반수

### 일본 시주쿠

- 정형화된 배치 및 건축 형식 없음
- 제향기능을 갖추지 않음
- 단일 건물 사용하여 기능별로 공간 구획

### 한국 서원

- 공유된 건축 정형 갖춤
-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을 하나의 축선 상에 위치시켜 유기적 연결
- 제향 공간인 사우를 높은 위계건축으로 형성
- 자연지세를 활용한 독특한 한국적 건축기법



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

		한국의 서원	중국의 서원	일본의 시주쿠
도입 시기		16세기	7세기	17세기
설립 목적		성리학 지식인 양성 지역 기반 선현 제향	유학 지식인 양성 → 관료 양성 관학 보조	지식인 양성
교육 대상		지역 유생	제한 없음	무사, 가신 그룹
교육 학문		성리학	유학	유학,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 다양
제향	인물	지역단위 선현	주로 공자 등 성현	크게 중시하지 않음
	의례	현재까지 존속	일부 서원만 유지	
사회적 기능		지역 공론 중심지 지역 교화 중심지	국가정책 따라 변동	근대사회 전환 기여
건축	입지	제향인물 연고지 자연 경관 고려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등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기능	제향-강학-유식	강학-제향-장서	강학
	구성 요소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반지 과거합격 비석군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배치 유형	공통의 배치 유형 존재	서원별 개별성 강함	단일건물 중심
	경관 구성	자연친화적 개방과 관입 구현	인위적 폐쇄적	인위적 폐쇄적
	지역성	좌식 생활 구조 온돌, 마루의 조화	입식 생활 구조 의자, 화로	좌식 생활 구조 다다미, 화로

##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 성균관(成均館)

- 중앙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최고 교육기관
- 공자<sup>孔子</sup>와 그의 제자를 비롯한 중국 현인<sup>賢人</sup>들과 우리나라 현인을 제사지내는 문묘, 강학 공간인 명륜당 갖추

### 향교(鄕校)

- 지방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주로 향촌에 가까운 곳에 입지
-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문묘, 명륜당 갖추

## 서원과 향교, 성균관 비교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 주체	사림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포	지역별 다양	군현별 1개	수도에 1개
설립 목적	인성교육 선현제향 사림 활동 기반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사회적 역할	지역 공론 형성 지역 문화 교류		유생 공론 형성
입지	제향 대상과 관련 교육 목적에 부합	지방 행정 중심지	수도
구성 요소	사우(선현),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유형	제향-강학-교류, 유식	강학-제향	강학-제향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서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어득강(魚得江, 1470~1550)의 상소

## 2) 세계유산 가치

##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 등재 기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충족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
-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 토착화되는 과정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

##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

##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
- 활용과 기능,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
-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무형유산,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

## 보호 및 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증축,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

##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 연속유산이란

-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
-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

## ‘한국의 서원’ 입지 특성

###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

-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sup>先賢</sup>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
-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
-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 관련

## 수려한 주변 경관

-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
-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
-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
- 특히 정자,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

## ‘한국의 서원’ 건축 특성

### 보편성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건립되며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
-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
- 대부분의 서원은 아래와 같이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

### 독자성

-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
-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
-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 건축 구조 형성



## 공간 구분

### 제향공간

- 건물: 사우, 전사청, 제기고 등
-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
-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 별도 출입문 설치
  - 사우: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
  - 전사청: 제물,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
  - 제기고: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

### 강학공간

- 건물: 강당, 재사, 장서각, 장판각 등
-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
  - 강당: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
  - 재사: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 서재로 구성, 학생들의 기거 공간
  - 장서각, 장판각: 목판이나 도서 보관

### 교류와 유식공간

- 건물: 누각, 정자 등
- 누각은 누정,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좌식공간관습 가지는 한국의 건축 전통과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결합된 건축형식
- 연못,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

## 기타

- 고직사, 교육시설, 하마비, 홍살문, 기념비 등
- 하마비,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
  - 고직사: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
  - 교육시설: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 전통 건축기법 토대로 건립
  - 하마비: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
  - 홍살문: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

## ‘한국의 서원’ 서원별 세계유산가치

서원명	세계유산가치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로 건립된 서원</li> <li>강학,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li> </ul>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li> <li>사당과 강당이 일렬로 배치되는 서원 건축의 정형적 배치방식</li> </ul>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li> <li>누마루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li> </ul>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li> <li>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li> </ul>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li> <li>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규,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li> <li>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안동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li> <li>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li> </ul>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li> <li>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li> </ul>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li> <li>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li> </ul>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 3) 등재 과정

### 등재 추진 배경

- 서원이 건축, 공간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적 가치도 우수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

### 추진 관련 기관

- 2010년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 2012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발족
- 2015년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출범

### 1차 등재 추진 경위

- 2011년 12월 한국의 9개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sup>1</sup>
- 2015년 1월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유네스코에 제출
- 2015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 현지 조사 후 철회 권고
- 2016년 4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철회

1. 1871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과 사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 충족 여부 확인하여 9개 서원 선정

# 등재 재추진 경위

- 2016년 8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 의결
- 2018년 1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 2018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의 현지 실사
- 2019년 5월 이코모스 평가결과 등재 권고
-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확정





# 02

달성 도동서원



# 1. 달성 도동서원 개요

## 1) 달성 도동서원의 역사

### (1) 건립

#### 건립 배경

- 중종中宗, 재위 1506~1544 즉위 이후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신원
- 성리학의 학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김종직金宗直, 1431~1492-김굉필로 이어지는 학통인식 공론화
- 김굉필을 배향하는 옥천서원玉川書院을 비롯한 서원이 곳곳에 설립

#### 건립 과정

- 1568년 현풍玄風의 향중鄉中 유림들과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김굉필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쌍계서원雙溪書院 건립
- 임진왜란壬辰倭亂 중 쌍계서원 소실 후 서원 재건립 추진
- 1604년 김굉필의 외증손 정구鄭逵, 1543~1620가 현풍의 사류들과 논의
- 중건역사를 관장할 원장을 객근郭覡 천거
- 김굉필의 무덤 아래에 터를 잡아 현縣의 서쪽 15리 현 위치에 1604년 보로동서원浦老洞書院으로 중건
- \* 쌍계서원이 있던 위치는 인가人家가 가깝고 장터가 있어 학생들이 공부하기 적합하지 않고, 김굉필의 발길이 드물었던 곳이라 하여 현 위치에 건립

## 도동서원 재정 마련

- 현풍 사람들이 감사에 식량, 목재, 철, 목수 등의 물력 지원 요청
- 인근 지역과 본현本縣에서 쌀, 선척船隻, 소금 등을 지원토록 하고, 고령高靈과 초계草溪 등의 장인을 지명하여 목재 등을 찾아서 보내도록 함
- 감사에 의한 속공노비 지급
- 관련 유물: 『전답안田畓案』, 『노비안奴婢案』 등

### (2) 사액

#### 도동서원 사액

- 1573년 경상도감사慶尙道監司의 장계狀啓에 의해 쌍계서원에 사액 및 서적 반강頒降
- 보로동서원으로 중건 후 1610년 관찰사의 계청啓請에 의해 도동道東으로 다시 사액

#### 도동의 의미

- 공자孔子, B.C. 551~479의 도道가 동쪽으로 왔다는 의미
- 후학들이 도동의 편액을 우러러보고 김굉필의 학덕을 흠모하며 도동의 의미를 깊이 체득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의미

### (3) 운영

#### 도동서원 원규(院規) 제정

- 정구가 중건 초기 백록동규<sup>白鹿洞規</sup>를 모범으로 한 도동원규를 제정하여 매 삭망에 제생<sup>諸生</sup>에게 의리 강마<sup>講磨</sup>
- 백운동규와 이산원규<sup>伊山院規</sup>와 기본 방향은 같지만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
- 성주의 천곡서원규<sup>川谷書院規</sup>를 대본<sup>大本</sup>으로 해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임

#### 도동서원 원규

- 향사를 근실하게 행할 것<sup>謹享祀</sup>: 원장은 미리 갖추어 재계<sup>齋戒</sup>를 엄숙하고 청결히 하여 삼가고 삼가서 일을 행할 것
- 원장을 공경할 것<sup>尊院長</sup>: 원장은 한 서원의 어른으로 무리를 이끌고 도<sup>道</sup>를 숭선하여 무리를 흥기시키는 자이니 서원에 들어온 선비들은 마땅히 존경하여 감히 가볍고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 유사를 가려 택할 것<sup>擇有司</sup>: 유사는 또한 한 서원의 일을 주관하여 다스리는 자이니 원장과 원중<sup>院中</sup>이 함께 논의하여 가려 뽑을 것
- 신진을 이끌 것<sup>引新進</sup>: 매년 향사 날에 신진을 천거하여 의논하니, 모두 1명씩 천거하고 천거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천거할 필요는 없다
- 앉는 순서를 정할 것<sup>定座次</sup>: 앉는 것은 반드시 나이 순서로 하고, 만약 벼슬이 높은 자가 있거나 혹은 다른 지방의 손님이 있으면 모두 차례를 정하여 앉을 것
- 강습을 부지런히 할 것<sup>勤講習</sup>: 원장은 무리들을 맞이하고 초청하여 강학 권하기를 폐하지 말 것
- 어진 선비를 예우할 것<sup>禮賢士</sup>: 원장은 무리를 이끌고 경내, 이웃 마을에 은거하고 있는 현인, 도를 즐기고 있는 고상한 선비를 예로써 맞이하고 초청하여 스승으로서 존중할 것
- 금지와 예방을 엄히 할 것<sup>嚴禁防</sup>: 장자<sup>莊子</sup>, 열자<sup>列子</sup>, 노자<sup>老子</sup>, 석씨<sup>釋氏</sup>의 책, 장기판이나 바둑판의 유희거리는 모두 서원에 들어오지 말 것

#### 도동서원 원장(院長)원규

- 원장의 직임은 자주 가벼이 바꾸면 안 된다
-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경우면 원장 스스로 글을 갖추어 원중<sup>院中</sup>에 알리고 원중에 모여 상의하여 바꾼다
- 새 원장을 정한 후에는 원중에서 글을 갖추어 무리 중 한사람을 보내어 청하고, 신규 원장이 교대한다
- 원중의 규모, 사정을 모두 알려주어 거행하도록 하고, 서책과 집물도 모두 전하여 관장하게 한다
- 원장이 잘못이 있으면 은밀히 알려서 고치게 하고, 잘못의 정도가 크면 원장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라
- 『원장록<sup>院長錄</sup>』을 두어 역대 원장을 기록하고 아울러 부임과 교체된 연월을 기록하여 후임 원장이 그것을 열어보고 공경하고 경계하도록 하라

#### 도동서원 유사(有司)원규

- 반드시 순박하고 부지런하며 세세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마음으로 서원의 일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 만일 마음 쓰는 것이 거칠고 어긋나 서원의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지 않거나 부끄러움 없이 규정을 어기고 바깥의 말을 많이 끌어들이는 경우, 작은 일이면 원장이 훈계하고 큰 일이면 원중에서 그를 책망하라
- 끝내 고치지 않으면 원장과 원중에서 함께 논의하여 쫓아내라

#### 도동서원 원생(院生)원규

- 천거받은 사람을 허락할지 여부를 원장이 사람들의 견해를 모아 정한다
- 천거 대상은 반드시 20세 이상으로 학행<sup>學行</sup>이 불만한 것이 있는 자이고, 비록 20세가 되지 못하였더라도 사마시<sup>司馬試</sup>에 입격<sup>入格</sup>하였거나 향시에 여러 번 합격하여 재주와 행실이 뛰어난 자로 한다



- 먼 지방의 선비가 만일 서원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비록 그를 이끈 사람이 없더라도 학행이 성취한 바가 있고 특별히 드러난 과실이 없으면 입원을 허락한다
  - 새로 배우는 어린 아이, 20세 이하인 사람은 모두 양몽재(養蒙齋) 입학을 허락한다
- \* 원규의 일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201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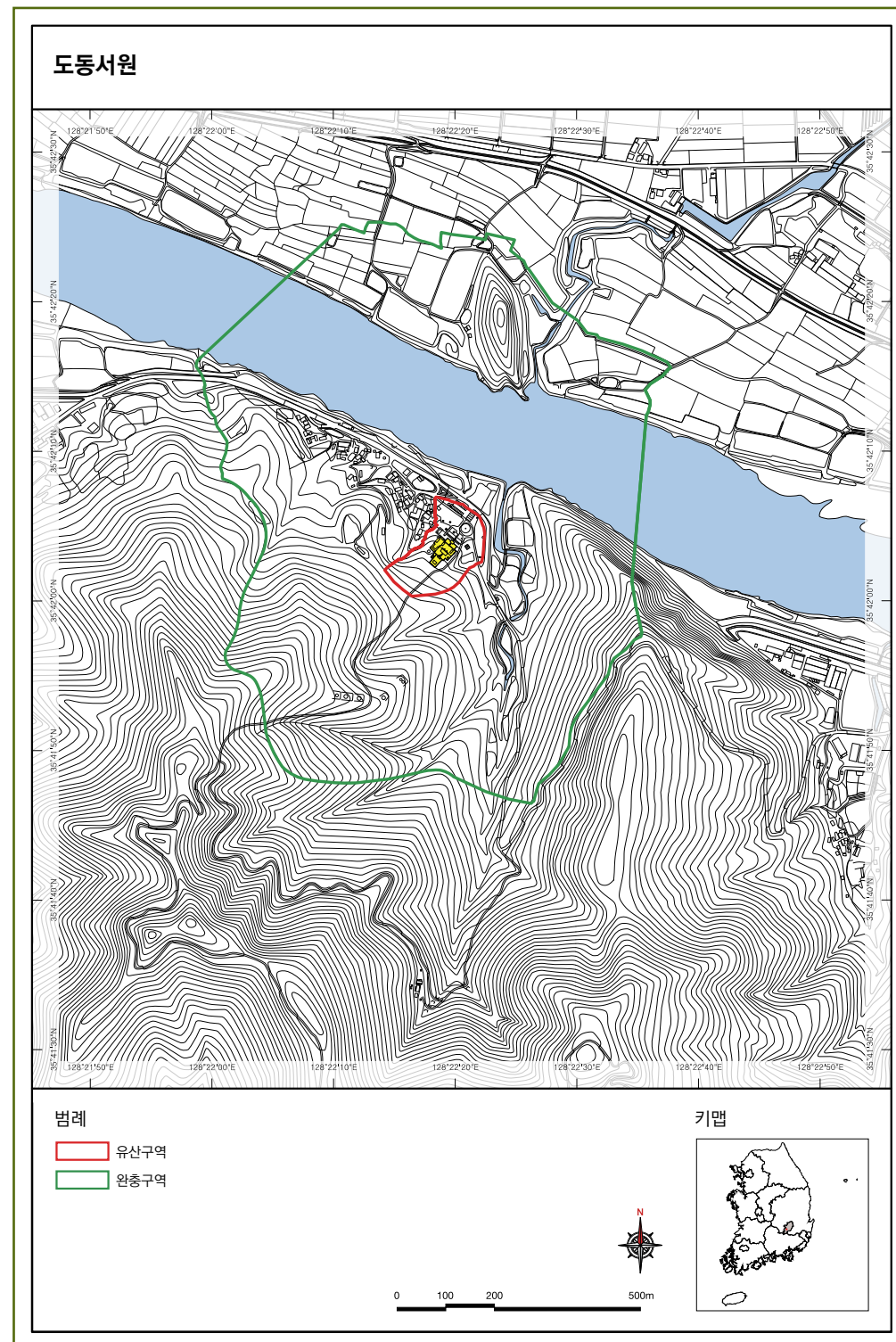
## 2) 달성 도동서원의 공간 구성

### 도동서원의 입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
- 대니산 기슭에서 북향하여 전면의 낙동강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지형
- 대니산과 낙동강이 어울려 북서향으로 돌출한 반도 모양
- 경사지 지형 조건을 최대한 살린 서원건축 배치의 탁월성 보여줌
- 중정당과 수월루에서 확인되는 강경 입지를 예술적으로 승화
- 김굉필의 연고지, 특히 묘소에 가까이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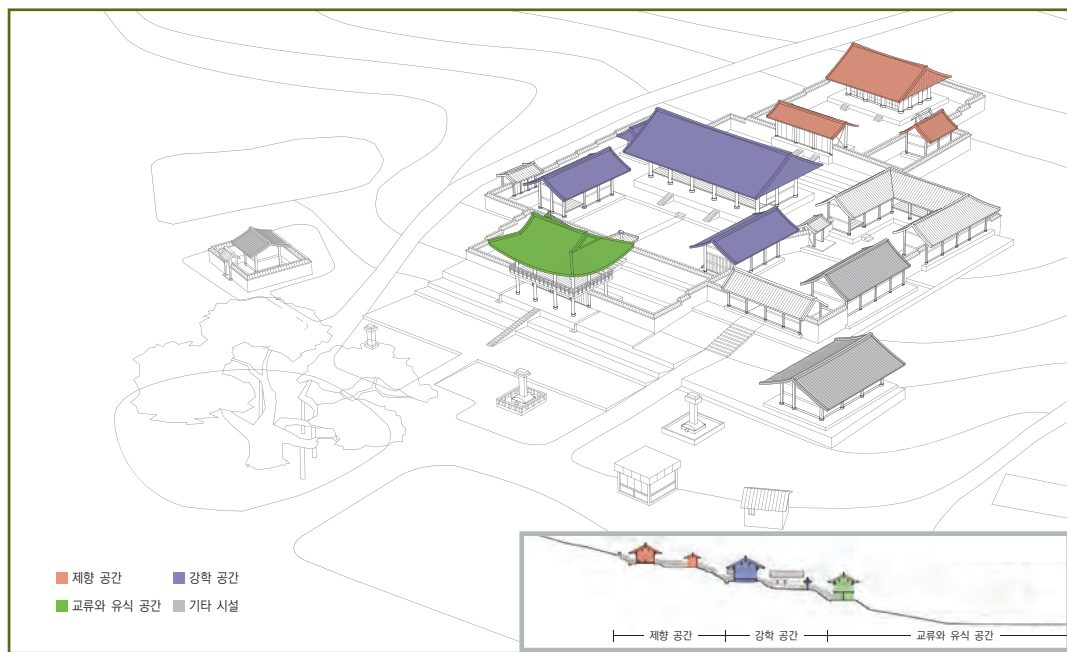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 및 인접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



## 건물배치도

- 서원으로서는 드물게 북향
- 전체적인 건축구성과 배치형식이 규범적, 전형적이며 공간구성이 우수함
- 전저후고의 경사지에서 위계에 따라 사당을 가장 뒤쪽 높은 곳에 배치하고, 앞쪽 낮은 곳에 강당과 동재, 서재를 배치한 전형적인 전학후묘 배치
- 수월루를 제외한 모든 건물들이 모두 맞배지붕으로 이루어짐
- 건물들이 정연한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배치
- 누각건물이면서 외삼문 형식을 취하고 있어 역할을 겸하는 수월루水月樓



## (1) 강학

### 건물

#### 중정당(中正堂)

- 목적: 서원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
- 중정中正: 주돈이周敦頤, 960~1127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서 인용,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는 뜻
-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
-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夾室型
- 원장과 원임의 개인 연구실과 학생의 강학을 위한 강당으로 구성
- 중정당 기둥 상부에 오현 중 김공필이 수현首賢이라는 의미의 하얀 문종이가 둘러져 있음

#### 중정당 관련 유물

##### 도동서원 현판

- 사액 받을 때의 현판
- 도동道東: 성리학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뜻으로 김공필의 학문이 동방 도학의 조종祖宗이라는 의미
- 배대유裴大維, 1563~1632의 글씨
- 1607년 사액 되었으나, 실제 사액편액은 1610년에 내려짐

##### 도동서원 현판

- 도동서원 강당 앞면에 걸린 편액
- 1607년 정구鄭述, 1543~1620가 이황李滉, 1501~1570의 글씨를 집자하여 모각

##### 중정당 현판

- 도동서원 강당 편액
- 이관징李觀徵, 1618~1695의 글씨

### 서도동서원액판하(書道東書院額板下)

- 1607년 도동서원을 건립한 정구 작성
- 도동서원의 사액과 이항의 글씨를 옮겨 새긴 현판을 걸게 된 사유 기재
- 편액을 우러러보고 김굉필의 학덕을 흠모하며, 유학의 전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내용

### 백록동규(白鹿洞規)

-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가 백록동서원을 복구하며 지은 학규
- 구사九思, 구용九容, 학자십훈學者十訓이 부기됨

### 전교(傳敎)

- 1676년 경연에서 서원 모입자들이 흠어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자, 숙종이 문묘에 종향된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의 모입자에 대한 물침勿侵의 전교를 내림
- 이 기문은 당시 숙종의 전교를 게재한 것

### 도동서원규목(道東書院規目)

- 정구에 의해 제정된 도동서원학규道東書院學規를 새긴 것
- 서원의 제례를 비롯한 구성원의 임무 등 서원 운영의 제반 규범이 적혀있음
- 다른 서원 학규에 비해 내용이 매우 상세하여 도동서원만의 독창적 모습을 보임
- 현재 현판은 1918년 다시 제작한 것

### 제집사분정기(諸執事分定記)

- 도동서원 춘추 향사 때 헌관, 집사의 직임과 명단 기재

천	장	사	사	전	봉	봉	봉	사	찬	찬	축	장	종	아	초	집
계	찬	세	관	작	작	로	향	준	창	자	의	현	현	현	현	사
																분
																정
																기

### 국기판(國忌板)

- 국기일國忌日을 적은 글
- 조선 태조太祖, 재위 1392~1398 이후 익종翼宗, 1809~1830까지 국왕, 왕후의 기일忌日 기록

### 환주문(喚主門)현판

- 중정당으로 들어가는 문의 편액
- 서원의 규모에 비해 크기가 작고 높이가 낮아 머리를 숙여야 함
- 환주喚主: 김굉필의 시에서 인용, '내 마음의 주인을 불러 항상 깨어있게 한다'는 의미

## 거인재(居仁齋)·거의재(居義齋)

- 목적: 학생들의 기숙과 개인학습 병행
- 거인재가 동재, 거의재가 서재에 해당
-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2칸의 온돌과 1칸의 마루 구성
- 거인居仁, 거의居義: 『맹자孟子』에서 '자신이 인仁에 머물러 의義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인용

### 거인재·거의재 관련 유물

#### 거인재, 거의재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 장판각(藏板閣)

- 목적: 서원에서 생산된 목판 등이 보관된 곳
- 전적의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보관되던 장서는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



## 교육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서원의 주요 기능
- 김굉필과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사우지도師友之道는 서원 교육의 목표

## 도동서원 강학원규

- 겨울과 봄에는 오경五經과 사서四書 및 정호程顥, 1032~1085와 정이程頤, 1033~1107의 여러 성리서性理書, 여름과 가을에는 사학史學, 제자서諸子書, 문집文集에서 읽고 싶은 것을 읽는다
- 서원에 들어온 선비가 비록 과거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과거 외에 또한 옛사람의 이른바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있으니, 만일 위기지학을 일상생활 속 타고난 본성 속에서 구한다면 마음을 두고 힘을 들일 곳은 ‘경敬’ 한 글자를 넘지 않을 것이다
- 양몽재 제생은 반드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소학』을 외면서 익히도록 명하며, 과정을 엄격히 세워 잘못을 바로잡아라

## 원생 규제원규

-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반드시 전전공공하는 마음을 스스로 지니고서 의관을 반드시 정돈하고 말과 웃음을 반드시 엄정하게 하라
- 조정의 이해利害, 변방 소식, 관직 임명, 주현州縣 관원의 장점과 단점, 득과 실, 사람들이 지은 과오를 모두 말하지 말아야 한다
- 음란하고 더러운 여색女色에 대한 부정한 말이나 음식물을 요구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지금 학중學中에 뒤집어 매달아 바람을 쏘고 무릎을 때리고 궤를 들어 올리게 하는 모든 비루하고 업신여기는 일은 모두 하면 안 된다
-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음식 분배에 스스로 간여하거나 취사 선택하여 덕성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

\* 원규의 일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2013 참고

## (2) 제향

## 인물

## 김굉필(金宏弼)

- 자는 대유大猷, 호는 사옹養翁, 한훤당寒暄堂, 시호는 문경文敬
- 한훤당은 부인의 옛집 주변에 서재를 짓고 붙인 당호堂號
- 저서: 『경현록景賢錄』, 『한훤당집寒暄堂集』, 『가범家範』 등

### ① 출생

- 본관은 서흥瑞興, 아버지 김유金紐는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어모장군禦侮將軍 총좌위사용忠佐衛司勇을 지냄
- 김굉필은 1454년 한양漢陽 정릉동貞陵洞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어려서는 엄매임이 없이 호방하였고, 자라면서 발분하여 학문에 힘을 쏟음
- 1474년 김종직에게 찾아가 배울 것을 청하자, 김종직은 『소학』 공부를 권하였고 김굉필은 『소학』을 손에서 놓지 않았음
- 1480년 생원시에 입격入格하여 성균관에 들어감
- 1487년 부친상을 당하여 3년간 여묘廬墓 살이
- 성종成宗, 재위 1469~1494이 인재 추천을 명하자, 경상감사가 김굉필을 추천하여 참봉參奉으로 출사出仕
- 1495년 이조吏曹의 추천으로 6품직 서용
- 1496년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 종6품에 제수되었다가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정6품로 옮김
- 1497년 형조좌랑刑曹佐郎, 정6품으로 전직

- 1498년 무오사화(戊午史禍)가 발생하자, 김굉필이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하여 유배됨

- 1504년 51세의 나이로 형을 받아 사망

\* 자세한 사항은 김굉필의 행장(行狀), 신도비명(神道碑銘), 연보 참고



『기고봉선생문집(高峯先生文集)』 권3, 행장 『여헌선생문집』 권12, 신도비명



『한강집』 권15, 연보

### ③ 학문

- 김종직의 문하에서 『소학』을 배운 이후로 스스로 소학동자(小學童子)라 할 정도로 『소학』을 깊이 공부하고 행동의 규준(規準)으로 삼음
- 30세가 지난 후에야 다른 책을 읽었으며 6경(六經)을 탐구하여 정통하게 되도록 힘써서 아래로는 인간의 일을 배우고 위로는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여 도덕을 이룸
- 그의 문하에서 조광조(趙光祖, 1482~1519), 김안국(金安國, 1478~1534)으로 대표되는 중종조 개혁정치의 주역들이 나와 학맥 계승
- 학문에 힘써 일동일정(一動一靜)의 예법(禮法)을 모두 따르고, 지경(持敬) 공부에 전력하여 말과 행동이 법도가 되었음

### ④ 평가

- 김종직은 김굉필의 시의 ‘소학 가운데서 어제의 잘못을 깨닫는다’는 구절에 대해 이 말이 바로 성인(聖人)이 되는 근거(根基)라고 평가
- 옥사와 송사를 분명하고도 어질게 하여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며 따랐다고 함

- 이황은 김굉필의 도학연원(道學淵源)은 후학이 추측할 바가 아니며 근세의 도학지종(道學之宗)이라고 함

- 문묘종사를 청하는 논의에서 신라부터 고려까지 문장에 능한 선비는 많았으나 의리(義理)의 학문은 실로 김굉필로부터 열렸다고 평가

### ⑤ 시호 하사 및 문묘종사

- 1506년 중종(中宗, 재위 1506~1544) 반정(反正) 이후 신원되어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추증되었다가 1517년 우의정(右議政) 추증
- 1575년 문경공(文敬公)이라는 시호 하사
- 1610년 계속된 유생들이 상소로 5현(金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의 문묘 종사를 요청한 것이 허락되어 첫 번째 자리에 오름

## 정구(鄭逵)

- 자는 도가道可, 호는 한강寒岡, 시호는 문목文穆
- 한강은 정구의 선영先塋 아래 바깥 산등이인데, 그곳에 재실齋室을 짓고 한강이라 이름 지음
- 저서: 『한강집寒岡集』,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 『주자시분류朱子詩分類』, 『의안집방醫眼集方』, 『광사속집廣嗣續集』 등

### ① 출생

- 본관은 청주淸州, 아버지 정사중鄭思中, 1505~1551은 김굉필의 외손으로 총좌위부사맹行忠佐衛副司猛을 지내고, 후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됨
- 정구는 1543년 성주星主 사월리沙月里 출생
- 아버지 정사중은 천문天文을 잘 보았는데, 정구를 보고 명현名賢이 될 것이라고 함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1555년 오건吳健, 1521~1574에게 『주역周易』의 건괘乾卦와 곤괘坤卦를 배우고 나머지는 유추하여 통달함
- 1563년 이황을 찾아가 『심경心經』을 공부한 이후 왕래하며 질문
- 1563년 향시鄉試,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후 회시會試에 응시하지 않고 과거시험 공부를 그만둠
- 1566년 조식曹植, 1501~1572을 찾아가 수학하고, 또 성운成運, 1497~1579을 배알함
- 1573년 선조가 학행이 뛰어난 선비를 발탁하라는 명을 내리자, 김우옹金宇顙, 1540~1603의 추천을 받아 참봉參奉, 종9품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이후 사포서사포司圃署司圃, 정6품, 현감縣監 등도 모두 사양
- 1580년 창녕현감昌寧縣監에 제수되자,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허되지 않자 부임
- 이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정5품, 정랑正郎, 정5품, 승지承旨, 정3품, 도호부사都護府使 등 여러 관직 제수

\* 선조는 정구가 조정의 관직을 제수함에도 사양하고 고향 집에 오래 머무르자 이유를 몰라 섭섭하다고 하며 사직 상소를 윤허하지 않기도 함

- 1604년 도동서원 건립
- 광해군光海君, 재위 1608~1623 대에도 대사헌大司憲, 종2품, 참판參判, 종2품 등의 관직이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오래지 않아 사직
- 1620년 78세의 나이로 지경재持敬齋에서 사망

### ③ 학문

- 7, 8세에 『대학大學』, 『논어論語』를 배워 대의大義에 통달하고, 12세에 『통감通鑑』을 읽어 스승에게 배울 필요가 없었음
- 경서, 병학, 의학, 역사, 천문, 풍수지리 등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방대한 저술을 남김
- 한강정사寒岡精舍, 회연초당檜淵草堂, 무흘정사武屹精舍, 사양정사泗陽精舍 등에서 생활하며 저술 및 제자 교육

### ④ 평가

- 이황은 자질이 영민英敏하며 학문에 뜻을 두고 선을 좋아하니 김굉필이 남긴 유풍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
- 김우옹은 그가 이황과 조식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경술經術에 밝다고 평가
- 창녕현감 재직시 1년 만에 감사는 치적이 으뜸이라고 보고
- 선조는 정구와 대화한 후 명성을 헛되이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함

### ⑤ 시호 하사 및 배향

- 1625년 문목文穆이라는 시호 하사
- 연경서원研經書院을 비롯한 많은 서원에 위판 봉안
- 1678년 시호를 ‘부지런히 배우고 문기를 좋아하였다勤學好問’는 뜻의 문文에서 ‘도덕이 높고 견문이 넓었다道德博聞’는 뜻의 문文으로 고침
- 1678년 현풍玄風의 사류들이 조정에 청하여 도동서원에 위판 봉안



## 건물

### 사당(祠堂)

- 목적: 제향인물의 위패 봉안
- 김굉필을 주벽<sup>主壁</sup>으로 하여 북쪽 정위에 모셔져 있고, 동쪽 벽에 배위인 정구의 위패 봉안
- 좌우에는 창건 당시 그린 제향인물과 관련된 벽화 2점이 있음
-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

### 전사청(典祀廳)

- 목적: 제향과 관련된 제기 보관, 제향 준비
- 정면 5칸, 측면 4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ㄷ’자 형태

### 증반소

- 목적: 제기고, 향사 때 젓메를 짓고 기물을 보관, 준비
- 전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의례

### 도동서원 향사(享祀)

- 도동서원의 향사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sup>中丁日</sup>에 봉행
  - \* 중정일: 한 달 중 십간의 정<sup>丁</sup>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 도동서원은 주자의 무이고사<sup>武夷故事</sup>에 의거하여 춘추 향사 외에도 매년 음력 3월 10일과 10월 2일에 서원 뒤 위치한 김굉필 묘소에서 향사를 지냄

### 도동서원 향사 준비

#### ① 알묘례(謁廟禮)

- 제관<sup>祭官</sup>은 종래 향사 3일 전에 입재하였으나 현재는 전일 입재

#### ② 성생의(省牲儀)

- 강당 옆 석상<sup>石床</sup> 위에 돼지를 올려놓고, 희생이 충분한지 세 번 물음
- 현재는 계생단<sup>繫牲壇</sup>에 돼지를 묶고 행함

#### ③ 분정례(分定禮)

- 강당에 개좌하여 강당 북쪽 벽의 분정판을 내려 헌관 및 제집사의 직임을 정함

#### ④ 사축(寫祝)

- 강당에서 축문<sup>祝文</sup> 작성
- 초헌관의 입회 하에 대축이 직접 작성

#### ⑤ 제수 검시

- 제관들이 제수물목표에 의거하여 제수 점검

## ⑥ 설기(設器), 진설(陳設)

- 제물을 소정의 제기에 실찬<sup>實饌</sup>한 후 탁상에 제물 진설
- 희생은 돼지를 한 마리를 반으로 나누어 정위와 배위에 올리되, 정위에 올라가는 돼지에 꼬리를 붙여 둠

## 도동서원 향사 절차

- 향사는 축시에 진행
- 찬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사당 안의 진설 상태 점시<sup>點視</sup>

## ① 초헌례(初獻禮)

- 초헌관이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
- 폐백을 드리는 전폐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초헌례 때 함께 행함
- 헌관이 작을 올릴 때마다 모사<sup>茅沙</sup>에 술을 세 번 붓는 의식인 삼제주<sup>三祭酒</sup> 진행
- 헌작<sup>獻爵</sup>이 끝나면 대축이 축문을 읽음

## ② 아헌례(亞獻禮)

- 아헌관이 정위와 배위의 신위전에 차례로 헌작
- 삼제주 후 헌작
- 독축을 하지 않고 제2점에 작을 올림

## ③ 종헌례(終獻禮)

- 종헌관이 정위와 배위의 신위전에 차례로 헌작
- 삼제주 후 헌작
- 독축을 하지 않고 제3점에 작을 올림

## ④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를 맛봄

## ⑤ 철변두(徹籩豆)

-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두는 의례

## ⑥ 망예례(望瘞禮)

- 제향을 마치고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의례
- 도동서원은 묘우 서쪽 담장에 벽감<sup>壁龕</sup>에 넣고 태움

## ⑦ 준례(餼禮)

- 향사를 마치고 신이 흠향한 음식을 모든 제관이 맛보며 신의 공덕을 기리는 의례
- 도동서원은 준례가 완벽하게 남아 있는 대표적인 곳

## 도동서원 향사의 특징

- 김광필의 묘소에서 묘제<sup>墓祭</sup>를 지냄
- 헌작 시 잔을 신위전에 올리기 전에 삼제주를 함
- 준례가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음
- 동쪽에서 들어갔다가 동쪽으로 나오는 동입동출<sup>東入東出</sup>을 함

### (3) 교류와 유식

- 교류와 유식 공간은 유산을 둘러싼 자연과 통하는 공간으로서 정자, 누마루 등으로 구성
- 서원과 서원, 유학자와 유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
- 유식 공간으로써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등 보다 자유로운 학습 공간

## 건물

### 수월루(水月樓)

- 서원 진입공간으로 사용되는 문루
- 향사나 서원의 행사 때 개좌와 파좌를 외는 곳으로 사용
- 1849년 창건, 1888년 화재로 소실, 1973년 복원
- 수월水月: 주희의 시에서 인용, 차가운 물에 달이 비치듯이寒水照月 사육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마음 상태를 표현한 말
-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팔작지붕 건물
- 누하에 출입문 설치, 누상에 난간을 두름
- 누각 아래가 출입문이지만 닫혀 있을 때는 전사청을 통해 출입

#### 수월루 관련 유물

##### 수월루 현판

- 도동서원 2층 문루의 편액

##### 수월루상량문(水月樓上梁文)

- 1849년 이원조李源祚, 1792~1872가 지은 상량문
- 도동서원의 내력, 누대를 짓고 올라 감회를 기록
- 서원 밖의 넓은 백사장과 밝고 경쾌한 경치를 구경하면서, 궁극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원하는 내용

#### 수월루중건기(水月樓重建記)

- 1974년 정화식鄭華植이 지음
- 건립 경위 등을 기재

#### 수월루중건전말소기(水月樓重建顛末小記)

- 1974년 이은영李殷永이 지음
- 수월루의 건립 및 중수 내역을 기재

#### 수월루중수상량문

- 화재로 건물 일부 소실 된 뒤 보수 후 1863년 이종상李種祥, 1799~1870에게 글을 받아 편액
- 서원의 경관 및 그 의미를 기재
- 현재 상량문은 1888년 화재 때 소실 된 것을 다시 써서 걸었음

### (4) 기타 시설

#### 곡간채

- 목적: 서원의 보존관리와 운영의 보조업무 공간
- 정면 4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김굉필신도비각(金宏弼神道碑閣)

- 김굉필의 가계家系, 생애, 업적 등을 기재
- 신도비는 1625년 작성, 비각은 1977년 건립



### 3) 달성 도동서원의 특징

- 쌍계서원으로 건립되어 사액되었으나 전소된 후 보로동서원으로 중건되어 도동서원으로 다시 사액
- 정구가 도동서원 이건 기념으로 심어 400년이 넘는 은행나무(한훤당나무)
-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며 건너편 산들을 바라보는 전망을 확보한 수월루
- 도동서원 사당 벽면 좌우의 벽화: 「강심월일주江心月一舟」, 「설로장송雪露長松」
- 전학후묘의 공간배치와 전후상하를 꿰뚫는 종적 중심축을 기준으로 건물을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엄숙정제嚴肅整齊라는 유교적 예가 가장 우수하게 표현
- 중정당 기둥 상부에 5현 중에 한훤당이 으뜸이라는 상징으로 하얀 문종이(상지)가 둘러있고, 이는 한훤당 선생의 학통을 이어받은 수위서원首位書院임을 내세운 것

## 2. 달성 도동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 서원 건축과 건물 배치의 탁월성을 갖춘 서원

- 1605년 건립된 서원
- 원규, 강규 등을 통하여 서원 운영 및 교육방식의 구체적인 양상 입증
- 성리학의 실천윤리에 집중하는 학풍 정착, 발전
- 제향 절차의 하나인 준례가 가장 완벽하게 남은 것을 통해 존현의식과 예학사상 전승의 본보기
- 강을 바라보는 자연 경관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한국 서원의 특징 대표
- 경사지 지형 조건을 최대한 살려 건물들 간 위계를 분명히 보이는 서원건축 배치의 탁월성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창건 및 사액 : 1605년 건립 / 1607년 사액**

**주향인물 : 김굉필(金宏弼, 1454-1504)**

#### 주요특징

##### - 구성 및 입지

- 사우, 강당, 재사, 누마루 배치에 경사지를 탁월하게 활용하여 각 건물 간의 위계를 극대화함. 전면에 낙동강을 바라보는 강경江景 입지의 전형.

#### - 특징

- 김굉필의 외손外孫 정구가 제정한 것으로 알려진 도동서원의 「원규」, 「학규」는 소수 서원 이래로 발전해 간 서원 운영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준다.

###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 1건(보물 1건)

####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보물)

- 교육의 중심 건물인 강당 중정당은 앞면 5칸·옆면 2칸 반 규모이며 지붕은 맞배 지붕임. 가운데 3칸의 넓은 대청마루와 양쪽의 방으로 구성. 각기 다른 돌로 짜 맞춘 기단과 동물조각 등이 독특함. 제사 공간인 사당은 앞면 3칸·옆면 3칸 규모로 김굉필 선생의 신주를 모심. 맞배지붕이며, 앞면 3칸에는 각각 2짝씩 널문. 강당을 둘러싼 담장은 기와를 이용해 쌓은 맞담으로 구성되어 매우 아름답음.

#### 도동서원 지정문화재

서원	종별	지정	명칭	구분	지정일
도동서원	국가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부동산	2007.10.10.
		보물 제350호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 사우 담장		1963.01.21.
	달성군	보호수(3-9)	은행나무 (400년)		1982.10.29.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 교재

- 병산서원 -





# 목차

들어가며	04
------	----

1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

1. 유네스코와 유산	10
-------------	----

- 1) 유네스코와 유산
- 2) 유산 해석과 설명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6
------------------	----

- 1) 서원의 이해
- 2) 세계유산 가치
- 3) 등재 과정

2부 안동 병산서원	
------------	--

1. 안동 병산서원 개요	40
---------------	----

- 1) 안동 병산서원의 역사
  - (1) 건립
  - (2) 사액
  - (3) 운영
- 2) 안동 병산서원의 공간 구성
  - (1) 강학
  - (2) 제향
  - (3) 교류와 유식
  - (4) 기타 시설

3) 안동 병산서원의 특징	
2. 안동 병산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64



# 들어가며

## 일러두기

-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재
- 심화학습 자료, 관련 사이트는 QR코드를 참고

## 범례

-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서원을 지칭하고, 서원은 조선에서 세워진 서원을 통칭함



## ‘한국의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 / 사액 연도	주향 인물	비고
영주 소수서원	1543년/1550년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사적(1963)
함양 남계서원	1552년/1556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사적(2009)
경주 옥산서원	1572년/1574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사적(1967)
안동 도산서원	1574년/157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사적(1969)
장성 필암서원	1590년/1662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사적(1975)
달성 도동서원	1605년/1607년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사적(2007)
안동 병산서원	1613년/1863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사적(1978)
정읍 무성서원	1615년/1696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사적(1968)
논산 돈암서원	1634년/1660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사적(1993)

##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이해

### 전담해설사 제도의 목적

-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으로서 성격 소개
- 각 서원의 역사, 건축적 성격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연속유산인 9개 서원 이해, 해당 내용을 방문객에게 비교·전달

### 전담해설사 정의와 역할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정된 ‘한국의 서원’만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자, 하나의 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을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표준교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필요한 지식과 실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력

### 전담해설사 필요역량

- 방문객의 국적, 연령, 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해설을 제공
- 유산의 각 공간에서 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각 서원은 개별적으로 중요한 국내 유산이며 동시에 9개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세계 유산의 일부임
- 유산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되 지식과 정보의 일방적 주입 지양
- 해설 목적은 방문객과 유산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 근거 있는 정보 수집 경로 제시





# 01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1. 유네스코와 유산

## 1) 유네스코와 유산

### 유네스코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
-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 세계무형문화유산

-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로서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름
-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

### 세계기록유산

-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
-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단독 기록이거나 기록의 모음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

※ 근거: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 **완전성과 진정성** 개념을 충족했는지
  -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보호관리계획**을 갖추었는지
- \* 등재 기준, 진정성과 완전성,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

### 완전성(Integrity)이란?

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특성에 대해 전체, 본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 진정성(Authenticity)이란?

본래 또는 역사의 과정에서 지니게 되는 가치에 대한 진실성,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것

### 세계유산 구역: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범위
- 유산구역: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역
- 완충구역: 유산구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며 인접한 주변 환경과 중요한 경치 등 포함



## 세계유산 등재 기준

구분	등재 기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에 의한 <b>결작</b>
	(ii)	일정한 기간,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b>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b>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b>독보적인 증거</b>
	(iv)	<b>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b> 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
	(v)	하나(혹은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b>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b> 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b>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b>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독보적인 <b>자연미</b> 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의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특징물 등 <b>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b>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b>생태적·생물학적 과정</b> 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x)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b>멸종 위기 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b> 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

- 등재 기준 중 (i)부터 (vi)까지는 문화유산, (vii)부터 (x)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됨,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세계유산협약이란?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약자
- 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17차 총회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협약

## 세계유산협약의 배경

- 인류가 이룩해 온 역사적 유산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
- 1950년대 이집트에서 전력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 하이댐의 건설을 시도하면서 아부심벨 신전 등 고대 이집트 유적이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 세계유산제도 시행의 결정적 계기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

- 세계유산목록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유산 등재
- 세계유산의 보호와 보존
- 세계유산기금 하의 국제지원 공여
- 협약에 도움이 되는 국내 및 국제적 지원의 확보

※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세계유산협약 전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2) 유산 해석 Interpretation 과 설명 Presentation

### 세계유산의 ‘해석’

-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인 활동
-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쇄물, 전자출판, 강의,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등이 포함

### 세계유산의 ‘설명’

- 해석 정보의 배열, 사람들의 접근 방식, 해석 시설 구조 등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잘 디자인하여 전달하는 것
- 현장에서의 소통에 중점
- 박물관 전시, 정형화된 투어, 안내 프로그램이 포함

### 유산 해석 등장 배경

- 유산의 다양한 형태, 가치를 함께 고려
  - 전문가 관점에 국한되지 않은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 유산 가치 중요
- ※ 해설사 = 중요한 이해관계자

### 유산 해석·설명 의 국제적 담론

- 프리먼 틸든의 해석 6원칙(1957)
- 에나메 헌장(2008)
- 현 시대에 맞는 유산 해석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문화유산지의 해석과 설명에 관한 ICOMOS(이코모스)<sup>1</sup> 헌장

1.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약자로 국제기념물협의회라고도 칭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

### 프리먼 틸든의 ‘우리의 유산 해석하기’ (1957)

1. 좋은 해석은 방문객의 경험이나 사고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2. 정보 그 자체는 해석이 아니지만, 반드시 정보에 바탕을 한 내용이어야 한다.
3. 해석은 과학, 역사 및 건축이 접목된 종합 예술이다.
4. 해석이 주된 목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5. 해석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전달해야 한다.
6.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석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해석을 단순화해서 만들면 안 된다.

### 해석과 설명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

1. 접근과 이해 향상(Access and Understanding)  
: 대중들의 해당 유적지에 대한 지적, 물리적 접촉이 쉬워야 함
2. 정보의 확실한 출처(Information Sources)  
: 검증된 과학 학술적 방법, 살아있는 문화 전통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에 기초해야 함
3. 환경과 맥락의 중요성(Setting and Context)  
: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맥락과 주변 환경을 연관시켜야 함
4. 진정성의 보존(Preservation of Authenticity)  
: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sup>2</sup> 정신에 입각한 기본 원리 존중해야 함
5. 지속성에 대한 계획(Planning of Sustainability)  
: 사회적, 재정적, 환경의 지속성 중 주요 목표들과 함께 유적지의 자연적 문화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
6. 포용성에 대한 고려(Concern for Inclusiveness)  
: 전문가, 소유자와 관련 공동체, 이해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협력의 결과물이어야 함

2. 나라문서(1994):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보존과 관련된 문화 다양성,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대한 필요성 언급

##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1) 서원의 이해

#### 서원이란?

-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
-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 선현先賢 제사,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
-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 지역 문화 선도

#### 서원의 기원

-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 재위 712~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담당한 '여정서원'이 최초
-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 제사기능,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
-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 1130~1200가 세운 '백록동서원'은 학규,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
-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모티브

#### 한국에서 서원 성립

-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 국학(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육 권장

-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저하,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
-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 중국의 서원 제도 주목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 건립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 확산

#### 서원의 구성원: 사람

- 향촌 지식인집단
-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
-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
- 관련 자료: 『원장안院長案』,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등

구성원

구분	역할
원장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의 일 총괄</li> <li>•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 관리 주체</li> <li>• 임기는 1~2년, 대체로 연임 허용</li> </ul>
원임院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li> <li>•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로도 불림</li> <li>• 서원 내 규찰, 재정 문제 담당</li> <li>•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li> </ul>
원생院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li> <li>•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 통해 최종 선발</li> <li>•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li> </ul>

## 서원의 규약(規約)

- 원규院規 : 강학 제향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
- 학규學規, 강규講規 :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
- 절목節目 :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세칙
- 완의完議, 입의立議 :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 서원의 재정

- 대체로 지역 사람의 자발적 출연 통한 토지, 노비,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
- 사액서원에는 서적, 토지, 노비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
- 관련 자료: 『전답안田畓案』, 『노비안奴婢案』,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 서원의 주요 기능: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 강학

- 성리학 교육을 통한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 개별학습인 독서,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
-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
-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
- 강학 활동은 ‘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과 ‘공식적·의례적강학으로서 강회講會’로 구분

### 강학의 종류

구분	내용
거접居接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문회文會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
거재居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순제旬題	지방의 향교鄉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통독通讀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향사 후의 강회講會	향사享祀를 지낸 후, 「백록동규白鹿洞規」나 「여씨향약呂氏鄉約」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講生들이 강장講長 앞에서 진강進講을 하는 순서로 진행. 진강을 하는 방식은 씨[姓: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추첨 기구]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

### 강학 의례

구분	내용
흥미를 갖춘 공식적 의례	정음례庭揖禮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 음례揖禮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
	상음례 큰 음揖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강습례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陳設;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침배瞻拜;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상음相揖;서로간 음례를 거행함-승당升堂;당에 오름-독규讀規;규약을 읊음-배독拜讀;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진강進講-예필禮畢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경독 敬讀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 <sup>白鹿洞規</sup> , 사물잡 <sup>四勿箴</sup> , 심잠 <sup>心箴</sup> , 경재잠 <sup>敬齋箴</sup> , 숙흥야매잠 <sup>夙興夜寐箴</sup> 을 낭독하는 것이다.
관습적 의례 개접례, 입접례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파접례, 후접례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귀가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수창시	수창시는 '회강'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 제향

-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
-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 정신 이어나갈 것을 다짐, 결속 다지는 기회

### 제향의 종류

구분	명칭	시기
정기	춘추 향사	매년 봄·가을
	삭망례	매월 초하루, 보름
	정알례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6일
비정기	이안제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환안제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위안제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예성제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사액례	사액을 받을 경우
	치제	국가에서 제관 보내어 지내는 경우



입재



성생례



집사분정



분향례



사우입장



제물근봉



초헌례



중헌례



철변두



파제



향약낭독



음복례

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

## 교류와 유식

- 교류<sup>交流</sup>: 서원의 구성원, 서원에 방문한 명사,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 물질 교류
- 유식<sup>遊息</sup>
  -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 『예기』 권17, 학기 18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sup>藏修</sup>: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
  -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양성 방식의 일환.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sup>品格</sup>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
-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
-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
-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
- 해주향약, 남전향약, 예안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
- 관련 자료: 『심원록』 등

##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

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

### 성립과 발전 과정

#### 중국 서원(書院)

- 남송 시기 관학 쇠퇴와 과거제도 부패 비판하며 흥성
- 남송 이후 과거시험과 관련된 관학의 보조적 성격으로 전환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으로 변모



#### 일본 시주쿠(私塾)

- 17~19세기 걸쳐 유학에 기반을 둔 고등 교육기관으로 설립
- 설립자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의학, 산학, 서양학문도 함께 교육
- 중국, 한국에 비해서 유학이 제도,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과거제도가 없어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형태로 발전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 대학으로 발전



#### 한국의 서원(書院)

- 16세기 중반 태동, 지역 성리학 집단인 사림<sup>士林</sup>의 주도로 성장
- 관학적 성격이나 국가의 관료선발과정에 관련되지 않음
- 19세기 말 교육 기능 종료까지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일관적으로 운영
- 근대화 과정에서도 명맥 유지



## 사회적 기능

### 중국 서원

- 송 시기 학문 중심기구, 여론 형성기구
- 점차 관학 보조기구로 정착되며 정치, 사회활동 성격 약화

### 일본 시주쿠

- 유학이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되지 못하여 포괄적 기능 수행에 한계
- 사숙 출신 학생이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사상 선도

### 한국 서원

- 지성 활동, 공론 형성이라는 실천적 성격
- 공론을 국가에서 억압하거나 규제하지 않음
- 성리학 이념에 기반을 둔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 제정하여 향촌 교화

## 건축물 배치

### 중국 서원

- 강학, 제향, 장서루로 구분되어 구성
- 특히 장서루 공간이 크게 발달되어 중시
-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이 상호 대등한 위치 차지하며 관계 자유로움
- 앞쪽 경계에 반수(泮水)로 이루어진 인공적 조경에 의존
- 건축 배치 정형을 규정하기 어려움



중국 백록동 서원 반수

### 일본 시주쿠

- 정형화된 배치 및 건축 형식 없음
- 제향기능을 갖추지 않음
- 단일 건물 사용하여 기능별로 공간 구획

### 한국 서원

- 공유된 건축 정형 갖춤
-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을 하나의 축선 상에 위치시켜 유기적 연결
- 제향 공간인 사우를 높은 위계건축으로 형성
- 자연지세를 활용한 독특한 한국적 건축기법



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

		한국의 서원	중국의 서원	일본의 시주쿠
도입 시기		16세기	7세기	17세기
설립 목적		성리학 지식인 양성 지역 기반 선현 제향	유학 지식인 양성 → 관료 양성 관학 보조	지식인 양성
교육 대상		지역 유생	제한 없음	무사, 가신 그룹
교육 학문		성리학	유학	유학,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 다양
제향	인물	지역단위 선현	주로 공자 등 성현	크게 중시하지 않음
	의례	현재까지 존속	일부 서원만 유지	
사회적 기능		지역 공론 중심지 지역 교화 중심지	국가정책 따라 변동	근대사회 전환 기여
건축	입지	제향인물 연고지 자연 경관 고려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등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기능	제향-강학-유식	강학-제향-장서	강학
	구성 요소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반지 과거합격 비석군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배치 유형	공통의 배치 유형 존재	서원별 개별성 강함	단일건물 중심
	경관 구성	자연친화적 개방과 관입 구현	인위적 폐쇄적	인위적 폐쇄적
	지역성	좌식 생활 구조 온돌, 마루의 조화	입식 생활 구조 의자, 화로	좌식 생활 구조 다다미, 화로

##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 성균관(成均館)

- 중앙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최고 교육기관
- 공자<sup>孔子</sup>와 그의 제자를 비롯한 중국 현인<sup>賢人</sup>들과 우리나라 현인을 제사지내는 문묘, 강학 공간인 명륜당 갖추

### 향교(鄕校)

- 지방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주로 향촌에 가까운 곳에 입지
-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문묘, 명륜당 갖추

## 서원과 향교, 성균관 비교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 주체	사림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포	지역별 다양	군현별 1개	수도에 1개
설립 목적	인성교육 선현제향 사림 활동 기반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사회적 역할	지역 공론 형성 지역 문화 교류		유생 공론 형성
입지	제향 대상과 관련 교육 목적에 부합	지방 행정 중심지	수도
구성 요소	사우(선현),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유형	제향-강학-교류, 유식	강학-제향	강학-제향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서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어득강(魚得江, 1470~1550)의 상소

## 2) 세계유산 가치

##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 등재 기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충족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
-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 토착화되는 과정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

##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

##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
- 활용과 기능,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
-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무형유산,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

## 보호 및 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증축,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

##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 연속유산이란

-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
-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

## ‘한국의 서원’ 입지 특성

###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

-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sup>先賢</sup>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
-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
-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 관련

## 수려한 주변 경관

-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
-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
-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
- 특히 정자,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

## ‘한국의 서원’ 건축 특성

### 보편성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건립되며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
-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
- 대부분의 서원은 아래와 같이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

### 독자성

-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
-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
-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 건축 구조 형성



## 공간 구분

### 제향공간

- 건물: 사우, 전사청, 제기고 등
-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
-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 별도 출입문 설치
  - 사우: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
  - 전사청: 제물,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
  - 제기고: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

### 강학공간

- 건물: 강당, 재사, 장서각, 장판각 등
-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
  - 강당: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
  - 재사: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 서재로 구성, 학생들의 기거 공간
  - 장서각, 장판각: 목판이나 도서 보관

### 교류와 유식공간

- 건물: 누각, 정자 등
- 누각은 누정,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좌식공간관습 가지는 한국의 건축 전통과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결합된 건축형식
- 연못,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

## 기타

- 고직사, 교육시설, 하마비, 홍살문, 기념비 등
- 하마비,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
  - 고직사: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
  - 교육시설: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 전통 건축기법 토대로 건립
  - 하마비: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
  - 홍살문: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

## ‘한국의 서원’ 서원별 세계유산가치

서원명	세계유산가치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로 건립된 서원</li> <li>강학,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li> </ul>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li> <li>사당과 강당이 일렬로 배치되는 서원 건축의 정형적 배치방식</li> </ul>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li> <li>누마루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li> </ul>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li> <li>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li> </ul>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li> <li>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규,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li> <li>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안동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li> <li>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li> </ul>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li> <li>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li> </ul>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li> <li>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li> </ul>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 3) 등재 과정

### 등재 추진 배경

- 서원이 건축, 공간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적 가치도 우수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

### 추진 관련 기관

- 2010년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 2012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발족
- 2015년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출범

### 1차 등재 추진 경위

- 2011년 12월 한국의 9개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sup>1</sup>
- 2015년 1월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유네스코에 제출
- 2015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 현지 조사 후 철회 권고
- 2016년 4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철회

1. 1871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과 사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 충족 여부 확인하여 9개 서원 선정

# 등재 재추진 경위

- 2016년 8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 의결
- 2018년 1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 2018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의 현지 실사
- 2019년 5월 이코모스 평가결과 등재 권고
-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확정



# 02

안동 병산서원



# 1. 안동 병산서원 개요

주요 내용은 『병산서원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참고

## 1) 안동 병산서원의 역사

### (1) 건립

#### 건립 배경

- 병산서원이 위치한 지역은 안동부安東府의 속현인 풍산현豊山縣으로 인근 예안현禮安縣 출신 이황李滉, 1501~1570의 영향을 받음
- 풍산현에는 이황의 대표적인 제자 류성룡柳成龍, 1542~1607과 그 일족이 거주하며 서원 건립 주도
- 이 지역에는 이른 시기부터 서원書院, 서당書堂, 서재書齋, 정사精舍 등 건립, 병산서원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해 가능

#### 건립 과정

- 1563년 풍산현 북쪽 1리 정도 거리에 병산서원의 전신 풍악서당豊岳書堂 건립
- 1572년 풍악서당이 길가에 있어 장수藏修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류성룡의 주도로 병산 쪽으로 이전
- 임진왜란壬辰倭亂 중 서당 건물 전소全燒
- 1605년 현재 위치로 옮겨 중건
- 1607년 류성룡 사후 그의 문인들의 주도 하에 서원건립 논의 대두
- 1613년 병산서당 뒤에 존덕사尊德祠를 창건하여 서원으로서 위상 갖추

## 병산서원 재정 마련

- 풍악서당 시기 생원生員 권경전權景綏 등이 상소하여 학전學田 하사
- 1663년 노비안奴婢案에 풍악서당 당시 소속노비 7구, 서원 설립 이후 지방관에 의해 6차례에 걸친 속공영급屬公永給 노비 8구 기재
- 병산서원의 노비는 서원 근처에 거주하더라도 모두 신공 납부하는 공납貢納 노비로 기록이 남아있음
- 류성룡의 문인들의 부조, 지방관에 의한 지원이 있었을 것
- 관련 유물: 『전답안田畵案』, 『노비안奴婢案』 등

### (2) 사액

#### 병산서원 사액

- 1800년 정광익鄭光翊의 사액 요청 상소
- 이후 류성룡의 학통을 계승하였거나 후손인 류규柳奎, 류이좌柳台佐, 1763~1837, 정상리鄭象履, 1774~1848 등에 의해 사액 분위기 조성
- 1832년 영남 유생 이순발李恂發 주도로 1,250인 연명 상소
- 1853년 이동순李同淳, 1779~1860이 이황의 문하에서 류성룡이 적전嫡傳이었다고 하며 사액 요청 상소
- 1863년 교리 이계로李啓魯, 1828~?의 상소에 비변사備邊司의 회계回啓, 국왕의 재가를 받아 사액 결정

## 병산의 의미

- 사액이 결정된 후 철종<sup>哲宗</sup>, 재위 1849~1863이 사망하며 새로운 이름의 현판을 받지 못하고 기존의 이름인 병산<sup>屏山</sup> 사용
- 서원 남쪽의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기이한 절벽이 서로 마주보며 깊은 물을 내려다보는 기묘한 경치가 병풍과 같아 붙여진 이름

## (3) 운영

### 병산서원 원규(院規)

- 임고서원<sup>臨臯書院</sup> 소장 문서인 『서원규범<sup>書院規範</sup>』과 『병산서원기사<sup>屏山書院記事</sup>』에서 확인
- 『서원규범』에는 임고서원, 소수서원<sup>紹修書院</sup> 등의 원규가 각각의 항목 관련 부분에 나열

\* 자세한 사항은 『병산서원 정밀실측조사 보고서(상)』, 2013 참고.

### 원임(院任) [원규]

- 각자 상유사<sup>上有司</sup>, 하유사<sup>下有司</sup>를 맡을 만한 사람을 천거하고, 그 이름을 한 종이에 적어 늘어놓고 권점<sup>圈點</sup>한다
- 상유사는 서원 내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고, 하유사는 미포<sup>米布</sup>의 출납과 공궤<sup>供饋</sup>, 염산<sup>斂散</sup>, 풍년일 때 쌀을 사들였다가 흉년일 때 쌀을 파는 것, 타작<sup>打作</sup> 등의 일을 주관하게 한다
- 모든 일은 반드시 원장에게 아뢴 후 행한다
- 하유사가 인계할 때 반드시 차정된 사람이 함께 참석하여 수를 세어 관에 보고하고, 단지 문서로만 서로 전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 원규의 일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

## 원임(院任)의 운영

- 초기에는 상유사, 하유사 체제 또는 도유사<sup>都有司</sup>, 재유사<sup>齎有司</sup> 체제
- 후에 원장제<sup>院長制</sup> 신설 후 원장, 유사체제로 분화
- 원장의 임기는 대체로 1~2년, 중임과 재임 허용
- 입원생 중 빠르면 10년 이내, 늦으면 10~20년 후 원장, 유사로 선임
- 대체로 안동 지역의 사림 중심으로 운영
- 17~18세기에는 유학<sup>幼學</sup>, 생원<sup>生員</sup>, 진사<sup>進士</sup>가 주로 임원을 맡았지만, 19세기에는 지방관과 관료의 비율이 높아짐
- 관련 유물: 『원임안<sup>院任案</sup>』, 『입원록<sup>入院錄</sup>』

### 원사(院士) [원규]

- 무릇 입원<sup>入院</sup>은 유생이 모두 모여 각자 들어올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연소하고 학문에 뜻이 있으며 도리를 대함을 조금은 알고 오점<sup>汚點</sup>이 없어 장래가 있는 사람을 취하여 그 이름을 늘어놓고 권점하여 받아들인다
- 무릇 무리지어 살 때는 용모를 바르게 하고 삼가 예절을 지키며 의리를 강마<sup>講勵</sup>하여 여택<sup>麗澤</sup>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 장상<sup>長上</sup>의 우열을 품평하거나 다른 사람의 문자<sup>文字</sup>를 찬양하거나 헐뜯어서는 안 되고, 군읍<sup>郡邑</sup>의 정사<sup>政事</sup>나 고을의 인물에 대해서는 선한 것을 칭찬하되 나쁜 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

\* 원규의 일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

### 원사(院士)의 운영

- 입원한 유생은 항상 5인을 이바지한다 … 수년 후 미곡의 수가 많아지고 유생의 수가 평소보다 많이 모이면 임시로 결정하여 비록 5명이 넘더라도 수를 헤아려 배급을 더하여도 무방하다
- 반찬값으로 1년에 통용하는 잡곡이 3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상, 하유사 및 다른 빈객으로서 무시로 출입하는 사람의 경우는 유생에게 배급되는 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여러 유생 중 만일 독서에 힘쓰지 않고 날마다 출입하며 직접 고기잡이와 사냥을 하거나 혹은 제멋대로 잡기雜技를 일삼는 자가 있으면, 가벼운 경우는 대면하여 꾸짖고 중한 경우는 쫓아낸다
- \* 원규의 일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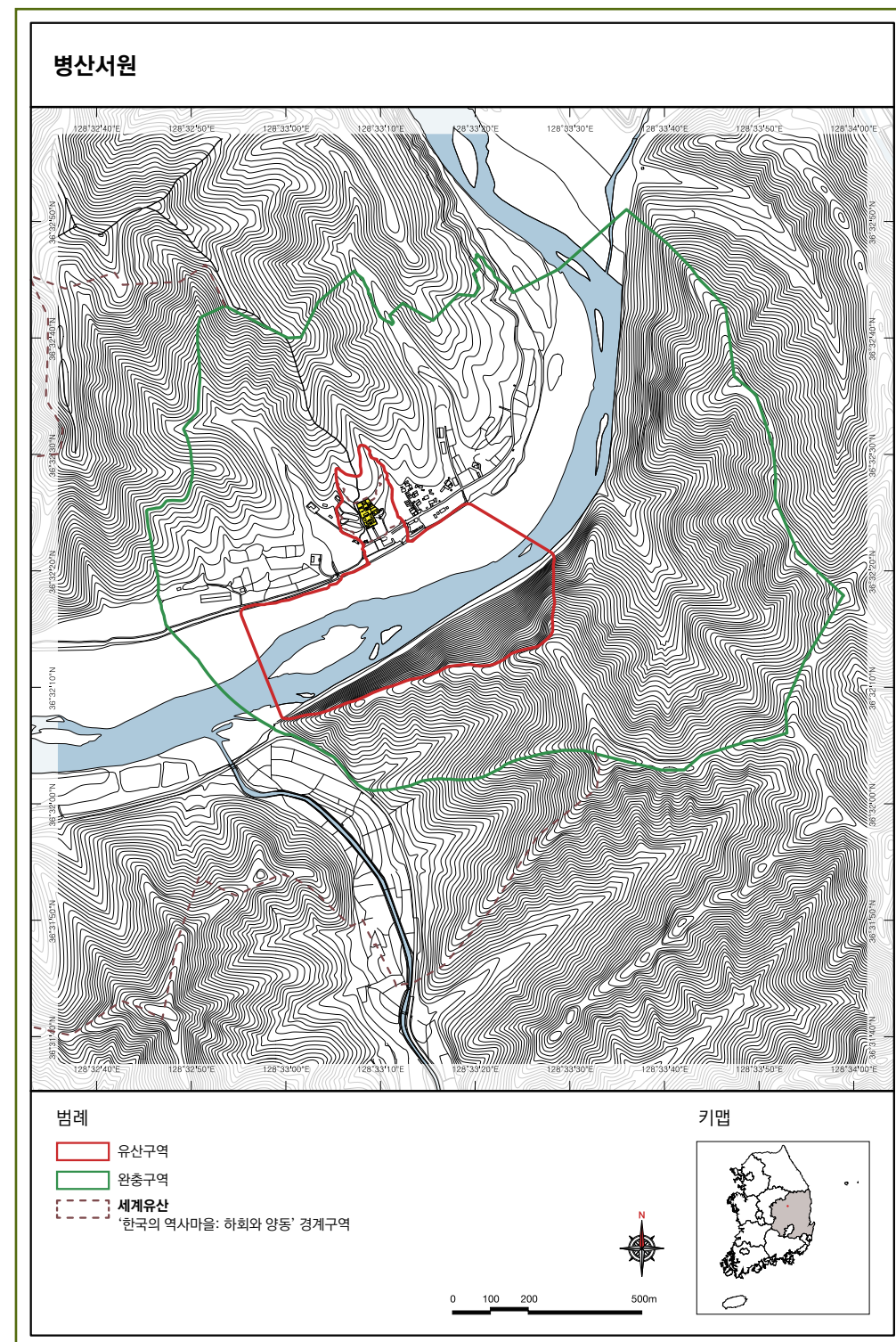
## 2) 안동 병산서원의 공간 구성

### 병산서원의 입지

-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
- 앞이 낮고 뒤로 가면서 높아지는 경사지에 입지
- 맞은편에 병산과 낙동강을 바라봄
- 주산인 화산花山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 풍산류씨豊山柳氏 집성촌인 하회마을이 위치하고, 동쪽에 화산을 등지고 병산서원 위치
- 산수가 뛰어나면서도 한적한 곳에 위치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 및 인접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



## 건물배치도

- 완만한 경사지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
- 묘우廟宇를 강당의 동쪽에 치우쳐 배치하는 것을 중요시하여 사당이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음
- 노비들이 기거하는 고직사庫直舍가 일반적으로 위계가 낮은 서쪽이 아닌 동쪽에 위치
- 만대루晩對樓를 통해 한국 서원 누마루 건축의 탁월성을 보여줌



## (1) 강학

### 건물

#### 입교당(立敎堂)

- 목적: 서원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
- 1921년 중수
- 원래 명칭은 숭교당崇敎堂이었고, 명륜당明倫堂이라고도 불림
- 입교立敎: 유생들이 배워야 할 성현의 가르침인 오륜五倫을 바르게 세운다는 의미
-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夾室型
- 동쪽에 서원의 원장이 기거하는 명성재明誠齋와 서쪽에 교무실 기능을 담당하는 경의재敬義齋로 구성

#### 입교당 관련 유물

##### 병산서원 현판

- 1863년 사액 받을 때의 편액
- 병산屏山: 서원 앞의 산이 병풍을 두르듯이 펼쳐져 있다는 것에서 유래
- 글씨 쓴 사람은 알려져 있지 않음

##### 입교당 현판

- 류성룡의 제자인 이호李瑚, 1553~?의 글씨

##### 병산서원존덕사복향기(屏山尊德祠復享記)

- 1620년 여강서원廬江書院에 모셨던 류성룡 위패를 1629년 병산서원 존덕사로 옮겨 오게 된 전말 기록
- 현재 병산서원 입교당에 걸려있음
- 이준李埈, 1560~1635 작성

### 명성재(明誠齋) 현판

- 명성(明誠): 『중용』의 ‘성(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性)이라 이른다’는 구절에서 유래
- 입교당 동쪽 방의 현판

### 경의재(經義齋) 현판

- 경의(敬義): 『주역』의 ‘군자는 경(敬)으로써 내면을 곧게 하고 의(義)로써 외면을 바르게 한다’는 구절에서 유래
- 입교당 서쪽 방의 현판

### 존덕사향사집사분정(1)

- 강당 북쪽 벽면에 걸린 현판
- 존덕사 향사시 집사분정판

학 생	관 세 위	척 기	장 찬	공 반	사 준	전 작	봉 작	봉 로	봉 향	찬 인	알 자	찬 자	축	종 현 관	아 현 관	초 현 관
--------	-------------	--------	--------	--------	--------	--------	--------	--------	--------	--------	--------	--------	---	-------------	-------------	-------------

### 존덕사향사집사분정(2)

- 강당 북쪽 벽면에 걸린 현판
- 존덕사 종향위 집사분정판
- 종향위의 집사분정판이 별도로 있으며, 분정판의 구성요소도 다름

학 생	척 기	장 찬	공 반	사 준	전 작	봉 작	봉 로	봉 향	진 설	현 관
--------	--------	--------	--------	--------	--------	--------	--------	--------	--------	--------

## 동직재(動直齋)·정허재(靜虛齋)

- 목적: 학생들의 기숙과 개인 학습 병행
- 동재는 동직재, 서재는 정허재
-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맞배지붕 건물
- 작은 2개의 방과 가운데 1칸 마루로 구성
- 강당 쪽 작은 방은 유사(有司)의 독방이거나 서적을 보관하는 장서실
- 2칸 규모의 큰 방은 학생들이 단체로 기거하는 방
- 좌고우저(左高右低)의 원리에 따라 동재에는 상급생, 서재에는 하급생이 기거

### 동직재·정허재 관련 유물

#### 동직재 현판

- 동직(動直):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통서(通書)』에 나오는 구절, 경(敬)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여 사욕이 없는 경지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뜻 내재
- 이호의 글씨

#### 정허재 현판

- 정허(靜虛): 주돈이의 ‘욕심이 없으면 고요할 때는 텅 비고, 움직일 때는 곧게 된다’는 구절 인용, 성인이 되는 것은 결국 마음 수양을 통해 사욕이 없는 경지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의미
- 이호의 글씨

#### 장서실(藏書室) 현판

- 정허재의 우측 마루방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 장판각(藏板閣)

- 서원에서 생산된 목판 및 고문서 등이 보관된 곳
- 습기를 피하기 위해 정면 모두 판문(板門)을 달고, 불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건물과 거리를 두어 독립적 공간 마련
-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보관되던 자료들은 보존관리를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

### 장판각 관련 유물

#### 장판각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 교육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서원의 주요 기능

## 강학

- 17세기 중반 이후 대부분의 서원에서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었지만, 병산서원은 18세기 후반까지 강학 전통 유지
- 강학을 통한 선비 양성이 서원을 세운 근본임을 강조
-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여러 유생을 불러 모아 사서육경(四書六經) 등 여러 책을 주야로 강습
- 통독(通讀), 거재(居齋), 고강(考講)이라는 유형의 강학 활동 전개
- 『주서(朱書)』, 『심경(心經)』과 같은 성리서(性理書)와 『춘추(春秋)』 등의 역사서 학습
- 서책별 고강(考講)한 유생의 성적을 순통(純通), 통(通), 약(略), 조(粗)의 네 등급으로 평가

## 병산서원 통독(通讀)

- 1781년 「신축통독안(辛丑通讀案)」에는 『대학(大學)』 통독에 관한 자세한 내용 기재되어 있음
- 상음례(相揖禮)를 하고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읽음
- 존덕사 배알(拜謁)
- 입교당에 좌석 후 『대학』을 차례대로 읽고 경의(經義) 강론 후 의견 교환

## (2) 제향

## 인물

### 류성룡(柳成龍)

- 자는 이견(而見), 호는 서애(西厓), 시호는 문충(文忠)
- 서애는 류성룡이 살고 있던 곳의 경치가 좋고 집의 서쪽에 푸른 절벽이 강가에 우뚝 솟아 있었으므로 이를 스스로 호로 붙인 것
- 저서: 『서애집(西厓集)』, 『징비록(懲毖錄)』, 『신종록(愼終錄)』 등

#### ① 출생

- 본관은 안동부(安東府) 풍산현(豊山縣), 아버지 류중영(柳仲郢, 1515~1573)은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를 지냄
- 류성룡은 1542년 경상도(慶尙道) 의성현(義城縣) 사촌리(沙村里) 출생
- 류성룡을 임신 중에 있을 때 꿈에 어떤 사람이 공중에서 내려와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함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1562년 도산陶山에 가서 이황을 찾아뵙고, 수개월을 머물면서 수학
  - 1557년 향시鄉試 합격, 1563년 동당초시東堂初試 합격, 이듬해 사마시司馬試 합격, 1566년 별시문과別試文科 급제 후 승문원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 종9품로 출사
  - 1569년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 연경燕京에 다녀옴
  - 부친상을 치른 후 1576년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정5품으로 조정에 돌아와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정3품, 도승지都承旨, 정3품, 관찰사觀察使 등 역임
  - 이조吏曹, 형조刑曹, 병조兵曹, 예조禮曹 등의 판서判書, 정2품을 거쳐 1591년 우의정右議政, 정1품, 좌의정左議政, 정1품 역임
  -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도체찰사都體察使가 되어 군무軍務 총괄 후 영의정領議政, 정1품으로 승진
  - 1598년 탄핵을 받아 관작官爵이 삭탈된 후 1600년 복관復官되고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이 되었으나 이후 관직을 사양하고 은거
  - 1607년 정침正寢에서 북쪽을 향하여 정좌正坐하고 편안히 사망
- \* 자세한 사항은 『서애집』 연보, 『우복집』 류성룡 행장行狀 참고



『서애집』 연보



류성룡 행장(行狀), 『우복집(愚伏集)』 권20

## ③ 학문

- 4세부터 글을 읽을 줄 알았고 6세에 『대학大學』을 배웠으며 8세에 『맹자孟子』를 읽음
- 학자이자 문신으로서 문집인 『서애집』을 비롯하여 『징비록』, 『영모록永慕錄』, 『관화록觀化錄』, 『운암잡기雲巖雜記』 등 많은 저서를 남김
- 『징비록』은 『시경詩經』의 미리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는 구절에서 제목을 취하여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에 대비하자는 의도가 담김
- 문도門徒를 모아서 가르친 일이 없었지만, 후학들이 모두 스승으로 여김

## ④ 평가

- 13세에 동학東學에서 『대학』, 『중용』 강독을 하며 구두句讀와 깊은 뜻을 잘 알자, 강관講官이 반드시 큰 학자가 될 것이라고 칭찬
- 이황은 류성룡을 처음 보고 뛰어나다고 여겨 하늘이 낸 사람으로 큰일을 할 것이라고 함
- 선조宣祖, 재위 1567~1608는 군자이자 당대의 대현大賢이라 한 바 있음
- 정조正祖, 재위 1777~1800는 류성룡을 혈통을 잇는 사람들 100명이 있어도 류성룡이 한 일에 만분의 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젊었을 때부터 큰 사람의 뜻이 있었다고 평가
- 하늘이 낳은 대현大賢으로 이황의 적전嫡傳을 얻어 백세百世의 모범이 되었다는 칭송

## ⑤ 시호 하사 및 배향

- 1614년 병산서원에 위판 봉안하고 석채례釋菜禮를 행함
- 1620년 류성룡의 도道를 이황에게서 얻었으니 합향해야 한다하여 위판을 여강서원廬江書院의 이황을 모신 사당에 부향附享
- 1627년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추증追贈 받음
- 1629년 많은 선비들이 류성룡이 머물렀던 곳에서 제사를 받들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위판을 다시 병산서원에 봉안

## 류진(柳珍)

- 자는 계화季華, 호는 수암修巖
- 저서: 『수암집修巖集』

### ① 출생

- 본관은 풍산, 아버지 류성룡은 영의정 역임
- 류진은 1582년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8세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곡읍哭泣하고 상을 치르는 것이 어른과 같았다고 함
- 임진왜란이 진정되고 류성룡이 귀향하자 곁에서 모시면서 수학
- 1610년 사마시 합격하였는데,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서 모두 장원 급제
- 1612년 정적들의 무고誣告로 파직되어 옥고獄苦를 치른 후 광해군光海君, 재위 1608~1623 시기 출사하지 않음
- 1623년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반정 이후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 봉화현감奉化縣監 부임
- 1626년 형조정랑刑曹正郎, 정5품 부임
- 이후 익위사익위翊衛司翊衛, 정5품을 비롯한 중앙관직과 청도군수淸道郡守, 합천현감陜川縣監 등의 외직을 거침
- 1634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정5품 제수 후 강학년姜鶴年의 상소를 두둔하였다가 공격을 받자 사직
- 1635년 도산서원 사당에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병이 들어 사망

\* 자세한 사항은 류진의 묘갈명墓碣銘, 행장行狀 참고



류진 묘갈명, 『입재집立齋集』 권37



류진 행장, 『목재집木齋集』 권8

### ③ 학문

- 학문의 요체를 듣고 오직 존양存養과 천리踐履 공부에 전일하였고, 종일토록 정좌靜坐하는 것은 쉽지만 일각이라도 마음을 다잡아 가지는 것은 어렵다는 글을 써두고 열심히 행하였음
- 청도군수 재직시 제생들을 유시諭示하는 글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옛 성현의 말씀과 『시경』 등의 경전을 인용하여 인륜人倫을 강조
- 주자의 『가례家禮』가 미완성되었다 하여 변례變例에 대해 고금의 상례설喪禮說을 모아 미비한 점을 보충, 정리

### ④ 평가

- 사람됨이 겸손하면서도 도량이 넓어 알 수 없었음
- 효성과 우애가 하늘로부터 타고나 지극하였음
- 말하든 말하지 않든 출처出處가 모두 예전의 순유醇儒의 법도에 부합

### ⑤ 배향 및 추증

- 1656년 이조참판吏曹參判 증직贈職
- 1662년 일헌례一獻禮로 류진의 위패를 병산서원에 봉안
- 도가 넓고 덕이 높으며 고명高明하고 순정純正하여 유종儒宗이 되었으며 가학家學을 잘 이어받았음



## 건물

### 존덕사(尊德祠)

- 목적: 제향인물인 서애 류성룡과 수암 류진의 위패 봉안
- 1613년 정경세(鄭經世, 1563~1633) 등에 의해 건립
- 1614년 류성룡의 위판 봉안
-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
- 사우의 삼문에 태극(太極), 기둥에는 팔괘(八卦)가 그려짐

#### 존덕사 관련 유물

##### 존덕사 현판

- 존덕(尊德): 류성룡의 학덕을 존모한다는 의미
- 1614년 문인들에 의해 위패가 모셔진 후, 1620년 여강서원으로 옮겼다가, 1629년 다시 봉안
- 작자 및 시기 미상

### 전사청(典祀廳)

- 목적: 제향과 관련된 제기 보관, 제향 준비
- 사당과 한 울타리 안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병산서원의 경우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

#### 전사청 관련 유물

##### 전사청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 의례

### 병산서원 향사(享祀)

- 매년 춘추 음력 3월, 9월 상정일(上丁日)에 시행
  - \* 상정일: 음력으로 매달 첫째 드는 정(丁)의 날
- 행사 시작은 종래 축시(丑時, 오전 1시~3시), 서원재단에서 설립한 풍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례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

### 병산서원 향사 준비

#### ① 제관천망(祭官薦望)

- 향사 약 한 달 전 운영위원회에서 헌관을 비롯하여 축과 집례 등 6집사를 미리 선임, 망기 발송
- 초헌관은 원장(수임)이 되고 아헌관·종헌관·분헌관 등 헌관 3인은 유림의 지도자로 덕망 있는 인사 중 선임

#### ② 제수(祭需) 구입

- 제수로 사용할 것은 크고 깨끗한 것을 구입하며, 가격 흥정을 하지 않음
- 구입한 제수는 병산서원 옆에 위치한 주소(廚所)로 옮김
- 주소에서 제수 다듬기, 제관들의 식사 준비, 제수의 검수와 근봉(謹封)이 이루어짐

#### ③ 제주(祭酒) 담그기

- 서애 종택인 충효당(忠孝堂)의 종부가 담근 가용주 사용
- 술을 담근 뒤 술이 가라앉으면 위의 맑은 술만 걸러냄

#### ④ 입재(入齋)

- 종래는 향사 3일 전 입재, 현재는 전일 입재, 유사들은 향사 2일 전부터 향사 준비

- 유사는 아침 6시 존덕사 묘정에 올라 사당에 들어가 분향례를 올림
- 제관들은 입재일 오후 3시까지 서원 도착. 정문(복례문) 밖에서 예복을 갖추
- 제관들은 시도기時到記에 입재 등록

\* 시도기: 일종의 방명록

### ⑤ 집사분정(執事分定)

- 4시경 입교당에 모여 제관 분정

### ⑥ 축문수축(祝文修祝)

- 분정이 끝나면 초헌관을 모시고 존덕사 월대 위 서단에서 축문을 수축

### ⑦ 제물봉치(祭物奉置)

- 정해진 향사물목단자와 대조하며 제수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는 절차
- 저녁 7시 30분경 초헌관 집례, 재유사가 주사의 대청에 올라 상읍례 및 좌정
- 집례가 물목단자를 하나씩 부르며, 고지기가 각 품목별로 수량 확인 후 용기에 담아 근봉
- 근봉 이후에는 향사를 올릴 때까지 볼 수 없음

### ⑧ 제물진설(祭物陳設)

- 사당에 옮겨둔 제물은 향사 당일 새벽 제기에 담아 진설

## 병산서원 향사 절차

### ① 취위(就位)

- 향사 당일 6시 30분경 제관들은 예복으로 의관 정제, 입교당 대청에 개좌
- 동입동출東入東出 원칙

### ② 분향례(焚香禮)

-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신위전에서 꿇어앉아 향을 세 번 피운 뒤 자리로 돌아옴
- 헌관은 묘 출입 시 중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동문으로 나옴
-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奠幣禮는 없음

### ③ 초헌례(初獻禮)

-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
- 축이 동쪽을 향하여 앉아 축문을 읽음, 이때 모든 제관들은 부복俯伏

### ④ 아헌례(亞獻禮)

- 신위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
- 의례절차는 초헌례와 같지만 축문 낭독이 없고, 작을 제 2점 올리는 차이점이 있음

### ⑤ 종헌례(終獻禮)

- 신위께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

### ⑥ 음복례(飲福禮)

-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를 음복하는 의례

### ⑦ 철변두(撤籩豆)

-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두는 의례
- 축이 사당에 들어가 변과 두를 하나씩 조금 옮기는 것으로 대신함

### ⑧ 망예(望瘞)

- 제향을 마치고 축문을 땅에 묻는 의례

## 병산서원 향사의 특징

- 서원 재단이 설립한 풍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향사를 지냄
- 향사 시 묘우의 출입은 동입동출을 따르지만, 헌관들이 들어갈 때는 중문으로 들어가고 동문으로 나오는 것이 다름
- 제물봉치 의례가 아주 엄숙하게 잘 전승되어 오고 있음
- 병산서원 향사에는 전폐례가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서원향사』 병산서원 참고

## (3) 교류와 유식

- 교류와 유식 공간은 유산을 둘러싼 자연과 통하는 공간으로서 정자, 누마루 등으로 구성
- 서원과 서원, 유학자와 유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
- 유식 공간으로써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등 보다 자유로운 학습 공간

### 만대루(晩對樓)

-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지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누각
- 내, 외부 사람들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기능
- 회합<sup>會合</sup>과 관련된 많은 자료 보존
- 국내 서원 중 가장 큰 규모의 누마루
- 만대<sup>晩對</sup>: 당나라 두보의 시 백제성루<sup>白帝城樓</sup>의 ‘푸른 절벽은 저물녘에 대할 만하네’라는 구절에서 인용

### 광명지(光明池)

- 서원 유생들의 유식을 위해 조성된 인공 연못
- 광명<sup>光明</sup>: 주희<sup>朱熹</sup>의 관서유감<sup>觀書有感</sup> 시의 ‘천광운영공배회<sup>天光雲影共徘徊</sup>’에서 인용



## 복례문(復禮門)

- 서원의 주요 건물과 외부를 나누는 진입문
- 정면 3칸, 측면 1칸
- 복례(復禮): 『논어』에서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을 인용, 사람마다 욕망과 탐욕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禮)로서 자신을 절제하여 인(仁)을 이룩하라는 의미

### 교류와 유식 관련 유물

#### 만대루 현판

- 이호의 글씨

#### 복례문 현판

- 이호의 글씨

## (4) 기타 시설

### 고직사(庫直舍)

- 서원의 보존관리와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이들이 기거하던 곳

## 4) 안동 병산서원의 특징

- 병산서원의 교육적 지향을 보여주는 강학 전통과 1946년 서원 재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병산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풍산중학교, 풍산고등학교
- 조선후기 영남 향촌 유림들의 유일한 정치활동인 영남유소(嶺南儒疎)에서 병산서원이 중요한 역할, 예안·안동 일대의 수원(首院)으로서 공론의 중심지
- 풍산 류씨 집성촌이자 배향인물인 류성룡의 고향인 하회마을과 인접
- 병산과 낙동강이 펼쳐지는 주변 풍광을 끌어안음으로써 서원과 자연경관을 하나로 합쳐 극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최대 규모의 누마루인 만대루
- 내삼문 초석에 새겨져 있는 팔괘(八卦)는 류성룡의 일대기를 상징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의 일부 요소로 포함

## 2. 안동 병산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 사람의 공론장으로 기능한 서원

- 1613년 건립된 서원
-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제자, 후손, 안동 지역 사림에 의해 건립
- 조선시대 최초로 만인소를 작성하는 공론장으로서 역할 적극적 실천
- 지역 공론 수합하고 조정한 전반적인 내용을 입증하는 통문 자료 구비
- 만대루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성리학적 자연관 확인하는 건축공간을 대표, 누마루 형식의 완성도 높은 성취
- 낙동강과 산지의 조화를 통하여 자연 경관적 요소를 탁월하게 구현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창건 및 사액 : 1613년 건립 / 1863년 사액**

**주향인물 : 류성룡(柳成龍, 1542-1607)**

### 주요특징

#### - 구성 및 입지

- 전형적 서원 구성이나, 전면의 누마루가 매우 특화되어 있음. 낙동강과 병산(屏山)을 바라보는 강경(江景)·산경(山景) 입지의 전형.

#### - 특징

- 누마루인 만대루는 많은 유림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치를 논의하는 현장이었으며, 전면에 낙동강과 병산을 바라보며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유식의 장소
- 17세기 이래로 인근 지역 공론을 수렴하는 중심이 되었으며, 각종 상소(上疏)·만인소(萬人疏)·통문(通文) 등을 통해 서원의 사회적 기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 지정문화재

#### - 국가지정 2건(국보 1건, 보물 1건)

- 징비록(국보) : 류성룡이 조정에서 물러나 향리에서 전란 중의 득실을 기록한 것. 임진왜란 이전 일본과의 관계, 명나라의 구원병 파견 및 제해권의 장악에 대한 현황 등이 주요 내용. 필사본 『징비록』은 조수익이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필자 손자의 요청으로 인조 25년(1647)에 16권 7책으로 간행. 숙종 21년(1695) 일본 경도 야마토야에서도 간행되었으며, 1712년에는 조정에서 『징비록』의 일본 유출을 금할 정도로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았음. 임진왜란 전후의 상황을 연구 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함께 높이 평가됨.

병산서원 지정문화재

서원	종별	지정	명칭	구분	지정일
병산서원	국가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부동산	1978.03.31.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 교재

- 무성서원 -





# 목차

## 들어가며 04

### 1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1. 유네스코와 유산 10

- 1) 유네스코와 유산
- 2) 유산 해석과 설명

####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6

- 1) 서원의 이해
- 2) 세계유산 가치
- 3) 등재 과정

### 2부 정읍 무성서원

#### 1. 정읍 무성서원 개요 40

- 1) 정읍 무성서원의 역사
  - (1) 건립
  - (2) 사액
  - (3) 운영
- 2) 정읍 무성서원의 공간 구성
  - (1) 강학
  - (2) 제향
  - (3) 교류와 유식
  - (4) 기타 시설
- 3) 정읍 무성서원의 특징

#### 2. 정읍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70



# 들어가며

## 일러두기

-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재
- 심화학습 자료, 관련 사이트는 QR코드를 참고

## 범례

-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서원을 지칭하고, 서원은 조선에서 세워진 서원을 통칭함



## ‘한국의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 / 사액 연도	주향 인물	비고
영주 소수서원	1543년/1550년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사적(1963)
함양 남계서원	1552년/1556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사적(2009)
경주 옥산서원	1572년/1574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사적(1967)
안동 도산서원	1574년/157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사적(1969)
장성 필암서원	1590년/1662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사적(1975)
달성 도동서원	1605년/1607년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사적(2007)
안동 병산서원	1613년/1863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사적(1978)
정읍 무성서원	1615년/1696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사적(1968)
논산 돈암서원	1634년/1660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사적(1993)

##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이해

### 전담해설사 제도의 목적

-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으로서 성격 소개
- 각 서원의 역사, 건축적 성격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연속유산인 9개 서원 이해, 해당 내용을 방문객에게 비교·전달

### 전담해설사 정의와 역할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정된 ‘한국의 서원’만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자, 하나의 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을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표준교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필요한 지식과 실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력

### 전담해설사 필요역량

- 방문객의 국적, 연령, 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해설을 제공
- 유산의 각 공간에서 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각 서원은 개별적으로 중요한 국내 유산이며 동시에 9개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세계유산의 일부임
- 유산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되 지식과 정보의 일방적 주입 지양
- 해설 목적은 방문객과 유산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 근거 있는 정보 수집 경로 제시





# 01

##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1. 유네스코와 유산

## 1) 유네스코와 유산

### 유네스코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
-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 세계무형문화유산

-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로서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름
-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

### 세계기록유산

-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
-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단독 기록이거나 기록의 모음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

※ 근거: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 **완전성과 진정성** 개념을 충족했는지
  -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보호관리계획**을 갖추었는지
- \* 등재 기준, 진정성과 완전성,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

### 완전성(Integrity)이란?

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특성에 대해 전체, 본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 진정성(Authenticity)이란?

본래 또는 역사의 과정에서 지니게 되는 가치에 대한 진실성,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것

### 세계유산 구역: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범위
- 유산구역: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역
- 완충구역: 유산구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며 인접한 주변 환경과 중요한 경치 등 포함



## 세계유산 등재 기준

구분	등재 기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에 의한 <b>결작</b>
	(ii)	일정한 기간,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b>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b>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b>독보적인 증거</b>
	(iv)	<b>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b> 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
	(v)	하나(혹은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b>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b> 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b>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b>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독보적인 <b>자연미</b> 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의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특징물 등 <b>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b>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b>생태적·생물학적 과정</b> 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x)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b>멸종 위기 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b> 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

- 등재 기준 중 (i)부터 (vi)까지는 문화유산, (vii)부터 (x)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됨,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세계유산협약이란?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약자
- 유네스코가 1872년 11월 제17차 총회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협약

## 세계유산협약의 배경

- 인류가 이룩해 온 역사적 유산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
- 1950년대 이집트에서 전력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 하이댐의 건설을 시도하면서 아부심벨 신전 등 고대 이집트 유적이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 세계유산제도 시행의 결정적 계기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

- 세계유산목록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유산 등재
- 세계유산의 보호와 보존
- 세계유산기금 하의 국제지원 공여
- 협약에 도움이 되는 국내 및 국제적 지원의 확보

※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세계유산협약 전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2) 유산 해석 Interpretation 과 설명 Presentation

### 세계유산의 ‘해석’

-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인 활동
-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쇄물, 전자출판, 강의,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등이 포함

### 세계유산의 ‘설명’

- 해석 정보의 배열, 사람들의 접근 방식, 해석 시설 구조 등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잘 디자인하여 전달하는 것
- 현장에서의 소통에 중점
- 박물관 전시, 정형화된 투어, 안내 프로그램이 포함

### 유산 해석 등장 배경

- 유산의 다양한 형태, 가치를 함께 고려
  - 전문가 관점에 국한되지 않은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 유산 가치 중요
- ※ 해설사 = 중요한 이해관계자

### 유산 해석·설명에의 국제적 담론

- 프리먼 틸든의 해석 6원칙(1957)
- 에나메 헌장(2008)
- 현 시대에 맞는 유산 해석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문화유산지의 해석과 설명에 관한 ICOMOS(이코모스)<sup>1</sup> 헌장

1.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약자로 국제기념물협의회라고도 칭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

### 프리먼 틸든의 ‘우리의 유산 해석하기’ (1957)

1. 좋은 해석은 방문객의 경험이나 사고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2. 정보 그 자체는 해석이 아니지만, 반드시 정보에 바탕을 한 내용이어야 한다.
3. 해석은 과학, 역사 및 건축이 접목된 종합 예술이다.
4. 해석이 주된 목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5. 해석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전달해야 한다.
6.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석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해석을 단순화해서 만들면 안 된다.

### 해석과 설명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

1. 접근과 이해 향상(Access and Understanding)  
: 대중들의 해당 유적지에 대한 지적, 물리적 접촉이 쉬워야 함
2. 정보의 확실한 출처(Information Sources)  
: 검증된 과학 학술적 방법, 살아있는 문화 전통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에 기초해야 함
3. 환경과 맥락의 중요성(Setting and Context)  
: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맥락과 주변 환경을 연관시켜야 함
4. 진정성의 보존(Preservation of Authenticity)  
: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sup>2</sup> 정신에 입각한 기본 원리 존중해야 함
5. 지속성에 대한 계획(Planning of Sustainability)  
: 사회적, 재정적, 환경의 지속성 중 주요 목표들과 함께 유적지의 자연적 문화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
6. 포용성에 대한 고려(Concern for Inclusiveness)  
: 전문가, 소유자와 관련 공동체, 이해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협력의 결과물이어야 함

2. 나라문서(1994):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보존과 관련된 문화 다양성,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대한 필요성 언급

##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1) 서원의 이해

#### 서원이란?

-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
-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 선현先賢 제사,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
-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 지역 문화 선도

#### 서원의 기원

-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 재위 712~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담당한 '여정서원'이 최초
-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 제사기능,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
-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 1130~1200가 세운 '백록동서원'은 학규,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
-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모티브

#### 한국에서 서원 성립

-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 국학(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육 권장

-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저하,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
-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 중국의 서원 제도 주목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 건립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 확산

#### 서원의 구성원: 사람

- 향촌 지식인집단
-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
-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
- 관련 자료: 『원장안院長案』,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등

구성원

구분	역할
원장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의 일 총괄</li> <li>•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 관리 주체</li> <li>• 임기는 1~2년, 대체로 연임 허용</li> </ul>
원임院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li> <li>•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로도 불림</li> <li>• 서원 내 규찰, 재정 문제 담당</li> <li>•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li> </ul>
원생院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li> <li>•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 통해 최종 선발</li> <li>•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li> </ul>

## 서원의 규약(規約)

- 원규院規 : 강학 제향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
- 학규學規, 강규講規 :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
- 절목節目 :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세칙
- 완의完議, 입의立議 :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 서원의 재정

- 대체로 지역 사람의 자발적 출연 통한 토지, 노비,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
- 사액서원에는 서적, 토지, 노비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
- 관련 자료: 『전답안田畓案』, 『노비안奴婢案』,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 서원의 주요 기능: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 강학

- 성리학 교육을 통한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 개별학습인 독서,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
-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
-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
- 강학 활동은 ‘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과 ‘공식적·의례적강학으로서 강회講會’로 구분

### 강학의 종류

구분	내용
거접居接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문회文會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
거재居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순제旬題	지방의 향교鄉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통독通讀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향사 후의 강회講會	향사享祀를 지낸 후, 「백록동규白鹿洞規」나 「여씨향약呂氏鄉約」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講生들이 강장講長 앞에서 진강進講을 하는 순서로 진행. 진강을 하는 방식은 씨[姓: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추첨 기구]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

### 강학 의례

구분	내용
흥미를 갖춘 공식적 의례	정음례庭揖禮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 음례揖禮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
	상음례 큰 음揖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강습례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陳設;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침배瞻拜;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상음相揖;서로간 음례를 거행함-승당升堂;당에 오름-독규讀規;규약을 읊음-배독拜讀;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진강進講-예필禮畢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경독 敬讀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 <sup>白鹿洞規</sup> , 사물잡 <sup>四勿箴</sup> , 심잠 <sup>心箴</sup> , 경재잠 <sup>敬齋箴</sup> , 숙흥야매잠 <sup>夙興夜寐箴</sup> 을 낭독하는 것이다.
관습적 의례 개접례, 입접례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파접례, 후접례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귀가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수창시	수창시는 ‘회강’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 제향

-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
-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 정신 이어나갈 것을 다짐, 결속 다지는 기회

### 제향의 종류

구분	명칭	시기
정기	춘추 향사	매년 봄·가을
	삭망례	매월 초하루, 보름
	정알례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6일
비정기	이안제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환안제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위안제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예성제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사액례	사액을 받을 경우
	치제	국가에서 제관 보내어 지내는 경우



입재



성생례



집사분정



분향례



사우입장



제물근봉



초헌례



중헌례



철변두



파제



향약낭독



음복례

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

## 교류와 유식

- 교류<sup>交流</sup>: 서원의 구성원, 서원에 방문한 명사,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 물질 교류
- 유식<sup>遊息</sup>
  -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 『예기』 권17, 학기 18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sup>藏修</sup>: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
  -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양성 방식의 일환.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sup>品格</sup>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
-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
-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
-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
- 해주향약, 남전향약, 예안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
- 관련 자료: 『심원록』 등

##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

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

### 성립과 발전 과정

#### 중국 서원(書院)

- 남송 시기 관학 쇠퇴와 과거제도 부패 비판하며 흥성
- 남송 이후 과거시험과 관련된 관학의 보조적 성격으로 전환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으로 변모



#### 일본 시주쿠(私塾)

- 17~19세기 걸쳐 유학에 기반을 둔 고등 교육기관으로 설립
- 설립자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의학, 산학, 서양학문도 함께 교육
- 중국, 한국에 비해서 유학이 제도,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과거제도가 없어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형태로 발전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 대학으로 발전



#### 한국의 서원(書院)

- 16세기 중반 태동, 지역 성리학 집단인 사림<sup>士林</sup>의 주도로 성장
- 관학적 성격이나 국가의 관료선발과정에 관련되지 않음
- 19세기 말 교육 기능 종료까지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일관적으로 운영
- 근대화 과정에서도 명맥 유지



## 사회적 기능

### 중국 서원

- 송 시기 학문 중심기구, 여론 형성기구
- 점차 관학 보조기구로 정착되며 정치, 사회활동 성격 약화

### 일본 시주쿠

- 유학이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되지 못하여 포괄적 기능 수행에 한계
- 사숙 출신 학생이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사상 선도

### 한국 서원

- 지성 활동, 공론 형성이라는 실천적 성격
- 공론을 국가에서 억압하거나 규제하지 않음
- 성리학 이념에 기반을 둔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 제정하여 향촌 교화

## 건축물 배치

### 중국 서원

- 강학, 제향, 장서루로 구분되어 구성
- 특히 장서루 공간이 크게 발달되어 중시
-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이 상호 대등한 위치 차지하며 관계 자유로움
- 앞쪽 경계에 반수(泮水)로 이루어진 인공적 조경에 의존
- 건축 배치 정형을 규정하기 어려움



중국 백록동 서원 반수

### 일본 시주쿠

- 정형화된 배치 및 건축 형식 없음
- 제향기능을 갖추지 않음
- 단일 건물 사용하여 기능별로 공간 구획

### 한국 서원

- 공유된 건축 정형 갖춤
-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을 하나의 축선 상에 위치시켜 유기적 연결
- 제향 공간인 사우를 높은 위계건축으로 형성
- 자연지세를 활용한 독특한 한국적 건축기법



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

		한국의 서원	중국의 서원	일본의 시주쿠
도입 시기		16세기	7세기	17세기
설립 목적		성리학 지식인 양성 지역 기반 선현 제향	유학 지식인 양성 → 관료 양성 관학 보조	지식인 양성
교육 대상		지역 유생	제한 없음	무사, 가신 그룹
교육 학문		성리학	유학	유학,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 다양
제향	인물	지역단위 선현	주로 공자 등 성현	크게 중시하지 않음
	의례	현재까지 존속	일부 서원만 유지	
사회적 기능		지역 공론 중심지 지역 교화 중심지	국가정책 따라 변동	근대사회 전환 기여
건축	입지	제향인물 연고지 자연 경관 고려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등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기능	제향-강학-유식	강학-제향-장서	강학
	구성 요소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반지 과거합격 비석군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배치 유형	공통의 배치 유형 존재	서원별 개별성 강함	단일건물 중심
	경관 구성	자연친화적 개방과 관입 구현	인위적 폐쇄적	인위적 폐쇄적
	지역성	좌식 생활 구조 온돌, 마루의 조화	입식 생활 구조 의자, 화로	좌식 생활 구조 다다미, 화로

##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 성균관(成均館)

- 중앙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최고 교육기관
- 공자<sup>孔子</sup>와 그의 제자를 비롯한 중국 현인<sup>賢人</sup>들과 우리나라 현인을 제사지내는 문묘, 강학 공간인 명륜당 갖추

### 향교(鄕校)

- 지방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주로 향촌에 가까운 곳에 입지
-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문묘, 명륜당 갖추

## 서원과 향교, 성균관 비교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 주체	사림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포	지역별 다양	군현별 1개	수도에 1개
설립 목적	인성교육 선현제향 사림 활동 기반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사회적 역할	지역 공론 형성 지역 문화 교류		유생 공론 형성
입지	제향 대상과 관련 교육 목적에 부합	지방 행정 중심지	수도
구성 요소	사우(선현),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유형	제향-강학-교류, 유식	강학-제향	강학-제향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서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어득강(魚得江, 1470~1550)의 상소

## 2) 세계유산 가치

##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 등재 기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충족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
-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 토착화되는 과정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

##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

##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
- 활용과 기능,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
-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무형유산,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

## 보호 및 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증축,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

##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 연속유산이란

-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
-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

## ‘한국의 서원’ 입지 특성

###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

-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sup>先賢</sup>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
-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
-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 관련

## 수려한 주변 경관

-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
-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
-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
- 특히 정자,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

## ‘한국의 서원’ 건축 특성

### 보편성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건립되며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
-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
- 대부분의 서원은 아래와 같이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

### 독자성

-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
-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
-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 건축 구조 형성



## 공간 구분

### 제향공간

- 건물: 사우, 전사청, 제기고 등
-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
-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 별도 출입문 설치
  - 사우: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
  - 전사청: 제물,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
  - 제기고: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

### 강학공간

- 건물: 강당, 재사, 장서각, 장판각 등
-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
  - 강당: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
  - 재사: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 서재로 구성, 학생들의 기거 공간
  - 장서각, 장판각: 목판이나 도서 보관

### 교류와 유식공간

- 건물: 누각, 정자 등
- 누각은 누정,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좌식공간관습 가지는 한국의 건축 전통과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결합된 건축형식
- 연못,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

## 기타

- 고직사, 교육시설, 하마비, 홍살문, 기념비 등
- 하마비,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
  - 고직사: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
  - 교육시설: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 전통 건축기법 토대로 건립
  - 하마비: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
  - 홍살문: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

## ‘한국의 서원’ 서원별 세계유산가치

서원명	세계유산가치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로 건립된 서원</li> <li>강학,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li> </ul>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li> <li>사당과 강당이 일렬로 배치되는 서원 건축의 정형적 배치방식</li> </ul>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li> <li>누마루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li> </ul>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li> <li>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li> </ul>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li> <li>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규,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li> <li>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안동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li> <li>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li> </ul>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li> <li>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li> </ul>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li> <li>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li> </ul>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 3) 등재 과정

### 등재 추진 배경

- 서원이 건축, 공간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적 가치도 우수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

### 추진 관련 기관

- 2010년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 2012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발족
- 2015년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출범

### 1차 등재 추진 경위

- 2011년 12월 한국의 9개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sup>1</sup>
- 2015년 1월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유네스코에 제출
- 2015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 현지 조사 후 철회 권고
- 2016년 4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철회

1. 1871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과 사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 충족 여부 확인하여 9개 서원 선정

# 등재 재추진 경위

- 2016년 8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 의결
- 2018년 1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 2018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의 현지 실사
- 2019년 5월 이코모스 평가결과 등재 권고
-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확정





# 02

정읍 무성서원



# 1. 정읍 무성서원 개요

## 1) 정읍 무성서원의 역사

### (1) 건립

#### 건립 배경

- 당나라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던 최치원崔致遠, 857~?이 귀국하여 신라 정강왕定康王, 886~887 시기 태산泰山, 지금의 정읍 일대 태수로 부임
- 당에서 유학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신라에서 뜻을 행하고자 했으나 의심과 시기를 받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최치원은 한국 유학사상 최초의 도통道通으로 추앙받음
- 태인사람들이 최치원의 태산현감 부임과 그의 현가지성絃歌之聲의 유풍을 전하고자 월연대月延臺에 생사당生祠堂을 지어 모심

#### 건립 과정

- 1483년 생사당을 정극인丁克仁, 1401~1481이 마련한 향학당鄉學堂이 있는 곳으로 이 건 후 태산사泰山祀로 명칭 변경
- 1510년 송세림宋世琳, 1479~1519이 향학당을 정비하고, 강당과 동재, 서재를 세워 학도들을 가르침
- 1543년 신잠申潛, 1491~1554이 태인현감으로 부임하여 고을에 4학당을 개설하여 흥학기반 조성하고 이후 그를 기리는 생사당 조성

- 1615년 지역 사족들에 의해 태산사의 최치원과 생사당의 신잠을 함께 제향하고, 사묘인 태산사와 향학당이 결합하는 형태로 태산서원 건립

### (2) 사액

#### 무성서원 사액

- 1695년 11월 생원 유지춘柳之春을 소두疏頭로 하여 전라도의 유생儒生 202명이 서원에서 향회鄉會를 통해 뜻을 모아 발의
- 1696년 1월 사액을 청하는 상소 올림
- 배향 인물들의德行과 학업이 옛사람들과 견주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모범이 되기에 사액 요청
- 무성武城, 태산泰山, 남천藍川이라는 3개의 명칭 중에서 무성으로 사액
- 사액을 받으면서 복호復戶 3결, 보노保奴 30명 지급
- 11월 23일 사액사賜額使로 예조좌랑禮曹佐郎 유격柳格이 파견되어 연액례延額禮 치름

#### 무성의 의미

- 신라시대 태인의 옛 지명
- 자유子游가 다스렸던 지역의 명칭, 공자孔子, B.C.551~479는 제자 자유가 예악禮樂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현가絃歌가 들리자 흡족해 함
- 공자의 교화사상을 나타내며, 흥학興學과 예교禮敎를 교학 정신으로 한다는 것을 상징

### (3) 운영

#### 무성서원 원규

- 입재入齋의 규정은 나이가 많고 적음, 신분의 귀하고 천함을 막론하고 독서에 뜻을 두고 학문을 하는 자는 모두 입원入院할 수 있다
- (서원에) 들어와서 만일 예법에 맞는 몸가짐을 닦지 않거나 말과 행동을 삼가지 않거나 심지어 처신을 잘못하고 행동을 그르쳐 유평儒風을 욕되게 하는 자는 재임齋任과 제생諸生이 회의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을 주거나 서원에서 내쫓는다
-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재임이 제생을 거느리고 두건과 의복을 갖추어 사당에 나아가 중문中門을 열고 분향焚香하고 두 번 절한다
-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이부자리와 베개를 정리하여 포개두고 방 안을 쓸고 닦으며 재직齋直으로 하여금 뜰을 쓸도록 하고 모두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衣冠을 정제한다
- 평일平日에는 모두 두건과 의복을 갖추고 사당 뜰에 나아가되 중문을 열지 않고, 다만 두 번 절하고 외정外庭으로 나가 동서東西로 나누어 서서 서로 마주보고 읍례揖禮를 행하고 각자 재실齋室로 나아간다
- 무릇 독서는 반드시 자세를 가지런히 하여 바르게 앉고, 마음을 오로지하고 뜻을 다하여 의리義理를 궁구하되 서로 돌아보며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 무릇 거처할 때는 반드시 편하고 좋은 자리는 연장자에게 미루어 양보해야지 먼저 스스로 자리를 골라 차지해서는 안 된다
- 책상, 서책, 붓, 벼루 등의 물품은 모두 항상 일정한 곳에 가지런히 두어야지 흩어져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 평상시 의관을 항상 가지런히 하되 평상복을 입어 스스로의 편안함을 꾀해서는 안 된다
- 성현聖賢의 글이나 성리性理의 말씀이 아니면, 서원 안에서 펴서 읽지 않는다, 사서史書는 들이는 것을 허락한다
- 무릇 글을 짓는 것은 반드시 모두 의리義理에 근본을 두어야지 이단異端, 괴이한 설을 섞이게 해서는 안 된다

- 무릇 언어는 반드시 신중하게 하여 문자와 예법禮法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부자夫子께서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하지 않은 것을 법으로 삼는다
  - 봉우朋友는 서로 화목하고 공경하도록 힘쓰되 서로 잘못을 바로잡고 잘한 것을 책려해야 한다
  - 서적은 서원 문으로 내어갈 수 없고, 주색酒色은 문을 들어올 수 없으며 잡기雜技를 행할 수 없고 형벌은 쓰지 않는다
  - 날이 저문 후에는 등불을 밝혀 독서하고 밤이 늦은 후에 취침하라
  -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반드시 하루 종일 반드시 일삼는 바를 두어 마음을 잠시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 귀가할 때는 삼가 서원에서 익힌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검속하며 사물을 응접함에 모름지기 하나하나 도리道理를 다하도록 힘써야 한다
- \* 원규의 일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무성서원원지』 원규 참고

#### 무성서원 원규의 특징

- 이이李珣, 1536~1584의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와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석실서원학규石室書院學規」를 종합하여 정리
- 입학 자격에 특정한 조건이나 신분적 차별 없이 서원의 문호를 개방
- 과거 공부 배제
- 범씨范氏 7계戒를 준칙으로 하는 생활태도 강조

##### 범씨 7계

- 조정의 이해와 관계된 변방의 보고와 관직 임명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주, 현 관원의 장단과 득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여러 사람의 과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벼슬하여 관직에 나아가 시류를 좇고 권세에 아부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재물과 이익의 많고 적음과 가난함을 싫어하고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음담패설로 여색을 평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인물을 찾아가서 술과 음식을 토색질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무성서원 원임(院任)

- 원장院長: 덕망이 높고 연장자로 원중院中 유림에서 선정하여 원무院를 총재總裁
- 원이장院貳長: 부원장으로서 원장을 보조하고, 원장 유고 시 직무 대행
- 강장講長: 경학經學과 예절禮節에 대한 강문講問 담당
- 훈장訓長: 근면과 문학에 대해 훈도
- 도유사都有司: 원중의 대소사 감독
- 부유사副有司: 도유사 보좌
- 재장齋長: 일체의 사무를 결재
- 집강執綱: 원중의 사기 장려
- 직월直月: 유회儒會 시 사무 집행
- 직일直日: 직월 보좌
- 장의掌議: 원중 대소사에 대한 평의評議
- 색장色掌: 원중 제반事諸般事 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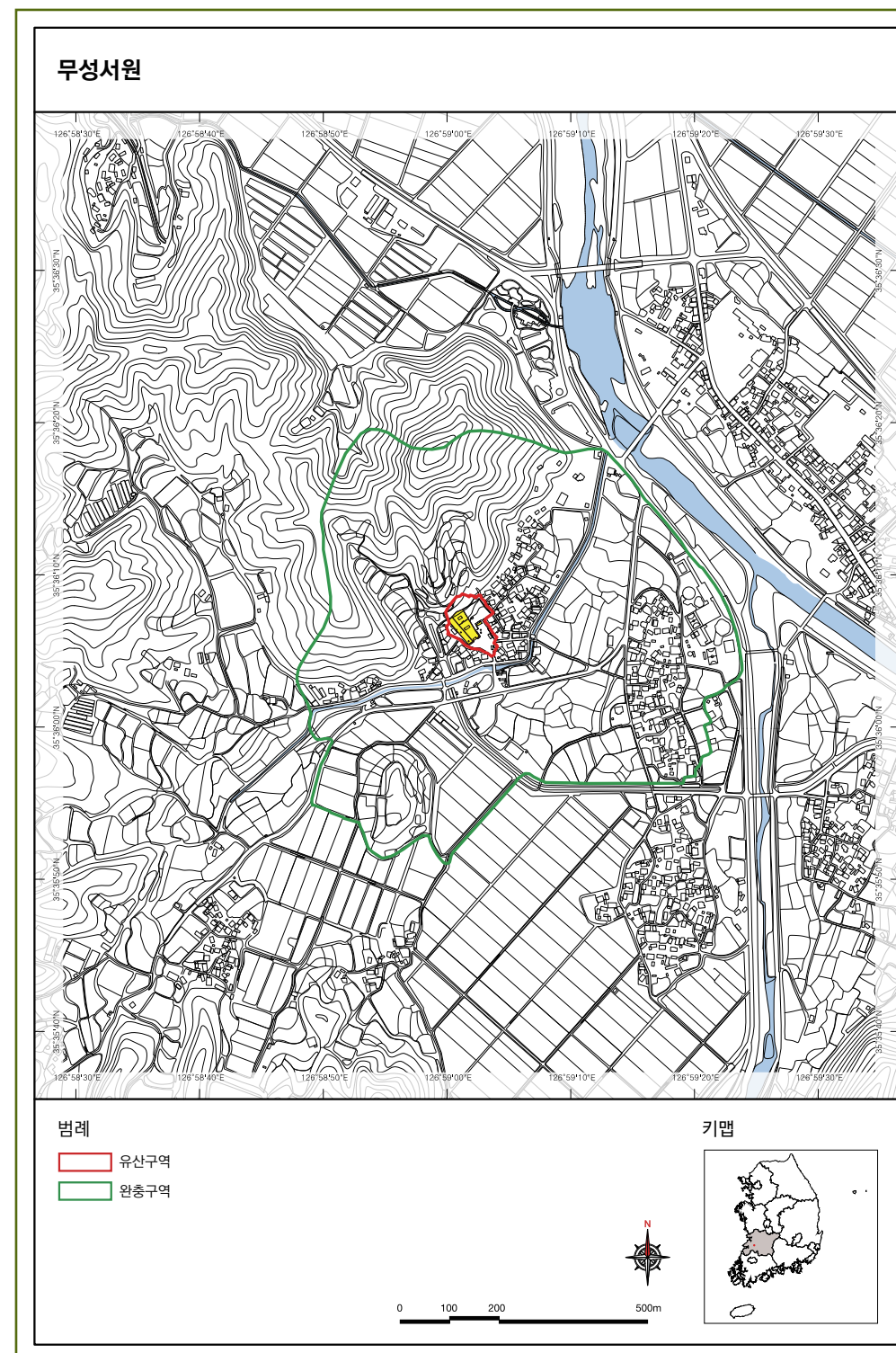
## 2) 정읍 무성서원의 공간 구성

### 무성서원의 입지

-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
- 낮은 구릉을 등지고 평지에 입지
- 성황산 아래 자락에 위치하여 대지의 후면은 약간의 경사
- 현가루 앞으로 넓은 들판이 있고, 그 너머 안산인 시산이 있으며 마을 앞으로 은석천이 흐름
- 서원 건립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활동한 마을 인근에 입지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 및 인접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



## 건물배치도

-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
- 서원 공간이 좁아 다른 서원에 비해 건물 규모가 작고 간략
- 사당을 다소 지면이 높은 곳에 배치하여 전저후고의 위계 나타냄
- 현가루, 명륜당, 태산사만이 중심축에 놓여있고, 재사齋舍인 강수재가 서원 동쪽 밖에 위치
-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이 담으로 둘러싸여 고유의 영역을 형성



## (1) 강학

### 건물

#### 명륜당(明倫堂)

- 목적: 서원 강학 활동의 핵심 건축물
- 1475년 향학당 건립, 1825년 화재로 소실, 1828년 중건
-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구성
- 원장과 원임의 개인 연구실과 학생의 강학을 위한 강당으로 구성
-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

#### 명륜당 관련 유물

##### 무성서원 현판

- 무성武城: 통일신라 때 태인현의 옛 이름,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예악禮樂으로 다스렸던 무성현과도 같은 이름
- 병자丙子, 1696년 11월 일 사액

##### 강당중창기(講堂重創記)

- 1825년 무성서원이 화재로 소실된 후 1828년 강당을 다시 지은 후 김민金玟이 작성
- 제향인의 후손들이 힘을 합치고, 태인현감 서호순徐灝淳이 지원한 내용 기재

##### 무성서원최선생 문집중간기(武城書院崔先生 文集重刊記)

- 최치원의 문집 『계원필경』을 판각하여 중간한 내력 기록
- 1834년 박해언朴海彦 작성

##### 무성서원복호보노환복기(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 1868년 서원 철폐령으로 사액 때 받은 복호復戶, 보노保奴가 삭감되자 이를 복구 시킨 과정 기재
- 1882년 김약목의 후손 김직흠金稷欽 작성

무성서원원지개간기(武城書院院誌開刊記)

- 서원의 자료를 모으고 이를 후세에게 전하고자 『무성서원원지』를 개간하였다는 내용
- 서원지의 발문을 썼던 정읍현감 기량언의 글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 무성서원의 중수와 참여자 명단 기재
- 1847년 김병흠金丙欽 작성
- 1854년 송지호宋持灝 작성
- 1875년 송종수宋鐘壽 작성
- 1879년 송정순宋程淳 작성
- 1886년 김영조金永朝 작성
- 1888년 김광흠金光欽 작성
- 1892년 윤제익尹濟翼 작성
- 1895년 윤병尹秉 작성
- 1906년 김병술金秉述 작성
- 1917년 이재우李在宇 작성
- 1932년 김환일金煥一 작성

무성서원현우중수기(武城書院賢宇重修記)

- 1901년 무성서원 수리 사실과 참여자 명단 기재
- 1901년 민신호閔申鎬 작성

무성서원의반중수기(武城書院椅盤重修記)

- 무성서원의 현우賢宇를 수리하고, 신위神位의 의자와 소반을 새로 한 내용
- 1967년 김택金澤 작성

무성서원장원중수기(武城書院牆垣重修記)

- 무성서원의 뒷담을 수리한 내용
- 1928년 김환풍金煥豐 작성

현우중수급전사소창건기(賢宇重修及典祀所勸建記)

- 무성서원의 현우賢宇를 수리하고 전사소典祀所를 창건한 내용
- 1930년 김환풍金煥豐 작성

무성서원원지복구기(武城書院院址復舊記)

- 서원 부근의 터를 복구한 것과 이를 주도한 오기환吳琪煥을 기리는 내용
- 1937년 김환풍 작성

무성서원모현기(武城書院慕賢記)

- 권영조權寧祚가 서원 향사에 기여한 것을 기리는 내용
- 1953년 류원모柳源模 작성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 무성서원의 재복齋服을 새로 마련한 내용
- 1966년 김인기金麟基 작성

무성서원제기개수기(武城書院祭器改修記)

- 일제강점기, 6.25 전쟁 때 분실된 제기祭器를 마련하고 제사를 회복한 내용
- 1967년 김인기金麟基 작성



## 강수재(講修齋)

- 목적: 학생들의 기숙과 개인학습 병행
- 1696년 사액 후 고사를 강수재로 변경
- 현재 건물은 1887년 세워진 후 몇 차례 수리를 거친 건물
-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 다른 서원들과 달리 강당과 분리되어 1동으로 밖에 나와 있음
- 강당과 서로 분리 되어있는 것은 처음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출발하여, 서원으로 변화한 무성서원의 배경과 관련됨

### 강수재 관련 유물

#### 강수재 현판

- 〈강수재중수기〉에 의하면 사액 후 유생들의 거점으로 고사를 사용
- 1707년 동·서재와 중앙청을 갖춘 강수재 창건
- 1884년 서원지 간행을 마친 황기환, 김형식 등이 5현의 후손과 유림들에게 재물을 구하여 중수했다고 함

####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 1894년에 옛 제도가 폐지된 후 도내 유생과 관의 지원으로 예법을 보존하게 된 내용
- 1902년 김직술金直述, 1850~1920 작성

####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 1879년 이후 무성서원의 중수 내용 기록
- 1904년 권직상權直相 작성

#### 무성서원강수재중수기(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 고을 수령에 지원을 받아 강수재를 중수한 내용
- 1965년 김인기金麟基 작성

## 교육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서원의 주요 기능

## 무성서원 강습례(講習禮)

- 1872년 원장이었던 현감縣監 조중식趙中植 등이 매년 3월 3일, 9월 9일 강습례 개최 결의 후 이듬해부터 개최
- 강회講會의 일종
-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이어져 온 교육 전통 확인
- 진설陳設 - 첨배瞻拜 - 상읍相揖 - 승당昇堂 - 독규讀規 - 배독拜讀 - 진강進講 - 예필禮畢 순서로 진행
- 때때로 향음주례鄉飲酒禮로 대체되기도 함

## 강습례 절목(節目)

- 학임은 서원의 주인이고 강장은 서원의 손님이니 마땅히 예로써 서로 공경해야 하므로 하나같이 향음주의의 주인은 동남쪽, 빈객은 서북쪽에 앉는 예법에 따르고 이로써 반차를 삼는다
- 장유의 차서는 오류의 하나인데, 하물며 연령에 따른 예양을 강조하는 자리에서는 더욱 마땅히 그 차서를 분명히 변별해야 한다, 여러 집사와 유생은 각기 나이 순서에 따라 서고 앉되, 혹 어지럽게 섞여 질서를 잃어서는 안 된다
- 훈장은 한 면을 주관하는 사람이니 학임 다음에 서서 하나같이 학임을 따라 절하고 읍한다
- 나이 40 이상으로 와서 참관하는 사람들은 따로 청강하는 자리를 두어 대우한다
- 도포를 입지 않은 사람은 좌석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되, 동몽은 이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다

## 강습례 집사(執事)

- 도집례都執禮: 여러 집사를 통솔, 학임·강장 이하 여러 집사와 유생들이 강습례 도식圖式에 따라 차례대로 서도록 지휘
- 창집례唱執禮: 강습례의 의식절차마다 홀기笏記를 외쳐 참석자의 행례行禮 이끌
- 직월直月: 승당하여 좌정한 후 참석자들을 향해 공경히 듣되 떠들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꿇어앉아 큰 소리로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읽음
- 직일直日: 진강進講 동안 책상 앞에 꿇어앉아 강생講生의 성명, 강서講書의 제목, 문답한 문의 등을 적어 강안講案 작성
- 전생典牲: 강생講生이 강할 부분이 적힌 찌 준비
- 조사曹司: 책상 왼쪽에 꿇어앉아 강생이 강해야 할 부분이 적힌 찌를 뽑아 강생에게 보여줌
- 전서典書: 강회에 쓰일 서안과 서책 준비, 진강할 유생 명단을 적은 강단講單 관리

## (2) 제향

### 인물

- 1615년 최치원, 신잠 배향
- 1630년 정극인 송세림 추가 배향
- 1675년까지 정언충, 김약묵, 김관 배향

### 최치원(崔致遠)

- 자는 고운孤雲, 해운海雲, 시호는 문창文昌
- 저서: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등

#### ① 출생

- 왕경王京, 지금의 경주 사랑부沙梁部 출신, 아버지 최견일崔肩逸은 숭복사崇福寺 창건에 참여한 바 있음
- 최치원은 857년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868년 당나라에 들어가 학문을 구하고자 함  
\* 아버지는 10년 안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며 가서 힘써 공부하라고 함
- 874년 당나라 진사시進士試에 빈공賓貢의 자격으로 급제하여 선주宣州 울수현위溧水縣尉 임명
- 당나라 황소黃巢가 반란을 일으키자 종사관從事官으로 토벌에 참여하여 표문, 장계, 서한, 계사 등을 작성하는 문한 업무 담당
- 885년 당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귀국하여 시독侍讀 겸 한림학사翰林學士, 수병부시랑守兵部侍郎, 지서서감사知瑞書監事가 됨

- 886년 태산군태수太山郡太守 부임
- 이후 부성군태수富城郡太守로 있다가 하정사賀正使가 되었으나 사행 실패
- 894년 시무時務 10여 조를 올리자, 왕이 이를 가납하고 아찬阿飡 임명
- 이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유유자적하며 노닐다가 사망

### ③ 학문

- 어려서부터 면밀하고 민첩하며 학문을 좋아하여 당나라 유학 중에도 스승을 좇아 학문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음
-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으로 천하의 문장가로 이름을 떨침
- 『계원필경집』과 그가 작성한 비명碑銘 등을 통해 유불 교섭의 사상 경향을 수용한 신라 말 유학 지식인의 모습 확인

### ④ 평가

- 한국 유학사상 최초의 도통으로 추앙받음
- 당나라 유학 때 강동의 시인 나은羅隱, 833~909은 재주를 믿고 남과 쉽게 교류하지 않았는데, 최치원을 만나자 지은 시를 보여주었다고 함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은 최치원의 문장이 신이하고 식견과 품행이 백세의 스승이 될 만하다고 평가

### ⑤ 추증 및 시호 하사

- 고려 현종顯宗, 재위 1010~1031 때 내사령內史令 추증하고 문묘文廟에 배향
- 1022년 현종 14년 시호를 추증하여 문창후文昌侯라고 함

## 정극인(丁克仁)

- 자는 가택可宅, 호는 불우헌不憂軒, 다헌茶軒, 다각茶角
- 저서: 『불우헌집不憂軒集』

### ① 출생

- 본관은 영광靈光, 아버지 정곤丁坤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충무시위사중령忠武侍衛司中領, 부사직副司直 역임
- 정극인은 1401년 경기도 광주廣州 두모포豆毛浦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1429년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유학遊學
  - 1436년 세종世宗, 재위 1418~1450이 흥천사興天寺를 중건하도록 하자 성균관 유생을 이끌고 불교를 숭상하는 것에 대해 항변하여 상소하다가 귀양
  - 사면 후 태인현泰仁縣, 지금의 정읍 일대에 머물며 불우헌不憂軒을 짓고 자식과 조카, 고을 자제들 교육
  - 1451년 천거를 받아 광흥창부승守廣興倉副丞, 종6품에 발탁
  - 1453년 문과에 급제하여 전주부교수全州府教授에 보임
  - 성균관주부成均館主簿,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정6품, 종학박사宗學博士,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정6품 역임
  - 1470년 70세에 치사致仕하여 태인으로 돌아옴
  - 1481년 병으로 집에서 사망
- \* 자세한 사항은 『불우헌집』 정극인 행장 및 묘갈명 참고



『불우헌집』 행장 및 묘갈명



## ③ 학문

- 경사經史를 섭렵하고 성현聖賢의 가르침을 따랐음
- 불교를 확연히 배척함으로써 유학의 대의를 크게 밝힘
- 최초의 가사로 알려진 「상춘곡賞春曲」을 비롯하여 「불우현곡不憂軒曲」, 「불우현가不憂軒歌」 등을 지음



『불우현집』 권2 「불우현가」, 「불우현곡」, 「상춘곡」

## ④ 평가

-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학문은 정미하고 밝았음
- 경학에 밝고 행실이 닳았으며 재능과 학문이 모두 정미한 것으로 천거 받음
- 청렴결백함으로 스스로 삼가고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구하지 않으며 고을의 자제들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음

## 송세림(宋世琳)

- 자는 헌중獻仲, 호는 취은醉隱, 고은孤隱, 고송孤松, 눌암訥庵
- 취은은 급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초상을 당하여 너무 슬퍼한 나머지 병을 얻어 벼슬에 오르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갑자사화를 면하였으므로 스스로 지음
- 저서: 『어면순禦眠楮』

## ① 출생

- 본관은 여산礪山, 아버지 송연손宋演孫, 1460~1508는 한산군수韓山郡守를 지냄
- 송세림은 1479년 태인지금의 정음 일대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1498년 진사시 합격, 1502년 알성문과謁聖文科 장원 급제
- 1516년 능성현령綾城縣令 재직 중 지방행정 개혁에 대해 상소
- 1518년 오랫동안 병으로 관아 밖에 나가지 못하여 탄핵되어 파직됨
- 1519년 사망



1516년 송세림의 상소

## ③ 학문

- 정극인이 설치한 서당을 확장하여 강당과 재사齋舍를 세우고 학도學徒를 모아 가르침
- 마을의 우스운 이야기들 중 잠을 깨울만한 것들을 모아 『어면순』 저작

## 신잠(申潛)

- 자는 원량元亮, 호는 영천자靈川子, 아차산인峨嵋山人

### ① 출생

- 본관은 고령高靈, 아버지 신종호申從漢는 예조참판禮曹參判, 종2품 역임
- 신잠은 1491년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1513년 진사시進士試 합격
- 1519년 현량과賢良科 급제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정9품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어 17년간 유배
- 1543년 천거를 받아 사옹원주부司饔院主簿, 종6품으로 등용되었다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임명
- 태인현감 재임시 동서남북에 학당을 크게 확충하고 향학의 기반 마련
- 간성군수杆城郡守, 상주목사尙州牧使 역임
- 1554년 상주목사 재임 중 사망

### ③ 학문

- 성현聖賢을 종주宗主로 하여 경전을 읽을 때마다 뜻 둔 곳을 구하고, 본받을 만한 말이나 뛰어난 행실에 이르러서는 뒤따라 행하고자 함
- 후생들을 권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일삼아 재주에 따라 이끌어주며 옛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권면하였음

### ④ 평가

- 문장에 능하고 서화書畵도 잘하여 삼절三絶이라 일컬어졌고, 풍도와 아량이 있어 명망이 자자했음

- 세 고을의 수령을 지내며 모두 성망과 치적이 있었다고 함
- 명종明宗, 재위 1545~1567은 신잠이 죽자 청렴하고 근면하였다고 평가

## 정언충(鄭彦忠)

- 자는 양부良夫, 호는 묵재默齋

### ① 출생

- 본관은 경주, 아버지는 장사랑將仕郎 정온鄭溫
- 정언충은 1479년 태인 출생

### ② 주요 행적 및 평가

- 1525년 진사시進士試 합격 후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도학에 힘썼고, 특히 역학易學에 밝았다고 함
- 성품이 순박하고 효성스러우며 말수가 적고 태도가 신중하였으며 학술에 밝았음
- 향학을 부흥시켜 후진 교육에 힘을 다함

## 김약묵(金若默)

- 자는 태용太容, 호는 성재誠齋

### ① 출생

- 본관은 도강道康, 지금의 전라남도 강진, 아버지는 참봉參奉 김희석金希奭으로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추증됨
- 김약묵은 1500년 곡성穀城 관아에서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정언총과 함께 송세림에게 수학
- 1540년 별시別試 문과文科 급제
- 의정부사록議政府司錄, 정8품,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정6품, 형조좌랑刑曹佐郎, 정6품, 예조좌랑禮曹佐郎, 정6품,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종5품 등 역임
- 1550년 한산군수韓山郡守 부임
- 1555년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종3품,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종3품 역임
- 1558년 양주목사楊州牧使 재임 중 관에서 사망

\* 자세한 사항은 김약묵 행장 및 묘갈명 참고



『면앙집(倅仰集)』 김약묵 행장 및 묘갈명

### ③ 평가

- 한산군수 재임 시절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하여 표창 받음
- 타고난 품성이 곧고 굳세며 학식을 헤아릴 만 했음

## 김관(金灌)

- 자는 옥이沃而, 호는 명천鳴川

### ① 출생

- 본관은 도강, 아버지는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 김대립金大立
- 김관은 1575년 태인 출생

### ② 주요 행적 및 평가

- 1615년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지만, 이이첨李爾瞻의 부름에 답하지 않고 낙향하여 독서 및 후학 양성
-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이 발생하자 김장생金長生, 1548~1631를 따라 창의倡義하여 군량 모집 담당, 김장생은 그를 유자儒者라고 칭찬
- 1635년 사망



## 건물

### 태산사(泰山祠)

- 목적: 제향인물의 영정 및 위패 봉안, 의례 시행
- 최치원을 주벽(主壁)으로 하여 우측에 송세림, 정언충, 김관, 좌측에 정극인, 신잠, 김약목의 위패 봉안
-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
- 신라 때 태산현감을 지낸 최치원의 생사당을 1483년에 현재 위치로 옮김

#### 태산사 관련 유물

##### 태산사 현판

- 무성서원은 1543년 현감으로 부임한 신잠이 태산현감을 지낸 최치원의 사당을 건립하고 흥학의 기틀을 마련한 것에서 시작
- 황옥(黃煜, 1898~1992)의 글씨

## 의례

### 무성서원 향사(享祀)

- 원래 춘추향사와 매월 삭망분향례 시행
-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유림이 흩어지고, 재정 악화 등으로 삭망례는 하지 않고, 향사도 매년 봄에만 진행 중
- 매년 음력 2월 중정일(中丁日)에 한 번만 봉행
  - \* 중정일: 한 달 중 십간의 정(丁)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 무성서원 향사 준비

#### ① 장의(掌議) 회의

- 춘향사를 앞두고 삼헌관과 제관 선출을 위한 회의
- 제관으로 내정된 이들에게 망첩(望帖) 작성 및 발송
  - \* 망첩: 본인에게 관리로 추천된 사실을 알리는 글

#### ② 제수(祭需) 구입

- 제수 구입 시 「무성서원향사의절」에 적혀있는 제수물목 미리 파악

#### ③ 제기(祭器) 닦기

- 제향에 사용되는 제기와 제구 손질 및 점검

#### ④ 축문(祝文) 작성

- 축문: 초헌례 때 신위께 언제, 누가, 왜 제향을 올리게 된 것인지 고하는 고유문
- 현재 주향인 최치원에게만 축문을 올림. 나머지 6위는 배식
  - \* 배식: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나 사당, 서원 등에 모시는 일

#### ⑤ 제수와 제복손질

- 향사 전날 제향에 올릴 제수 준비

## ⑥ 제수 진설

- 제관들은 향사 당일 입재
- 모든 제기와 제수는 반드시 정문으로 들어감

## 무성서원 향사 절차

- 오전 11시 행사 시작
- 점시진설: 초헌관이 행례에 앞서 제물 진설을 최종 점검

### ① 상향전폐례(上香奠幣禮)

- 초헌관이 신위전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폐백幣帛을 올리는 의례

### ② 초헌례(初獻禮)

-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

### ③ 아헌례(亞獻禮)

- 신위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
- 축문 낭독이 없고, 작을 두 번째 작점에 올리는 것만 다르고 초헌례와 같음

### ④ 종헌례(終獻禮)

- 신위께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

### ⑤ 음복례(飲福禮)

-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를 맛보는 의례

### ⑥ 철변두(撤籩豆)

-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두는 의례

## ⑦ 망예례(望瘞禮)

- 제향을 마치고 축문을 태우거나 땅에 묻는 의례

## 무성서원 향사의 특징

- 처음에는 최치원, 신잠을 주향으로 하고,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목, 김관 5위를 배향, 현재는 고운 최치원 1위만 주향하고 6위를 배향
- 외삼문 밖에서부터 강당의 앞마당까지 황토 흙으로 신로 조성 후 그 길을 통해 제물을 모심. 나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게 한다는 벽사의 미를 가지는 것으로 민간신앙과 합쳐진 의례로 보임

## (3) 교류와 유식

- 교류와 유식 공간은 유산을 둘러싼 자연과 통하는 공간으로서 정자, 누마루 등으로 구성
- 서원과 서원, 유학자와 유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
- 유식 공간으로써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등 보다 자유로운 학습 공간

## 건물

### 현가루(絃歌樓)

- 목적: 서원 내, 외부 사람들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곳
- 현가: 공자의 제자 자유가 무성 지역을 현가의 다스림을 하였다는 현가지성絃歌之聲의 고사에서 취함

-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기와 지붕 2층 누각
- 외삼문 대신 1891년에 건립, 1924년 수리, 1993년 보수, 1997년 단청

#### 현가루 관련 유물

##### 현가루 현판

- 전라도 관찰사이자 무성서원 원장 김규홍(金奎弘, 1845~?) 작성
- 갑진 중추 ○○ 삼가 씀

##### 무성서원현가루기(武城書院絃歌樓記)

- 현가루 창건 기문
- 1891년 전라도 관찰사이자 무성서원 원장 김규홍 작성
- 현가루의 창건 내력, 현가지성(絃歌之聲) 고사, 제향인물, 건립 당시 전라도 여러 고을의 지원 사실 기재

##### 무성서원현가루창건기(武城書院絃歌樓勸建記)

- 현가루의 창건을 기념하며 지음
- 1891년 민정식(閔正植) 작성

##### 무성서원현가루중수기(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

- 1903년 정관영(鄭寬永) 작성

##### 현가루중수기(絃歌樓重修記)

- 1936년 고원훈(高元勳) 작성

## (4) 기타 시설

### 통정대부전비서감승신용희불망비(通政大夫前秘書監丞申龍熙不忘碑)

- 서원의 이장(貳長)으로 활동한 신용희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 지음
- 신용희는 서원 수리를 진행하고 전토(田土)를 마련하여 춘추 향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여
- 1925년 축조,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비각(碑閣)

### 현감서호순불망비(縣監徐灝淳不忘碑)

- 1849년 강당 재건에 힘쓴 현감 서호순의 불망비
-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비각

### 전감역정문술중수의조비(前監役丁汶述重修義助碑)

- 1917년 정문술이 무성서원 중수에 있어 출연금을 마련하고, 권재일(權在一)에게 감독을 맡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
-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비각

### 진사최영대영세불망비(進士崔永大永世不忘碑)

- 진사 최영대가 1920년 전토를 희사하여 무성서원의 춘추 제수를 풍성하게 한 것을 기념하고자 작성
-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비각



### 공적비(功績碑)

- 서원의 건립 이후 서원과 관련된 인물들의 공적 등을 기록한 기념비

### 병오창의기적비(丙午倡義紀蹟碑)

- 1906년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여 발생한 의병활동 기념을 위한 기념비

### 고직사(庫直舍)

- 서원의 보존관리와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이들이 기거

### 홍살문(紅箭門)

- 서원의 입구

## 4) 정읍 무성서원의 특징

- 최치원을 제향한 사묘인 태산사와 정극인이 건립한 향학당이 결합하는 특이한 발전사
- 지방관료를 모신 서원으로서 향촌 중심부에 입지한 이례적 사례
- 7명의 선현을 배향한 서원
- 험가루 건립을 통해 교류와 유식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지형 조건 극복
- 1906년 일제의 침탈에 반발하여 최익현崔益鉉, 1833~1906, 임병찬林秉瓚, 1851~1916 이 의병 활동을 발의한 창 의 거점, 이를 기념하는 병오창의기적비

## 2. 정읍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 지방교육과 교화 지향을 실현한 모범적 서원

- 1615년 건립된 서원
- 사회교화와 실천을 통해 성리학이 지역 공동체 전반으로 확대
- 지역 전통의례와 결합된 제향 의례
- 자치규약인 향약의 거점으로 기능하여 지역민 결집
- 마을을 통한 열린공간으로 건물 구성
- 서원 제향인물들이 활동한 마을 인근에 입지

**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창건 및 사액 : 1615년 건립 / 1696년 사액**

**주향인물 : 최치원(崔致遠, 857-?)**

#### 주요특징

##### - 구성 및 입지

-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입지, 이를 통해 사람들의 교육과 향촌사회의 교화를 위한 목적 등 서원의 사회적 역할을 뚜렷하게 보여줌.

##### - 특징

- 사우-강당-누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나, 재사인 강수재는 바깥에 별도 조성.
- 황토로 신도神道를 만드는 등 지역의례와 결합된 독특한 제향방식
- 한말 최익현을 중심으로 한 의병봉기의 장소이며(병오창의), 현재에도 최익현을 기리는 행사가 무성서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됨.

### 지정문화재

#### - 국가지정 1건(보물 1건)

##### 고현동향약(보물)

- 향약은 착한 것을 권장하고 악한 것을 경계하며 어렵고 구차한 때에 서로 돕고 구하기를 목적으로 하여 마련된 향촌의 자치규약임. 이 문헌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선조년간에 시작하여 1977년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년 동안 전라도 태인현 고현동에서 결성하고, 시행한 향약에 관한 자료임. 현존하는 향약 문헌으로 양적으로나, 내용면에 있어 가장 많고 충실하며 향약 연구에 귀중한 자료.

##### 무성서원 지정문화재

서원	종별	지정	명칭	구분	지정일
무성서원	국가	사적 제166호	정읍 무성서원	부동산	1968.12.19.
		보물 제1181호	태인 고현동향약	동산	1993.10.18.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 교재

- 돈암서원 -





# 목차

## 들어가며 04

### 1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1. 유네스코와 유산 10

- 1) 유네스코와 유산
- 2) 유산 해석과 설명

####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6

- 1) 서원의 이해
- 2) 세계유산 가치
- 3) 등재 과정

### 2부 논산 돈암서원

#### 1. 논산 돈암서원 개요 40

- 1) 논산 돈암서원의 역사
  - (1) 건립
  - (2) 사액
  - (3) 운영
- 2) 논산 돈암서원의 공간 구성
  - (1) 강학
  - (2) 제향
  - (3) 교류와 유식
  - (4) 기타 시설
- 3) 논산 돈암서원의 특징

#### 2. 논산 돈암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66



# 들어가며

## 일러두기

-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재
- 심화학습 자료, 관련 사이트는 QR코드를 참고

## 범례

-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서원을 지칭하고, 서원은 조선에서 세워진 서원을 통칭함



## ‘한국의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 / 사액 연도	주향 인물	비고
영주 소수서원	1543년/1550년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사적(1963)
함양 남계서원	1552년/1556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사적(2009)
경주 옥산서원	1572년/1574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사적(1967)
안동 도산서원	1574년/157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사적(1969)
장성 필암서원	1590년/1662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사적(1975)
달성 도동서원	1605년/1607년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사적(2007)
안동 병산서원	1613년/1863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사적(1978)
정읍 무성서원	1615년/1696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사적(1968)
논산 돈암서원	1634년/1660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사적(1993)

## ‘한국의 서원’ 전담해설사 이해

### 전담해설사 제도의 목적

-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으로서 성격 소개
- 각 서원의 역사, 건축적 성격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연속유산인 9개 서원 이해, 해당 내용을 방문객에게 비교·전달

### 전담해설사 정의와 역할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정된 ‘한국의 서원’만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자, 하나의 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을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는 인력
- 표준교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필요한 지식과 실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력

### 전담해설사 필요역량

- 방문객의 국적, 연령, 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해설을 제공
- 유산의 각 공간에서 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각 서원은 개별적으로 중요한 국내 유산이며 동시에 9개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세계 유산의 일부임
- 유산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되 지식과 정보의 일방적 주입 지양
- 해설 목적은 방문객과 유산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 근거 있는 정보 수집 경로 제시





# 01

##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1. 유네스코와 유산

## 1) 유네스코와 유산

### 유네스코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
-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 세계무형문화유산

-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로서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름
-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

### 세계기록유산

-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
-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단독 기록이거나 기록의 모음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

※ 근거: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 **완전성과 진정성** 개념을 충족했는지
  -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보호관리계획**을 갖추었는지
- \* 등재 기준, 진정성과 완전성,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

### 완전성(Integrity)이란?

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특성에 대해 전체, 본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 진정성(Authenticity)이란?

본래 또는 역사의 과정에서 지니게 되는 가치에 대한 진실성,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것

### 세계유산 구역: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범위
- 유산구역: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역
- 완충구역: 유산구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며 인접한 주변 환경과 중요한 경치 등 포함

## 세계유산 등재 기준

구분	등재 기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에 의한 <b>결작</b>
	(ii)	일정한 기간,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b>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b>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b>독보적인 증거</b>
	(iv)	<b>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b> 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
	(v)	하나(혹은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b>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b> 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b>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b>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독보적인 <b>자연미</b> 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의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특징물 등 <b>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b>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b>생태적·생물학적 과정</b> 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x)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b>멸종 위기 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b> 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

- 등재 기준 중 (i)부터 (vi)까지는 문화유산, (vii)부터 (x)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됨,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세계유산협약이란?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약자
- 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17차 총회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협약

## 세계유산협약의 배경

- 인류가 이룩해 온 역사적 유산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
- 1950년대 이집트에서 전력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 하이댐의 건설을 시도하면서 아부심벨 신전 등 고대 이집트 유적이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 세계유산제도 시행의 결정적 계기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

- 세계유산목록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유산 등재
- 세계유산의 보호와 보존
- 세계유산기금 하의 국제지원 공여
- 협약에 도움이 되는 국내 및 국제적 지원의 확보

※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세계유산협약 전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2) 유산 해석 Interpretation 과 설명 Presentation

### 세계유산의 ‘해석’

-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인 활동
-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쇄물, 전자출판, 강의,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등이 포함

### 세계유산의 ‘설명’

- 해석 정보의 배열, 사람들의 접근 방식, 해석 시설 구조 등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잘 디자인하여 전달하는 것
- 현장에서의 소통에 중점
- 박물관 전시, 정형화된 투어, 안내 프로그램이 포함

### 유산 해석 등장 배경

- 유산의 다양한 형태, 가치를 함께 고려
  - 전문가 관점에 국한되지 않은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 유산 가치 중요
- ※ 해설사 = 중요한 이해관계자

### 유산 해석·설명 의 국제적 담론

- 프리먼 틸든의 해석 6원칙(1957)
- 에나메 헌장(2008)
- 현 시대에 맞는 유산 해석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문화유산지의 해석과 설명에 관한 ICOMOS(이코모스)<sup>1</sup> 헌장

1.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약자로 국제기념물협의회라고도 칭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

### 프리먼 틸든의 ‘우리의 유산 해석하기’ (1957)

1. 좋은 해석은 방문객의 경험이나 사고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2. 정보 그 자체는 해석이 아니지만, 반드시 정보에 바탕을 한 내용이어야 한다.
3. 해석은 과학, 역사 및 건축이 접목된 종합 예술이다.
4. 해석이 주된 목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5. 해석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전달해야 한다.
6.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석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해석을 단순화해서 만들면 안 된다.

### 해석과 설명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

1. 접근과 이해 향상(Access and Understanding)  
: 대중들의 해당 유적지에 대한 지적, 물리적 접촉이 쉬워야 함
2. 정보의 확실한 출처(Information Sources)  
: 검증된 과학 학술적 방법, 살아있는 문화 전통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에 기초해야 함
3. 환경과 맥락의 중요성(Setting and Context)  
: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맥락과 주변 환경을 연관시켜야 함
4. 진정성의 보존(Preservation of Authenticity)  
: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sup>2</sup> 정신에 입각한 기본 원리 존중해야 함
5. 지속성에 대한 계획(Planning of Sustainability)  
: 사회적, 재정적, 환경의 지속성 중 주요 목표들과 함께 유적지의 자연적 문화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
6. 포용성에 대한 고려(Concern for Inclusiveness)  
: 전문가, 소유자와 관련 공동체, 이해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협력의 결과물이어야 함

2. 나라문서(1994):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보존과 관련된 문화 다양성,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대한 필요성 언급

##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1) 서원의 이해

#### 서원이란?

-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
-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 선현先賢 제사,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
-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 지역 문화 선도

#### 서원의 기원

-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 재위 712~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담당한 '여정서원'이 최초
-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 제사기능,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
-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 1130~1200가 세운 '백록동서원'은 학규,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
-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모티브

#### 한국에서 서원 성립

-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 국학(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육 권장

-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저하,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
-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 중국의 서원 제도 주목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 건립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 확산

#### 서원의 구성원: 사람

- 향촌 지식인집단
-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
-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
- 관련 자료: 『원장안院長案』,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등

구성원

구분	역할
원장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의 일 총괄</li> <li>•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 관리 주체</li> <li>• 임기는 1~2년, 대체로 연임 허용</li> </ul>
원임院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li> <li>•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로도 불림</li> <li>• 서원 내 규찰, 재정 문제 담당</li> <li>•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li> </ul>
원생院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li> <li>•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 통해 최종 선발</li> <li>•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li> </ul>

## 서원의 규약(規約)

- 원규院規 : 강학 제향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
- 학규學規, 강규講規 :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
- 절목節目 :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세칙
- 완의完議, 입의立議 :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 서원의 재정

- 대체로 지역 사람의 자발적 출연 통한 토지, 노비,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
- 사액서원에는 서적, 토지, 노비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
- 관련 자료: 『전답안田畓案』, 『노비안奴婢案』,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 서원의 주요 기능: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 강학

- 성리학 교육을 통한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 개별학습인 독서,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
-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
-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
- 강학 활동은 ‘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과 ‘공식적·의례적강학으로서 강회講會’로 구분

### 강학의 종류

구분	내용
거접居接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문회文會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
거재居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순제旬題	지방의 향교鄉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통독通讀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향사 후의 강회講會	향사享祀를 지낸 후, 「백록동규白鹿洞規」나 「여씨향약呂氏鄉約」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講生들이 강장講長 앞에서 진강進講을 하는 순서로 진행. 진강을 하는 방식은 卍柱: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추첨 기구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

### 강학 의례

구분	내용
흥미를 갖춘 공식적 의례	정음례庭揖禮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 음례揖禮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
	상음례 큰 음揖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강습례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陳設;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침배瞻拜;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상음相揖;서로간 음례를 거행함-승당升堂;당에 오름-독규讀規;규약을 읊음-배독拜讀;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진강進講-예필禮畢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경독 敬讀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 <sup>白鹿洞規</sup> , 사물잡 <sup>四勿箴</sup> , 심잠 <sup>心箴</sup> , 경재잠 <sup>敬齋箴</sup> , 숙흥야매잠 <sup>夙興夜寐箴</sup> 을 낭독하는 것이다.
관습적 의례 개접례, 입접례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파접례, 후접례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귀가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수창시	수창시는 '회강'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 제향

-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
-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 정신 이어나갈 것을 다짐, 결속 다지는 기회

### 제향의 종류

구분	명칭	시기
정기	춘추 향사	매년 봄·가을
	삭망례	매월 초하루, 보름
	정알례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6일
비정기	이안제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환안제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위안제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예성제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사액례	사액을 받을 경우
	치제	국가에서 제관 보내어 지내는 경우



입재



성생례



집사분정



분향례



사우입장



제물근봉



초헌례



중헌례



철변두



파제



향약낭독



음복례

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

## 교류와 유식

- 교류<sup>交流</sup>: 서원의 구성원, 서원에 방문한 명사,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 물질 교류
- 유식<sup>遊息</sup>
  -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 『예기』 권17, 학기 18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sup>藏修</sup>: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
  -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양성 방식의 일환.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sup>品格</sup>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
-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
-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
-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
- 해주향약, 남전향약, 예안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
- 관련 자료: 『심원록』 등

##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

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

### 성립과 발전 과정

#### 중국 서원(書院)

- 남송 시기 관학 쇠퇴와 과거제도 부패 비판하며 흥성
- 남송 이후 과거시험과 관련된 관학의 보조적 성격으로 전환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으로 변모



#### 일본 시주쿠(私塾)

- 17~19세기 걸쳐 유학에 기반을 둔 고등 교육기관으로 설립
- 설립자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의학, 산학, 서양학문도 함께 교육
- 중국, 한국에 비해서 유학이 제도,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과거제도가 없어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형태로 발전
- 일부가 근대 교육기관, 대학으로 발전



#### 한국의 서원(書院)

- 16세기 중반 태동, 지역 성리학 집단인 사림<sup>士林</sup>의 주도로 성장
- 관학적 성격이나 국가의 관료선발과정에 관련되지 않음
- 19세기 말 교육 기능 종료까지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일관적으로 운영
- 근대화 과정에서도 명맥 유지



## 사회적 기능

### 중국 서원

- 송 시기 학문 중심기구, 여론 형성기구
- 점차 관학 보조기구로 정착되며 정치, 사회활동 성격 약화

### 일본 시주쿠

- 유학이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되지 못하여 포괄적 기능 수행에 한계
- 사숙 출신 학생이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사상 선도

### 한국 서원

- 지성 활동, 공론 형성이라는 실천적 성격
- 공론을 국가에서 억압하거나 규제하지 않음
- 성리학 이념에 기반을 둔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 제정하여 향촌 교화

## 건축물 배치

### 중국 서원

- 강학, 제향, 장서루로 구분되어 구성
- 특히 장서루 공간이 크게 발달되어 중시
-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이 상호 대등한 위치 차지하며 관계 자유로움
- 앞쪽 경계에 반수(泮水)로 이루어진 인공적 조경에 의존
- 건축 배치 정형을 규정하기 어려움



중국 백록동 서원 반수

### 일본 시주쿠

- 정형화된 배치 및 건축 형식 없음
- 제향기능을 갖추지 않음
- 단일 건물 사용하여 기능별로 공간 구획

### 한국 서원

- 공유된 건축 정형 갖춤
-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을 하나의 축선 상에 위치시켜 유기적 연결
- 제향 공간인 사우를 높은 위계건축으로 형성
- 자연지세를 활용한 독특한 한국적 건축기법



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

		한국의 서원	중국의 서원	일본의 시주쿠
도입 시기		16세기	7세기	17세기
설립 목적		성리학 지식인 양성 지역 기반 선현 제향	유학 지식인 양성 → 관료 양성 관학 보조	지식인 양성
교육 대상		지역 유생	제한 없음	무사, 가신 그룹
교육 학문		성리학	유학	유학,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 다양
제향	인물	지역단위 선현	주로 공자 등 성현	크게 중시하지 않음
	의례	현재까지 존속	일부 서원만 유지	
사회적 기능		지역 공론 중심지 지역 교화 중심지	국가정책 따라 변동	근대사회 전환 기여
건축	입지	제향인물 연고지 자연 경관 고려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등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기능	제향-강학-유식	강학-제향-장서	강학
	구성 요소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반지 과거합격 비석군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배치 유형	공통의 배치 유형 존재	서원별 개별성 강함	단일건물 중심
	경관 구성	자연친화적 개방과 관입 구현	인위적 폐쇄적	인위적 폐쇄적
	지역성	좌식 생활 구조 온돌, 마루의 조화	입식 생활 구조 의자, 화로	좌식 생활 구조 다다미, 화로

##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 성균관(成均館)

- 중앙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최고 교육기관
- 공자<sup>孔子</sup>와 그의 제자를 비롯한 중국 현인<sup>賢人</sup>들과 우리나라 현인을 제사지내는 문묘, 강학 공간인 명륜당 갖추

### 향교(鄕校)

- 지방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 주로 향촌에 가까운 곳에 입지
-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문묘, 명륜당 갖추

## 서원과 향교, 성균관 비교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 주체	사림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포	지역별 다양	군현별 1개	수도에 1개
설립 목적	인성교육 선현제향 사림 활동 기반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사회적 역할	지역 공론 형성 지역 문화 교류		유생 공론 형성
입지	제향 대상과 관련 교육 목적에 부합	지방 행정 중심지	수도
구성 요소	사우(선현),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유형	제향-강학-교류, 유식	강학-제향	강학-제향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서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어득강(魚得江, 1470~1550)의 상소

## 2) 세계유산 가치

##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 등재 기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충족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
-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 토착화되는 과정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

##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

##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
- 활용과 기능,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
-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무형유산,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

## 보호 및 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증축,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

##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 연속유산이란

-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
-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

## ‘한국의 서원’ 입지 특성

###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

-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sup>先賢</sup>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
-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
-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 관련

## 수려한 주변 경관

-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
-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
-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
- 특히 정자,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

## ‘한국의 서원’ 건축 특성

### 보편성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건립되며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
-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
- 대부분의 서원은 아래와 같이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

### 독자성

-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
-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
-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 건축 구조 형성



## 공간 구분

### 제향공간

- 건물: 사우, 전사청, 제기고 등
-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
-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 별도 출입문 설치
  - 사우: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
  - 전사청: 제물,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
  - 제기고: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

### 강학공간

- 건물: 강당, 재사, 장서각, 장판각 등
-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
  - 강당: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
  - 재사: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 서재로 구성, 학생들의 기거 공간
  - 장서각, 장판각: 목판이나 도서 보관

### 교류와 유식공간

- 건물: 누각, 정자 등
- 누각은 누정,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좌식공간관습 가지는 한국의 건축 전통과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결합된 건축형식
- 연못,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

## 기타

- 고직사, 교육시설, 하마비, 홍살문, 기념비 등
- 하마비,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
  - 고직사: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
  - 교육시설: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 전통 건축기법 토대로 건립
  - 하마비: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
  - 홍살문: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

## ‘한국의 서원’ 서원별 세계유산가치

서원명	세계유산가치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로 건립된 서원</li> <li>강학,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li> </ul>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li> <li>사당과 강당이 일렬로 배치되는 서원 건축의 정형적 배치방식</li> </ul>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li> <li>누마루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li> </ul>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li> <li>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li> </ul>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li> <li>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규,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li> <li>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안동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li> <li>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li> </ul>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li> <li>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li> </ul>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li> <li>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li> </ul>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 3) 등재 과정

### 등재 추진 배경

- 서원이 건축, 공간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적 가치도 우수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

### 추진 관련 기관

- 2010년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 2012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발족
- 2015년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출범

### 1차 등재 추진 경위

- 2011년 12월 한국의 9개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sup>1</sup>
- 2015년 1월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유네스코에 제출
- 2015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 현지 조사 후 철회 권고
- 2016년 4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철회

1. 1871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과 사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 충족 여부 확인하여 9개 서원 선정

# 등재 재추진 경위

- 2016년 8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 의결
- 2018년 1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 2018년 9월 이코모스 전문가의 현지 실사
- 2019년 5월 이코모스 평가결과 등재 권고
-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확정





02

논산 돈암서원



# 1. 논산 돈암서원 개요

## 1) 논산 돈암서원의 역사

### (1) 건립

#### 건립 배경

- 김계휘金繼輝, 1526~1582가 낙향하여 연산에 정회당靜會堂 건립 후 후학 교육 및 향촌 교화 전통
- 1602년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낙향하여 연산에 양성당養性堂 건립 후 약 30년에 걸쳐 후학 교육 및 향촌교화 전통 계승

#### 건립 과정

- 1631년 김장생의 사망 후 그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학덕을 기리는 문인들 중심으로 서원 건립 분위기 조성
- 1632년 김집金集, 1574~1656을 필두로 전현직 관료와 유사들이 포함된 사람들이 서원건립 발의
- 1634년 사우의 상량上樑 거행 후 김장생의 위패 봉안하며 사우와 강당을 중심으로 돈암서원 창건



『동춘당집(同春堂集)』 돈암서원 창건 통문

## 돈암서원 재정 마련

- 1632년 김장생의 사우祠宇 건립을 위하여 여러 고을의 향교, 서원의 유림들에게 통문通文 발송
- 공주목公州牧, 청주목淸州牧, 홍주목洪州牧 산하 20여 지방의 유림들의 재정 지원으로 건립 초기 경제적 기반 마련
- 관련 유물: 『돈원구적遡院舊蹟』

### (2) 사액

#### 돈암서원 사액

- 서원을 지은 지 30년 동안 번고가 많아서 사액 요청을 못함
- 1656년 김집의 사망 후 그의 배향을 추진하며 상소를 통해 사액 요청
- 1659년 김장생과 김집을 제향하는 서원의 액호를 ‘돈암’으로 하라는 왕명 내려짐
- 효종孝宗, 재위 1649~1659이 사망하면서 절차 보류
- 1660년 다시 상소를 올려 사액을 요청하자, ‘돈암’이라는 액호가 내려지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



『송자대전』 권21, 돈암서원 청액 장소

## 돈암의 의미

- 서원이 위치한 숲말에 돼지바위遡巖라 부르는 큰 바위에서 취함

### (3) 운영

- 돈암서원의 원생, 운영과 조직은 정회당의 것을 계승
- 정회당유안靜會堂儒案의 당중입의堂中立議를 제시하고, 1870년 정회당문화계안靜會堂文會契案의 당중입의를 추가
- 자세한 사항은 『돈암서원 고문서 기록화 사업 최종보고서』, 『서원향사 노강서원·돈암서원』 참고

#### 원생(院生)

- 유생儒生의 입적入籍은 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 및 글의 이치에 널리 능통한 것을 많은 사람이 함께 알고 있는 자 외에 일체 들이지 말 것
- (1870년) 귀하고 천함, 나이 많고 적음을 논하지 말고 학업에 뜻이 있고 이름과 행동이 욕되지 않은 자는 모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
- (1870년) 다른 지역 사람 중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또한 앞의 규정과 같이하며 3명을 넘지 말 것
- 무릇 처음 들어오는 자는 각 1인이 책임지고 천거하고, 그 사람됨이 나쁜 자를 천거하면 벌이 있다
- 규정, 법을 어기거나 잇고 자기 뜻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는 가벼운 것은 손도損徒하고 무거우면 삭출削黜한다
- 유학儒學을 행하는 데 부족하거나 신체와 명성을 더럽힌 자 또한 내쫓는다
-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예례에 따라 지례贊禮를 행할 것
- 서책은 임의로 밖으로 낼 수 없고, 잡기는 일체 금단한다
- (1870년) 책은 낼 수 없고 색色은 들일 수 없으며 잡기는 일체 금단한다, 어기는 자는 중함에 따라 벌을 논한다

### 원임(院任)

- 유사有司 2인은 1년마다 서로 번갈아 하며 문서를 넘겨받아 주관한다
  - (1870년) 계중契中에서 지식과 명망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 1인을 장의掌議로 삼아 모든 중요한 논의는 장의가 주관하고, 또 정밀하고 세밀하며 신중한 자를 1인을 택하여 유사로 정하여 서책, 문안文案을 모두 그가 주관토록 하라, 다시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 1인을 사화司貨로 삼아 계契의 재산을 주관토록 한다
  - 전답소출유사田畝所出有司는 수입을 계산하여 절의 승려 중 부지런하고 온후한 자를 택하여 보수保守로 삼아 수입을 헤아려 본금을 보존하고 이자를 취하여 쓰도록 하라
  - 유사는 1년의 씹씀이를 계산하여 서책을 사서 들여라
  - 서기승書記僧 1인, 고직승庫直僧 1인은 1년마다 서로 교체하라
- \* 자세한 사항은 『돈암서원 고문서 기록화 사업 최종보고서』, 『돈암서원』, 2022 참고

## 2) 논산 돈암서원의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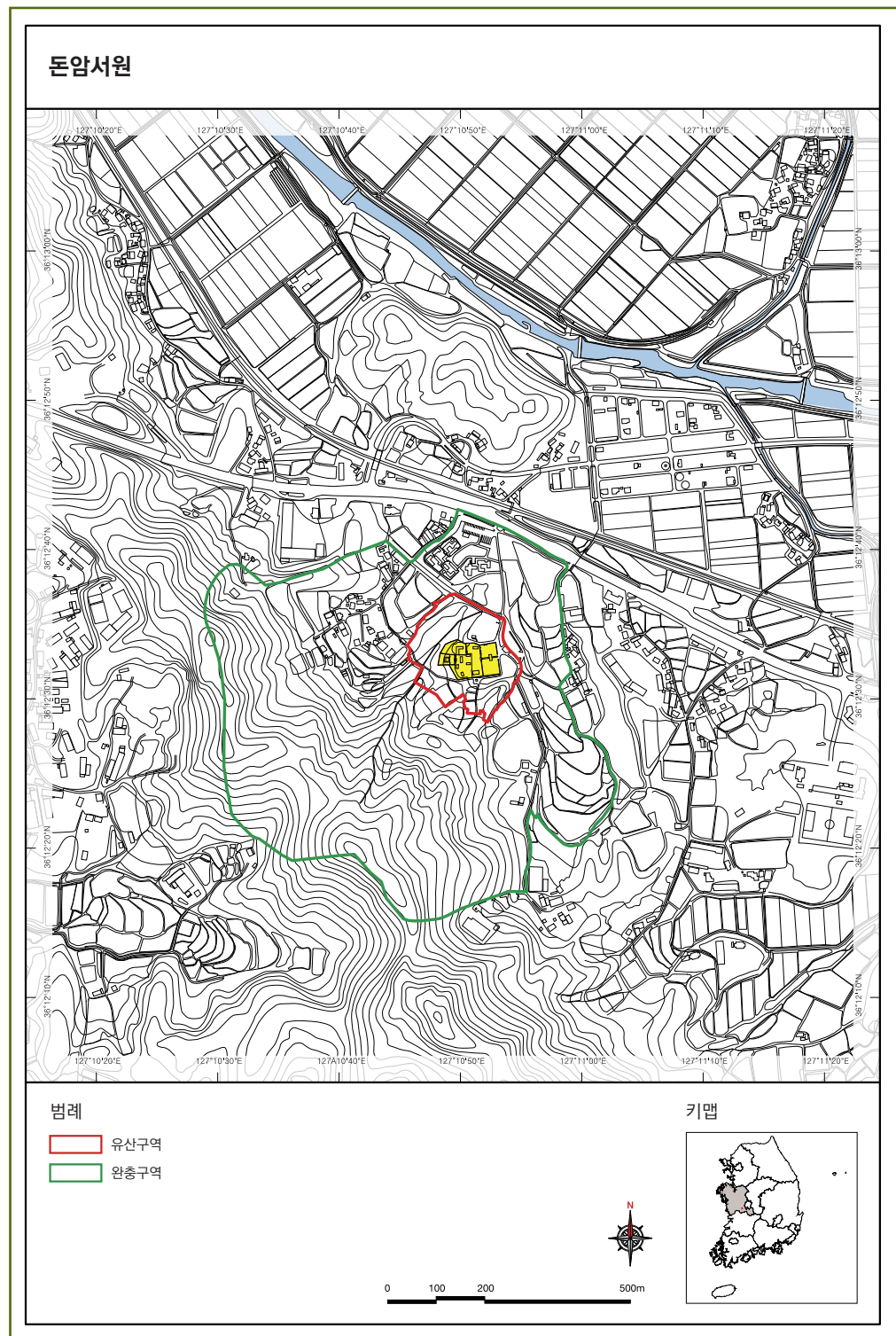
### 돈암서원의 입지

-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
- 서원 안뜰에서 왼쪽에는 계룡산, 오른쪽은 대둔산, 정면에는 천호산이 있고 그 앞 둔덕 사이에 황산벌 위치
- 서원은 서쪽으로 넓은 평지의 시작점에 위치
- 돈암서원이 위치한 연산은 호서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 및 인접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



## 건물배치도

- 돈암서원은 홍수로 인해 1881년 현재 위치로 이전
- 응도당은 돈암서원에서 가장 중심적 건물이지만 서원 좌측에 동향하여 있음. 현재의 사당과 직각을 이룬 동향 구조는 이전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배치
- 돈암서원은 또 하나의 강학당 건물이 일렬 배치가 아닌 왼쪽으로 떨어져 있음
- 1971년 양성당이 현 위치로 이전하는데 이미 강당의 기능을 하는 양성당이 있었으므로 양성당의 동남쪽으로 이건이 결정되며 서원의 전체적인 배치구조가 비대칭 형태
- 응도당은 현존하는 서원 건물로 하옥제도(廈屋制度)를 본받아 지은 건물
- 2006년 외삼문 정면에 2층 누각인 산양루 건립



## (1) 강학

### 건물

#### 응도당(凝道堂)

- 목적: 서원 강학 활동의 핵심 건축물. 호서 사림의 활동 거점으로 이용
- 한국 서원 중 가장 큰 규모의 강당
- 응도당은 정침이론을 한국의 건축언어로 재해석하여 완성
- 응도凝道: 덕을 닦고 학문을 모아 성취한다는 의미
- 옛터에서는 응도당이 강당 역할이었지만 이건 과정에서 양성당이 강당 자리를 먼저 차지
- 1971년 원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현 위치로 이건하여 보존
- 중당中堂과 동서상東西廂, 중당 뒤에 실室과 좌우 방房, 동서 협실夾室을 둠
-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

#### 응도당의 건축적 가치

김장생이 『가례집람家例輯覽』에서 이론적으로 정립한 묘침제廟寢制가 실제로 적용된 대표된 사례

전옥하옥제殿屋廈屋制: 신분에 따라 건축형식 구분하는 것으로 천자, 제후의 건축인 전옥과 경, 대부, 사의 건축인 하옥으로 대별

동방서실제東房西室制: 경, 대부, 사의 집에 적용, 응도당은 실室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방을 배치하여 동방서실제 적용

당우제堂宇制: 지붕 구성의 차이 규정, 응도당은 양 측면에 눈썹지붕인 영榮을 설치

#### 응도당 관련 유물

##### 응도당 현판

- 작가 및 시기 미상

#### 연산돈암서원상량문(連山遯巖書院上梁文)

- 김상헌金尙憲, 1570~1652 작성
- 돈암서원 창건기 상량문
- 김장생의 성품, 학문 등을 칭송하고, 서원을 세운 내력과 많은 선비가 이곳에서 강학과 장수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기원

#### 양성당(養性堂)

- 목적: 배향자가 생전에 강학활동을 했던 곳, 배향자 사후 강학 목적으로 활용
- 김장생은 1602년 양성당을 세워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임
- 양성養性: 김장생이 스스로 늙더라도 게으르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고자, '오랫동안 힘들여 본성을 기른다'는 의미를 부여한 당호
-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 양성당 관련 유물

- \* 자세한 사항은 『돈암서원 고문서 기록화 사업 최종보고서』 참고

##### 양성당 현판

- 이건 과정에서 현판만 전해지던 것을 현재 위치로 서원을 이전하며 게판

##### 양성당기(養性堂記)

- 정엽鄭曄, 1563~1625이 김장생의 부탁으로 1603년에 지은 양성당 기문
- 양성당의 내력, 기문을 짓게 된 계기, 김장생의 학문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내용

##### 양성당제영(養性堂題詠)

- 김장생이 17세기 전반 당시 저명한 인물 19명에게 차운次韻 시를 받아 게판
- 김장생과 양성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폭넓은 인적 교류를 볼 수 있음

##### 양성당십영(養性堂十詠)

- 김장생이 양성당 주변의 빼어난 산수 경관을 읊은 것
- 이단하李端夏, 1625~1689, 황혁黃赫, 1551~1612, 장유張維, 1587~1638 등 저명한 사들의 시문 기록

**아한정제영(雅閑亭題詠)**

- 양성당의 전신인 아한정은 최청강崔淸江의 별서別墅
- 아한정에 대한 김국광金國光, 1415~1480,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송익필宋翼弼, 1534~1599, 김은휘金殷輝, 1541~1611 등이 지은 시문이 판각되어 있음
- 글의 말미에 최청강의 후손 최창환崔昌煥이 아한정 건립과 여러 시가 전해오는 유서를 설명

**연산현돈암서원비기(蓮山縣遯巖書院碑記)**

- 돈암서원의 배향 인물, 건립 및 사액 과정 기록
- 1669년 송시열 작성, 송준길의 글씨

**거경재(居敬齋) · 정의재(精義齋)**

- 목적: 학생들의 기숙과 개인 학습
- 정면 3칸, 측면 1.5칸의 맞배지붕 건물
- 원래 응도당 좌우 중앙간에 현판을 걸고 위치
- 현재 건물은 1997년 신축

**장판각(藏板閣)**

- 서원에서 생산된 목판 등 보관
- 돈암서원 이건 이후 1926년 경내 최초로 건립
- 김장생의 전서, 신독재 김집의 전서, 유고 등 모든 저서를 합쳐 보관하기 위해 설립
-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정회당(靜會堂)**

- 김장생의 부친 김계휘가 1557년 낙향하여 고운사의 경내를 빌려 향촌 교화를 위해 강학활동을 하던 곳
- 정회靜會: 고요히 모인다는 의미

- 『돈암서원지』에 의하면 고운사 경내를 빌려 운영되던 정회당은 병화로 소실, 1882년 대둔산 대승사 재건, 1950년 현재 돈암서원 경내로 이건
- 정면 4칸, 측면 1.5칸의 팔작지붕 건물

**정회당 관련 유물****정회당 현판**

- 당시 명필로 유명했던 김예산金禮山이 8세 때 작성

**입덕문(入德門)**

- 서원의 외삼문
- 1880년 서원 이건 당시 옛터에서 옮겨옴. 이건 당시 양성당 앞에 배치
- 응도당 이건으로 서원 영역의 밖에 배치하게 되자, 1974년 입덕문을 응도당 앞으로 이건하여, 응도당을 포함하면서 서원 영역 확장

**입덕문 관련 유물****돈암서원 현판**

- 돈암遯巖: 원래 서원이 위치한 곳에 가까이 있던 바위
-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작성
- 입덕문에 걸려있음

**교육**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서원의 주요 기능

**돈암서원 강규(講規)**

- 우리 동방의 여러 현인들은 하나의 학문을 주장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사계沙溪 선생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가례』와 『소학小學』을 주로 하셨다



- 또 사서四書에서는 더욱 『중용中庸』의 학문에 힘을 쏟으셨다
- 무릇 우리 당黨의 선비는 비록 평소에 강독하지만 이것을 준수하고자 하지않으면 안 된다
- 『가례』, 『소학』, 『대학』, 『중용』 이 네 책을 영원히 강회講會하는 법식으로 삼는다
- 모든 원생은 복색을 갖추고 유안儒案 앞에 동서로 나누어 나이 순서대로 서서 상음례相揖禮를 행한다
- 백록동규 및 차례가 되어 강하는 책을 책상 위에 두고 제생諸生은 동서로 나누어 나이순으로 서로 읊揖하고 다시 한 줄로 차례로 선다
- 강장위講長位를 향하여 모두 두 번 절한다
- 유사가 먼저 백록동규를 소리내어 읽고, 연장자 순으로 단배례單拜禮를 행한다
- 옷깃을 가지런히 하고 무릎 꿇고 앉아 강서講書를 읽는다, 읽기를 마치고 강하는 사람이 의심나는 대로 질문한다
- 강講을 마치면 비록 연좌燕座에서 담론하더라도 항상 구용九容을 몸에 지녀야 한다

## (2) 제향

### 인물

#### 김장생(金長生)

-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 시호는 문원文元
- 저서: 『상례비요喪禮備要』, 『가례집람家禮輯覽』, 『사계전서沙溪全書』

#### ① 출생

- 본관은 광산光山, 아버지 김계휘金繼輝, 1526~1582는 대사헌大司憲, 예조참판禮曹參判을 지냄
- 김장생은 1548년 한양漢陽 정릉동貞陵洞 집에서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송익필宋翼弼, 1534~1599에게 사서, 『근사록近思錄』 등을 배우고, 이이李珣, 1536~1584에게 수학하여 도학의 요체를 배움
- 1578년 학문이 있고 행실이 독실한 선비로 천거 받아 참봉參奉, 종9품으로 출사
- 1582년 부친상을 당하여 여묘살이를 한 후 봉사奉事, 종8품, 별제別提, 종6품 등에 제수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사양하거나 곧 사임
- 1588년 동몽교관童蒙敎官, 통례원인의通禮院引儀, 종6품, 정산현감定山縣監 역임
- 임진왜란壬辰倭亂 중 군사 업무와 백성 위무, 명나라 군에 군량 조달
- 이후 안성군수安城郡守, 익산 군수益山郡守 등을 역임하였지만 주로 은거
- 인조반정 이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정4품, 성균관사업成均館司業, 정4품 등에 제수되자 늙고 병들었음을 이유로 거듭 사직 요청하여 결국 귀향
- 1624년 이괄李适, 1587~1624의 난 당시 어가御駕가 남쪽으로 오자 공주公州로 나아가 맞이한 후 원자元子 교육을 위해 일시 상경하여 공조참의工曹參議, 정3품,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종2품, 형조참판刑曹參判, 종2품 등 제수
- 1631년 병으로 사망

## ③ 학문

-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어 선유先儒들의 견해를 두루 고증, 변례變例의 경우 경전에 뜻에 부합하게 절충
- 주로 향리에 은거하며 송시열, 송준길 등의 후학 양성,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전례문답典例問答』 등 저서 찬술
-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법으로 삼아 성현聖賢의 글을 읽고, 이치를 궁구하고 실천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였음
- 이기선후설理氣先後說, 사단 칠정설四端七情說 등에 대해 이이의 설에 입각하여 절충

## ④ 평가

- 예학禮學 분야에서 송익필의 영향을 받았고, 이를 깊이 연구하여 김집에게 계승시킴으로써 조선 예학을 정립
- 효성스럽고 우애하며 돈후하고 화목하게 하여 법으로 삼지 못할 행실을 한 적이 없음
- 덕행德行이 높은 선비로서 사문斯文에 공이 있음

## ⑤ 추증 및 문묘 종사

- 1635년 문묘文廟 종사 논의 시작 후 1681년 송시열의 문묘 종사 요청 상소 이후 누차 종사 요청 끝에 1717년 문묘 종사
- 1657년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고, 문원文元 시호 하사

\* 자세한 사항은 김장생의 묘지명, 신도비명, 행장 참고



김장생 묘지명,  
『사계선생유고』 권13



김장생 신도비명,  
『사계선생유고』 권13



김장생 행장,  
『사계선생유고』 권12

## 김집(金集)

- 자는 사강士剛, 호는 신독재愼獨齋, 시호는 문경文敬
- 저서: 『신독재문집愼獨齋文集』, 『의례문해속疑禮問解續』 등

## ① 출생

- 본관은 광산光山, 아버지 김장생은 형조참판을 역임하고 영의정에 추증됨
- 김집은 1574년 한양漢陽의 황화방皇華坊 정릉동貞陵洞 집에서 출생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1591년 진사시進士試 합격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아버지 김장생을 도우며 경전 연구
- 1610년 헌릉참봉獻陵參奉, 종9품에 제수되었으나 곧 사직
- 1623년 인조반정 이후 학행學行으로 6품관에 초서超敍되고, 부여현감扶餘縣監 제수
- 임피현령臨陂縣令, 전라도사全羅都事 등에 제수되었지만 봉양을 위하여 부임하지 않거나 곧 사직
-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종3품, 승지承旨, 정3품, 참판參判, 종2품, 대사헌大司憲, 종2품, 이조판서吏曹判書, 정2품, 좌참찬左參贊, 정2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종1품 등에 제수되었으나 사직
- 1656년 정침正寢에서 사망

## ③ 학문

- 문필이 화려했지만 성현聖賢의 학문에만 전념
- 정자容鄭子容의 서신에 답하며 「태극설太極說」을 논한 바 있음
- 『의례문해疑禮問解』를 교정하여 『의례문해속』 편찬

## ④ 평가

-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학교를 세우고 군정軍政을 다스리자 교화가 흥행하고 송사가 없어졌으며 고을 자제들의 학문 강론에 전념하자 고을 사람들이 비를 세워 공덕을 기림
- 유림儒林의 영수領袖이자 조정의 중망重望
- 타고난 품성이 뛰어나 청백하면서도 과격하지 않고, 곧으면서도 휘어지지 않았음

## ⑤ 추증 및 배향

- 1658년 돈암서원에 종향
- 1659년 문경文敬 시호 하사
- 1661년 효종의 묘정廟廷에 김상헌金尙憲, 1570~1652과 함께 배향
- 문묘 종사에 대한 상소가 이어지다가 1883년 문묘에 종사되고, 영의정으로 추증됨

\* 자세한 사항은 김집 연보, 신도비명, 묘지명 참고



김집 연보,  
□신독재전서□ 권15



김집 신도비명,  
□신독재선생유고□ 권15



김집 묘지명,  
□신독재선생유고□ 권15

## 송준길(宋浚吉)

- 자는 명보明甫, 호는 동춘당同春堂, 시호는 문정文正
- 저서: 『어록해語錄解』, 『동춘당집同春堂集』

## ① 출생

- 본관은 은진恩津, 아버지 송이창宋爾昌, 1561~1627은 신녕현감新寧縣監을 지냄
- 송준길은 한성漢城 정릉동貞陵洞 우사寓舍에서 출생
  - \* 김계휘의 옛집으로 김장생, 김집이 모두 이 집에서 출생
  - \* 송이창이 서울에서 벼슬살이 할 때, 이웃에 사는 이덕순李德純이 꿈에 하늘나라 사람이 송준길의 탄생을 예측하였다고 하며 반드시 귀인貴人이 될 것이라고 했음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1614년 송시열이 송준길의 집으로 와서 함께 수학
- 1623년 김장생의 문하에서 수학
- 진사시進士試, 생원시生員試 모두 합격, 1625년 별시別試 초시 합격
- 1630년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 정9품에 제수된 이래 교관敎官, 형조좌랑刑曹佐郎, 정6품,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정5품,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정2품 등에 제수되었으나 사직
- 효종孝宗, 재위 1649~1659 즉위 후 김집, 송시열과 함께 등용되어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정4품, 집의執義, 종3품, 시강원찬선侍講院贊善, 정3품, 이조참의吏曹參議, 정3품, 참판參判, 종2품 등에 제수되었으나 사직
- 대사헌大司憲, 종2품 병조판서兵曹判書, 정2품,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정2품, 우참찬右參贊, 정2품 제수되었으나 사직
- 1672년 동춘당에서 병으로 사망

## ③ 학문

- 이이, 김장생, 김집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이어받음
- 『주자가례』에 입각한 종법의 철저한 구현 시도



- 예학에 밝고 문장과 글씨에도 능하였음
- 징분질옥懲忿窒慾과 천선개과遷善改過를 성학聖學의 절실하고 긴요한 방법으로 삼아 천리天理와 인욕人慾 사이의 뜻을 분석

#### ④ 평가

- 10세가 되기 전에 이시직李時稷, 1572~1637이 송준길의 글씨를 보고 자신보다 낫다고 함
- 송시열은 타고난 품성이 매우 높고 자질이 총명하여 심학心學 공부에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 자신이 미칠 바가 아니었다고 함

#### ⑤ 추증 및 배향

- 1673년 영의정 추증
- 1675년 자의대비慈懿太妃 복상 문제로 관작 추탈
- 1680년 관작 회복
- 1681년 문정文正 시호 하사
- 누차 문묘 종사 요청 끝에 1756년 문묘 종사

\* 자세한 사항은 송준길 연보, 묘지문 참고



송준길 연보,  
□동춘당집속집□ 권6~10



송준길 묘지문,  
□동춘당집별집□ 권9

## 송시열(宋時烈)

-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菴, 우재尤齋, 봉사奉事, 화양동주華陽洞主, 남간노수南澗老叟 시호는 문정文正
- 저서: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劄疑』, 『송자대전宋子大全』 등

#### ① 출생

- 본관은 은진恩津, 아버지 송갑조宋甲祚, 1574~1628는 사옹원봉사司饔院奉事를 제수받았고 영의정에 추증됨
- 송시열은 1607년 옥천군沃川郡 구룡촌九龍村 출생
  - \* 어머니 곽씨郭氏는 명월주明月珠를 삼키는 꿈을 꾸고 임신하였고, 아버지는 공자가 여러 제자를 거느리고 집으로 오는 꿈을 꾸었으므로 송시열의 어릴 적 이름을 성뢰聖賚라고 함

#### ② 관력 및 주요 행적

- 1614년 송이창의 집에 가서 송준길과 함께 학업을 익힘
- 1630년 김장생에게 수학
- 1633년 생원시生員試 장원 합격 후 경릉참봉敬陵參奉, 종9품으로 출사
- 1635년 효종의 사부師傅로 제배
- 누차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정5품, 장령掌令, 정4품, 집의執義, 종3품, 이조참의吏曹參議, 정3품, 판서判書, 정2품, 우찬성右贊成, 종1품 등에 제수되었지만 사직
- 우의정右議政, 정1품, 좌의정左議政, 정1품 등 역임
- 1674년 자의대비 복상문제로 유배되었다가 1680년 조정에 복귀,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1품 제수
- 1683년 정계 은퇴 후 화양동에서 은거
- 1689년 왕세자 책봉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 후 사약을 받아 사망

## ③ 학문

- 이이, 김장생, 김집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이어받음
- 공자의 존왕양이(尊王攘夷) 사상을 바탕으로 주자의 정신 계승, 조광조의 존왕도(尊王道) 정신을 실천지표로 삼음
- 송시열의 학맥을 기록한 『화양연원록』에는 제자가 900명에 달한다고 함

## ④ 평가

- 송시열의 학문과 사업은 공자에서 주자, 주자에서 송시열로 일맥상통함
- 일찍부터 유학에 뜻이 맞아 성명(性命)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고 힘써 탐구함
- 그는 조선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칭호를 받아 그의 문집은 『송자대전』으로 인쇄됨
- 정조(正祖, 재위 1777~1800)는 『양현전심록(兩賢傳心錄)』을 편찬하도록 하여 송시열 추앙

## ⑤ 추증 및 배향

- 1694년 관작 회복
- 1695년 문정(文正) 시호 하사
- 누차 문묘 종사 요청 끝에 1756년 문묘 종사

\* 자세한 사항은 송시열 연보 참고



송시열 연보, □송자대전□

## 건물

## 송례사(崇禮祠)

- 목적: 제향인물의 위패 봉안
- 김장생을 중심으로 김집, 송준길, 송시열 배향
- 송례(崇禮): 예를 높인다는 의미로 군자가 덕을 닦고 학문을 이루는 방법
-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

## 송례사 관련 유물

## 송례사 현판

- 유경사(唯敬詞)라고 부르기도 함
- 돈암서원 이건 시 송례사 현판 자리에 돈암서원 현판을 달았던 것으로 추정

## 전사청(典祀廳)

- 목적: 제향과 관련된 제기 보관
- 정면 7칸, 측면 2.5칸의 팔작지붕 건물

### (3) 의례

#### 돈암서원 향사(享祀)

- 춘추향사는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sup>中丁日</sup>에 시행  
\* 중정일: 한 달 중 십간의 정<sup>丁</sup>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 행사 시각은 종래 축시<sup>丑時</sup>, 오전 1시~3시에 지냈으나 현재는 당일 입재 하여 오전 11시경 봉행

#### 돈암서원 향사 준비

##### ① 입재(入齋)

- 향사 이틀 전 원장과 유사는 제물 구입 등 향사 준비
- 제기, 향로와 향합 등 손질 및 점검

##### ② 집사분정(執事分定) 및 축문(祝文) 작성

- 제관 및 참례자들이 서원에 도착하면 도기록<sup>到記錄</sup>에 인적사항 등재
- 제향에 참례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봉헌하는 헌성금 기록용 ‘성금록<sup>誠金錄</sup>’도 마련되어 있음
- 헌관 및 제집사에 대한 분정기 및 축문 작성

##### ③ 설기(設器), 진설(陳設)

- 유사는 서원 청소, 묘정에 자리를 깔아 헌관위와 제집사위, 제생위를 구분하여 마련
- 묘우 당상 동쪽에 분정판을 세우고, 동쪽 계단 아래에 관세위 설치  
\* 관세위: 헌관 및 제집사들이 자리에 오르기 전 손을 씻는 자리
- 묘우 중문 밖 동편에 준소 설치  
\* 준소: 헌작례 때 술을 따르는 곳
- 준비된 제수를 소정의 제기에 담아 법식에 맞게 제상 위에 올림

### 향사

#### ① 변복(變服) · 취위(就位)

- 향사 당일 10시경 모든 제관들은 개좌하여 예복으로 갈아입음
- 11시 집례의 창홀<sup>唱筊</sup>로 행사 시작
- 초헌관이 행례를 앞서 제물의 진설을 점검함

#### ② 전폐례(奠幣禮)

- 신위께 폐백을 올리는 의례
- 초헌관이 신위전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헌폐하는 순서로 진행

#### ③ 초헌례(初獻禮)

- 신위에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

#### ④ 아헌례(亞獻禮)

- 신위에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순서
- 축문 낭독이 없고, 작을 두 번째 작점에 올리는 것만 다를 뿐 절차는 초헌례와 동일
- 배위에 대한 헌작례 역시 초헌례와 동일

#### ⑤ 종헌례(終獻禮)

- 아헌례와 절차 동일
- 헌관이 바뀌고 세 번째 작점에 전작

#### ⑥ 음복례(飲福禮)

-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를 맛보는 의례



## ⑦ 철변두(撤籩豆)

-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두는 의례
- 철변두가 끝나면 헌관 이하 참례자는 모두 함께 재배하여 신을 보내드리는 송신례를 함

## ⑧ 망예례(望瘞禮)

- 제향을 마치고 축문과 폐백을 땅에 묻는 의례
- 12시 30분 향사를 마치고 제관들은 제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공사직일을 한 후 파좌, 음복함

## 3) 교류와 유식 영역

- 교류와 유식 공간은 유산을 둘러싼 자연과 통하는 공간으로서 정자, 누마루 등으로 구성
- 서원과 서원, 유학자와 유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
- 유식 공간으로써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등 보다 자유로운 학습 공간

## ① 건물

## 산양루(山仰樓)

- 목적: 서원 내, 외부 사람들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곳
- 서원이 이건 되면서 전사청 대청에 상부 현판만 있다가, 2006년 돈암서원 입덕문 앞으로 신축하여 유식 공간 조성
-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

## \* 산양루 관련 유물

## 산양루 현판

- 2006년 작성

## 호연지기(浩然之氣)

- 2006년 최영환崔泳煥 작성

## 음풍농월(吟風弄月)

- 2006년 최영환 작성

## 산양루중건상량문(山仰樓重建上樑文)

- 산양루를 중건한 사유와 과정 기재
- 2006년 작성

## 산양루중건상량문해석(山仰樓重建上樑文解釋)

- 산양루중건상량문의 한글 해석문
- 2006년 작성

## (4) 기타시설

## 홍살문(紅箭門) &amp; 하마비(下馬碑)

- 서원의 입구를 알려줌

### 3) 돈암서원만의 특징

- 정회당, 양성당, 돈암서원으로 이어지는 강학 전통
- 한국학적 실천예학과 한국 성리학적 실천 이론인 예학 논의의 산실
- 호서의 수원<sup>首院</sup>으로서 호서산림, 기호학파의 큰 거점
- 응도당은 김장생의 예학이론서에 수록된 것을 김장생 사후 제자들이 건립한 것으로 한국 서원의 강당 가운데 최대 규모
- 자연재해로 인하여 이건되었지만, 유산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 준수하였으며, 이는 돈암서원 이건비에서 확인 가능
- 1880년 이건 당시 산양루 건립 계획 후 2006년 산양루를 건립하여 교류와 유식 공간 확보
- 제향 공간인 송례사를 두르고 있는 꽃담

## 2. 논산 돈암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 한국 성리학의 실천이론인 예학 논의의 산실

- 1634년 건립된 서원
- 김장생(金長生, 1538~1631)의 제자와 논산지역 사림에 의해 건립
-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
- 예학 관련 토론, 저술활동의 중심지
- 예제와 결합된 강학 건축물인 응도당의 탁월성
- 이건 상황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진전성과 완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 증명 및 전통 건축기술의 전승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창건 및 사액 : 1634년 건립 / 1659년 사액**

**주향인물 : 김장생(金長生, 1548-1631)**

#### 주요특징

##### - 구성 및 입지

- 강당 건축(응도당)이 규모나 건축형식 면에서 독특함. 19세기 후반 홍수로 인해 현재의 위치로 이건 되었으며, 일부는 20세기 중반까지 이건 됨. 야경(野景) 입지의 전형.

#### - 특징

- 강당 응도당은 김장생이 구상했던 정침(正寢) 이론을 바탕으로 그의 사후 문인들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성리학적 의례를 건축적으로 반영한 사례임.
- 예학을 중시하는 김장생의 성리학 연구를 토대로 송시열·송준길·윤선거 등 그의 제자들에 의해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예학 연구가 심화·발전됨.

#### 지정문화재

##### - 국가지정 1건(보물 1건), 시도지정 2건(유형문화재 1건, 문화재자료 1건)

##### 돈암서원 응도당(보물)

- 정침(正寢) 이론을 바탕으로 건립된 한국 전통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 앞면 5칸·옆면 3칸이며 지붕은 맞배지붕. 조선 중기 이후 서원 강당으로는 보기 드물게 큰 규모이며, 옛 양식을 잘 따르고 있는 건물로 강당 건축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김장생의 『가례집람』에 관련된 그림이 남아 있으며, 김장생 사후 제자들에 의해 구현됨.

##### 돈암서원 지정문화재

서원	종별	지정	명칭	구분	지정일
돈암서원	국가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	부동산	1993.10.18.
		보물 제1569호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		2008.07.10.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55호	돈암서원 유경사 (송례사)		2000.01.11.
		문화재자료 제366호	돈암서원 원정비		2000.01.11.